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MILITARY  
HISTORY  
SERIE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군사사의 과제  
| 이정빈 ..... 1
  - I. 한강과 삼국시대사
  - II. 자료의 축적과 쟁점
  - III. 군사사의 시각과 관방체계
  
- 백제의 관방체계와 한강 권역 남부의 도기동 산성  
| 장수남 ..... 21
  - I. 머리말
  - II.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
  - III.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 IV.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 V. 맺음말
  
- 고구려 남부전선과 한강 권역 북부의 호로고루  
| 신광철 ..... 65
  - I. 머리말
  - II. 호로고루 연구사
  - III.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고루
  - IV. 맺음말
  
- 한강 권역 북부의 반월성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  
| 김강훈 ..... 113
  - I. 머리말
  - II.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 III.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 IV.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 V. 맺음말



■ 한강 권역 북부의 칠증성과 전략적 위상	
	정동민 ..... 155
I. 머리말	
II. 칠증성의 고고학적 양상과 초축 추론	
III. 문헌 기록에 보이는 칠증성과 영유권 변천	
IV. 맺음말-칠증성의 전략적 위상-	
■ 신라 신주의 재편과 당항성의 관방체계	
	정덕기 ..... 207
I. 머리말	
II. 신주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III.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	
IV. 해문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 해방 체계	
V. 맺음말	
■ 신라 한산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권창혁 ..... 249
I. 머리말	
II. 672년 한산주 관내 주장성 축성의 의미 재고	
III. 나당전쟁 중 신라의 방어 전략과 주장성의 역할	
IV. 맺음말	
■ 삼국시대 전쟁과 관방체계	..... 299
■ 참고문헌	..... 3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군사사의 개념 정립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사연구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소는 한국 역대 군사사 분야의 미정립 주제 발굴 및 학계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군사사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군사사연구지원사업에는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연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군사연구총서』 1집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성과물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중국의 황하처럼 고대부터 강은 문명의 발상지이자 생명의 젖줄이었으며,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강을 매개로 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강과 군사사의 연계된 주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한강과 그 유역은 고대 시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국가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인 사실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새롭게 기획한 총서의 첫 번째 주제는 “한강과 그에 대한 방어체계”입니다.

삼국은 각각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성(城)과 보루(堡壘), 즉 관방시설(關防施設)을 축조하고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유기적인 방어체계인 '관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방체계의 구축에는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중앙 권력의 지방 권력 장악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곱 분의 한국고대사 연구자들이 4~7세기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관방체제와 전쟁을 시대와 지역을 나누어 집필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연구는 삼국의 관방시설과 관방체제의 군사적 운용과 기능, 관방체제와 지방제도의 관계 등 삼국시대의 정치·군사·사회의 유기적 변화, 더 나아가 한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성과물입니다.

혹자는 세계사 속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가 강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하고 한강 유역을 획득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인 삼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사연구총서』 1집은 한국고대 군사사 연구 분야의 새로운 주제 발굴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고대 군사사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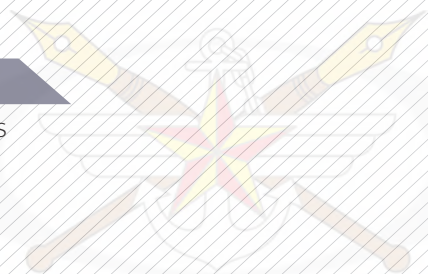
2023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성대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군사사의 과제



| 이정빈



#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군사사의 과제

이정빈

- Ⅰ. 한강과 삼국시대사
- Ⅱ. 자료의 축적과 쟁점
- Ⅲ. 군사사의 시각과 관방체계

## Ⅰ. 한강과 삼국시대사

하천은 농업 사회와 이를 바탕으로 발달한 고대 문명의 원천이었다. 문명은 사회적 위계와 정치 경제적 구조를 가진 도시 및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는데,<sup>1)</sup> 이로써 고대사회(古代社會)가 성립하였다. 한국 고대의 여러 나라도 하천 중·상류의 농업지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위계적 사회를 형성하였고, 하천을 통해 물류 체계와 부세 징수·재정 운용의 역량을 갖추며 광역의 영역 국가로 성장하였다.

1) 이선복, 「문명」,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616~618쪽.

한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강의 지명은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아리수(阿利水)로 나오고, 『삼국사기』에서는 옥리하(郁里河)·한수(漢水)·한산하(漢山河) 등으로 적었다. 이 중에서 아리·옥리는 뜻을 적은 것이고, 한수·한산하는 음을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모두 큰 강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강이라고 부른다.<sup>2)</sup>

시기마다 한강의 수원(水源)과 수계(水系)는 달리 파악되었지만, 지금은 태백산맥 금강산·대덕산 검룡소(儉龍沼)에서 북한강·남한강이 발원해 수많은 지류를 품고 서류해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양수리)에서 합류해 본류를 형성하고, 다시 여러 지류와 합류해 황해로 유입된다고 설명된다.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는 강원도·충청북도 북부를 포괄하며, 한강 하류는 경기도 북부의 임진강·한탄강과 이어져 있다.

권역	수계	수계번호	비고
한강 권역	한강	10	
	안성천	11	
	양양남대천	12	
	삼척오십천	13	
	강릉남대천	14	
	한강서해권	15	한강-안성천
	한강동해권	16	강원·경북 동해안

〈표 1〉 한강 권역의 水系

유역과 유량 면에서 한강은 한반도 중·남부의 가장 넓고 큰 하천이다. 비록 직접 한강과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국(남한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기도 남부의 안성천 등도 한강

2) 기왕에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帶水를 한강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임진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128쪽, 470쪽.



서해권 수계로 분류되어 한강 권역으로 묶이고 있다.<sup>3)</sup> 한반도 중부의 대부분이 한강 권역에 속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권역의 설정은 하천 관리와 행정을 위한 것이지만, 유수의 계통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각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 유효하다. 본고에서는 한강 권역에서 전개된 역사를 ‘한강사’라고 부르려고 한다.<sup>4)</sup>



〈그림 1〉 전국 하천 권역

〈그림 2〉 한강 권역의 주요 水系

출처: 국토해양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river.go.kr>)

처음으로 한강에서 영역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마한(馬韓) 54국(國)의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에서 기원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건국설화를 보면,

3) 한국하천협회, 『한국하천일람』, 환경부, 2022, 99~151쪽 참조. 한강 수계와 권역은 시기마다 조사되어 차이를 보인다. 朴東源, 1985, 『漢江의 自然』,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漢江史』, 서울特別市, 1985 및 한국하천협회의 『한국하천일람』 참조(국토해양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river.go.kr>, 제공).

4) ‘한강사’는 일찍이 『漢江史』(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 1985) 등에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학술용어로서 익숙하지 않다. 본고에서도 이를 엄밀히 개념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이를 향후의 논의를 위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조 온조(溫祚)는 한강 남쪽의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백제를 건국하였다고 하였다. 일찍부터 위례성의 위치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서울 몽촌토성·풍납토성에 대한 조사·발굴이 축적되면서 지금은 그곳이 백제 초기의 중심지로, 이후 도성 체제를 갖추며 한성(漢城)으로 정비되었다는 이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sup>5)</sup>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국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3세기 중반 이후 백제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광역의 영역 국가로 성장해 갔다. 한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발흥한 요람이었다.

4~5세기 이후 고구려와 신라도 광역의 영역 국가로 성장하며 삼국이 정립했다. 이른바 삼국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삼국시대가 개막하며 각국은 영역 확대를 위해 각축했는데, 한강은 그 주된 무대의 하나였다. 이제 한강은 백제만 아니라 삼국 모두와 관련하였다. 4세기 중반 백제의 근초고왕(재위: 346~375)·근구수왕(재위: 375~384)은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 영역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는데, 북방으로는 예성강에서 대동강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에 고구려와 옛 낙랑군·대방군 지역을 두고 치열히 경쟁하였다. 하지만 4세기 후반 광개토왕(재위: 391~412)이 즉위하며 고구려의 공세가 강화되었고, 백제는 수세에 몰렸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한강 하구에 소재하였던 관미성(關彌城)을 점령하고 한강 북쪽에서 백제의 도성 한성을 위협하였고, 북한강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는 한강을 둘러싸고 대치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북위(北魏)와 교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재위: 413~491)은 백제의 도성 한성을 함락하였고, 이후 6세기 중반까지 남진을 거듭하며 미호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고구

5) 김기섭, 「백제 漢城都邑郡 연구 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1, 18~24쪽.

려가 한강 유역을 온전히 차지하고, 한강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것이다.

한강의 주인공이 다시 뒤바뀐 것은 6세기 중반이었다.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남진이 강력히 추진되자 백제와 신라·가야 등이 군사적으로 공조하며 그를 저지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신라는 소백산맥 너머 금강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남한강 방면으로 북진을 모색하였다. 이제 신라도 한강을 둘러싼 각축에 가세한 것이다. 551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백제와 신라는 각기 한강 하류·상류 방면으로 북진했는데, 553년 신라의 진흥왕(재위: 540~576)은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마저 점령하고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삼국 간의 전쟁은 한층 격화되었지만, 6세기 중반 이후 한강을 둘러싼 역사는 신라가 주도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 지역에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항해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후술하듯 7세기 중반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6세기 중반~7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은 여전히 치열하였다. 고구려는 임진강에서 한강 하류 방면으로, 또한 북한강 방면으로 남하하고자 하였고, 백제도 금강에서 한강 하류 방면으로, 또한 남한강 방면으로 북진하고자 하였다. 7세기 중반까지 한강은 삼국의 각축장으로, 삼국시대의 향방을 좌우하였던 핵심적인 무대였다.

이처럼 한강은 한반도 중부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한국 고대사의 주요 무대 중 하나였다. 특히 4~7세기 한강은 백제·고구려·신라가 교대로 차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국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4~7세기 한강에서 전개된 역사, 다시 말해 한

강사는 삼국시대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소재로 중요성이 크다.

## II. 자료의 축적과 쟁점

4~7세기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의 기초는 조선 후기 역사지리 연구에서 마련되었다. 안정복(1712~1791)의 『동사강목』에 수록된 「대수고(帶水考)」·「신라강역고(新羅疆域考)」·「고구려강역고(高句麗疆域考)」·「백제강역고(百濟疆域考)」나 한진서(1777~?)의 『해동역사』(속집)에 수록된 「지리고(地理考)」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수(帶水)와 백제 위례성을 비롯한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여러 지명을 고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 유역을 경계로 하였던 삼국의 영역을 논의하였다.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에서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김정희(1786~1856)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정희의 순수비 연구는 자료 조사의 방법과 실증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을 만큼 연구사적으로 중요성이 크다.<sup>6)</sup> 다만 조선 후기의 역사서술과 연구가 독립된 분과학문의 형식과 방법·내용을 구비한 근대 역사학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sup>7)</sup>

서구에서 탄생한 근대 역사학은 19세기 후반부터 수용되었는데, 제도에 기반한 연구를 주도한 것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동양사학이었다. 특히 시라토리 구차키치(白鳥庫吉)가 주도한 만선사(滿鮮史) 연구에서 한강 유역 삼국의 강역과 교통로·지명을 검토하였다. 쓰다 소

6) 조인성,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의의」, 『韓國古代史研究』 62, 2011, 13~19쪽.

7)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19~20쪽.

키치(津田左右吉)의 「삼한강역고(三韓疆域考)」·「진흥왕정복지역고(眞興王征服地域考)」·「호태왕정복지역고(好太王征服地域考)」가 대표적이다.<sup>8)</sup> 그런데 20세기 전반 일본 역사학계의 한국사 연구는 타율성과 정체성을 강조하였고, 인간사회의 존재를 경시하였다.<sup>9)</sup>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에서도 삼국의 내적 성장과 능동적인 활동은 간과하였고, 따라서 한강의 역사적 의미는 조명하지 못하였다. 연구에 내재된 식민주의였다.

20세기 전반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에 상대해 삼국의 자주적·능동적 활동을 강조하였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가 대표적이다. 신채호는 삼국 간의 동맹과 파열 속에서 한강 유역을 둘러싼 쟁탈전의 양상을 역동적으로 서술하였다. 다만 신채호를 비롯한 20세기 전반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삼국시대 한강사 서술은 사료의 인용과 비판의 측면에서 실증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북방 지역의 고대사를 중시한 데 비해 한강의 역사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실증에 기반해 삼국시대 한강사를 연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였다. 특히 분단과 6.25 전쟁 이후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삼국시대 한강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였고,<sup>10)</sup> 1970년대 이후 역사학계의 양적 성장을 배경으로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인 연구를 왕성히 축적하였는데,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자료 비판의 방법을 개발하였고 각종 고고자료를 종합해 논의의 수준 역시 높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시기에 따라 주제를 구분해 보자면, 크게

8) 津田左右吉의 논문은 『朝鮮歷史地理』 1(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에 수록되었다.

9) 旗田外 著, 李基東 譯,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148~149쪽.

10) 李丙燾, 「漢江流域의 歷史的意義」, 『斗溪雜筆』, 一潮閣, 1956.

㉠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발전, ㉡ 고구려의 남진과 삼국 관계, ㉢ 신라의 북진과 삼국통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주제마다 다양한 학설이 경쟁하며 논의의 쟁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꾸준히 발굴된 새로운 자료는 연구에 활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1978년 충북 단양군에서 발견된 「단양 신라적성비」와 1979년 충북 충주시에서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가 주목된다.<sup>11)</sup>

이들 금석문 자료는 당대에 생산된 것으로, 문헌자료 비판과 고고자료 종합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는 금석문 자료를 중심에 두고, 종래의 논의를 점검하였고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실시된 구의동보루 유적·몽촌토성·풍납토성 등 한강 유역에 소재한 각종 고고자료에 대한 조사와 발굴도 중시되었다. 유적과 유물의 분포·형식·편년에 따라 삼국시대 한강사의 전개 과정을 달리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석문 자료를 위시해 문헌자료·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역사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제설(諸說)의 경쟁으로 펼쳐졌다.<sup>12)</sup>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며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더욱 팽창하였다. 이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주도한 고고학 방면에 한정된 성과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포천군 반월산성(半月山城) 장대지에서 출토된 ‘마홀(馬忽)’명 기와는 7

11) 최신 연구 동향은 다음의 논문과 저서를 참조. 정제규, 「「단양신라적성비」 연구 현황과 쟁점」 『先史와 古代』 61, 2019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충주 고구려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0 ; 동북아역사재단,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2021.

12) 백종오, 2006,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임진강에서 금강까지-』, 서경 ;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이해 서설-」, 『백제문화』 5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참조.



세기 전반 신라의 고구려 낭비성(娘臂城) 공격과 이를 둘러싼 삼국 관계를 재해석해 종래의 통설적인 이해를 선회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sup>13)</sup> 물론 고고자료의 축적이 제설의 경쟁을 온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제설은 논의의 접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쟁점을 형성하며 연구를 심화하였다.

구분	주요 자료	쟁점	諸說
㉠	『충주 고구려비』	건립 및 내용의 시점	4세기 후반설~6세기 전반설
㉡	『삼국사기』 백제본기	한강 유역 영유기사의 신빙성	부정론, 긍정론
㉢	『삼국사기』 지리지	본고구려명	직접 지배설, 간접 지배설

〈표 2〉 고구려의 남진과 삼국관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의 세 가지 주요 주제 중에서 ㉠ 즉 고구려의 남진과 삼국 관계에 한정해 보면, 이는 다시 ㉠ 4세기 후반~5세기 중반 고구려 남진의 범위 및 백제의 영역, ㉡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 남진의 과정 및 백제의 영역, ㉢ 한강 유역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두고 쟁점을 형성하였다.

㉠과 관련하여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및 내용의 시점이 중요하였다.<sup>14)</sup> 4세기 후반설에서 6세기 전반설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진출 시점과 밀접하다. 또한 삼국의 국제관계 및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웅진·사비도읍기 백제의 한강 유역 영유 기사를 두고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sup>15)</sup>

13) 徐榮一, 『新羅 陸上 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243~249쪽.

14)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2020 참조.

15)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이해 서설-」, 『백제문화』 5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 김현숙, 「475년~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郷土서울』 73,

이를 보면 백제는 475년 이후 곧 한강 유역을 수복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구려 남진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자는 백제의 한강 유역 영유 기사가 사실을 중복 기재한 것이거나, 가상적인 영역 인식의 소산이었다고 보며, 475년 이후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비교적 장기간 차지하고 있었다고 파악한다.

◎와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본(本)고구려 군현명(郡縣名) 분석에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sup>16)</sup> 군현제가 실시되어 직접적인 지배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하고, 군현명은 통일신라의 것으로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는 거점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지배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이처럼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학계에서는 제설이 경쟁하며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제설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논리를 수정하며 근거를 보완하였다. 한정된 자료이지만 그에 대한 치밀한 이해도 구축하였다. 연구 주제도 확장해 갔다. 지명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지리 분야에서 삼국의 국제관계사·전쟁사 분야로, 다시 역역(力役) 동원·무기체계·관방체계를 비롯한 군사사 분야로 연구의 주제가 넓어지고 있다. 이제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에서도 전쟁사·군사사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2009 ; 장창은, 앞의 책, 2020 참조.

16) 노태돈, 『한국고대사의 이론과쟁점』, 집문당, 2009 ; 정호섭,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중·후기 지방편제의 이해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133, 2019 ;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韓國古代史研究』 99, 2020 참조.



### Ⅲ. 군사사의 시각과 관방체제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학계에서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가 왕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병도의 논설이 주목된다.

나는 해방 이래 어디서나 국사를 강의할 때마다 반드시 역사상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청취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줌으로써 일종의 쾌락을 느끼는 바이지만, 이 문제는 비단 과거에 뿐 아니라 오늘의 현대에 있어 더욱 그러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장래에도 그러함을 확언하여 두는 바이다. 나의 강의를 듣지 못한 분에게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여 특히 집필하는 것이다. 옛날 우리 민족이 무통일상태로 남북 각지에 할거하였던 때나 또는 오늘날과 같이 통일이 분열되어 남북으로 대립 투쟁하고 있을 때에 한강유역은 반드시 그들 사이의 타두는 한 보배와 구슬같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를 장중에 오래 지니는 자는 성하고 강하고 내지 통일의 과업을 이루었으며, 반대로 이를 잃는 쪽은 쇠약과 패멸을 면치 못하였다. 즉 한강유역의 득실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지금 국사에 나타난 현저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李丙燾, 「漢江流域의 歷史的意義」, 『斗溪雜筆』, 一潮閣, 1956, 52쪽).

이 논설은 이병도의 수필집 『두계잡필』에 수록된 것으로, 자신은 이를 『철경(鐵警)]에 수록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였다.<sup>17)</sup> 『철경』은 1951년 11월 철도경찰대에서 창간한 잡지로, 1953년 7월까지 제20호를 발간하였다.<sup>18)</sup> 따라서 이병도의 논설은 해방 이후 6.25 전쟁

17) 李丙燾, 「漢江流域의 歷史的意義」, 『斗溪雜筆』, 一潮閣, 1956, 57쪽.

18) 이병석,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정비석의 『자유부인』 발간 전 시험작 발굴

을 전후한 시기, 그의 한국사 이해를 보여준다.

이 논설에서 이병도는 해방 이후 한국사 강의마다 한강 유역의 중요설을 역설하였고, 그 현재적 의미를 절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통일상태의 고대사와 남북 분단의 현대사를 비교하며 이와 같은 시기에는 한강 유역의 득실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다고 한 것이다. 특히 한국사의 현저한 예시로 삼국시대사를 중시하였다.<sup>19)</sup> 백제-고구려-신라 순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삼국의 전성기가 구가된 사실을 예시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병도의 논설은 6.25 전쟁 중 한강 유역을 재수복하고 북한과 대치 중이던 남한의 현실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국동란을 두고 보자. 처음 공산적도가 남침을 감행하여 한강 유역을 돌파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정경은 어떠하였으며, 9.15 야방의 반격작전 특히 인천상륙 서울지구 수복으로 인하여 적의 낭패와 퇴각은 어떠하였던가. 피차의 일진일퇴는 결국 한강선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남류의 득실을 의미하는 데 불과하였다. 재수복 이후 대한민국이 소강의 상태를 유지하여 온 것도 국군 및 UN군이 한강 유역을 거의 수복하여 이를 굳게 지키고 있는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나. 여기서 우리는 감히 아래와 같이 장담할 수 있다. 우리 국토 통일의 관건은 즉 이 한강 유역을 우리 장중에 오래 지니는 데 달려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치 옛날 신라가 고구려 백제 이국에 대항하여 끈기 있게 하강 유역을 견수하여 반도 제패의 부동의 태세를 짓듯이 지금 우리도 이를 붓잡고 늘기만 하면 통일은 장래 우리의 사업이 될 것이요 아니할말로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통일은커녕 존립이 문제일 것이다(李丙燾, 앞의 책, 57쪽).

-경찰 잡지 『철경』 창간호에 게재-, 『경찰대학 브리핑』, 2021.10.12., 참조.

19) 李丙燾, 앞의 책, 1956, 52~56쪽.

앞의 인용문에 보이듯 이병도는 남한을 삼국시대의 신라에 비견했다. 신라처럼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북한을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신라 중심의 삼국시대사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병도의 삼국시대사 인식은 이후 남한 역사학계의 통념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한강 유역이 이 나라 보존의 진정한 보루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강 유역의 확보가 한반도의 제패’라는 역사적 의미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번영이 좌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는 민족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며, 재도약의 기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준 한강 유역을 끝까지 수호해야 함은 물론,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민족의 심장부’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한강 유역의 굳건한 보존과 개발은 우리 민족의 번영이 되기 때문이다(申滢植,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 漢江流域의 政治·軍事的 性格」, 『郷土서울』 41, 1983, 72쪽).

북한의 삼국시대사 인식과 비교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평양의 재건을 추진하며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을 상기하였고,<sup>20)</sup>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러한 시각은 1980년대 전반 신라의 삼국통일 부정과 고구려의 삼국통일론으로 심화하였고,<sup>21)</sup> 1990년대 전반 대동강을 인류 문명의 발생지이자 중심지로 규정한 대동강문화론으로 경화하였다.<sup>22)</sup> 고구려의

20) 이준성, 「북한 정권의 평양 인식 변화와 활용-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추이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65, 2021.

21) 조인성, 「북한의 고구려통일론」, 석문이기동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22)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삼국통일론과 대동강문화론은 현재 북한의 역사교육에 반영되고 있는 통설이다.<sup>23)</sup>

고구려의 삼국통일론과 대동강문화론은 역사적 사실의 비약적 해석과 고고 자료의 작위적 발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학문적 논의였다기보다 정치적 기획이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만 북한의 역사학이 대동강과 고구려를 통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면, 남한의 역사학이 한강과 신라를 통해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리하고자 하였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연구 시각에 대한 점검이 요청된다.

특히 4~7세기 삼국시대사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강의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을 확장해 초역사적으로 투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정해 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4~7세기 삼국시대 연구에서도 한강의 지리적 중요성을 선형적으로 고려해 제반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제하지 않았는지, 또는 이를 순환 논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학은 북한의 역사학과 비교해 단일의 정치적 시각보다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인 연구가 왕성하였고 제설이 난립하며 경합하였다. 따라서 연구 시각의 점검이 단순하지는 않다. 연구 시각의 점검이 내용 혹은 결과의 반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연구 시각에 대한 점검과 관심은 기왕의 자료에 대한 한층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군사사의 시각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군사사(military history)는 전쟁과 전투를 연구의

23) 李廷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통국가' 강조와 평양 정통론 부상의 궤적」 『歷史教育』 166, 2023.

본령으로 한 분야로, 군인 내지 군인 출신의 역사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민간의 역사가 또한 군사사와 사회의 제반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보고자 시도하였고, 역사학계의 호응을 얻으며 대세를 형성하였다.<sup>24)</sup>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 군사사는 생소한 분야이다. 전문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 영미권에서 제기된 새로운 군사사 시각을 접목해 보면, 급속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국의 서양사학계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쏟아온 노력을 조금만 더 연장하고 영리하게 방향을 조금만 튼다면, 넓은 의미의 군사사에서 손색없는 연구 성과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sup>25)</sup> 이는 한국고대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관련하여 관방시설(關防施設)이 주목된다. 관방은 변경과 요지의 수비를 의미하는데, 성(城)과 보루(堡壘)가 대표적이다. 삼국은 비단 한강 유역만 아니라 변경의 주요 거점에 관방시설을 축조하고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일정 권역에 대한 지배까지 도모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권역 내의 각종 관방시설은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파악되는데, 이를 ‘관방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에서도 많은 수의 성과 보루가 주목되었고, 개별 성과 보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sup>26)</sup>

24)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98, 2008, 295~302쪽.

25) 류한수, 앞의 논문, 2008, 305~306쪽.

26) 백종오, 「임진강·한탄강유역 고대 관방체계와 하천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先史와 古代』 71, 2023.

나아가 근래에는 GIS(지리정보분석체계)를 활용해 입지·가시권·교통로를 분석함으로써 관방체계를 재구성해 보기도 하였다.<sup>27)</sup> 그룹에도 아직까지 그의 군사적 운용과 기능을 온전히 해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방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속에서 개별 성과 보루가 가진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제도와 관방체계의 관계에 대한 해명도 요청된다. 여전히 많은 연구 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사사의 시각에서 “영리하게 방향을 조금만 튼다면,” 독창성을 갖춘 연구를 생산해 내기에 적합한 주제로 부상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예컨대 4~7세기 삼국은 소수의 지배층 전사집단을 중심으로 하였던 군사체제를 다수의 농민을 군인으로 동원한 군사체제로 재편하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의 국가체제였다. 한국고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는 군사사와 밀접하였던 것이다. 삼국시대 관방시설 안에도 4~7세기 삼국의 군사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성곽전에서 운용된 대량의 표준화된 무기는 다수의 농민을 군인으로 동원한 군사체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거점으로 운용된 성과 보루 등의 관방시설은 중앙권력의 지방 지배를 말해줄 수 있다.

이처럼 관방시설과 관방체계를 통해서도 삼국시대의 군사적 변화를 살피고, 이를 한국고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바라볼 수 있다. 삼국시대 한강 유역은 삼국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된 곳으로,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중요성이 높은 관방시설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시설·관방체계는 여타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이 크다.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시설·관방체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27)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통해 한국고대사·한국군사사의 전개 과정을 한층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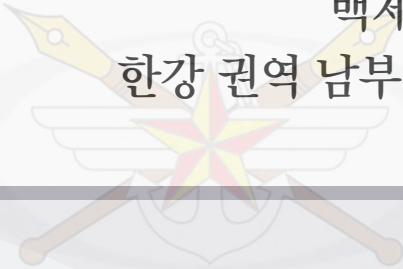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백제의 관방체계와 한강 권역 남부의 도기동 산성

| 장수남



# 백제의 관방체계와 한강 권역 남부의 도기동 산성

장수남

- I. 머리말
- II.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
- III.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 IV.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대 교통로는 지형과 수계에 의해 형성된다. 한성시기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교통 루트는 몽촌토성·풍납토성에서 탄천을 따라 남하하다 분당-신갈-오산-평택·안성으로 이어지며, 이들 주변에 한성시기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안성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이 루트는 백제가 남방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sup>1)</sup> 특히 도

1) 이남규·권오영·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106~127쪽.

기동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안성천 유역은 곡교천과 함께 중서부지역의 취락·분묘·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안성천 외곽은 높지 않은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천변을 중심으로 낮고 평평한 구릉과 충적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다.<sup>2)</sup>

백제의 관방체계 연구는 주로 한성시기에<sup>3)</sup> 집중되어 있다.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출토된 성곽을 중심으로 이 시기 교통로와 관방체계를 구성하여 초기에는 성으로 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한 교통로의 차단에서 후기에는 대규모 전투의 수행목적으로 거점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sup>4)</sup> 시기를 4세기로 한정하여 관방체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백제가 경기도 일대에 배치한 산성들만을 토대로 한성 백제의 관방체계를 살펴본 것으로 도성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4차까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2·3·4차까지 관방체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북방 영역 일부와 동쪽 영역에 대한 관방체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sup>5)</sup> 최근에는 가시권역, 교통로, 입지 분석 등 지리·지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한성시기 관방 유적을 검토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관방유적의 특징을 정리하고, 특히 한성시기 백제의 석성에 대해 GIS 분석을 통해 관방유적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백제의 관방체계를 좀 더

2)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2021, 33쪽.

3) 웅진사비기가 되면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고지 전역에 걸쳐 산성이 확인되는데, 성벽의 둘레가 200~300m의 소규모에서부터 1000m 이상의 대형산성까지 확인되며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 잡은 성들이 험한 산봉으로 입지가 변해가고 있다. 『한원』에 구체적으로 5방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백제 산성의 입지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정석, 「웅진사비기 백제 산성」,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24~226쪽)

4)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2007.

5)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sup>6)</sup>

직접적으로 도기동 산성을 다룬 연구는 주로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도기동 산성의 성벽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의 남방 경략 과정에서 거점성 역할을 하며, 고구려의 남진 경로 및 한강 이남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산성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sup> 한편, 도기동 산성의 발굴이 성벽구조에 대한 연구만 한 차례 진행되었을 뿐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sup>8)</sup> 그리고 마한과의 관계에서 도기동 산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마한세력의 북속 과정에서 웅천 지역에 주목하여 백제가 도기동세력을 북속함으로써 웅천 주변을 장악하면서 4세기경에 도기동이 거점성으로 변화했음을 살펴보았다.<sup>9)</sup> 뿐만 아니라 삼국의 정세 속에서 도기동 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도 있다. 백제가 3~4세기 영역확장과정에서 안성지역을 북속하여 도기동 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위천 전투에서 승리한 백제가 한성을 수복하면서 도기동 산성을 백제가 다시 운용한 것으

6)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승우·양시은「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7)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고구려발해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 양시은, 「안성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8) 서정일, 「도기동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0 ; 「안성 도기동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1.

9)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로 보고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기존의 도기동 산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사에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성을 함락시킨 후 남진을 위한 거점성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그 근거는 성벽의 구조와 축조 방식, 약간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점유한 시기로 설명되고 있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한성을 재건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남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면 백제는 이 산성을 왜 초축했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이나 주거지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얼마의 병력이 주둔했었는지를 비롯하여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고분에 대한 것도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은 앞으로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기동 산성은 한성 백제인들이 초축하여 이용한 성으로 청원 남성골 산성과 월평동 산성과 같이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성이기도 하지만, 백제의 관방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역할 및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강 이남 백제 관방체계를 살펴보고, 백제사에서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방체계로서 안성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축조하게 된 목적과 시점을 문헌사와 연결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백제의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기동 산성은 고고 자료는 있지만 문헌 사료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10)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이 글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그동안 주로 고구려사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도기동 산성을 백제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

백제의 한성시기 관방체계는<sup>11)</sup> 풍납토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방 유적의 축조목적은 인근지역이나 교통로를 우위적 수준에서 감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방어를 하기 위함이다.<sup>12)</sup> 한강 이남의 백제 성곽은<sup>13)</sup> 주변에 하천이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토축이다. 도기동 산성만 목책과 토축이 같이 보이고 있다. 한강 이남의 관방 유적을 입지로 분류해보면 평지성, 구릉성, 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평지성은 풍납토성이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에 비해 해발이 30m 정도 차이가 나서 낮은 구릉 입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구릉성은 안성 도기동 산성, 충주 탄금대 토성, 평택 봉남리 산성,

11) 관방체계 연구에 있어 최근에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방유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쪽). 이승우는 GIS분석이 성곽 유적의 지리적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유적 내에서 한성기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은 분석을 통해 한성기 백제의 관방 유적일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12) 이관섭,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3) 백제 한성시기 성곽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15개로 모두 토성이다. 그러나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및 경기지역의 일부 신라 석축성에서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한성시기에 석성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4쪽에 쓰여 있다. 필자는 석성 내에서 백제의 한성시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성은 백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시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이승우의 견해에 동의한다.

화성 한각리성, 화성 은평리성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능선에 입지하고 있다. 평지성은 구릉과 산에 있는 성곽보다 가시권역이 넓지 않다. 하지만 평지성은 하천에 인접한 곳에 있다. 이는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편리성 외에도 관방으로서 부족한 방어력을 보강하고자 했다. 평지성은 내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중심지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의 왕래와 물자의 수송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목적보다는 대민(對民)의 성격이 강하다. 한성시기 풍납토성의 경우 평지성이 치소의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릉성은 상대고도 10~60m 미만의 구릉에 위치하는 것이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직선거리 1km 정도로 매우 인접하며 가시권역이 공유되고 있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의 취약한 방어력을 보완하고 중심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다.<sup>14)</sup> 구릉성은 주요 거점성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탄금대 토성은 유적 내에서 용해로와 단야로, 슬래그, 철정 등 제철 및 제련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된다.<sup>15)</sup> 유적 주변에는 제철 유적이 분포해 있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철 공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탄금대 토성이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6)</sup> 구릉성은 평지성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주변 성곽들의 분포로 볼 때 지방 거점성으로 사용되었다. 이 성들은 독립 구릉이나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주변에 넓은 평야가 조망되어 방어하기 좋으며, 평지성과 마찬가지로 물자의 운송과 대민업무를 보기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탄금대 토성처럼 철기의 제작과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되거나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sup>17)</sup>

14)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쪽.

15) 중원문화재연구원, 『忠州 彈琴臺土城 I』, 2009.

1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33~34쪽.

17)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1~102쪽.



산성은 상대고도 60m 이상의 산지에 입지한 성이다.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산성은 주변 지형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입지하여 주변 동향을 파악하기 쉽다. 또 방어상 중요한 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산성과 산성과의 거리를 멀지 않게 두어 서로 조망이 가능하게 하고, 가시권도 공유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는 교통로의 통제를 견고히 하고자 산성을 축조하기도 한다.<sup>18)</sup>

〈표 1〉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유적<sup>19)</sup>

번호	명칭	입지	주변하천	비고
1	이천 효양산성	산성	복하천	
2	화성 길성리토성	산성	황구지천	
3	화성 소근산성	산성	진위천	
4	안성 도기동산성	구릉	안성천	목책·토축
5	음성 망이산성 내성	산성	청미천	
6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남한강	
7	천안 동성산성	산성	광기천	
8	증평 추성산성	산성	보강천	
9	의왕 모락산성	산성	안양천·학익천	토축·석축
10	이천 설봉산성	산성	복하천	석축
11	인천 설성산성	산성	청미천·양화천	석축
12	안성 죽주산성	산성	죽산천·청미천	석축
13	충주 장미산성	산성	남한강	석축
14	평택 무성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15	평택 자미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석축
16	평택 백봉리산성	산성	진위천·관리천	
17	평택 봉남리산성	구릉	진위천	
18	청주 부모산성 제 1보루	산성	미호천	석축
19	화성 한각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20	화성 운평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1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101쪽.

19) <표 1>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1~12쪽의 표를 토대로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화성 길성리토성에서는 한성시기 후반에 형성된 백제 토기로 완과 중복 타날 된 회청색 경질 호가 출토되었다.<sup>20)</sup> 화성 한각리성은 평탄지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화성 운평리성은 성내 경작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안성 도기동 산성에서는 산성 내부의 수혈유구와 토루 성토층에서 한성백제기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파배, 고배, 개배, 삼죽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이다.<sup>21)</sup> 안성 죽주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 구조로 중성-외성-내성 순으로 축조되었다. 이 중 중성이 삼국시대 성으로 중성의 초축 성벽 기단부와 암반층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안성 진사리 산성에서는 백제 타날문 토기류와 심발형토기류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sup>22)</sup>

음성 망이산성은 토축성 내부에서는 호류, 용류, 굽접시, 병, 시루, 뚜껑, 대접, 단지 등 다양한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sup>23)</sup> 천안 동성산성은 산성 내 주거지와 퇴적층에서는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심발형토기, 옹형 토기, 용류, 호류, 병류,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sup>24)</sup> 증평 추성산성은 남성과 북성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백제 토기로 호류, 용류, 유개대부호, 발,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완, 뚜껑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sup>25)</sup> 의왕 모락산성은 대부분 한성백제기로 편년되는 호류, 용류, 심발형토기, 장

20) 충북대학교 박물관, 『화성 길성리 토성Ⅱ』, 2011.

21)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성』, 2018.

22)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Ⅳ』, 2003.

2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望夷山城 發掘 報告書(1)』, 1996.

24) 가경 고고학연구소, 『天安 銅城山城 試掘調査: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2016.

25) 증원문화재연구원, 『증평 추성산성 -북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14.

란형토기, 저장 및 생활 용기 등이 출토되었다.<sup>26)</sup>

이천 설봉산성은 토기의 경우는 백제 양식과 신라 양식이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다. 특히 I 지구 4호 토광에서는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성벽 내부와 유구 전반에 걸쳐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백제 토기의 기종은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고배류, 접시류, 호류, 옹류 등이다.<sup>27)</sup>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백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 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와는 신라의 기와이므로 백제와 신라가 사용한 시기의 성의 용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천 설성산성은 주거지 부뚜막 시설 주변과 토광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성 안에서 호류,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고배, 개배, 접시, 완, 동이, 시루 등이 확인되었다.<sup>28)</sup>

충주 장미산성에는 조족문토기와 원저단경호를 비롯한 다량의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조족문토기는 음성 망이산성,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청주 신봉동유적, 증평 추성산성 등 한성시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3~5세기 후반에 걸쳐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sup>29)</sup> 이는 백제가 방어성으로서 이들 산성을 활용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 자미산성은 산성 내에서 한성기 토기로 호류, 옹류, 고배,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다.<sup>30)</sup> 평택 무성산성에서는 대부분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백제 초기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평택 백봉리 산성에서 무문토기와 타날토기가 수습되었고 한성 백제기의 대옹편이 수집되기도 하였다. 평택 견산리산성

26) 세종대학교 박물관, 『의왕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6.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2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4.

29)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6쪽

3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북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에서는 백제 타날문토기편, 회색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평택 봉납리산성은 본성, 익성, 아곡마을, 산성 구역으로 구분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본성과 익성구역에서 백제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대응, 호류, 장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등 다양한 기종 구성을 이루고 있다.<sup>31)</sup>

청주 부모산성은 산성과 보루가 결합한 구조로 제 1보루 토축 성벽 상부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대부분이 한성시기에 해당하는 호류, 옹류, 뚜껑, 대부완, 시루, 전달린 토기편, 동이 등이 확인되었다.<sup>32)</sup> 이로 인해 제 1보루는 부모산성의 석축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성시기 백제에 의해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3)</sup>

즉,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에 해당되는 성들에서는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성들이 모두 토성인 것은 아니어서 산성의 구조와 축조 기법으로 볼 때 백제의 성으로 보지 않기도 하지만 한성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방어 및 교통로의 중요한 요충지에 성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축조하기 이전에 백제가 방어시설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경기지역의 관방체계 중에서 평택 백봉리산성은 진위천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조망할 수 있고, 북쪽에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이 자리 잡고 있어 길성리토성-소근산성-백봉리산성으로 이어지는 진위천 하천 교통로는 백제 남부 진출의 주요 길목이었다. 길성리토성은 요리와 길성리

31) 경기도 박물관, 『평택 관방유적Ⅱ』, 2004.

32)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 부모산성Ⅱ』, 2016

33)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5~65쪽.

일대의 해발 100m의 구릉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이다. 성의 남쪽은 황구지천과 진위천의 합수지점 부근의 충적평야가 동쪽으로는 황구지천과 진위천 주변의 충적평야가 한눈에 조망된다. 즉 성은 남쪽 오산과 평택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4)</sup>

소근산성은 소근산 능선 남단에 토축으로 축성된 산으로 성의 동쪽에 진위천이, 서쪽으로는 관리천이 각각 남류하여 소근산성의 남동쪽 약 11km 지점에서 합류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된다. 남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에 큰 하천을 끼고 형성된 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서쪽과 남동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성이 축조되었다.<sup>35)</sup> 이천 설성산성은 차령산맥에서 가장 근접한 산성으로 산맥을 통해 넘어오는 적들을 가장 먼저 관측할 수 있고, 설봉산성은 광주산맥을 넘으면 한강 유역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루트이다.<sup>36)</sup> 죽주산성은 이천을 거쳐 안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부모산성은 안성천 유역에서 병천천을 따라 차령산맥을 넘으면 바로 마주할 수 있으며 청주분지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청주분지는 넓은 곡창지대로 풍부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설성산성, 설봉산성, 죽주산성, 부모산성은 북쪽과 서쪽을 관방할 수 있고, 남쪽으로 미호천을 따라가면 금강수계를 만나 호남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제는 이들 산성을 관방체계로 활용했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장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장미산성은 높은 산지에 입지하여 주변일대와 남한강에 대한 조망이 용이하고, 한강의 수로와 안성천을 따라 경기지역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쪽은 다수의 성곽을 북에서 남으로 일자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거점으로 가시권역이 서쪽과 남쪽

34) 정인숙, 「화성 향남면 길성리토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35) 김길식, 「산성·주변유적의 관계와 지방지배-화성지역 백제 산성과 주변 유적 사례를 통하여-」,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45쪽.

3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05쪽.

을 향해있는 의왕 모락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안양천과 안성천의 지류인 황구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한강유역에서 안성천 유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길목으로 남방 진출의 관방이다.<sup>37)</sup>

성에 있어 고도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도가 낮을수록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쉬워 방어적인 성격이 약해지지만, 행정 치소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도가 높을수록 유적 내부로의 접근이 어려운 탓에 방어가 주목적이었다.<sup>38)</sup> 상대고도가 높은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이들 성곽은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여 적을 동향을 살피기에 유리하다. 이곳들은 교통로를 감시하거나 군사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천-음성-증평으로 이어지는 산성 반경 5km 내에는 조망권을 막는 것이 없다. 이들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평야가, 동쪽지역에는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로 배치한 산성은 중원지역을 방어선을 견고히 하여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소근산성은 한강-수원-오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한강유역에서 황구지천과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천안의 동성산성은 경기 또는 서해 연안에서 호서 내륙으로 진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교통로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축조한 것이다.<sup>39)</sup> 산성뿐 아니라 관방유적을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으로 방어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천 설성산성-설봉산성-안성 죽주산성-청주 부모산성으로 이어지는 관방유적은 산성과 마찬가지로 교통로의 감시와 차단으로 방어가 목적이었다.

37)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5~93쪽.

3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3쪽.

39)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103쪽.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및 진출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방은 서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동쪽에 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산지가 발달하여 자연적인 방어막이 형성되어 조밀하게 관방을 설치하지 않았다. 즉, 차령산맥과 광주산맥이 자연 방어선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경기도 서쪽 지역에 관방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서쪽은 평야와 하천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관방을 조밀하게 설치해야만 방어가 가능했다.<sup>40)</sup> 이 일대의 성들은 동서 방향의 횡선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성들과의 거리는 5~7km이다.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배치된 성들은 중앙이 직접 지배하는 영역 내에 관방을 직접 설치하여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급로의 확보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관방이 설치된 곳은 주변에 하천과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량 수급이 용이한 곳이라는 것이다. 백제의 거점성이 경기지역 서남부에 집중된 것은 한성 함락 후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과도 연계된다.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은 성이 남진을 위한 거점이자 식량 수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넷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제의 관방체계에서 화성지역의 운평리, 한각리, 화산리, 조암리 일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어 백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운평리와 한각리 성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유적이 확인되고, 백제토기가 넓게 산포하고 있어 토성을 중심으로 대단위 유적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특히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아산만의 북쪽 입구이다. 북쪽으로 한강 유역이 이어지고 동쪽으로 평택이 있다. 또 이곳을 거치면 서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할 수

40) 강형용, 앞의 논문, 2008, 24쪽.

41) 김길식, 「경기남부지역 원삼국 문화의 특징과 의의-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화성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제 10회 화성시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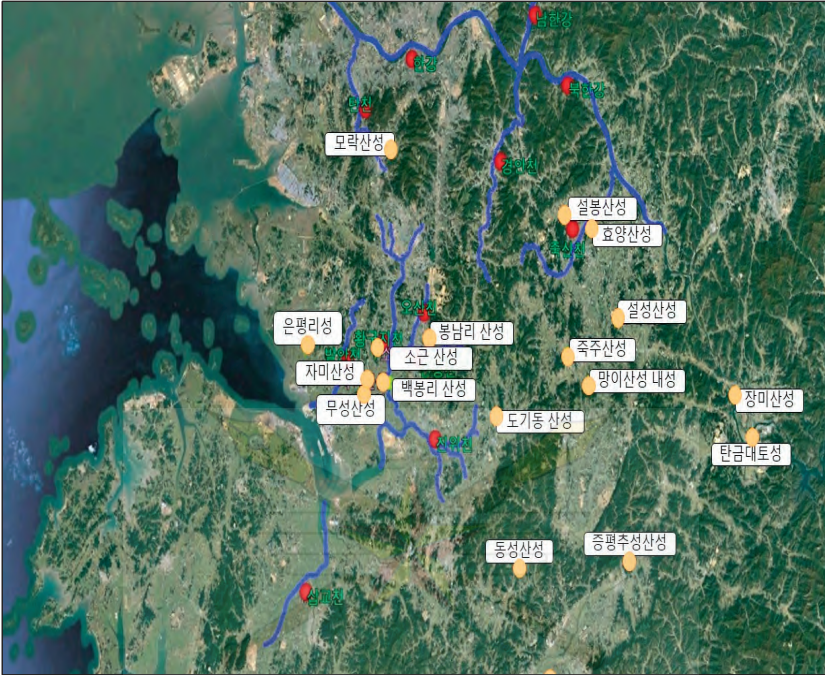


있는 도기동 산성과 성산리 산성이 있다. 주변 지형보다 비교적 높은 지점에 위치한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화성 일대의 행정과 아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자의 유통을 담당했던 거점이었다. 또 탄금대토성은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다. 즉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수취기반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한성시기를 지나 웅진시기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재건할 때에도 경기지역 관방체계 성들은 수취기반 복구의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평지성은 대민 지배나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치소나 거점의 역할을 하였고, 구릉성은 교통로의 감시와 경작지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산성은 적들을 견제하고 거점 방어에 성격이 지니고 있었다. 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한강 이북의 성들이 북쪽의 고구려, 낙랑, 말갈의 침입에 주력한 관방체계였다면, 한강 이남 특히 경기 서남부의 관방체계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성으로서 관방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하천을 끼고 평야지대의 풍부한 생산량은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1〉 한강 이남 관방 유적



### Ⅲ.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안성천에 축조된 관방 유적은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산이나 구릉에 축조된 산성은 교통로를 통제하는 안성천 일대 특유의 관방체계였다. 안성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아산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적고 비교적 평탄지가 많다. 차령산맥에서 안성시 공도면을 거쳐 한천과 미양면에서 합류하여 평택

에 이르러 평야지대를 형성하여 농경지가 발달하였다.<sup>42)</sup>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의 가시권을 보면 북쪽의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도기동 산성은 경작지와 교통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sup>43)</sup>

안성천 유역의 관방 유적 도기동 산성은 안성 분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백제 한성시기인 4세기 무렵에 초축되어 6세기 전반 무렵까지 활용된 백제-고구려 연속 조영의 목적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sup>44)</sup> 4세기 중후반 무렵에서 5세기 초반에 초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성 내에서는 파배, 고배, 개배, 삼죽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 한성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도기동 산성과 동일시기로 4~5세기에 해당하는 도기동 고분군 확인되었다. 고분군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는 동일 지형에 분포한 동일 성격의 고분군으로 도기동 산성 주변에 136기의 대단위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고분군의 조성연대는 부장유물 단경호, 심발형토기, 직구호, 방추차, 환두대도 철모, 철부, 재갈 등이 출토되어<sup>45)</sup> 미호천 수계인 청주 봉명동, 송대리 유적의 늦은 단계와 청주 신봉동, 천안 용원리 고분군과 공존하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에

42) 강형욱, 「4세기 한성백제의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0~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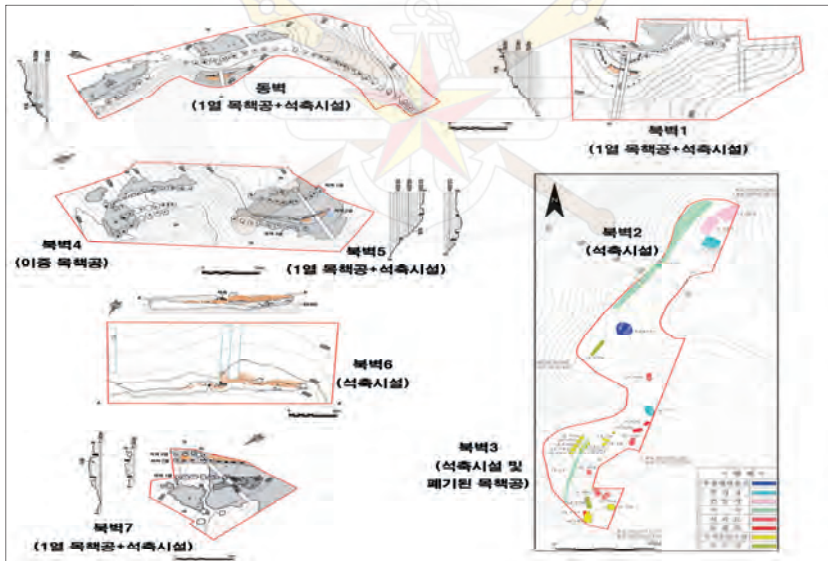
43)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8쪽.

44)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산성』, 2018.

45)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 11번지 일원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2016.

결쳐 조성된 것이다.<sup>46)</sup> 이는 백제가 안성천 일대를 백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점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기동 고분군의 환두대도, 철모 등의 무기류와 재갈 등의 마구류 출토는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 4세기 중후반경 부터는 상당한 세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또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된 것은 주변의 평야지대에는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분군 조영을 통해 볼 때 도기동 산성 주변은 방어를 위한 산성과 취락 그리고 저장시설인 수혈이 분포하고 있어 백제의 지역 거점성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안성 도기동 산성 내 고구려 목책성 관련 유구 현황도<sup>48)</sup>



46) 이동성,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2020.

47)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 18번지 유적』, 2017, 186~190쪽.

48) 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0쪽 <그림 29 재인용>.

도기동 산성의 성벽 구조를 살펴보면 북쪽 구역에 1:4:5:7 구역 4 구간이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데 내부에 수혈과 주거지, 건물지 15기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급경사면은 자연 지형을 방어벽 삼아 외출 목책 시설이 보이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은 이중 목책이 확인되었다.<sup>49)</sup> 성벽은 백제 한성시기 초축 성벽과 고구려가 보강하여 사용한 성벽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 목책의 구조이다. 이 목책의 구조가 내부에 성토를 다지고 외부에는 석축을 덧대어 보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구려 남진기 목책성 특징으로 세종 남성골산성과 연천 무등리 2보루의 성벽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sup>50)</sup>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열 목책(목책성)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이 밝혀졌다. 석축 성벽과 2열 목책(목책성)의 중복관계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고구려 토기는 석축 성벽과 관련된 층에서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한성시기는 토루 1과 목책성(1열 및 2열 목책포함)이며, 고구려가 축조한 것은 석축 성벽임이 밝혀졌다.<sup>51)</sup>

백제가 초축한 도기동 산성은 목책성이다. 목책은 주변에 수목을 활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 효용성이 뛰어나지만, 화공(火攻)이나 투석전(投石戰)에 약하고, 여름이나 겨울이 지나면서 목책으로 사용된 나무가 부식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에는 장기간 목책을 활용하였고, 흙이나 돌을 활용하여 단점을 보강하여 주요 길목마다 목책

49) 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50)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90쪽. 그러나 서정일은 이는 실제 발굴조사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책 전체가 이중구조가 아니고 목책 내 성토층이 남아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고구려의 개축흔으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51)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57번지 일원)유적 긴급 발굴조사』, 2021, 212쪽.

을 설치하여 통제와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였다.<sup>52)</sup> 백제는 삼국 중에 가장 많이 목책성을 설치하였다. 백제가 목책성을 설치한 기사들을 보면 목책성은 국경지대, 군사상의 요충지 또는 교통로 상에 통제와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sup>53)</sup> 백제는 고구려·신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왕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를 마련하였고, 이 관방체계의 일환으로 목책성이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문헌사에서 볼 때 백제는 언제, 왜 도기동 산성을 초축하게 되었을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당시 백제를 침입했던 세력은 고구려와 말갈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말갈과의 전쟁에서 그 규모가 달랐다. 백제는 말갈과의 전쟁에서는 구수왕 3년 가을 8월에 말갈이 적현성을 포위했을 때 말갈을 격퇴시키는데 기병 800명을 거느린 것<sup>54)</sup> 이외에는 대체로 3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근초고왕 24년과 26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와의 전쟁은 치양에서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정예군사 30000명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sup>55)</sup> 무엇보다 당시는 고구려와 공방전을 벌이던 시기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관방이 중요했을 시기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다음의 기사들이다.

A-1. 가을 7월에 청목령(靑木嶺)에 성을 쌓았다.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달아났다<sup>56)</sup>(『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8년).

52) 황보 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백산학보』106, 2016, 183쪽.

53) 황보 경, 앞의 논문, 2016, 175~179쪽.

54)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3년(216) 8월. “靺鞨來圍赤峴城 城主固拒 賊退歸 王帥勁騎八百追之 戰沙道城下破之 殺獲甚衆”

55)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369) 가을 9월.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26년(371) 겨울.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56) “秋築七月 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 A-2. 백제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部)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백제왕이 문서를 보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친(和親)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는 대왕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들을 돌려 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내물이사금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들면 오고 싫어지면 가버리니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백성이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과인을 나무라시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백제는 그것을 듣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sup>57)</sup>(『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18년).
- B. 봄에 국내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징발하여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靑木嶺)으로부터 북으로는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로는 바다에 이르렀다<sup>58)</sup>(『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2년).
- C.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의 목척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군영 내에 떨어졌는데 큰 소리가 났다. 왕이 매우 꺼려하여 곧(정벌을) 그만 두었다<sup>59)</sup>(『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아신왕 7년).

A-1과 A-2는 독산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아난 기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A-2 신라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에 따르면 백제왕이 독산성주와 백제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돌

57) “十八年 百濟禿山城主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數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58)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59)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신라왕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독산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온조왕 11년의 독산책이 나오는데 같은 위치는 아니다. 온조왕대는 낙랑의 통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근초고왕대는 독산성주가 신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채비했을 것이고, 이때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안성지역의 지리적인 위치는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다.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산성 주변에 평야지대에서는 경작지가 많아 생산량이 풍부하여 수취체계가 안정적일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방어에도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의 축조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작업이며 관방체계의 구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백제 중앙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 단순한 군사시설 뿐 아니라 교통로 확보, 지역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 물적 자원 수취 등의 행정적 지배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sup>60)</sup>도기동 산성은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이 중심시겼던 길성리토성이 4세기 중엽 이후 폐기되면서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이 폐기되면서 취락이 재편되었고 5세기경에는 길성리토성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소근산성이 백제의 중앙으로부터 축조되었다.<sup>61)</sup> 독산성주가 신라로 달아났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 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

60)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23쪽.

61) 한지선, 「백제의 화성·오산 일대 진출과 지역 장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5~58쪽.

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의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 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가능성은 B의 진사왕 2년(386) 관방 설치기사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 연대에 해당하는 4세기 중후반 기사이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나오는 첫 관방 기사로 여기서 기준은 청목령이다. 청목령으로부터 관방을 설명하고 있다. 청목령의 위치는 개성, 청석동, 영평 등으로 비정하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팔콘성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는 없지만, 청목령으로부터 북쪽이라 했으므로 북쪽의 관방, 그리고 서쪽의 관방으로 서해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진사왕대에는 3년에도 여전히 말갈과 싸웠고<sup>62)</sup> 5년·6년에도 고구려와 싸우고 있어<sup>63)</sup> 백제는 여전히 말갈과 고구려에 대해 공격과 방어에 힘을 쏟고 있었다. 또 개로왕 15년 기사에도 청목령에 大柵을 세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책을 세워 북한산성의 사졸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sup>64)</sup> 청목령은 말갈이나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말갈과 고구려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진사왕 3년에 관미령에서 말갈과 싸웠는데 이곳은 관미성과 관련된 고개로 관미성은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아신왕 2년에는 외삼촌 武에게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고

6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387) 가을 9월. “與靺鞨戰關彌嶺 不捷”

6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5년(398) 가을 9월. “王遣兵 侵掠高句麗南鄙” ; 辰斯王 6년(399) 9월 “王命達率真嘉謨 伐高句麗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6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겨울 10월.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표현하였다.<sup>65)</sup> 즉 청목령이나 관미령의 위치로 보아 이 시기 백제는 여전히 북쪽 변경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는 아신왕 7년(398) 기사로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의 목책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복수의 木柵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령왕 7년 기사에서도 고목성 남쪽에 두 책을 세웠다<sup>66)</sup>고 하였다. 성과 함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수왕 4년에 사도성의 방어를 더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이나<sup>67)</sup> 무령왕 7년에 고목성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을 보아도 한산의 북쪽은 고구려의 방어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복수의 목책이 존재했을 것이다. 또 백제의 방어를 위해 주요 관방에 남책, 동책, 서책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백제는 고구려의 방어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고고학 자료에서 말해주는 시기에 맞춰 보면 근초고왕 28년이 설득력이 있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도기동 산성은 가시권이 북쪽의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6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此寡人之所痛惜”

66)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7년(507) 여름 5월 “立二柵於高木城南又築長嶺城以備鞬鞞”

67)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4년(217) 봄 2월.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산성 주변에는 취락시설 뿐 아니라 생산유적·고분군 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시설의 편년은 4~5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sup>68)</sup> 산성 + 주거+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초축한 목적은 지방지배의 재편 과정에서 인근의 소근산성과 함께 새로운 거점성으로 축조된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방어 및 경작지의 생산량이 많아 식량 공급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성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 IV.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도기동 산성이 백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백제의 목적 설치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백제는 고구려·신라에 비해 많은 목적을 설치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목적 설치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D-1. 가을 7월에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다.  
낙랑태수(樂浪太守)의 사신이 다음과 같이 아뢰어 말하였다.

68)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쪽.

“지난번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집안과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강역을 핏박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고 있으니, 혹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계책이 있어 서인가? 만일 옛날의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수어 버린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한 번 싸워서 승부를 결정 짓도록 하자.”[이에] 왕이 회답하였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도리인데, 어찌 감히 이것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마땅히 집사(執事)가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낙랑과의 우호를 잃게 되었다<sup>69)</sup>(『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D-2. 가을 7월에 독산책(秃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두 목책을 세워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sup>70)</sup>(『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1년).

D-3. 가을 7월에 한산(漢山)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호(民戶)들을 옮겼다<sup>71)</sup>(『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D-4.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만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100리의 땅을 떼어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

69) “築馬首城 豎瓶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 聘問結好 意同一家 今逼我疆 造立城柵 或者其有蠶食之謀乎 若不渝舊好 隳城破柵 則無所猜疑 苟或不然 請一戰以決勝負 王報曰 設險守國 古今常道 豈敢以此 有渝於和好 宜若執事之所不疑也 若執事特強出師 則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與樂浪失和”

70) “設秃山·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71)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고 하면서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 의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왕이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목책을 헐어버렸다<sup>72)</sup>(『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24년).

- E. 봄 2월에 사도성(沙道城) 옆에 두 개의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리였다. 적현성(赤峴城)의 군졸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sup>73)</sup>(『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구수왕 4년).
- F. 겨울 10월에 쌍현성(雙峴城)을 수리하였다. 청목령(靑木嶺)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sup>74)</sup>(『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15년).
- G. 7월 탄현(炭峴)에 목책을 세워 신라에 대비하였다<sup>75)</sup>(『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 H. 여름 5월에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우고, 또 장령성(長嶺城)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였다<sup>76)</sup>(『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7년).
- I. 겨울 10월에 웅진성을 수리[修葺]하고 사정책(沙井柵)을 세웠다<sup>77)</sup>(『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4년).

백제의 목책 설치 목적은 첫째 방어이다. D-1과 D-2의 기사는 책을 쌓아 낙랑을 방어하는 기사이다. D-1은 온조왕대 마수성과 병산책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성과 목책은 요새에 설치하여

72)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 遂壞其柵”

73)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74)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75) “設柵於炭峴 以備新羅”

76)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以備靺鞨”

77)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답하고 있다. 즉 백제가 성과 책을 설치하는 것은 요새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백제가 방어해야 하는 세력은 낙랑과 말갈이었다. D-2의 독산책과 구천책을 세운 것도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다. 온조왕 11년 여름 4월에도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습격하였다.<sup>78)</sup> 다루왕 7년 9월에는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였고,<sup>79)</sup> 10월에는 말갈이 또 병산책을 습격하였다<sup>80)</sup>고 한다. 이 기사들을 통해 볼 때 마수성과 병산책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말갈과 낙랑과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1의 기사에서 백제가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우자 낙랑태수의 사자가 영토에 접근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 이것은 당시 백제가 성과 책을 세워 영토의 동북쪽을 방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3의 온조왕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 목책 설치 기사의 목적도 방어이다. 온조왕 8년 봄 2월에 말갈병 3000명이 위례성을 포위하였던 기사를<sup>81)</sup> 통해 짐작해 볼 때 3000명이나 왔다면 위례성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례성의 민가를 옮겼다고 할 때 상당한 백제민이 이동했을 것으로 한산 아래 木柵을 세워 많은 수의 민을 이동하였다는 것은 목책의 설치 목적이 방어를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목책에는 많은 수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온조왕 10년 기사에서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을 때 군사 200명을 보내 막

78)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79)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가을 9월. “靺鞨攻陷馬首城 放火燒百姓廬屋”

80)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겨울 10월. “又襲瓶山柵.”

8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8년((B.C.11) 봄 2월. “靺鞨賊三千 來圍慰禮城 王閉城門不出”

아 싸우게 하였다는<sup>82)</sup> 것으로 볼 때 책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년의 기사에서도 말갈이 병산책을 습격하여 깨뜨리고는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sup>83)</sup> 또 구수왕 16년 11월 기사를 보면 말갈이 우곡의 경계에 들어왔을 때 군사 300명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4)</sup> 백제는 말갈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말갈이 침입한 곳은 위례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목책일 것이다.

또 E와 F의 기사도 목책 설치의 목적은 방어이다. E의 구수왕 4년 2월 기사에서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 거리가 10리였다고 하였다. 1리가 0.4km라고 할 때 10리는 약 4km로 가까운 거리이다. 즉 방어를 위한 책의 설치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D-1의 온조왕 8년에 마수성과 병산책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수성의 방어기능을 보완하고자 병산책을 세운 것이다. E의 경우는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는데 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성과 책들을 통해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적현성의 군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사도성-두 책-적현성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의 기사는 개로왕대 청목령에 대책(大柵)을 세웠다는 것으로 청목령이 백제에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그 위치는 고구려, 말갈과 관련되어 있다. 청목령에 대책을 설치하기 전 8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고 한다.<sup>85)</sup> 그리고

82)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靺鞨寇北境 王遣兵二百 拒戰於昆彌川上”

83)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84)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2, 仇首王 16년(229) 11월. “靺鞨入牛谷界 奪掠人物 王遣精兵三百拒之 賊伏兵夾擊 我軍大敗”

8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가을 8월. “遣將侵高句麗南鄙”



그 이후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즉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북쪽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청목령은 온조왕 10년에는 말갈과 싸우면서 청목산에 의지하여 지켰다는<sup>86)</sup> 것으로 보아 말갈의 방어 역할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B의 기사에서 진사왕 2년에 청목령을 기준으로 관방을 세워 청목령이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또 A-1의 근초고왕 28년에는 청목령에 성을 쌓았고, 아신왕 4년에는 왕이 직접 군사 7천을 이끌고 청목령까지 진군했다는<sup>87)</sup> 기사를 통해 백제가 동북쪽을 방어하는데 청목령이 중요한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 기사에서 개로왕이 북한산성의 사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청목령 대책 근처에 북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로왕의 대책 설치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설치였던 것이다.

사료 H 무령왕 7년의 기사도 방어를 위한 목적의 설치이다. 고목성의 남쪽에 두 개의 책을 설치하는 것인데 고목성은 무령왕 3년에도 나오고 있는데 말갈이 마수책을 불 지르고 고목성을 공격하였다<sup>88)</sup>고 한다. 고목성은 말갈과 관련이 있는 성으로 백제가 군사 5000명을 보내 물리쳤다는 것은 성의 크기도 크고, 50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백제에게 방어상 매우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다. 6년 7월에도 말갈이 쳐들어와서 고목성을 깨뜨리고 6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는<sup>89)</sup> 기사 역시 고목성은 말갈과 백제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잡아간 인원 역시

86)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我軍敗績 依青木山自保”

87)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395) 겨울 11월. “王欲報溟水之役 親帥兵七千 過漢水次於青木嶺下”

88)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3년(503) 가을 9월.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擊退之”

89)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6년(506) 가을 7월.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다른 성에 비하면 많은 인원수로 큰 성이라는 것이다. 고목성에 두책을 설치하는 것은 말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목성-두책-장령성을 쌓아 말갈을 철저히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료 I의 성왕 4년의 사정책을 세운 것은 웅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책을 세우기 전에 웅진성을 먼저 수리하였다는 것은 웅진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성왕 3년에 백제는 신라와는 사신을 교환하여<sup>90)</sup> 우호관계를 형성하였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기 전으로 이 당시 고구려와는 적대관계였다. 즉 웅진성 방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한편 백제는 중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하였다. 사료 D-2는 직접적으로 독산과 구천에 책을 세워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온조왕은 책을 세워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온조왕 13년 여름 5월 기사를 보면 왕은 신하에게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여 편한 날이 적다.”고 하였다.<sup>91)</sup> 즉 백제는 낙랑을 차단하기 위해 책을 설치한 것이다.

사료 G는 동성왕 23년에 탄현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신라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성왕 16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도와 견아성의 고구려 포위를 풀어주고<sup>92)</sup> 17년에는 동성왕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여 고구려 병사가 물러났다고 한다.<sup>93)</sup> 두 나라의 사이가 적대관계가 아님에도

90)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聖王 3년(525) 봄 2월. “與新羅交聘.”

9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B.C.6) 여름 5월.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92)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6년(494) 가을 7월. “高句麗與新羅戰 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 救解圍”

93)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7년(495) 가을 8월. “高句麗來圍雉壤城



탄현에<sup>94)</sup> 목책을 설치한 것은 지리적인 중요성 즉 교통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탄현(炭峴)은 의자왕 16년(656)조에 의하면 기벌포와 함께 백제의 중요한 요충지로 나온다.<sup>95)</sup> 홍수가 말하길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여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 막아도 1만 명이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요충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에 힘써야 한다. 탄현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처음 설치한 목책이다. 무엇보다 웅진의 방어가 중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한 교통로의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앞의 기사 C의 아신왕 7년 8월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책에 이른 기사를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的重要性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신왕이 한산 북책에 이른 것은 이 목책이 도성의 외곽 지대를 방어하는 동시에 교통로의 통제를 위한 것이다.<sup>96)</sup> 아신왕이 이끈 군영은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이다. 백제는 진사왕 8년 가을 7월에 고구려에게 석현성 등 10여성을 함락당했고<sup>97)</sup> 10월에는 관미성을 함락당했다.<sup>98)</sup> 이후 즉위한 아신왕은 외삼촌 무(武)에게 관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94) 탄현의 위치 비정에는 여러 설이 있다. 충남 금산군 금산면 천내리와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로 보는 설(大原利武, 1922, 88~90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과 서평리와와 사이에 있는 탄치(炭峙)로 보는 설(小田省吾, 1927, 194쪽), 부여 석성면 정각리(正覺里) 숲고개로 보는 설(今西龍, 1934, 266쪽),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 군북면 경계의 식장산 마도령으로 보는 설(李丙燾, 1977, 401쪽), 완주군 운주면 신복리(薪伏里)와 삼거리(三巨里) 사이의 숲고개로 보는 설(洪思俊, 1967, 67쪽; 전영래, 1982, 276~289쪽), 금산군 진산면(珍山面) 교촌리(校村里)의 숲고개로 보는 설(成周鏢, 1977, 29쪽)이 있다. 최근에는 신라군의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웅진기 탄현책 설치와 사비기의 성충이 교통상의 요해지로 언급했던 탄현의 위치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방현(方峴)으로 보는 설도 있다.(이판섭, 앞의 논문, 2015, 257쪽)

95)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16년(656) 봄 3월.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沉峴 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舉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96) 황보 경, 앞의 논문, 2016, 177쪽

97)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가을 7월.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陷石峴等十餘城”

미성이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다며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 설명하면서 설옥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무가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변경으로 갔다.<sup>99)</sup> 백제는 고구려와 대적하기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가 동원되었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아신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에 목책에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은 이곳이 고구려의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라는 것이다. 보통 성은 군사적 기능과 함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책은 주요 길목을 차단하여 주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통로의 차단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백제가 주요 길목에 책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로를 차단하여 요해지의 방어에 힘쓰고자 한 것이다.

둘째 영역의 표시이다. D-4의 온조왕 24년 기사는 책이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웅천책과 관련하여 13년 8월 기사에 백제가 강역을 구획할 때 남쪽으로는 웅천을 경계로 하였다고 하였다.<sup>100)</sup> 이는 하천을 경계로 하였던 것으로 마한의 반응이 없었다. 이때는 단순히 강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성이나 목책으로 경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웅천책의 설치하는 마한의 영토 침입이 되는 것이었고 마한왕이 의리에 불합리함을 설명하자 왕이 부끄러워서 목책을 헐었다고 기록되었다. 8년의 기사에서 백제왕이 성과 책으로 요새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웅천책은 헐었다는 것은 마한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분명하다.

9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겨울 10월. “高句麗攻拔關彌城”

99)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 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100)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濫祚王 13년(B.C.6) 8월.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이 당시 웅천책의 설치에 백제의 영역 표시였을 것이고, 이곳이 마한과 영역이 나누어지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제와 마한과의 당시 관계는 우호관계였기 때문에 영역 표시한 목책을 마한왕이 지적하자 헐어버린 것이다.

목책의 설치 목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백제본기」 목책 설치 기사

번호	시기	내용	목적	비고
1	온조왕 8년 7월	병산책 세움	방어	성을 쌓고 책을 세움
2	온조왕 11년 7월	독산과 구천의 책을 세움	방어	낙랑과의 통로 차단
3	온조왕 13년 7월	한산 아래 책을 세움	방어	위례성 민호 옮김
4	온조왕 24년 7월	웅천책 세움	강역 표시	
5	구수왕 4년 2월	사도성 옆 두 책 설치	방어	두 책의 거리가 인접
6	개로왕 15년 10월	청목령에 대책 설치	방어	고구려, 말갈 대비
7	동성왕 23년 7월	탄현에 책 설치	방어	신라 대비
8	무령왕 7년 5월	고목성 남쪽 두 책 세움	방어	말갈 대비
9	성왕 4년 10월	사정책 세움	방어	웅진성 방어

도기동 산성은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재활용하여 남진하는 거점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었다. 산성의 발굴 조사 결과 백제의 목책성을 재활용하여 목책을 세운 뒤 내부에 점토로 다지고 목책 외면에 석축과 점토를 보강한 목책 도니성은 고구려의 성 축조 방식의 하나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남진 루트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었다. 그렇지만 도기동 산성의 초축은 백제이다. 그렇다면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요충지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안성지역은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특히 안성천

일대는 한강과 금강수계권이 연결되어 남쪽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곳이자 반대로 남쪽에서 한강 이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었다. 이는 고구려가 남진할 때 거점으로 이용한 이유에도 해당된다. 고구려의 보루는 교통로의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며 보급이나 공격을 위한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sup>101)</sup> 고구려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은 남진의 거점이다.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은 웅진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도기동 산성은 최전방 관방유적을 한성과 연결시켜 주는 주요 거점이었다. 산성은 평택평야에서 안성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웅진으로 내려가는 군사 방어와 함께 거점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sup>102)</sup>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취체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주변 저장 수혈군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원형 수혈은 서울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이후 백제 영역인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경기 서남부지역 용인과 화성을 중심으로 수계로는 안성천과 오산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103)</sup> 저장 수혈의 크기도 대체로 2.3~2.5m로 일정하게 도성뿐 아니라 지방에도 축조되었다는 것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양상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은 한성백제의 물류 유통의 중심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성시기 저장 수혈군은 근거리에 하천 1~2 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계를 중심으로 물자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01)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1.

102)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103~104쪽.

103)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쪽.

〈표 3〉 백제 한성 시기 저장수혈군 유적 관련 유적의 편년에 따른 분포 빈도<sup>104)</sup>

편년	3C후반	4C전반	4C중반	4C후반	5C전반	5C중반	5C후반
저장수혈군	0	7	14	17	17	15	6
관방유적	3	4	7	10	7	7	7

저장 수혈군 유적의 분포 시기를 보면 3세기 후반에는 보이지 않다가 4세기 전반에 7개가 보이고 있는데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보이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조성되었다. 이때의 수혈은 취락 내 거주지 등과 함께 조성되었으며 규모가 크지 않아 취락 내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중반 14개, 후반 17개, 5세기 전반 17개, 중반 15개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성 백제기의 전성기로 이때 경기도 지역에 집중 조성되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많이 출토된 유적들을 보면 용인 마북동 4유적(60기), 오산 내삼미동 유적군(192기), 안성 장원리유적(50기)이 있는데 5세기 전반까지 활발히 운영되다 이후 5세기 후반에 그 개수가 감소 되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한성 함락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성이 함락된 후에 유적의 분포가 17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웅진 함락으로 백제의 수취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방어를 위한 거점성이다. 이는 철기 유물 출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철은 낙랑·대방인들과 관련이 있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제철과 관련된 낙랑·대방 지역의 토기와 기와 제작기법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출신 장인들이 집단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안면 인근의 봉담면 당하리

104)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표 21>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I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와 송풍관, 철 찌꺼기, 철광석 등이 발견되어 이곳에서도 낙랑계 주민들에 의한 제철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05)</sup> 백제 중앙에서 화성지역에 대한 관심은 화성 요리 고분군의 금동관모와 식리 출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화성 요리 고분군 금동관모와 식리는 백제의 금속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백제 중앙에서 화성 재지 세력에게 사여한 것이다.<sup>106)</sup>

철기류는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저장 수혈이 증가하는 4세기 후반에 출토 빈도가 높다. 안성천에서 철기 출토량이 높은 곳은 안성 도기동 산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취락과 성곽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진위천 유역인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에서는 많은 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소근산성은 무기류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방어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4세기 중엽이 되면 오산천 유역에서도 철기 출토 비중이 증가하고, 5세기 후반이 되면 오산천 유역의 오산 내삼미동 취락에서 그 빈도가 급증한다. 이곳의 철기 출토 비율은 소근산성과 기안리를 제외하면 취락으로는 가장 많은 수취이다.<sup>107)</sup>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권이<sup>108)</sup> 방어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하천 및 강

105) 이남규·권오영·문동석, 앞의 논문, 2003, 126쪽.

106) 권오영, 「경기 남부 최강자가 묻혀있는 화성요리고분군」,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2020, 124쪽.

107)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56쪽

108) 경기도를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눌 때 소구역권에서 경기 남부권은 안성천 본류,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안성천 남쪽지천이다.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31쪽, <표 1>에서 경기 남부권만 발취한 것이다.)

을 이용한 수운 형태로 공급되었을 것이다.<sup>109)</sup> 시기적으로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걸쳐 철기의 생산이 급증하는 것은 고구려에 의한 한성 함락과 그로 인한 백제의 수취체계 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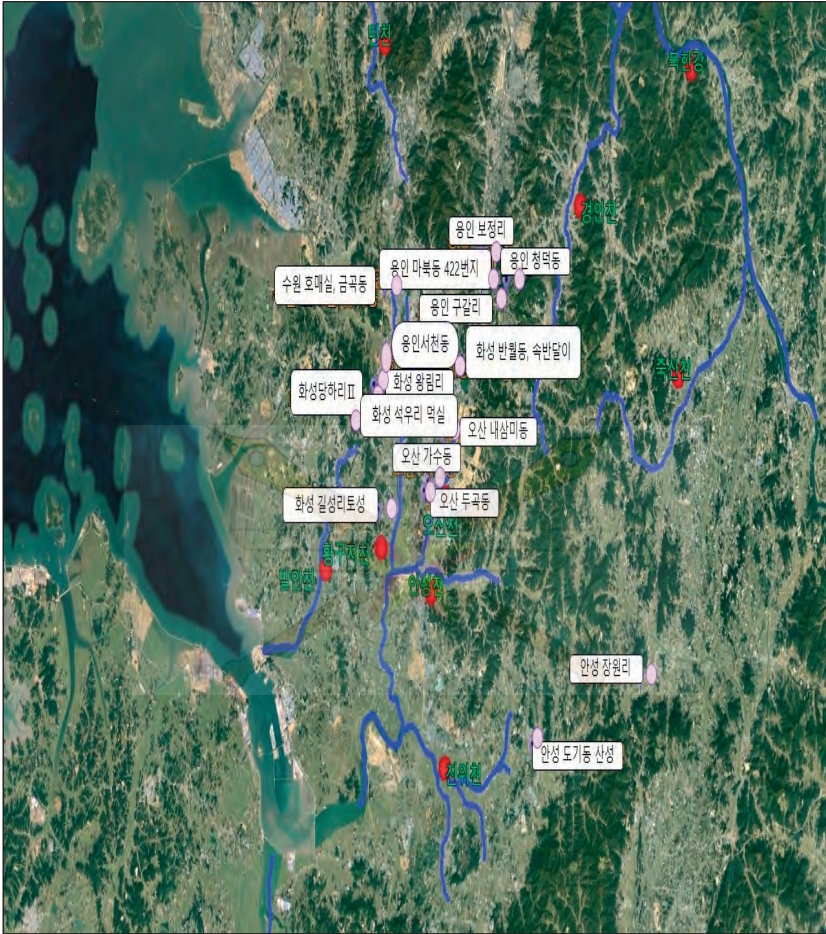
제철 유적지의 공통된 특징은 크고 작은 하천을 끼고 있고 인근에 농경지가 많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곡리와 기안리 제철 유적뿐만 아니라 백제 한성시기의 제철 유적들은 모두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 발안천, 안성천 유역에 본류천 또는 지천과 합류하는 충적평야의 구릉 사면에 입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운 교통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백제는 기존의 마한 세력이 이용했던 루트를 이용한 것으로 탄천 수계까지 육로로 운송한 후 다시 수운으로 한성으로 운송하거나 오산천, 황구지천을 남류하여 진위천, 안성천으로 빠져나와 서해 연안 해로를 거쳐 한강 하류를 통해 한성까지 운송했을 것이다.<sup>110)</sup>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의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109) 정경화,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118~121쪽.

110)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128~129쪽.



<그림 3> 한성 시기 저장 수혈유적지<sup>111)</sup>



1. 몽촌토성 2. 용인 보정리 3. 용인 청덕동 4. 용인 마북동 422번지
5. 용인 구갈리 6. 용인 영덕동 7. 용인 서천동 8. 화성 반월동
9. 화성 석우리역실 10. 오산 외삼미동 11. 오산 내삼미동 12. 오산 가수동
13. 오산 두곡동 14. 수원 호매실·금곡동 15. 화성 왕림리 16. 화성 당하리 II
17. 화성 길성리토성 18. 안성 장원리 19. 안성 도기동 산성

111) 장수남, 앞의 논문, 2022, 130쪽, <그림 3>에서 도기동 산성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그림 4〉 한성 시기 제철유적지<sup>112)</sup>



1. 화성 기안리 유적 2. 화성 길성리 토성 3. 화성 요리 고분군
4. 화성 봉담면 당라히 1리 유적 5. 화성 장안동 유적 6. 화성 반월동 유적
7. 소근 산성 8. 오산 내삼미동 유적 9. 오산 가장동 유적
10. 평택 가곡리 유적 11. 안성 도기동산성

112) 장수남, 앞의 논문, 2022, 126쪽, 〈그림 2〉에서 도기동 산성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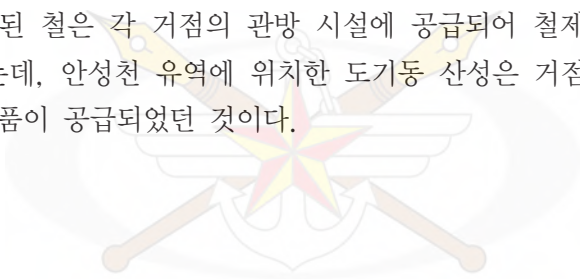
## V. 맺음말

한성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 이북의 관방체계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특히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도성의 방어뿐 아니라 백제가 남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및 지방 토착세력들의 반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통제하여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성천 유역 관방체계 중 하나인 도기동산성의 축조 시기를 문헌사와 연결해 보면 근초고왕 28년(373)이 주목된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은 새롭게 지방 지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이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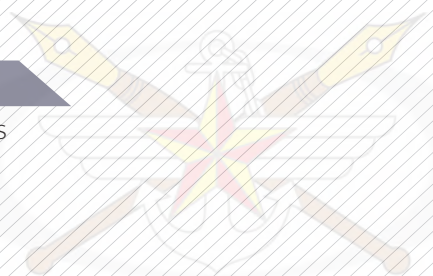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인 요충지로 웅진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으로 많은 저장 수혈군은 이곳이 한성 백제의 물류 유통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지역 주로 오산, 용인, 화성, 안성 지역은 한성시기의 중요 수취체계원으로 웅진시기에도 백제가 반드시 재건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방어를 위한 거점성이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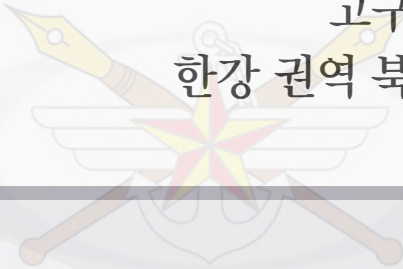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고구려 남부전선과 한강 권역 북부의 호로고루

| 신광철





# 고구려 남부전선과 한강 권역 북부의 호로고루

신광철

- I. 머리말
- II. 호로고루 연구사
- III.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고루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 남부전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황해도 일대의 영역화를 마무리한 고구려는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요 거점을 먼저 점유한 뒤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성곽과 교통로, 기반 시설을 재활용하기도 했지만, 별도로 보루와 같은 소형의 관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을 이주시켜 마을을 이루는 등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점령지

통치 방식은 새로 확보한 영토 전역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분포·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임진강 유역에서는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들이 고르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남부전선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임진강 유역의 영역화가 완료되어 그 일대가 고구려 멸망기까지 ‘자국 영토’로 확실하게 인식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sup>1)</sup>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지 고구려의 내지(內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선(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고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진(重鎭)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도하(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감제(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고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임진강 유역의 관방 유적이 고구려 남부전선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1) 양주 분지와 한강 이북 사이에서도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등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지만, 임진강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지 않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호로그루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호로그루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호로그루 연구사

### 1. 현장조사

임진강-한탄강 일대에서 가장 먼저 조사된 유적은 육계토성 내부의 주월리유적으로 1996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제2호 주거지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다.<sup>2)</sup>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당포성이 조사되었으며,<sup>3)</sup> 1990년대에는 호로그루 및 무등리 보루군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sup>4)</sup> 또한, 남한지역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실태 조사 및 정비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가 실시되었다.<sup>5)</sup>

2001~201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호로그루에 대한 발굴이 이

2)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 지역』, 1999;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2006.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경기도 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II-시굴조사 보고서-』, 2008.

4)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경기도 연천군편-」 『문화재』 25,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 편)』, 2000.

5)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루어졌다.<sup>6)</sup> 2003~2017년 사이에는 은대리성이 세 차례 조사되었으며,<sup>7)</sup> 전곡리토성으로 알려졌던 유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되었다.<sup>8)</sup> 2010~2012년에는 무등리 2보루,<sup>9)</sup> 2017년에는 무등리 2보루 남쪽의 무등리 1보루에 대한 시·발굴이 이루어졌다.<sup>10)</sup> 6차 조사까지 마무리된 파주 덕진산성은 2020년에 외성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상태이며,<sup>11)</sup> 2022년에는 고성산보루가 고구려 관방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sup>12)</sup>

이상의 조사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될만한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로그루에 대해 최초로 인식한 시점은 조선 후기이다. 효종 7년

-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Ⅱ(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 8)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 9)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10)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11)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Ⅱ: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12) (재)수도문화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1656)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임진강은 ‘단수’ 또는 ‘단강’으로 불렸으며, 호로탄은 임진강의 유일한 ‘여울물[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호로탄 가에 있는 호로고루에 대해 ‘두 보루[壘]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석벽으로 이루어져 견고하다. 전하는 말로는 삼국시대 때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라고 적고 있어 17세기 중반의 인식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한편, 효종 9년(1658) 6월, 허목은 한강 하류에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3박 4일간 주위를 둘러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허목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9년에 간행한 『기언별집』에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임진강을 ‘청강(淸江)’, ‘호로탄’ 앞을 흐르는 물길은 ‘호로하’, 그 상류는 ‘육계’ 등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임진강을 부르고 있다. 또한, 육계 앞에 있는 ‘옛 보루[古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육계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류의 옛 성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sup>14)</sup> 이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는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을 지칭한 듯하다.

그와 달리 『기언』에도 호로하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호로하에 있는 옛 보루 앞의 여울을 호로탄이라고 부르며, 남쪽으로 강을 건너면 옛 ‘칠중성 동포’가 나온다고 한다.<sup>15)</sup> 앞서 허목의 기행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중간에 ‘육계’ 및 육계로 유입되는 ‘사미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동국여지지』에 덕진산성의 폐성(廢城) 여부가 기록된 것을 보면,<sup>16)</sup> 당시 임진

13)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14) 『記言別集』 卷15, 記行 戊戌舟行記.

15) 『記言』 卷27下, 山川(上).

16) 『東國輿地志』 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강 유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옛 성[古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사적(史跡)도 일부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호로탄과 사미천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에 대한 설명이 후대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편, 『강한집』(1790)이나 『해동역사』(1823)에는 호로하(표하)와 칠중성만 언급되어 있지만,<sup>17)</sup> 1853~1856년에 발간된 『여도비지』에는 칠중성을 비롯해 아미성, 육계(토)성, 호로고루, 수철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sup>18)</sup> 1861~1866년에 발간된 『대동지지』에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sup>19)</sup>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단, 『여도비지』와의 차이점을 꼽자면 칠중성을 ‘토탄성’<sup>20)</sup>으로, 호로고루를 ‘호로탄고루’로 적은 점 등인데, 이는 고적과 관련된 전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호로고루는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아 1916년에 발간된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에 상세한 조사 내용이 실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호로고루의 도면·사진과 함께 삼국시대 성곽으로서의 중요성이 서술되었는데,<sup>21)</sup> 이는 호로고루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보고인 셈이다(그림 1).

17) 『江漢集』 卷13, 神道碑 唐故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新羅國上將軍金公神道碑銘. 『海東釋史 續集』 卷14, 地理考14 新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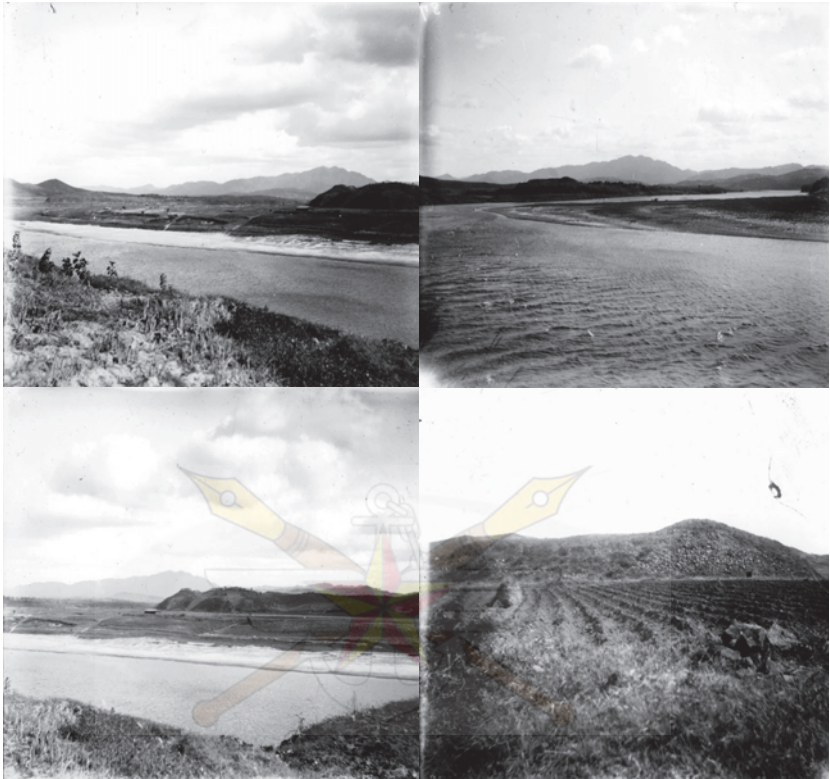
18) 『輿圖備志』 卷4, 京畿道 積城縣.

19) 『大東地志』 卷3, 京畿道 積城.

20)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토탄고성(吐呑古城)으로 적혀 있는데, 홍재선은 토탄이 말 그대로 ‘토하고 삼키다’, 즉, ‘뺏기고 빼앗는’ 삼국시대 이래 격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敎美術』 7, 1983, 22쪽.).

21)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163~166쪽.





〈그림 1〉 호로그루 전경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sup>22)</sup>

이후 1942년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sup>23)</sup>와 19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sup>24)</sup>에서도 호로그루를 삼국시대에 축성된 석축 성곽으로 인식하였으며, 1990년에 발간된 『한국의 성곽과 봉수』<sup>25)</sup>에서는 호로그루의 또 다른 이칭으로 이잔미성(二殘眉城)을 거론하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검색.

23)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長湍郡)』, 1942, 58쪽.

2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223쪽.

25)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270~273쪽.



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었지만, 조선시대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 더 구체적인 현황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백제가 판축 토성을 먼저 구축한 뒤 고구려가 석축을 쌓고, 신라가 마지막으로 성을 보강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sup>26)</sup> 이후 1993년에는 육군박물관에서, 더욱더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고구려가 호로하를 건너는 백제 또는 신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한 제일선의 진지로 해석하였다.

한편, 1991년 지표조사 때까지만 해도 성 내부가 양호한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성 내에 축사가 건설되는 등 빠르게 훼손이 진행되었다.<sup>27)</sup> 하지만 성 내부가 본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토지 소유주가 성 내부에 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증장비로 성 내부를 약 1m 정도 삭토한 것이다. 성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동문지와 상당 부분의 유구가 이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 및 성 내부는 이미 훼손된 지점을 중심으로 층위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층위상에서 확인된 유물을 분석한 결과 고구려가 초축한 이후 신라가 점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8)</sup>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차 발굴이 이루어졌고, 성 내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국유지에 해당하는 동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저부와 중심부는 토성을 쌓듯이 판축을 하고 내외벽을 석축으로 쌓은 후 보축성벽으로 마감한 고구

26) 김성변, 앞의 논문, 1992, 234쪽.

2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78~88쪽.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1999, 51~152쪽.

러만의 독특한 축성기법을 확인하였다. 출토 수량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고구려 기와가 수습된 유적 중 최다이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당시 유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의 분석 결과,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호로고루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가, 이후 고려시대에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조사단은 해석하였다.<sup>29)</sup>

2차 발굴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이후 2005년 12월~2006년 9월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 내부에 대한 잔존 유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 전 GPR 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의 현무암반 지형 위를 성토하거나 고토양층을 굴착해 성 내부를 평탄화했음을 확인하였다. 흥련봉 2보루나 남성골산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책 열과 함께 지하식 벽체 건물지(집수시설), 추정 우물지, 지상 건물지와 와적층 등을 조사하였다. 와적층 사이에서 수습된 다량의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고루에 군창(軍倉)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되었고, 각종 명문 토기와 벼루, 저울추 등이 출토됨으로써 호로고루가 일대의 관방시설을 관장하는 사령부이자 행정적인 기능도 겸했던 곳으로 조사단은 이해하였다.<sup>30)</sup>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2009년 4~6월에 실시한 3차 발굴에서 지하식 벽체 건물지, 목책 유구, 와적층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1년 5월~2012년 3월까지 시행한 4차 발굴에서는 지하식 벽체 건물지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호로고루 정비계획에 따른 성 내부조사, 그리고 성 외부 정비보존대상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호로고루 동벽은 토성을 석축으로 개축한 것이 아니라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결합한, 조사단이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으로 명명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법이

2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3, 313~320쪽.

3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297~304쪽.

적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외 ‘상고(相鼓)’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제 북편, 연화문외당과 치미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호로그루의 위상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집수시설에서 수습된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그루에서 쌀과 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였고, 동물 유체 동정 결과 수습된 돼지의 유체가 사육종 돼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sup>31)</sup>

마지막으로 2016년 3월에는 1차 조사 시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했던 동벽 남측 치성 구간에 대한 정비·복원에 앞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차에 걸쳐 조성된 치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치성 북측벽에 대한 해체 조사를 일부 실시하여 후대 성벽과 치성의 선후 관계, 2차에 걸쳐 조성된 치성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하였다. 그 외 입회조사를 통해 고구려 보축성벽 안쪽에서 고구려 성벽을 확인하고, 고구려 성벽 하단부 외면에서 화돌 1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sup>32)</sup>

이처럼 호로그루는 총 다섯 차례의 발굴을 통해 임진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유적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범위가 유적 일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호로그루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2000년 6월 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1~2차 발굴을 통해 호로그루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2006년 1월 5일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경기도는 도내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sup>33)</sup> 그밖에 연천군에서도 3개 성을 대상으로 한

3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25~485쪽.

32)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33)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

〈연천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sup>34)</sup>

조사 완료 후 현재 호로그루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지역 축제가 열리는 등 연천군의 새로운 문화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sup>35)</sup>

## 2. 학술연구

고구려 남부전선에서 확인되는 수십 개소의 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방유적이다. 황해도 일원의 고구려성은 총 23개소가 확인되는데 그중 대형 성곽(둘레 3km 이상)은 9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대형 성곽으로 분류 가능하다.<sup>36)</sup> 또한, 양주분지 일원부터 한강 유역 사이에는 60여 개소에 달하는 소형 관방유적(보루)이 축조된 것과 달리 임진강 유역에는 다양한 관방유적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특히,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3개소를 비롯한 여타 유적에서 확인된 고구려 토기는 아차산 보루군에서 수습된 6세기대 토기와 다른 5세기대 토기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sup>37)</sup> 그 외 덕진산성을 비롯한 육계토성, 이잔미성, 칠중성, 성동리산성, 아미성 등에서도

---

계획』, 2008.

34)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5)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일환으로 호로그루 일대에 대단위 해바라기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로그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삼족오 석상을 제작·설치하는가 하면 그해 9월에는 2002년 민화협이 추진했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결과물인 광개토왕비 모형을 기증받아 호로그루 인근에 세웠다.

36)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37)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가 확인되어 해당 유적이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음을 알려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로고루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지 않은 학술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2007년 서울경기고고학에서 개최한 <2006년도 서울·경기지역의 주요 발굴사례> 정기발표회, 2008년 광주진구·한국고대학회에서 개최한 <2008 고구려 역사문화 계승을 위한 학술대회>을 비롯해 2017년 한국성곽학회에서 개최한 <고대 성곽(古代城郭)의 수축(修築)과 개축(改築)>, 2018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과 중부고고학회가 개최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21년 연천군에서 주최한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등 최근까지도 호로고루를 위시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학술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박물관은 2005년 특별전 <우리 곁의 고구려>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출토된 각종 고구려 관련 흔적들을 소개하였으며, 부산 북천박물관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공동으로 2012년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라는 특별전을 개최해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각종 고고 자료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호로고루 이외에도 무등리보루군, 덕진산성 등에서 괄목할만한 조사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덕진산성은 2017년 1월 19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무등리보루군 또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학술 활동 및 전시 개최 등의 후속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남한 각지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조사·연구됨에 따라 호로고루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또한 ‘고구려 관방체계’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최종택,<sup>38)</sup> 심광주,<sup>39)</sup>

38)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39)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서영일,<sup>40)</sup> 백종오,<sup>41)</sup> 양시은,<sup>42)</sup> 신광철<sup>43)</sup> 등 다수의 연구자가 관련 논고를 발표하였고, 임진강 유역부터 양주분지 일원,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남진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각종 고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주요 성곽의 축조 시기와 구조, 축조집단과 점유집단에 대한 이해, 관방체계와 그에 따른 영역 변천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호로그루 개별 유적에 관한 연구보다는 임진강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호로그루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준선<sup>44)</sup>은 적성 지역의 지리학적 특징을 살펴본 뒤 고구려 관방유적의 분포 범위와 연결해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울의 분포와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룬 뒤 여울이 갖는 지리적 이점과 그 주변에 축조된 관방시설이 결합하여 방어력이 극대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자연지형과 교통로, 관방시설을 단일한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종오<sup>45)</sup>는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와 동물 뼈의 출토 상황을 토대로 군사시설을 제의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았다. 즉, 임진강 유역의 호로그루와 한강 유역의 흥련봉 1보루 등 지역 내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에서 동맹 제의와 같은 시조전승 관련 제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한 것인데, 관방유적을 군사가 아닌 의례의 공간이라고 본 시각이 신선하다. 그 외 남한지역 전체

40)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41)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42)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43)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44)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45)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의 관방체계 속에서도 특히 임진강·한탄강 일대에 주목하여 관방 유적과 하천로와의 상관성을 다루는 논고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46)</sup>

이준정<sup>47)</sup>은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돼지 뼈를 분석하여 이를 야생 종이 아닌 사육종으로 분류하였다. 삼국시대 이후로 사육종 돼지 자료가 다소 증가하지만, 당시 돼지 사육이 보편화하였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 해당 유적에서도 실제 소의 출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보면 사육종 돼지는 의례적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승(騎乘)이나 축력(畜力)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사육종 돼지 자료가 호로그루에서 다수 확인된다는 점은 앞서 제의의 측면을 강조한 백종오의 연구와 연계해 생각해 볼 여지가 크다.

권순진<sup>48)</sup>은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3대 성(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에 대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논자는 전장 상황에 따라 성곽의 성격 및 운용범위가 달랐을 것으로 보고 공격과 방어 시 3대 성의 운용에 대해 추론하였다. 해당 성곽들이 단순히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군사기지였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기별로 성격과 운용범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본 점이 흥미로웠다.

이형호<sup>49)</sup>는 호로그루 내에서 층서적으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구를 선별한 뒤 해당 유구에서 수습된 토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동이와 몽촌토성·사비나성 동나성 하부에서 출토된 동이를 비교 검토하고, 방사성탄소연대

46)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47)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徴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160~162쪽.

48)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그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軍史』 83, 2012.

49)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토기를 총 3기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남진이 4세기 후엽, 475년, 529년, 568년 등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아 통설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영일<sup>50)</sup>은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후대에는 서울과 개성을 잇는 임진나루를 강제하는 덕진산성이 중요했지만, 고려시대 이전에는 적성(호로고루-칠중성) 일대가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지였다고 보았다. 임진강 유역에 구축된 관방체계는 서쪽에 위치한 한강하구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임진강 일대가 당시 고구려의 핵심적인 방어선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심광주<sup>51)</sup>는 호로고루 발굴에 참여하면서 일찍부터 호로고루의 축조기법에 대해 다수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고구려의 독특한 축조기법을 ‘토심석축공법’이라고 명명한 그는 공법의 장점으로 축성 용이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질적인 두 재료의 특성상 1,5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곽이 상당 부분 붕괴할 수밖에 없었고, 발굴 결과 확인된 외형적인 모습만을 기준으로 성곽을 복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sup>52)</sup>

고광의<sup>53)</sup>는 남한 각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명문을

50)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207~208쪽.

51)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52) 최근 고구려 관방유적의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본 연구가 나왔다. 논자는 토성의 외곽을 제거한 뒤 석벽을 덧댄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고구려 성곽 역시 동일한 축조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480~481쪽).

53)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227~228쪽.

분석한 후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토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서법에 능숙한 여러 사람이 새긴 글자로 보았다. 특히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상고’는 필법의 완성으로 일컬어지는 영자팔법(永字八法)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로 최상급 서사 능력을 갖춘 사람의 솜씨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문자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병사가 상주하였다는 점에서 호로그루가 다른 주둔지보다 위계가 높은 사령부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윤성호<sup>54)</sup>는 무등리 2보루·호로그루에서 고구려의 상징과도 같은 적갈색 기와 건물이 붕괴한 것은 곧 임진강을 사이에 둔 신라와 고구려의 대치가 종식되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호로그루를 확보한 신라는 이를 수·개축하여 대당 전쟁의 최전선으로 활용한 만큼 호로그루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의 연구사를 검토했을 때, 넓게 보면 고구려의 남부전선, 좁게 보면 임진강 유역 및 파주·적성 일대의 관방체계를 논할 때 호로그루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하류 쪽에서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울(호로탄)을 감제했던 곳,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한 다수의 기와·치미가 출토되어 다른 관방시설에 비해 그 위상이 높았던 곳,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를 매개로 성 내에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던 곳, 수준 높은 문자 활동을 영위했던 주둔군의 존재와 군창으로서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로그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54)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71~72쪽.

### Ⅲ.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고루

#### 1. 고구려 남부전선 변천사

서북한 지역과 황해도 일대를 확보한 고구려는 4세기 초반 이후에는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에서 백제와 접경하게 되고,<sup>55)</sup> 초반에는 백제가 우세하여 양국의 국경은 황해남도까지 이동하였다. 하지만, 4세기 말 광개토왕이 거둔 군사적 성과로 인해 전황은 급격하게 고구려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구려 남쪽 변경을 중심으로 고구려 남부전선이 성립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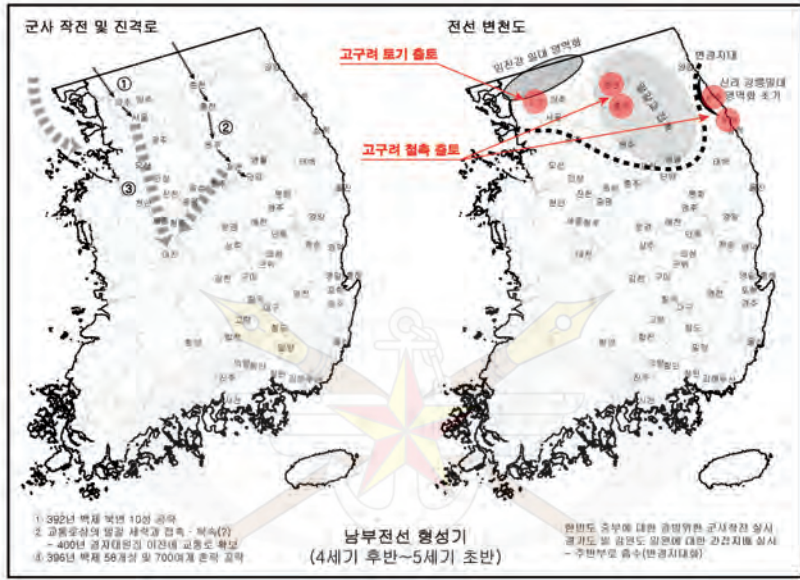
백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수곡성(394)과 패수(395)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지만 모두 패하고, 오히려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백제는 58개 성과 700여 개 촌락을 빼앗긴다. 이로써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고구려는 경기 북부 일원과 한강 유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다.

전선의 변화상은 일반적으로 ‘형성→확장→고착·안정→소멸’의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고구려의 남진 시점과 경로, 점령 및 통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기에 남부전선은 지역마다 상황이 달랐으며, 이를 서울·경기 지역과 중원 지역, 강원도·경상도 일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부전선 ‘형성기’에 고구려는 남평양을 건설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조밀한 관방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을 주변부로 흡

55) 책계왕 원년(286), 대방을 두고 고구려와 백제군이 대립했다는 기록을 보면 3세기 후반까지는 양국 사이에 완충지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314년까지 대방군이 존속했지만,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해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했다는 것을 보면, 고구려가 당시 완충지대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한강 유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일 여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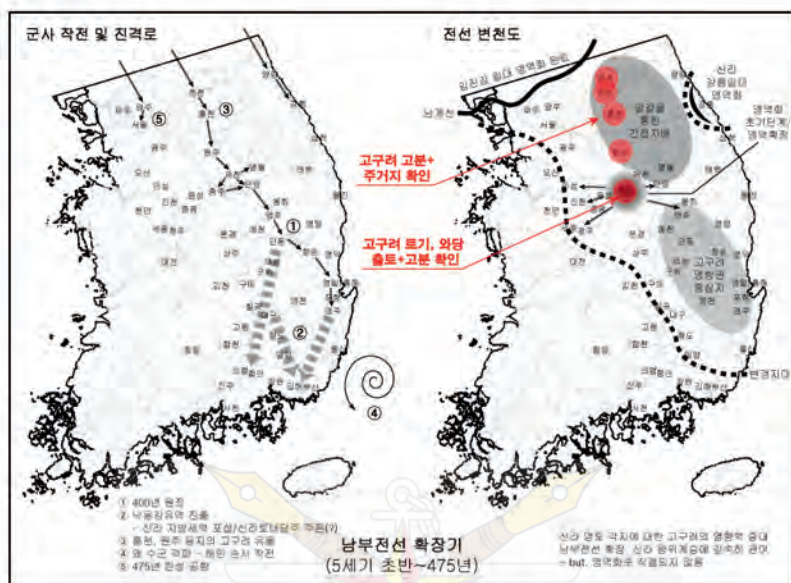
수하였다. 더불어 강원도 일대로 진출한 고구려는 그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여 남진(南進)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로 등을 확보하였다(그림 2).



〈그림 2〉 남부전선 형성기의 상황

남부전선 ‘확장기’에는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가 조밀하게 구축되고, 경자년(400년)의 군사 작전을 통해 경상남도 깊숙이 진출한다. 내물마립간의 죽음, 실성의 귀환과 즉위 등 402년 신라에서 긴박하게 벌어진 정치적 상황에 고구려가 개입하면서 실성마립간은 즉위 내내 고구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뒤이은 눌지마립간마저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지해 즉위(417)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신라에 더욱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그림 3).<sup>56)</sup>

56) 마립간기 신라·고구려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들을 참고하면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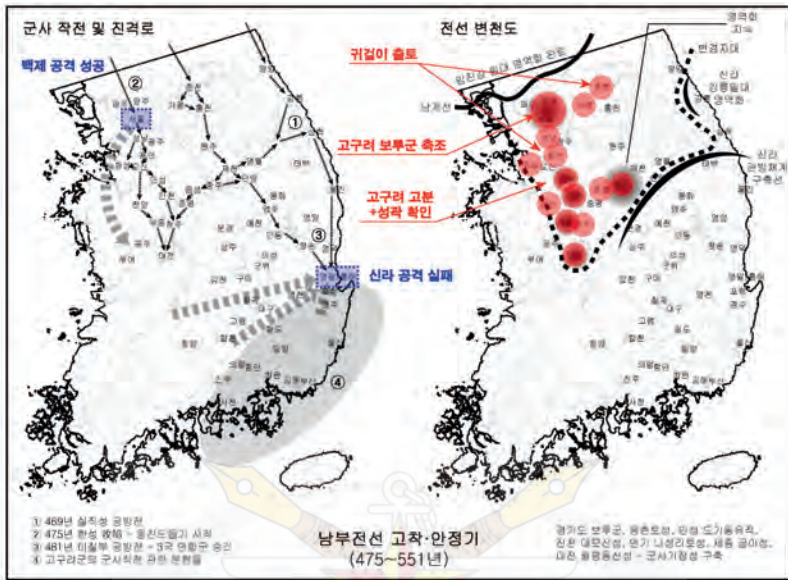


〈그림 3〉 남부전선 확장기의 상황

남부전선 ‘고착·안정기’가 되면 확장일로에 있던 고구려 남부전선 전면에 걸쳐 고착화가 진행되면서 일부는 영역화가 진행되고, 일부는 백제·신라와의 경합 속에서 전선이 진퇴(進退)를 거듭한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가 공고해지며, 고구려의 내지로서 자리매김한다(그림 4).

(신형식, 「증원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405쪽;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關連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조한정, 「백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50~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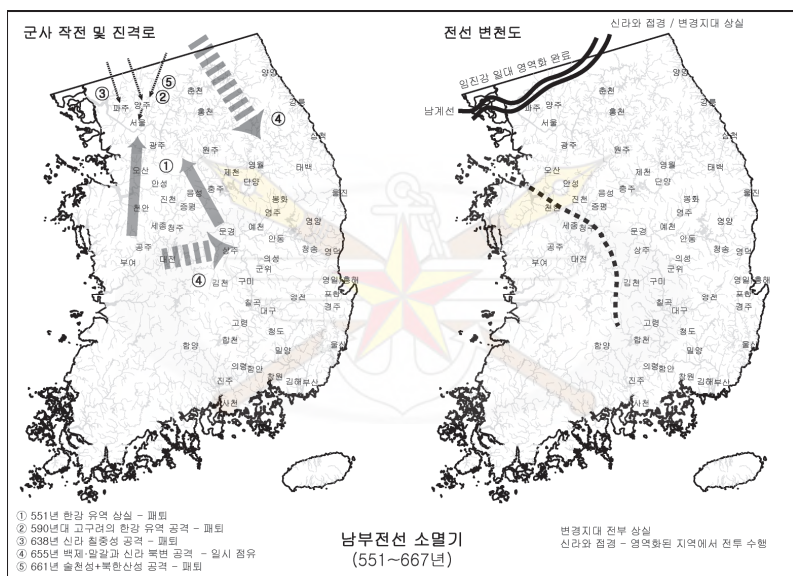
〈그림 4〉 남부전선 고착·안정기의 상황

마지막으로 남부전선 ‘소멸기’는 6세기 전반 영동 지역의 영역화를 완료하고 중원 지역까지 진출한 신라<sup>57)</sup>에 의해 고구려의 영토가 점차 북쪽으로 밀려나는 시기이다. 한반도 중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590년대에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는 등 고구려도 재차 공세를 강화하지만, 이후 양국의 경계는 임진강 유역으로 정리된다(그림 5).

고구려는 6세기 후반부터 점차 축소된 전선을 확장해 외곽에 변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영역화된 점령지에 구축된 신라의 방어체계를 깨뜨리기는 어려웠다. 특히, 7세기에 접어들면

57) 강중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15쪽.

서 남부전선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중원을 통일한 수(隋)·당(唐)과 장기간 대전(大戰)을 치르는 바람에 지속해서 국력이 쇠퇴(減退)한 것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훗날 요동 및 평양·황해도 일대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황폐해졌고, 이는 심대한 국력 상실로 이어져 다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sup>58)</sup>



〈그림 5〉 남부전선 소멸기의 상황

이상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지역별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 형성기부터 소멸기까지 계속 고구려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수백 년에 걸쳐 고구려가

58)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b, 535~545쪽.



확보했던 만큼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표 1〉 각 시기·지역별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 일람

시기	서울·경기 지역	충원 지역	강원도 및 경상도 일원
형성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임진강 유역 - 토기		춘천·홍천 일대 - 철족
	주거지(생활)		주거지(생활)
확장기 (5세기 초반 ~475년)	임진강 유역 - 토기	충주 일대 - 토기 및 와당	홍천·원주 일대 - 토기
	관방(성곽),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수혈유구·주거지(생활)
고착·안정기 (475~551년)	임진강 유역 경기 북부 한강 유역 경기 남부 - 토기 및 철기	충청남도 일대 충주 일대 - 토기 및 귀걸이	춘천 일대 - 귀걸이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소멸기 (551~667년)	임진강 유역		

## 2. ‘호로그루’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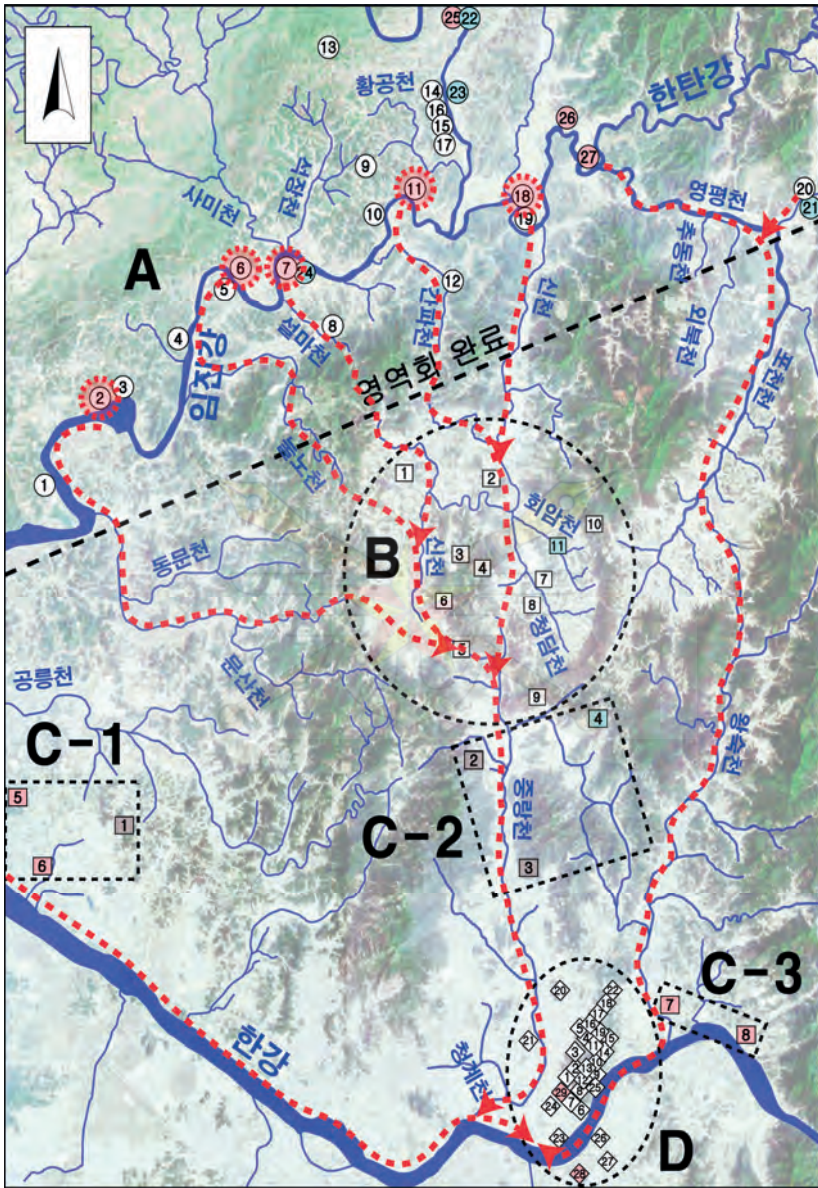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성곽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고구려 남부 전선에 소재한 성곽은 대부분 백제로부터 공취(攻取)한 것이며, 고구려가 새롭게 쌓은 관방시설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다.

실제 3세기 말까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고구려

59) 고고 자료뿐만 아니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고구려 지명 역시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장기간 점유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성곽은 태조대왕이 쌓았다고 하는 요서 10성을 포함한다고 해도 채 20개소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4세기 이후 남부전선 확장 과정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성으로는 평양성 및 평양 동황성을 제외했을 때 390년 백제가 공파(攻破)했다고 기록된 ‘도압(곤)성’, 광개토왕 3년(394)에 나라 남쪽에 쌓은 7개의 성, 이후 나라 동쪽에 쌓은 6개의 성(409), 550년 백제가 빼앗은 ‘도살성’ 정도이다. 이중 현재 고고 자료와 합치되는 성곽의 존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공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직접 쌓은 성곽보다 백제로부터 공취한 후 재사용한 성곽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임진강 유역부터 그 이남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성곽을 보면 백제와는 다른 배경과 목적을 염두에 둔 축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로그루와 같이 중요한 도강 지점 주변에 축조된 성곽은 철저하게 축성 주체의 전략·전술적 시각이 반영된 관방시설이다. 이는 동일한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을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해당 지형이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 진출하기 이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주민들과 고구려의 인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림 6〉 한반도 중부 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대동지지』, 『적성현읍지(積城縣邑誌)』 등의 문헌을 보면 임진강 유역 중에서도 특히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옛 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성은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여울(개여울)을 비롯해 호로탄, 학여울 등이 자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도강을 막고, 수운을 통제하기 위한 관방시설이 주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호로고루와 이잔미성, 육계토성, 칠중성, 두루봉보루와 아미성 등 적성 일대를 방어하던 관방시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현재 확인되지 않는 관방시설이 고문헌에는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sup>60)</sup>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임진강 유역 내 다수의 관방유적에서 기와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그림 6, 표 2의 붉은색 글씨). 총 10개소의 관방유적에서 기와가 수습되었는데,<sup>61)</sup> 이는 남평양의 후보지인 한강 유역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오직 불사(佛寺)와 신묘(神廟), 왕궁(王宮)과 관부(官府)에만 기와를 사용했다고 한다.<sup>62)</sup> 물론 이외에도 기와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한데<sup>63)</sup> 이와 연계하여 최전방의 소형 군사시설인 보루에서 기와가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롭다.

60)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61) 대전리산성 주변에서 고구려·신라 기와편이 채집되어 기존에는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 6세기 중후반 경 신라 초축의 흔적들이 확인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대전리산성까지 포함하면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21개소 중 11개소에서 기와가 확인된 셈이다(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62)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高句麗.

63) 미천왕이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살면서, 밤마다 연못의 개구리가 울면 기와나 돌을 던져 조용히 시켰다는 일화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일반 서민도 기와를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관청이나 종교 시설 이외에도 기와가 사용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표 2〉 한반도 중부 지역 내 고구려 유적 범례<sup>64)</sup>

지역 구분	유적명	
임진강 유역 (A권역)	① 조랑진보루 ② 덕진산성 ③ 동파리보루 ④ 두루봉보루 ⑤ 이진미성 ⑥ 호로고루 ⑦ 육계토성 ⑧ 칠중성 ⑨ 광동리보루 ⑩ 아미리보루 ⑪ 당포성 ⑫ 아미성 ⑬ 강서리보루 ⑭ 고성산보루 ⑮ 무등리 1보루 ⑯ 무등리 2보루 ⑰ 우정리보루 ⑱ 은대리성 ⑲ 전곡리 목책 ⑳ 성동리산성 ㉑ 성동리 마을유적 ㉒ 강내리유적 ㉓ 삼거리 유물산포지 ㉔ 주월리유적 ㉕ 강내리 고분군 ㉖ 통현리 고분 ㉗ 신당리 고분군	
	양주분지 일원 (B권역)	㉘ 태봉산보루 ㉙ 소래산보루 ㉚ 도락산 2보루 ㉛ 도락산 3보루 ㉜ 불곡산 4보루 ㉝ 불곡산 9보루 ㉞ 독바위보루 ㉟ 고장산 2보루 ㊱ 천보산 2보루 ㊲ 천보산 5보루 ㊳ 옥정동유적
	양주분지 ~ 한강 유역 (C-1~3 권역)	㊴ 고봉산성 ㊵ 사패산 1보루 ㊶ 수락산 1보루 ㊷ 민락동유적 ㊸ 동패동유적 ㊹ 도내동유적 ㊺ 지금동Ⅱ 유적 ㊻ 덕소리유적
	한강 유역 (D권역)	㊼ 용마산 1보루 ㊽ 용마산 2보루 ㊾ 용마산 3보루 ㊿ 용마산 4보루 ㊽ 용마산 5보루 ㊽ 흥련봉 1보루 ㊽ 흥련봉 2보루 ㊽ 아차산 1보루 ㊽ 아차산 2보루 ㊽ 아차산 3보루 ㊽ 아차산 4보루 ㊽ 아차산 5보루 ㊽ 아차산 6보루 ㊽ 아차산 관방유적 ㊽ 시루봉보루 ㊽ 망우산 1보루 ㊽ 망우산 2보루 ㊽ 망우산 3보루 ㊽ 아차산장성 <sup>65)</sup> ㊽ 봉화산보루 ㊽ 배봉산보루 ㊽ 교문동 관방유적 ㊽ 구의동 보루 ㊽ 백련봉보루 ㊽ 아차산성 <sup>66)</sup> ㊽ 풍납토성 ㊽ 몽촌토성 ㊽ 가락동 고분군 ㊽ 중곡동 고분군 <sup>67)</sup>

※ 노란색 음영은 관방유적, 붉은색 글씨는 기와가 출토된 유적

64)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05쪽, 표 20 수정 후 게재.

65) 아차산장성은 기존에 조선시대 목장성으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구간마다 축조 기법이 다른 점, 토루의 규모가 단순한 목장성으로 보기 힘든 점,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고구려 남평양과 관련된 유구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65~469쪽).

66) 아차산성 남벽 및 배수구 내부시설의 중층에서 연화문 수막새 네 점이 출토되었다. 그중 원형으로 출토된 한 점은 인근의 흥련봉 1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며, 나머지 세 점은 호로고루 출토품과 동일하다. 아차산성 내에서 백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수막새를 통해 흥련봉 1보루가 존속되던 시점에 이 지역에도 일단의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67) 중곡동 고분군은 기존에 조사된 갑총과 을총이 6세기 후반대 신라 황혈식 석실



특히 고구려의 연화문 수막새는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1점), 한강 유역의 아차산성(4점)과 흥련봉 1보루(7점)에서만 출토되었고, 관방유적에서 확인된 와당 및 기와는 해당 유적을 단순한 군사시설로만 보는 시각에 재고를 요한다.<sup>68)</sup> 즉, 행정 치소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기능도 같이 고려하는 시각인데 인근의 생활·생산유적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무동리 2보루와 성동리산성, 육계토성을 제외한 순수 군사 거점으로 볼만한 유적에서도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백종오<sup>69)</sup>는 와당과 기와가 출토된 유적 내 해당 건물의 위계가 다른 곳보다 높았으며, 이곳에서 국내성에서 열리는 국중대회와 유사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sup>70)</sup>

임진강 유역에서 수막새와 기와가 모두 출토된 유적은 호로고루 한 곳뿐이다. 그렇다면 임진강 유역에서 호로고루가 중요하게 취급 받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호로고루가 갖는 지형적 특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 이남으로 내려올 때 사용하는 교통로를 꼽는다면 황해도 재령-해주를 기점으로 개성을 지나 파주-고양을 따라 서울 중심부까지 오는 재령로(A), 서흥과 평산-금천 등 자비령을 따라 이동해 적성을 통해 동두천과 양주-의정부로 내려오는 자비령로(B), 연산-수안-신계 등 방원령을 따라 내려오다가 철원-연천 등지를 통해 양주로 내려오는 방원령로(C), 마지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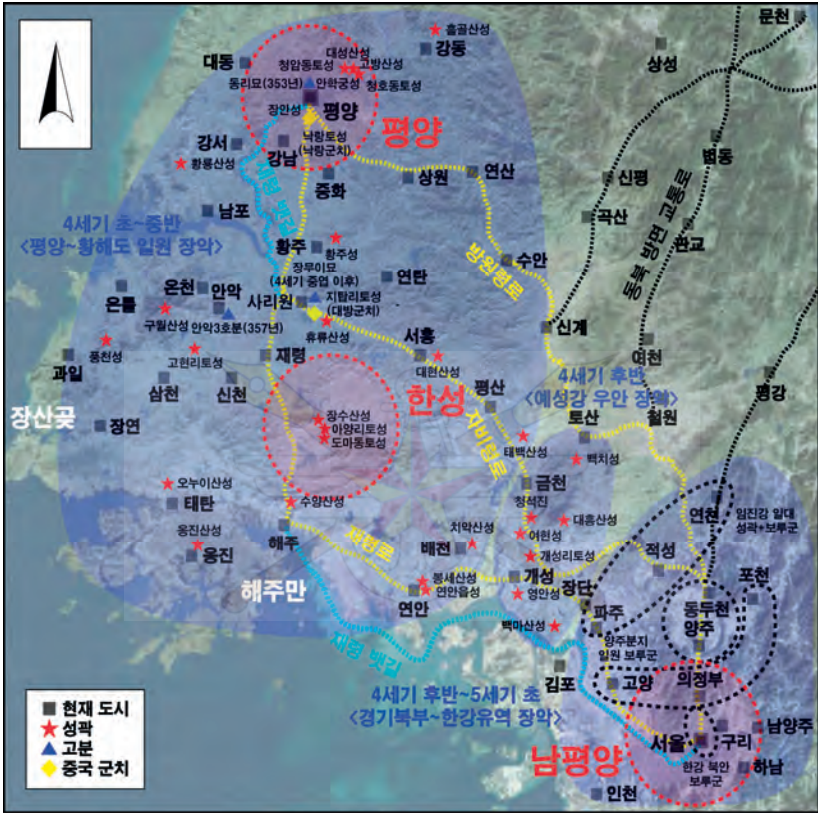
모로 밝혀졌기에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경기지역 신라 고분군은 모두 산지에 조성하며, 평지에 자리한 곳은 중곡동 고분분과 석촌동 고분군이 유일하다. 특히, 하천 주변의 평지에 대단위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비롯되는데, 능동 출토 금귀걸이를 토대로 봤을 때 중곡동 고분군이 남평양과 관련된 고구려 고분군일 가능성이 있다(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70~471쪽).

68)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238~239쪽.

69)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70)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的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으로 해주에서 서해 연안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와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뱃길(D)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7).<sup>71)</sup>



(그림 7) 고구려의 남부전선 확장도와 교통로

이중 재령로(A)는 임진강 하류를 관통하는 길로서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 교통로라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임진강은 상류와 하류의 강폭 차이가 심하여 상류는 200~500m에 불과하지만, 하류는

71) 권순진은 서영일이 제시한 교통로를 제1·2·3기동로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명칭만 다를 뿐 경로는 대동소이하다(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45쪽; 권순진, 앞의 논문, 2012, 174~175쪽).



강폭이 2.8km에 이를 정도로 넓은 곳도 있다. 유속은 3~4m로 빠른 편이지만 수직 단애가 없는 지점은 유속이 1~2m로 느리며, 수심도 1m 내외로 얕다.<sup>72)</sup> 그런 이유로 삼국시대에는 재령로 보다는 자비령로(B)가 보다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sup>73)</sup>

재령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이다. 문종 30년(1076) 양반전시과 규정을 살펴보면 1일정(日程)·2일정(日程)의 시지(柴地) 분급지역과 교통로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시지 분급지역은 개경 인근 지역으로 하루나 이틀 만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분포를 보면 개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X자형 간선대로가 지나는 곳에 자리한다. 사방으로 7개의 간선 도로가 뻗어 있는데 그중 장단-적성을 지나는 '장단도', 임진-파평을 지나는 '임진도' 이외에 임진강 하류를 건너 교하로 향하는 '낙하도'와 정주에서 조강을 건너 동성으로 향하는 '조강도'가 눈에 띈다. 해당 시지 분급지역의 분포상 특징을 보면 개경의 입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성강·임진강뿐만 아니라 조강과 한강을 건너는 교통로가

72) 임진강 상·하류의 지형적인 차이점은 조선시대에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정조 원년(1777) 4월 5일 강원도 관찰사 김이소의 상소, 정조 10년(1786) 4월 20일 좌승지 이시수의 상소를 보면 임진강 상류의 지형이 험하여 가뭄이 들면 강원도에서 대동미를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단의 고랑포까지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재·강성문·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319쪽).

73) 임진강은 서해안의 조석(潮汐) 또는 한강의 홍수량에 큰 영향을 받지만, 고랑포 부근을 기준으로 조석의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류에서는 최대 3.3~5.7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지만, 이 지점 상류부에서는 최대 1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며, 조위(潮位) 영향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임진강의 하상경사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삼국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662년 김유신 부대가 배를 타고 고랑포보다 하류 지점을 도강했을 수도 있지만, 수위가 1m가량 증가했다면 비록 고랑포 일대를 건넜다 하더라도 배를 타야 했을 수 있다(김상호·김원·최홍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36-2, 2003).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과 달리 하천을 이용한 수운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교역과 통제에 적절한 요충지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8).<sup>74)</sup>



〈그림 8〉 문종대 개경 인근의 간선대로<sup>75)</sup>

그중 조강도를 예를 든다면, 개경 아래쪽의 덕수현에서 조강도를 이용해 조강을 건넌 뒤 청교도를 따라 수안현을 경유하는 교통로가 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sup>76)</sup> 즉, 이전과 달리 수운과 육상교통로가 결합한 간선대로가 운영된다는 점이 삼국시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

74)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89~92쪽.

75)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2쪽.

76)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127쪽.

이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려 이전까지 한반도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를 꼽자면 임진강의 중·상류를 가로지르는 ‘자비령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서영일<sup>77)</sup>은 파주시와 양주시, 연천군의 경계에 있는 감악산을 기준으로 감악산 서로(감안산 서쪽-칠중성-육계토성-호로그루)와 감악산 동로(감악산 동쪽-아미성-수철성-적암리-어유지리-당포성지)를 구분하고 감악산 서로가 한반도 중부를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와 달리 백종오<sup>78)</sup>는 남북을 잇는 교통로 5개를 설정하고 감악산 서로(토산-사미천로-호로그루-설마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 대신 토산-사미천로-당포성-간파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감악산 동로가 신라의 주 교통로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662년 김유신의 진격로와 관련해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요근<sup>79)</sup>은 김유신이 건넌 칠중하라는 지명, 설마천과 두지나루·고랑포나루의 위치 등을 고려해 감악산 서로를 따라 신라군이 북진했을 것으로 보았다. 감악산 서로의 나루터는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이 서로 마주 보고 감제하고 있었기에 이를 당시 주요 교통로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이정빈<sup>80)</sup>은 김유신이 배를 타고 건넜다는 기사에 주목해 상대적으로 유량이 풍부한 중·하류로 도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감악산 서로, 즉 호로그루 앞을 지나는 호로탄 인근에서 건넜다고 보았다. 단, 김유신이 큰 길[大路]에서 잠복하고 있을 고구려군을 피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감악산 서로가 고구

77)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249~261쪽.

78)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城郭의 分布와 性格」, 『경기도박물관관보』 3, 2000, 79~81쪽.

79)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197~198쪽.

80)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53쪽.

려의 주요 교통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즉, 당시 주요 교통로는 감악산 서로가 아닌 동로라고 이해한 셈이다(그림 9).



〈그림 9〉 김유신 부대의 이동로(위)와 감악산 동·서로(아래)<sup>81)</sup>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7개로 세분해서 살펴본 박종서<sup>82)</sup>는 기존에 자비령로로 불렀던 교통로를 새롭게 정의하여 한성

81)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2005, 196~197쪽.

82)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로(웅진로)라고 명명하였다. 단, 호로고루(호로탄)와 육계토성(가여울) 등 여러 도강 처를 언급하면서 감악산 동·서로가 모두 쓰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각 교통로 상 비중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던 장단현과 증성현은 삼국통일에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중요성이 점차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단현은 북쪽 방면 교통로(우봉군-영풍군)와 서쪽 방면 교통로(송악군-예성강-폭지군)의 결절지였기에 7세기 말엽 이래 임진강 이북에 대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처럼 장단현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증성현(적성현)과 내소군(견주), 한양군을 거쳐 한강 변의 양진(광진)까지 도달하는 교통로가 이후 고려시대에 개경과 남쪽 지방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장단도로(長湍渡路)로 발전하게 되었다.<sup>83)</sup>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태봉이 철원에 도읍을 정했을 때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sup>84)</sup> 신라시대 철원 지역은 북방의 교통·군사 거점에 불과했지만, 태봉의 도성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당연히 철원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재편되었을 것이며, 예성강 유역 및 대동강 유역(토산-신계-평산-평양), 임진강 하류(연천-장단-개성-해주), 한강 유역(포천-서울-용인-안성-공주), 북한강 및 남한강 유역(화천-춘천-홍천-원주), 동해안(평강-안변) 등 방사상의 교통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철원에 도읍한 시기가 약 15년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봉의 교통체계는 통일신라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며, 기존 교통의 요지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했을 가능성이 크

2023, 26~44쪽.

83)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206쪽.

84)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133쪽.

다고 본다.

한편, 고려시대 조세 운송체계는 경창(京倉) 직납, 조창(漕倉) 경유, 현지 수납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조창을 경유했다가 경창으로 향하지 않고, 경창으로 직접 수납하는 것이 유리한 군현들이 있었다. 이들 군현은 모두 개경 인근에 있으며, 육상교통로인 역도(驛道)와 수운이 결합한 운송 네트워크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개성부(開城府)·양광도(楊廣道)·교주도(交州道)·서해도(西海道)에 속하는 95개 군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중 양광도 내 개경과 남경을 잇는 교통로가 바로 ‘청교도(靑郊道)’였다. 청교도는 임진도와 장단도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경과 남경이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 두 곳의 교역량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sup>85)</sup>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임진강을 건너는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존재했지만, 본래 주요 도로로 이용된 것은 적성 지역을 건너는 장단도로였다. 물론 임진도로 상에 있는 임진현, 봉성현, 고봉현 역시 삼국시대부터 군현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오가는 교통로가 존재했겠지만, 11세기 전반 까지도 임진도로가 개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간선도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헌 사료나 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1세기 중반 이후 국왕의 남경 순수가 잦아지고, 장단도로 상의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하여 임진도로 방면으로 이치(移置)하면서<sup>86)</sup> 개경-남경을 잇는 최단 거리인 임진도로가 중요시되었고, 이전에는 장단도로의 보조 기능을 했던 임진도로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졌다.

85)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8~126쪽.

86) 정요근, 「고려중·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217쪽. 기존에 개경과 남경까지의 거리는 216리에 달했지만, 이후 166리로 줄어들어 임진도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려 후기 임진도로의 중요성이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단도로가 중요하게 취급받았던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그건 바로 ‘군사도로’로서의 장단도로가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sup>87)</sup> 대규모 군대가 신속하게 남하해야 하는 경우 장단도로가 임진도로보다 더 유리했는데, 임진강 상류의 강폭이 좁고, 여울을 통해 도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남쪽의 한강 횡단 시에도 적용되는데, 임진도로와 연결된 사평도보다 장단도로와 연결된 광진 방향의 도강에 유리하였다. 실제, 고려 말 우왕 연간 왜구가 양광, 경상, 전라 3도를 약탈하자 이성계의 토벌군이 장단을 거쳐 남하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군이 남경을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군사 작전은 장단도로를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0).<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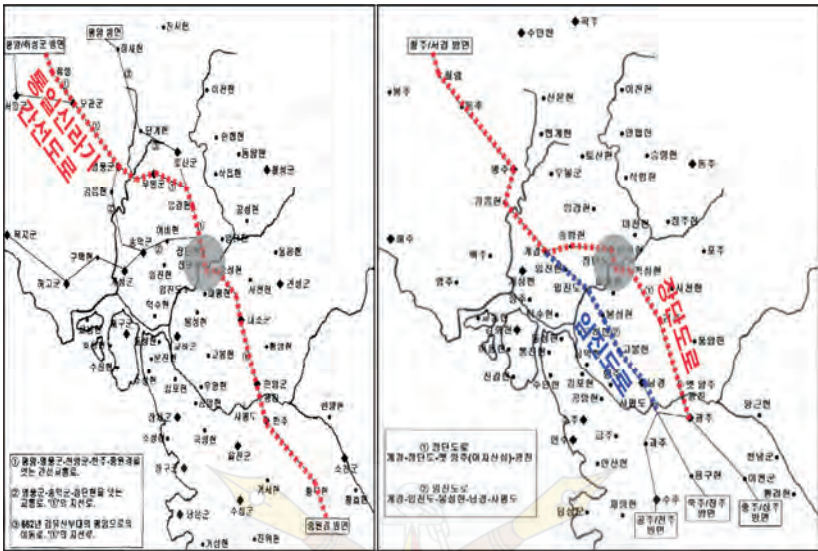
이상 호로그루 인근의 지형과 교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호로그루 인근의 고랑포가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임진강은 하류에서 연천군 전곡읍 도감포까지는 유로가 동서 방향에 가깝지만, 도감포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 유로가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87) 정조 5년(1781) 12월 9일, 경기 관찰사 이형규는 교동과 심도(沁都: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주의 방어사(防禦使)를 이전처럼 ‘장단’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장단을 ‘기서(畿西) 제일의 요충지로서 동으로 신경(神京:도읍)을 호위하고, 서로 송도(松都:개경)를 견제하며, 남으로 심도의 문호(門戶)’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단 지역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인식됐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88)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11쪽.





〈그림 10〉 통일신라기 간선도로(좌)와 고려시기 장단도로(우)<sup>89)</sup>

연천에서부터 북쪽의 삭령과 조선시대 토산, 안협,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남북 방향의 물길에 해당한다. 연천 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는 강 주변에 평지가 거의 없는 협곡지대에 가깝지만, 삭령 일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대지가 펼쳐져 있어 해당 지역이 교통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다. 삭령을 중심으로 북쪽 방면의 이천, 남쪽 방면의 연천, 동쪽 방면의 철원, 서쪽 방면의 개성 등 사방으로 교통로가 연결되며, 작은 배는 내륙수로를 따라 안협까지 통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토산과 안협 일대는 주변의 조세를 모아 수로를 따라 연천 왕징의 징파도로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한양까지 운송하였다. 안협과 토산 또한 임진강 상류의 수륙 교통의 결절지로 기능하였다.<sup>90)</sup>

89)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01/207쪽.

90) 서영일, 앞의 논문, 2018, 128쪽.

그렇게 봤을 때 호로탄 일대는 고구려가 남하하기 이전부터 남북을 잇는 주요 도강지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이전, 이곳에 도강을 통제할만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임진강 유역을 점유했던 선주민은 문헌에 ‘말갈’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상 ‘중도문화’를 영유했던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임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백제와 국초부터 끊임없이 상쟁(相爭)했으며, 백제는 말갈과의 대립 과정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양측의 전쟁 양상은 주로 말갈의 공격, 이에 대한 백제의 방어 및 반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말갈이 백제와 같은 영역 국가를 이루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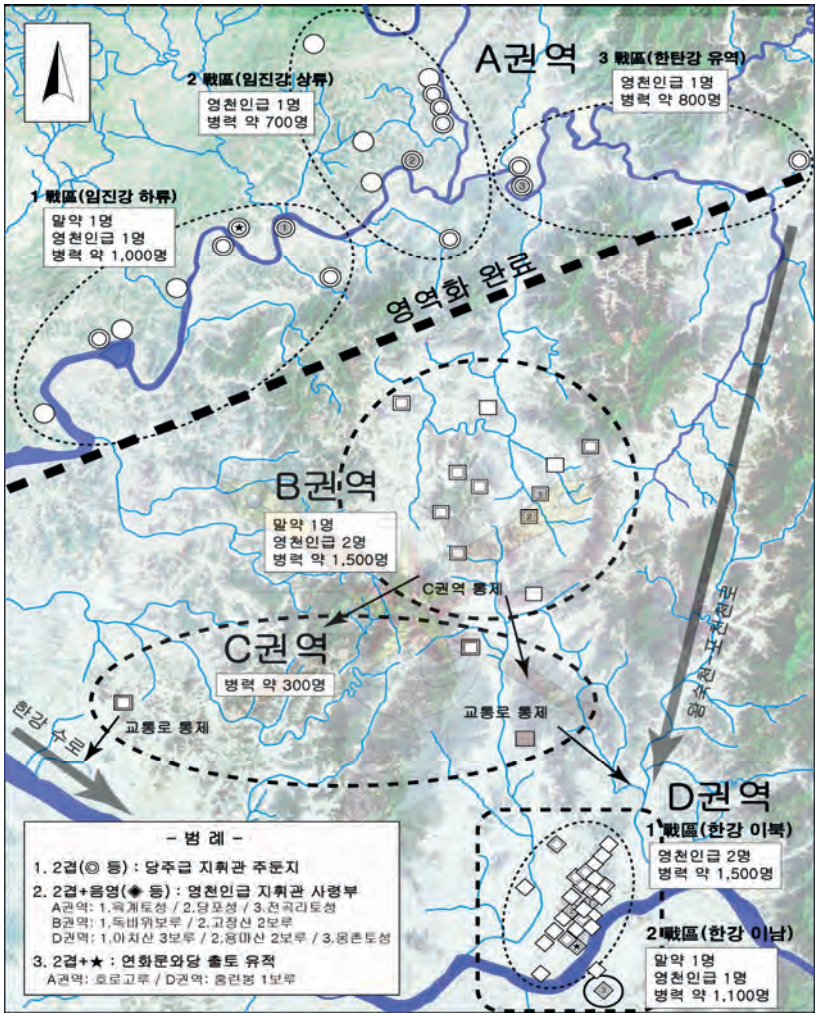
한편, 국초 양측의 접전 기록을 보면, 국경에서 광범위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양측의 세력권이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점이지대(漸移地帶)의 형태로 세력권이 나누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sup>91)</sup> 즉, 임진강은 양측의 경계가 아니라 양측의 생활권에 모두 속한 공유하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을 장악한 백제가 북쪽으로 예성강<sup>92)</sup>을 넘어 황해도 일원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은 백제의 경계가 아닌 내지로 인식되었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별도의 관방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sup>93)</sup>

91)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92) 진사왕 2년(386)에 구축한 관방이 예성강 유역을 경계로 구축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백제의 북계를 이루는 자연 경계는 임진강이 아닌 예성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93) 서영일, 앞의 논문, 2017, 211쪽. 백제가 임진강보다 예성강 라인을 더 중시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더불어 임진강 일대에도 중 도강치를 중심으로 전방의 백제 성곽을 지원하기 위한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백제가 본격적



〈그림 11〉 고구려 남부전선 군사편제 추정도<sup>94)</sup>

으로 북쪽 경계에 관방체계를 구축하는 4세기 이후는 이와 같은 해석이 적절하겠지만,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관방유적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백제 측이 임진강을 대하는 시각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4)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4쪽, <그림 4> 수정.

하지만 고구려가 남하한 이래 임진강은 공유하천이 아닌 자연적인 경계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일차적으로 임진강을 따라 그 양안에 관방시설을 구축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의 중간 도강지이자, 다리를 놓지 않아도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고구려는 그 연안에 호로그루를 축조하고 호로하를 지나는 교통로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자연도로의 성격이 강했던 교통로는 인간의 이동을 위한 물리력이 투사된 대상으로 변했으며, 국경에 설치된 새로운 관문(關門)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된 것이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에 주둔했던 병력의 규모를 추정할 기존 연구<sup>95)</sup>를 참고하면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지휘하는 영천인급 지휘관과 더불어 상위의 말약급 지휘관도 주둔했다고 가정했을 때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이 갖는 위상은 다른 지역의 관방시설을 압도했을 것이다(그림 11). 치미나 기와의 유무만으로 유적의 성격과 위상을 가늠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만, 다수의 명문 토기가 수습된 점이나 제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성곽마다 성격이 달랐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즉, 보다 규모가 큰 육계토성이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호로그루는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흥련봉 1·2보루가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아차산 3·4보루는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호로그루는 남북을 잇는 도강지 및 육상교통로를

95)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5쪽.



감제하는 관문이자, 임진강 하류로 배가 출발하는 최초의 나루터(고랑포)를 통제하는 곳이었다.<sup>96)</sup> 이러한 수륙 교통의 이점을 토대로 각지의 물산이 집산(集散)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반 백성의 교역은 물론 남부전선의 군수체계에도 중요한 곳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다량의 탄화 곡물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호로그루의 군창에 적재된 군량미가 자체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로 배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유적 내에서 출토된 10여 종의 작물 중 쌀과 조의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벼 껍질을 통해 호로그루에서 탈곡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sup>97)98)</sup>

이러한 배경에서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승 신앙과 관련된 제천행사(돼지)뿐만 아니라 수렵제(사슴 및 고라니), 전쟁 관련 우제점(소), 회맹 의식(말) 등에 쓰였다고 본 견해<sup>99)</sup>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군사상 요충지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외에도 장거리 교역 및 항해에서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를 위한 제의도 했을 것이다.

한편, 호로그루에서 확인된 다수의 명문 토기는 당시 최상급 서사(書司)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호로그루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병력과 무기의 출입, 근무와 작전에 관련된 문서 수발 등 단순한

96) 고랑포 일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도 밀물 시에 조수를 이용하여 상선들이 모여 들었으며 하항 촌락이 번성했다.

9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66~467쪽.

98) 벽체 건물지에서 수습된 쌀이나 팥은 비슷한 시기 통일신라 병영터인 칠곡 문화유적 출토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고, 콩은 보다 더 큰 대립종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곡물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보급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323쪽.)

99)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140쪽.

군사·행정 업무라면 기본적인 서사 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작전 지휘나 군수 보급, 국경에서의 통관(通關) 업무나 물자의 집산, 행정문서의 수령과 전달, 각종 제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사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이다. 이는 호로고루가 단순히 군사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관방시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이상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중 호로고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경기 북부와 달리 임진강 유역에서는 시기가 빠른 고구려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파주 주월리유적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4세기 중·후반)로 편년되는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 생활·생산유적에서는 남하한 고구려 문화가 재지계 문화와 융화된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물질자료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생활유적 인근의 고구려 횡혈식석실묘 등은 4세기 중반 이후 경기~강원 일대로 남하하는 고구려의 문화가 재지 사회에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자료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이 축조·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구려 내지로서의 영역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 말기 남부전선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후퇴할 때까지 고구려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지역의 정치·군사 거점이었다고 할만한 성곽을 비롯한 다수의 보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방유적 인근의 생활·생산유적 및 분묘유적을 통해 안정적인 영역 확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와당을 비롯한 다량의 기와, 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임진강 도강의 길목을 통제하는 ‘호로고루’가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와의 활용처를 가늠했을 때 단순히 지휘관의 공관(公館)이나 관사(館



숨) 성격이 아니라 군정(軍政) 또는 군사시설 내 종교 관련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의 숫자와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유독 기와 출토 사례가 많은 것은 분명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북한 지역인 임진강 상류에서 심동리산성을 비롯해 성산고성, 만경산성, 거성, 노기산성, 삭령산성 등이 확인된다. 성벽 둘레가 채 1km도 안 되지만, 모두 기와가 출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거성의 500m 북쪽에서는 고구려 석실봉토분이 확인된 바 있다. 황해도와 함경도에 위치하는 고구려성 대부분에서 연화문와당을 포함한 기와가 출토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임진강 유역이 여타 고구려 내지와 큰 차이가 없는 분명한 고구려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령 구조곡 및 임진강을 따라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영역화했다는 점은 당시 고구려가 인식하는 ‘자국 영토’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sup>100)</sup>

#### IV. 맺음말

661년 12월 10일, 김유신은 부장 9명을 이끌고 군량을 운반하기 위해 고구려의 ‘계(界)’로 들어갔다. 그리고 662년 정월 23일, 김유신의 부대는 칠중하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자 김유신이 몸소 배를 타고 시범을 보이게 된다. 김유신의 부대가 고구려의 ‘계’에 들어갔을 때와 달리 강 건너 고구려의 ‘경

100) 강원도 내지에 고구려성이나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 신라 진출 이전까지 영역화 과정 없이 고구려가 강원도 일대를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 강릉 일대를 영역화한 신라와 춘천 등지에 소수의 횡혈석식실분을 남긴 고구려의 차이 등과 연결해서 이해할 부분이다.

(境)에 들어가기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당시 ‘계’와 ‘경’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와 달리 후자가 신라군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고구려의 영토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심리적 경계가 칠중하였으며, 칠중하는 같은 사료 안에서 과천(瓢川), 과하(瓢河), 호려하(瓠瀾河) 등으로 불린 것을 보면 고랑포 또는 호로탄 일대의 임진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곧 고구려 멸망기까지 임진강 이북이 고구려의 영토로, 그 이남의 어느 범위까지는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군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던 삼국 후기 호로그루가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히 변방의 성 1개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 작전에서 도하는 가장 위험한 수준에 해당하며, 무사히 도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개전 당일인 6월 25일, 고랑포 일대에 대한 포격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북안의 국군 제12연대는 북한군과 교전하며, 임진강을 따라 임진나루 쪽으로 후퇴하였고, 제13연대는 고랑포로 강을 건너 북한군 및 적성 방향으로부터 남하한 북한군 전차부대 등과 교전을 거듭하며, 파평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사이 제11연대는 제12연대 병력의 철수가 완료된 후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철교 폭파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북한군은 평양-사리원-금천-개성-문산-서울로 연결되는 경의도로(京義道路: 1번 도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국군은 병력을 보존하면서 후퇴를 거듭하여 28~29일에 걸쳐 각 부대가 행주와 이산포 부근에서 한강 도하 작전을 펼쳤다.<sup>101)</sup> 상기 사례는 삼국시대 이래 임진강 유역에 자리했던 주요 교통로가 현대에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단적

10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4장 개성·문산·봉일천 지구 공방전』, 『한국전쟁 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156~22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4절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6.25 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169~243쪽.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86년 진사왕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청목령-팔곤성-서쪽 바다에 이르는 관방을 구축하는데, 대체로 마식령산맥 서남단에서부터 황해북도 평산, 해주만으로 연결되는 선에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방시설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386년, 389년, 390년 전투에서 고구려는 백제를 상대로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결국 고구려군은 백제의 북쪽 관방을 넘어 그 이남의 임진강 유역을 공격하는 데에 성공한다.<sup>102)</sup>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이끄는 병사 4만은 백제 북쪽 변경의 석현성 등 10개 성을 함락한다. 석현성의 위치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관미성과 칠중성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임진강 이남의 파주 일대로 추정 가능하다.<sup>103)</sup>

국초 호로탄을 통해 남북을 오갔던 백제군은 말갈과의 교전에 중점을 둔 군사정책을 입안했을 가능성이 크며, 작전지역에 별도의 관방시설을 설치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말갈을 제압하고 예성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이후로는 임진강보다는 예성강을 국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진강 연안에 별도의 관방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성강 연안의 관방체계가 붕괴하고<sup>104)</sup> 임진강에서 도강하는 고구려군을 저지하지

102) 이를 두고 당시 고구려군이 수군을 동원해 백제의 관방시설을 우회 공격했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진사왕이 구축한 관방시설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큰 효용성이 없었던 마지노선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7~29쪽).

103)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104) 최근 비유왕 사망과 관련하여 백제 내부의 해씨 등 온건세력과 고구려가 연계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연구(이용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475년 고구려의 한성 攻陷 당시 참전했던 재증결루와 고이만년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데, 고이만년을 고이왕계 인물로서 개로왕 즉위 시 정변 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양기석)도 있다. 정변의 배후세력으로 북부 진씨(眞氏)가 거론되는 만큼 당시 정변에 실패한 백제 고위층이 고구려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백제 북방의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강 북안의 주요 군사 거점을 상실하고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군의 진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 작전 성공의 경험은 향후 고구려로 하여금 임진강 유역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구려는 임진강에 자리한 도강 지점마다 성곽을 쌓고 빠르게 교통로를 확보·통제하였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강제하는 호로고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그 이북을 영역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한강 유역을 점유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고구려의 남부전선이 확장되거나 백제·신라의 반격으로 후퇴할 때에도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으며, 주요 교통로인 자비령로를 통제하는 호로고루 또한 건재했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고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관문,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위력(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호로하를 건너는 행위마저도 신라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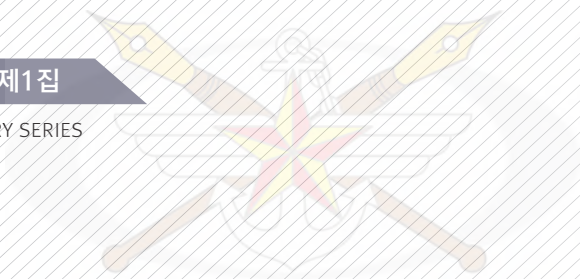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호로고루 앞을 지나는 장단도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로고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 위상에 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일이 되면 자비령로-장단도로가 재조명될 기회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에 따라 호로고루가 갖는 위상 또한 재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

관방체계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고구려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26~27쪽;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121~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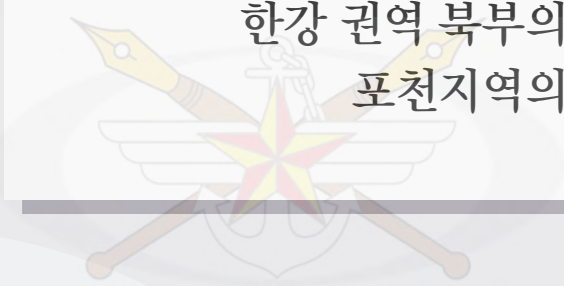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한강 권역 북부의 반월성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



| 김강훈





# 한강 권역 북부의 반월성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

김강훈

- I. 머리말
- II.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 III.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 IV.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의 경기도 포천(抱川)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선사 시대부터 서북·동북 지역의 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는 교차로이자 주민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었다.<sup>1)</sup> 특히 서울과 원산을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잇는 약 160km 길이의 추가령 구조곡은 일찍부터 한반도 동북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는데, 포천지

1)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 1997, 153~155쪽.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포천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 2012 참조.

역은 이 경로상에 위치한다.

포천지역은 수계로는 임진강 유역에 포함된다. 임진강 유역은 크게 임진강 본류 유역과 한탄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진강의 제2차 지류인 영평천은 포천시 이동면의 광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포천시 남단 소흘읍 축석령에서 발원한 포천천은 북쪽으로 흐르며 포천 분지를 지나 영평천과 합류하는데, 임진강의 제3차 지류이다.<sup>2)</sup> 한편 포천시 내천면 수원산에서 발원하는 왕숙천은 남서쪽으로 흘러 남양주를 지나 한강으로 흐른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영평천-포천천-포천 분지-왕숙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통해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성동리산성, 반월성, 고모리산성 등 포천지역의 성곽은 대체로 이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sup>3)</sup>

포천지역의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월성은 1994년 지표조사부터 2001년 6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유구와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국의 유물이 출토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반월성의 활용 양상이 검토되었다.<sup>4)</sup> 이는 반월성을 629년 고구려와 신라 간에 전투가 발생한 낭비성으로 비정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sup> 그리고 반월성에서는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이와 연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임진강-』, 2001, 64~65쪽.

3)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006, 305~311쪽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260~261쪽.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5)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1995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이후 낭비성 전투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攻防戰)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고, 삼국시대 한강 유역에서 포천지역의 군사 지리적 중요성이 확인되었다.<sup>7)</sup> 한편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의 일부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성동리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sup>8)</sup>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남진기와 신라 북진기 성동리산성의 활용 양상과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sup>9)</sup>

개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라가 반월성을 중심으로 구축한 포천지역 산성의 방어체계가 검토되었으며, 포천지역의 영유 주체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면서 나타난 관방체계의 변화상도 간략히 언급되었다.<sup>10)</sup>

더불어 한강·임진강 일대 관방체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과정에서 포천지역 관방시설의 위상과 역할이 검토되었다.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관방체계를 구성하였는데, 그중 포천천로가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신라가 한강 유역을 영역화하며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철원 방

---

2005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최근까지 이루어진 반월성의 보수공사 현황은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 2021, 288~289쪽 참조.

7)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2001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 박중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변천」, 『사학지』 62, 2022.

8)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9) 백중오,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10)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 『文化史學』 6·7, 1997 ;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72~279쪽.

11)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 경기도박물관, 1999 ; 白種伍, 「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2007.

면 방어의 중심축으로 포천지역의 위상을 설정한 연구도 있다.<sup>12)</sup> 한편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 속에서 관방체계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포천지역 관방 시설이 가지는 의미가 언급되었다.<sup>13)</sup> 최근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성동리산성과 성동리 마을유적이 재차 주목받았다.<sup>14)</sup>

기왕의 발굴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 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며,<sup>15)</sup> 반월성 출토 고구려 유물과 유구에 대한 해석에도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먼저 반월성 출토 유물과 유구 중 고구려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물·유구를 검토하여 고구려가 5~6세기에 반월성을 군사·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는지를 논의하겠다. 이어서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검토하여 포천지역이 군사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7세기 초중반 전개된 고구려-신라

12)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이 논문에서는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형성과정을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정비하는 1단계, 한강 이북으로 방어체계의 중심을 이동하고 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확대하는 2단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는 604년을 중심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3)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8 ;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14)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20쪽, 27쪽.

15)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백제와 신라로 견해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남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체성벽 내벽 토축부와 주거지, 수혈에서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발굴단은 백제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반월성 남벽을 축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한백문화재단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

전쟁과 나당전쟁의 과정에서 신라가 구축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 관방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Ⅱ.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광개토왕릉비」 영락(永樂) 6년조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공취하였다. 58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sup>16)</sup> 적어도 예성강 또는 임진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 지역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58성 가운데 포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포천지역의 향방을 알려주는 문헌사료가 없어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포천지역을 지속적으로 영유했는지 불확실하다. 고구려군이 귀환하고 백제가 반격을 시도하면서 한강 이북~임진강 이남의 일부 지역을 백제가 회복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고구려가 백제의 지방 지배 거점이었던 반월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점령지 지배에 활용하였다고 보는 견해<sup>18)</sup>나 고구려가 409년 축조한 국동 6성을 임진강 유역으로 비정하면서 반월성을 그중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sup>19)</sup>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포천

16) 58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69~170쪽;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70~71쪽 참조.

17)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67~68쪽.

18)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 『서울학연구』 69, 2017, 57~58쪽.

19)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 2020, 71~80쪽.



지역이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지배에 들어갔으나 이후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귀속되었거나,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20)</sup>

475년 장수왕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도성인 한성을 함락하면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 일대를 영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되었고 이는 6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조에서 지금의 포천 일대의 고구려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A. 臂城郡 一云馬忽 内乙買 一云内尔米 鐵圍郡 一云毛乙冬非 梁骨縣 僧梁縣 一云非勿 功木達 一云熊閃山(『삼국사기』 권37, 잡지(雜志)8, 지리(地理)4, 고구려, 한산주).

비성군(臂城郡)은 지금의 포천 분지 일대인데 마홀(馬忽)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비성군에 속한 내을매(内乙買)는 동두천시 송내동<sup>21)</sup> 또는 연천군 청산면 일대<sup>22)</sup>로 비정된다. 비성군의 북쪽에는 철원군(鐵圍郡)이 있었다. 철원군은 지금의 철원군 철원읍이며, 철원군에 속한 양골현(梁骨縣)은 포천시 영중면, 승랑현(僧梁縣)은 연천군 신서면, 공목달현(功木達縣)은 연천군 연천읍으로 비정된다.<sup>23)</sup>

20)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선이 아닌 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임진강-한강 분수령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거나(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203~205쪽), 고구려와 백제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 지역을 접경공간으로 하면서 대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3~176쪽)가 참고가 된다.

21)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52쪽.

22) 서영일, 앞의 책, 1999, 293~2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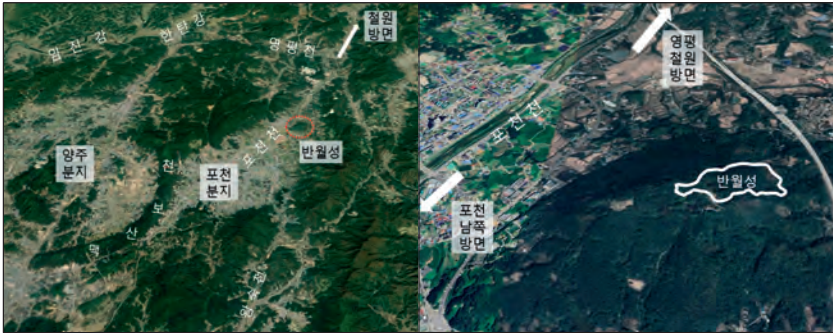
23) 장창은, 앞의 책, 2014, 14쪽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원전에는 비록 통일신라 시기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지만, 고구려 지명과 영속 관계는 고구려 시기 제성(諸城)의 분포와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로와 제성의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sup>24)</sup> 그렇다면 고구려가 설치한 비성군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전곡을 기준으로 한탄강과 영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양주 분지와 포천 분지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철원군에 속하였던 영평은 철원평야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탄강·영평천 유역으로 남하하는 교통로를 관리하였을 것이다.

포천지역의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된다고 알려진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먼저 반월성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산(해발 283.5m) 정상을 둘러싸고 축조된 테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080m이다. 산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동-서로 길쭉한 반월형(半月形)이기에 반월성으로 불린다. 반월성의 동서 방향에 높은 산지가 있으며, 남서쪽으로 포천 분지의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포천 분지에서 철원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있다. 따라서 반월성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의 남쪽에는 구읍천, 북서쪽은 포천천이 흐르면서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46~47쪽.

24)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48~55쪽.



〈그림 1〉 포천 분지 일대 지형과 수계

〈그림 2〉 포천 반월성과 주변 지형

반월성 1차 발굴조사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受蟹口草)’명 기와가, 3차 발굴조사에서 ‘마홀(馬忽)’, ‘마(馬)’, ‘홀수(忽受)’, ‘해(蟹)’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반월성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고 해석되었다.<sup>25)</sup> 초기 연구에서는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축조하면서 ‘마홀수해구초’명 기와가 제작되었다고 추정하였다.<sup>26)</sup> 그러나 이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하남 선동에서 채집된 명문 기와와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작 시기는 8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sup>27)</sup> 그렇다면 반월성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반월성 출토 ‘마홀(馬忽)’명 기와를 이해하기보다는, 포천 분지 일대가 고구려의 마홀이었다는 사실을 유물을 통해 확인하였다<sup>28)</sup>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5)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44쪽.  
 26)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蟹口草>銘 기와의 考察」, 『史學誌』 29, 1996.  
 27) 김규운·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국립중앙박물관, 2011, 575~577쪽.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로 추정된다. 최근 기와 명문의 지명과 신라 말 지방통치체제의 동요 등을 근거로 경덕왕 16년(757)과 진성왕 3년(889)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 44~45쪽).  
 28)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쪽.

반월성에는 서치성, 동치성, 남치성 등 3개소의 치성이 확인된다. 이 중 서치성은 잘 치석한 대형 기단석, 들어쌓기, 기단부 모서리의 굽도리 양식, 치성의 평면 사각형 형태 등을 근거로 고구려가 축조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하였다. 그리고 서치성 인근 헬기장 주변에서 고구려 토기편과 적갈색의 고구려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sup>29)</sup> 그런데 조사단은 고구려 토기류로 추정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적으며 정확한 층위에서 수습된 것이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구려계 기와는 와적층에서 신라 기와와 뒤섞여 출토되었고 제작 방식이 고구려 기와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sup>30)</sup>

더하여 조사단이 제시한 서치성의 축조 방식이 한강 유역의 신라 성곽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반월성 서치성과 하남 이성산성 치성이 형태적 특징, 크기, 축조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월성 치성의 축조 주체를 신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31)</sup> 또한 고고학적 속 성분석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반월성 출토 기와가 모두 6~9세기 신라 기와라고 보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sup>32)</sup>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지속적으로 군사·행정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진강 유역, 양주 분지,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관방시설이 밀집 분포하고 있고 기와가 출토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고구려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교통로 중 다른 교통로에 비해 포

2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478~479쪽, 495쪽;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I)」, 『文化史學』 20, 2003, 60~61쪽;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 2006, 29쪽.

3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쪽; 金虎俊, 앞의 논문, 2003, 61쪽; 방유리, 앞의 논문, 2006, 30쪽.

31)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9~71쪽.

32)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21.

천천을 경유하는 교통로에 대한 감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보산 보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근래 경기 북부지역 보루의 감시권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천보산맥 동쪽의 천보산 3·4·5보루는 포천 분지와 포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조망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루에서 고구려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신라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포천 분지에서 왕숙천을 따라 한강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감시하는 보루도 확인되지 않는다.<sup>33)</sup> 따라서 포천천로-포천 분지-왕숙천로-한강 북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고구려 관방시설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포천 분지를 지나 한강 북안으로 이르는 교통로 운영과 관련한 곳으로 성동리산성을 꼽을 수 있다. 성동리산성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잣골의 해발 180m의 잔구성 산지에 축조된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401.9m이다. 성의 동남쪽으로 영평천이 흐르며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영평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포천천과 합쳐지고 이어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따라서 성동리산성은 서쪽으로 하천로를 따라 연천으로 연결되며, 포천-철원 방향의 남북교통로를 조망하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성동리산성 내에 적갈색 기와가 일부 확인된다고 한다. 이를 임진강 유역의 덕진산성, 호로그루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와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한다.<sup>34)</sup> 그러나 문양, 측면 분할, 내면 상태 등에서 차이점도 확인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sup>35)</sup> 성

33) 이상의 내용은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 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참조.

3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34~36쪽.

동리산성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여타 고구려 관방시설에 비하여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성동리산성의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 동북쪽 기둥구멍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편은 내외 흑갈색 내지 황색의 연질토기로 토기 외면에 두 줄의 횡선과 길이 7cm 정도의 장타원문이 횡으로 연속하여 시문되어 있다.<sup>36)</sup> 파편이기에 기형을 알 수 없으며 제작 시기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sup>37)</sup> 하지만 몽촌토성에서 유사한 동이류 동체부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몽촌토성 고구려 토기가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는 점,<sup>38)</sup>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아차산 4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와 문양이 유사하다는 점<sup>39)</sup>을 고려한다면, 이 유적은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sup>40)</sup> 따라서 고구려는 5세기 후반~6세기 중반경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포천지역 일대를 경영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 성동리 마을유적 2호 주거지의 내부퇴적층에서 백제 토기, 신라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sup>41)</sup> 따라서 성동리산성이 군사적 거점을 넘어 영역 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35) 白種伍·玄男周,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379쪽.

36)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40~41쪽.

37)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2014,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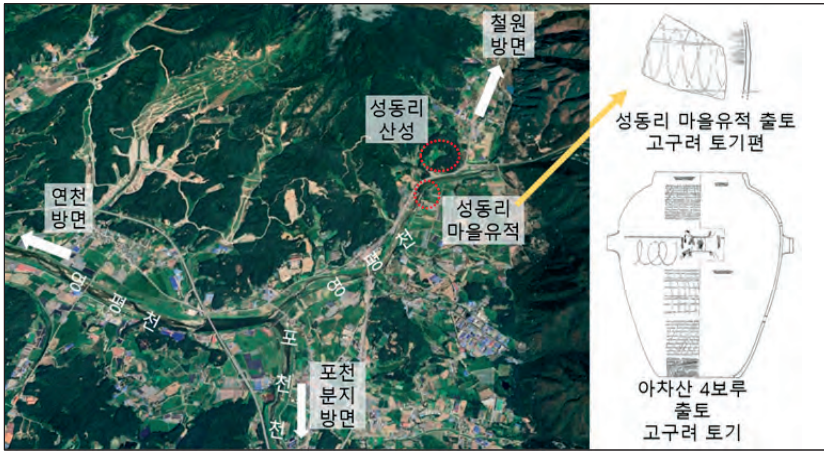
38)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18쪽.

39)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0쪽.

40) 백종오, 앞의 논문, 2004, 295쪽;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41)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주거지에서 백제와 신라 토기가 확인되며 해당 지역이 삼국의 접경지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영평천을 기준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7쪽).





〈그림 3〉 포천 성동리산성, 성동리 마을유적과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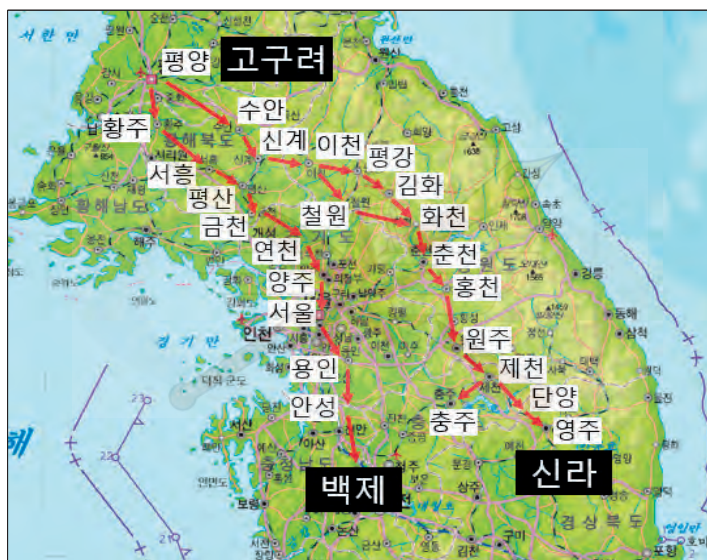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는 교통로를 따라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키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포천지역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주요 교통로에 비해 관방시설을 비롯한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희박하다. 이는 4세기 이래 고구려의 남방 교통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세기 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면서,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백제와 대결하였다. 4세기 중후반 고구려와 백제는 예성강 유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sup>42)</sup> 그리고 광개토왕을 거쳐 장수왕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는데, 그 경로는 황해도를 가로지른 뒤 임진강을 건너 한강 하류로 이어진다. 그리고 고구려는 경기 중남부를 지나 대전, 세종지역까지 진출하였다.<sup>43)</sup>

42) 장창은, 앞의 책, 2014, 49~53쪽.

43)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 2019b 에서는 관방시설의 배치와 유형 구분을 통해 '5세기 이전 임진강-한탄강 유역으로 남진→5세기 중반 영서 내륙 지역으로 남진하여 충주, 대전으로 진출→475년 한강을 도하하여 탄천을 따라 용인 일대로 남하' 순서로 고구려의 남진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고구려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경로는 400년 신라 구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5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평양에서 수안-신계-이천-평강/철원을 지나 화천-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영서 내륙 교통로를 따라 이동하여 죽령을 넘어 경주에 도착했다고 짐작된다.<sup>44)</sup>



〈그림 4〉 고구려의 백제, 신라 방면 주요 남진로

고대 국가는 대외전쟁, 지방통치, 수취체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통로를 정비하고 관리하였다. 국가 권력의 중추인

44) 고구려의 남진로에 대해서는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2000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 금경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韓國史學報』 11, 2011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참조.

도성은 각 방면으로 간선교통로가 출발하는 기점이었기에, 교통로는 도성을 중심으로 방사형을 띠기 마련이었다.

고구려는 평양을 출발하여 백제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남진로를 별개로 운영하였다고 짐작된다.<sup>45)</sup> 고구려가 백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1차 목표는 백제의 도성이 위치한 한강 하류 유역이었다. 신라 방면 진출은 영서 내륙 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 중부지역의 거점인 충주를 목표로 했다고 추정된다.

포천은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기에, 백제 도성 방면으로 남진하는 고구려군 중 일부는 포천 일대를 공략하거나 경유하였을 것이다. 다만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므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시기에는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에서 임진강을 건너 하천을 따라 내려와 양주 분지를 지나 아차산 일대로 가는 교통로가 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 관방시설이 치밀하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원산 일대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강 하류 유역을 침공할 세력을 상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 초기부터 동북방에서 말갈이 백제를 침공한 기록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 말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조선 후기 이래로 대체로 동예로 이해하고 있다.<sup>46)</sup> 고구려는 후한(AD 24~220) 말 동예를 복

45) 박중서, 앞의 논문, 2023에서 고구려의 남진로를 7개의 경로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시점, 종점, 주요 거점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하였다. 그중 백제 주공격로를 '한성로(웅진로)', 신라 주공격로를 '신라왕경로'로 명명하였다.

46)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는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77~80쪽; 김진광,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속시켰는데,<sup>47)</sup> 그 이후부터 고구려는 예(말갈)를 동원하여 원산만 일대에서 서남 방향으로 남하해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이다.<sup>48)</sup>

백제는 철원, 연천, 포천 일대에 마수성, 병산책, 석두성, 고목성, 적현성, 사도성 등 관방시설을 두어 말갈의 침입에 맞섰다.<sup>49)</sup> 포천 분지의 남단에 위치한 고모리산성은 백제가 초축한 성곽인데, 이른 시기부터 백제가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침입하는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음을 보여준다.<sup>50)</sup> 그런데 고구려가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예(말갈)가 한강 하류 유역을 공략할 이유가 사라졌다. 따라서 고구려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에 관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백제의 성곽을 재활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빈약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반월성에서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7세기 중엽에는 성벽 수축이 이루어지고 성안에 기와 건물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sup>51)</sup> 그리고 6세기 후반~7세기 초반의 짧은 시기 동안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반월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탐색해 보겠다.

2009, 12~17쪽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152~158쪽 참조.

47) 『삼국지』 권30, 魏書30, 東夷傳, 濊. “漢末更屬句麗”

48)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6~178쪽.

49) 구체적인 위치 비정은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00쪽, 606쪽, 626쪽 참조.

50)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백제학 연구총서 쟁점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 2022, 137~138쪽.

5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4~535쪽.

### Ⅲ.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sup>52)</sup>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분쟁의 여파를 수습해야 했고 신라는 대백제전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한강 이북 및 임진강 이남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sup>53)</sup> 대치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였다고 생각된다. 한강 유역 출토 신라 토기와 성벽 축조 양상을 통해 한강 이북 신라 산성이 7세기 전반 이후 활용되었다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sup>54)</sup>

그런데 6세기 말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충돌은 고구려 멸망까지 이어지게 된다. 수가 중원을 통일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던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sup>55)</sup> 6세

52) 579~597년은 삼국이 국내 정세로 전쟁을 멈춘 일종의 소강기·휴전기였다고 한다(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講兵」, 『新羅史學報』 52, 2021, 15~16쪽).

53)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 장창은, 앞의 책, 2014, 234쪽.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5~91쪽에서는 북한산비가 정계비라는 입장에서 북한산비가 세워진 북한산 줄기에서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을 따라 양국의 경계가 정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산 산줄기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지역을 완충지대로 이해하였다.

54)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포천지역과 관련하여,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고배와 뚜껑 등의 잔편은 7세기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314쪽).

55)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9.



기 말 아단성(阿旦那城) 전투<sup>56)</sup>와 603년 북한산성(北漢山城) 전투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여 독자세력권을 재건하려는 고구려의 대외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아단성 전투에 대한 신라 측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신라군의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삼국사기』 온달전(溫達傳)에도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치른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다만 온달이 출정에 앞서 맹서하는 장면이 끝나고 아단성 전투 중 온달이 화살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고구려군의 전과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라는 전투 전후 아단성을 계속 영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성 전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다.

- B-①. 왕이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왕이 병력을 이끌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썩하니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이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sup>57)</sup>

56) 『삼국사기』 권45, 列傳5, 溫達. 아단성 전투의 시기와 아단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旦那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2017과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那城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 2018 참조. 필자는 아단성의 위치 문제에 대해 각 논의가 나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향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축적되기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공감하는 입장이다(정호섭, 「三國史記 溫達傳을 통해 본 온달의 역사적 위상과 阿旦那城」, 『한성사학』 29, 2014 ;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새문사, 2016, 167~179쪽). 구체적인 아단성의 위치 비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온달이 한강 유역의 회복을 목표로 했기에 출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비정하지 않고 한강 유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57)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 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眾我寡 恐不克而退”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4년 8월).

B-②.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입하였다. 왕이 몸소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쳤다<sup>58)</sup>(『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5년 8월).

사료를 보면, 603년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군대를 이끌고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진평왕이 직접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구원전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병력의 열세를 염려하여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북한산성은 지금의 아차산성으로 비정된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가운데 ‘북(北)’, ‘한(漢)’, ‘북한(北漢)’, ‘한산○(漢山○)’ 등이 다수 보이는데, 이를 종합하면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9)</sup>

북한산성 전투에서 주목할 점은 진평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다는 것이다. 국왕의 군령권 집행방식은 국왕이 친히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 나서는 친솔형(親率型)과 예하 신료를 대행자로 삼아 전쟁을 치르게 하는 교전형(教遣型)으로 나뉘는데, 신라에서는 친솔형과 교전형이 병존하다가 5세기 중반을 분수령으로 교전형으로만 대외전쟁을 치르게 된다.<sup>60)</sup> 따라서 7세기 초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1만 명의 병사를 ‘친솔(親率)’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받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지만 국왕이 전쟁에 ‘친솔’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강 유역을

58)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59)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205~207쪽 ; 최중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 2014, 32쪽. 최근 아차산성 발굴조사에서 「北漢山城」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임이 더욱 확실해졌다(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c).

60)李文基, 「新羅 中古期 軍令體系의 檢討」, 『新羅文化』 9, 1992, 43~50쪽 ;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280~289쪽.

고수하려는 신라 왕실의 의지가 매우 컸다고 짐작할 수 있다.<sup>61)</sup>

이와 관련해 철원 고석정(孤石亭)에 진평왕이 이 지역을 순행하고 세운 비가 존재했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싶다.<sup>62)</sup> 대체로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하고 철원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라비를 건립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sup>63)</sup> 최근에는 신라가 고구려-수 전쟁을 틈타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는 기록과 연관하여 598~614년의 어느 시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64)</sup> 둘 다 진평왕 재위 기간 중 신라의 영역이



〈그림 5〉 진평왕 순행 추정로

확장된 시기를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진평왕이 실제 철원으로 순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다. 따라서 603년 북한산성 전투에 진평왕이 친솔한 기사에 눈길이 간다. 진평왕이 한반도 중부지역에 순행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61) 진흥왕이 확보한 영역을 사수하여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견해(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 2015, 55~56쪽)와 군령권자로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견해(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 2019, 82쪽)도 있다.

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江原道, 鐵原都護府, 樓亭, 孤石亭. “在府東南三十里 岩石竝立 東臨淵水 世傳 新羅眞平王高麗忠肅王嘗遊山亭” 고석정에 있었다는 신라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충숙왕대 승려인 무의(無畏)가 남긴 「고석정기(孤石亭記)」이고 이후 여러 문집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 2018, 148~155쪽에서 상세히 연구되었다.

63) 徐榮一, 앞의 논문, 1995, 35쪽 ;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43쪽 ;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 2011, 35~36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21쪽.

64)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2~163쪽.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이어서 철원으로 순행했다면, 이는 고구려군의 공격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603년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으로 진출한 경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먼저 고구려군이 임진강을 건넌 후 양주 분지와 중랑천을 거쳐 북한산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다.<sup>65)</sup> 다음으로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발하여 왕숙천을 따라 내려와 구리를 거쳐 북한산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sup>66)</sup> 마지막으로 이천, 평강을 거쳐 철원과 포천 분지의 한탄강-영평천-포천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남하하였을 가능성이다.<sup>67)</sup>

이 중 세 번째 견해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고구려군이 신라 관방체계의 저항을 받지 않고 북한산성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물론 임진강에서 양주 분지를 따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신라 관방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정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sup>68)</sup> 하지만 관방시설의 밀도 면에서 철원-포천지역이 더 조밀하지 못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재활용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정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철원으로 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구려군의 퇴각로가 진군로와 동일하다면,<sup>69)</sup> 신라군은 퇴각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철원지역이 군사지리적으로 요충지임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604년 남천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하였다.<sup>70)</sup>

65)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45~346쪽 ;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 2022, 120쪽.

66)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104쪽.

67)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0~51쪽.

68) 장창은, 앞의 책, 2014, 304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69)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6쪽.

70)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6年.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이것이 신라의 적극적인 북진 의지<sup>71)</sup> 내지 신라의 세력 확대<sup>72)</sup>를 의미한다면, 북방 거점의 북진은 한강 하류 유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서 내륙 지역에서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 후반~7세기 초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 거점은 춘천의 봉의산성으로 추정된다.<sup>73)</sup> 그런데 북한산성 전투 이후 신라는 영서 내륙 지역에서 춘천의 북방에 위치한 철원지역에 주목한 듯하다.

철원 일대는 서울-원산 간 교통로와 영서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결절지이자,<sup>74)</sup> 철원-포천 경로를 통해 한강 하류 유역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었다.<sup>75)</sup> 또한 춘천지역으로부터 후방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였다. 더불어 서북 군사요충지인 북한산주와 동북 군사요충지인 비열홀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의 의미도 부각되었을 것이다. 결국 진평왕은 철원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직접 이 지역을 순행하고 비를 남겼던 것이다.<sup>76)</sup> 그렇다면 북한산성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및 이를 관장하는 관방시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을 것이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71)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34~335쪽에서 진흥왕 18년(557) 신주(新州)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한 것은 한강 이북으로 '적극적인 북진의 의기(意氣)'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72) 李相勳, 「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계』 79, 2011, 17쪽 ;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5쪽.

73)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2쪽.

74)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6쪽.

75)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쪽.

76) 철원에서 신라 유물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성곽은 동주산성, 성산성이다. 신라 진출 초기에는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둘레 약 250m의 냉정리산성(할미산성)이 부대이동의 감시, 보급로 확보, 통신 기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는데, 영역화가 진전되자 행정·군사 거점을 겸할 수 있는 동주산성과 성산성이 축조되었다고 한다(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 2022).

고구려는 608년 재차 신라를 공격하였다.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C-①. 봄 2월 장수에게 명하여 신라의 북경(北境)을 습격하니 8천 명을 붙잡아 왔다. 여름 4월 신라의 우명산성을 빼앗았다<sup>77)</sup>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9년).

C-②. 2월 고구려가 북경(北境)을 침입하여 8천 명을 붙잡아 갔다. 4월 고구려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sup>78)</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0년).

608년 2월 고구려가 ‘신라 북경(北境)’, 즉 신라의 북쪽 경계 또는 북쪽 경역(境域)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잡아갔고, 4월 고구려가 신라의 우명산성(牛鳴山城)을 공격해 빼앗았다.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전지인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의 위치를 비정할 필요가 있다.

우명산성은 안변(安邊), 양구(楊口), 춘천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안변설은 음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sup>79)</sup> 우명산성의 우명(牛鳴)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변도호부조에 기록되어 있는 철원수(鐵垣戍)의 철원(鐵垣)이 둘 다 ‘쇠울’로 혼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戍)는 고려시대 지역방어의 거점인 주진성(州鎭城)을 보조하는 군사시설로서,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거나 소규모 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전방 초소의 역할을 하였다.<sup>80)</sup> 특히 동계 지역에 설치된

77) “春二月 命將襲新羅北境 虜獲八千人 夏四月 拔新羅牛鳴山城”

78) “二月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四月 高句麗拔牛鳴山城”

79)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41쪽;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532쪽;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 2004, 11쪽;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 2014, 169쪽;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신라사학보』 57, 2023, 31쪽.



수는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소규모 적에 대한 감시·통제·방어를 위해 설치된 전방 초소 내지 보루로 추정되며, 바다를 조망하기 유리한 바닷가 연변의 산이나 곳에 주로 위치했다.<sup>81)</sup> 실제 철원수는 안변도호부 동쪽 파천사(派川社) 해구(海口)에 위치한 작은 석성(石城)이다.<sup>82)</sup> 만약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면, 평양성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은 육상교통로를 따라 신라의 동북방 거점인 비열홀(比列忽)로 진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철원수는 안변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상에서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감시하기 적절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즉 고구려의 공격 방향과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더구나 철원수는 고려가 설치한 관방 시설일 뿐 신라가 이 지역에 산성을 축조하고 활용했다는 기록 내지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다.<sup>83)</sup>

우명산성을 강원도 양구로 비정하는 견해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양구현 남쪽 40리에 우명산(牛鳴山)이 있다는 기록<sup>84)</sup>에 근거한다.<sup>85)</sup> 방향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동지지』의 우명산은 지금의 봉화산(烽火山)으로 비정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양구현 남쪽에 위치한 고개 내지 산정에 봉수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 선조 대에 봉수대 설치를

80) 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61~263쪽 ;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95쪽.

81)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 2016.

8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咸鏡道, 安邊都護府, 古跡. “鐵垣戍 在府東派川社海口有小石城 世稱戍城 在江原道歙谷縣境”

83) 삼국시대 ‘우(牛) 계 지명이 임진강~강릉·삼척을 잇는 선을 북방 한계로 하여 백제와 신라 영역에서만 발견된다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오강원, 「三國時代 ‘牛’ 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 2008).

84) 『대동지지』 권15, 江原道, 楊口, 山水. “牛鳴山 南四十里”

85) 金命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 1987, 260쪽. 이 논문에서는 인제군(麟蹄郡) 남면(南面) 소양강 부근이라 하였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양구군 남면이다.



계기로 봉화산으로 불리게 되면서<sup>86)</sup> 본래 이름인 우명산은 잊힌 듯하다. 그런데 현재 봉화산에는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sup>87)</sup> 그리고 양구지역은 당시 영서 내륙 지방의 간선교통로에서 벗어나 있기에 고구려가 공격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춘천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명의 유사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sup>88)</sup> 춘천의 옛 지명이 우두(牛頭) 내지 우수(牛首)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7세기 초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과 안변 일대를 안정적으로 영유하던 형세 속에서 고구려가 영서로(嶺西路)를 통해 춘천 일대로 진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거나,<sup>89)</sup> 고구려가 북한산성 공략에 실패하자 신라의 한강 하류 유역 방어 거점을 우회하여 북한강 상류 유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춘천지역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90)</sup>

5세기에 고구려는 이천-평강/철원-화천-춘천-홍천-원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신라는 춘천지역에 637년(선덕왕 6) 우수정(牛首停)을 설치하였으며<sup>91)</sup> 나당전쟁기에는 군단을 배치·증설하였다.<sup>92)</sup> 이는 춘천 일대를 통하여 남하하

86)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권』, 2008, 680쪽.

8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跡 地表調査報告書』, 2002, 171~172쪽.

88)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27쪽.

89) 張彰恩,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民族文化論叢』 55, 2013, 440쪽; 앞의 책, 2014, 307~308쪽.

90)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1쪽.

91)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新羅, 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 置軍主” 우수주의 설치는 우수정(牛首停)의 설치를 의미한다(李文基, 앞의 책, 1997, 110~111쪽;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95쪽).

92)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

려는 고구려군과 당군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춘천은 북방에서 신라 방면으로 남진을 시도할 때 거쳐야 할 요충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우명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93)</sup>

고구려군은 우명산성을 공격하기 앞서 ‘신라 북경’을 공략하였다. 고구려가 608년 일련의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추정되기에,<sup>94)</sup> 당시 교통로와 고구려군의 진공 방향을 감안한다면 ‘신라 북경’은 춘천 북쪽의 화천, 철원, 김화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608년 고구려는 ‘신라 북경’ 즉 철원 일대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지 않고 포로를 붙잡아 가는데, 여기서 철원지역에 신라의 방어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608년 고구려가 철원, 춘천 일대를 공략한 것은 신라가 철원을 중심으로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우명산성까지 빼앗으면서 고구려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지만 국제 정세의 변동으로 다시 신라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수의 연이은 침공으로 고구려의 군사력은 요동 방면과 평양성 방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500리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렸다.<sup>95)</sup> 결국 신라와 고구려는 7세기 초 한

2017 ;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 2023.

93)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67쪽.

94)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95) 『삼국사기』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年 正月. “玄獎諭以勿侵新羅 蓋蘇文謂玄獎曰 我與新羅 怨隙已久 往者 隋人入寇 新羅乘釁 奪我地五百里 其城邑皆據有之 自非歸我侵地 兵恐未能已” 신라가 고구려 영역 500리를 빼앗은 시기를 598~614년으로 폭넓게 잡는 견해가 있는데(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6쪽),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에서 신라 영토를 획득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의 북진 시기는 608년 이후로 좁힐 수 있다. 따라서 612~614년 고구려가 수와 총력전을 치르는 틈을 타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차지했다고 이해하는 건

강 하류 유역과 영서 내륙 지역을 둘러싸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 하류 유역과 철원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포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629년에 일어난 낭비성 전투가 주목된다.

#### IV.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608년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에서의 전투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충돌한 지점으로 명확히 기록된 곳은 낭비성(娘臂城)이다. 629년 발생한 낭비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①. 왕이 대장군 용춘(龍春)과 서현(舒玄), 부장군 유신(庾信)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을 침공하였다. 고구려인들이 성을 나와 진을 벌이니 군사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우리 군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유신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내가 버리와 옷깃이 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적진으로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 세 번 들어가고 세 번 나왔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장수의 목을 베거나 깃발을 뽑았다.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하였다<sup>96)</sup>(『삼국사기』 권

해를 따르고자 한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10쪽).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 땅 500리를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연결되는 삼방로 일대로 추정하기도 한다(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2~63쪽).

96) “王遣大將軍龍春舒玄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

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 8월).

- D-②. 건복(建福) 46년 기축 가을 8월 왕이 이찬 임말리(任末里), 파진찬 용춘과 백룡(白龍), 소판 대인(大因)과 서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맞아 공격하니 우리 편이 불리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서 다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유신은 이때 중당당주(中幢幢主)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효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해서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하니 제가 그 버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갱을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이를 보고 승세를 타고 힘써 공격하여 5천여 명을 목 베어 죽이고 1천 명을 사로잡으니, 성안에서 두려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sup>97)</sup>

신라는 629년 김용춘을 대장군으로 한 원정군을 조직하여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였다. 전투 초기에는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으로 신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사기마저 떨어지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의 분전을 계기로 승세를 타, 결국 신라군은

望之 懼殊無鬪心 庾信曰 吾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劍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擐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 97) “建福四十六年己丑秋八月 王遣伊滄任末里波珍滄龍春白龍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麗人出兵逆擊之 吾人失利 死者衆多 衆心折衄 無復鬪心 庾信時爲中幢幢主 進於父前 脫胄而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蓋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迺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 斬將軍 提其首而來 我軍見之 乘勝奮擊 斬殺五千餘級 生擒一千人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고구려군 5,000여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사로잡으면서 낭비성의 투항을 이끌어내며 승리하였다.

먼저 낭비성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여러 연구가 있었다. 청주 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보는 견해,<sup>98)</sup>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칠중성으로 파악하는 견해,<sup>99)</sup> 함경도 덕원·안변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sup>100)</sup>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6~7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는 경기도 북부지역이라는 점, 포천의 고구려 지명이 비성군(臂城郡)이었다는 점, 반월성에서 ‘마홀’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포천의 고구려 지명과 일치한다는 점, 반월성에서 7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고구려 고고자료와 그 이후의 신라 고고자료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낭비성은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101)</sup>

고구려가 반월성으로 진출한 시기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sup>102)</sup> 629년 이전에 고구려가 남방 진출을 시도한 바는 608년 ‘신라 북경’

98)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 1976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 2013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131~138쪽.

99) 金侖禹, 앞의 논문, 1987, 278~282쪽.

100) 池內宏, 「眞興王의 戊子巡境碑と新羅의 東北境」,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吉川弘文館, 1960, 27~28쪽 ;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 40, 2011, 26쪽 ;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4쪽.

101) 서영일, 앞의 논문, 1995 ;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40~143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319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182쪽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71~86쪽.

102) 590년대 전반,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590년대 전반 이전에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고 이해한다(전덕재, 앞의 논문, 2023, 30쪽). 또는 620년대 대당관계가 안정되어 남방으로 진출할 여력이 생기면서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20쪽).

및 우명산성 공격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대로 신라는 603년 북한산성 전투 승리를 계기로 북한산성-포천-철원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철원 일대까지 진출하여 이곳을 신라의 영역으로 삼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608년 철원과 춘천 등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고구려군의 일부가 철원 일대에서 북한산성 방향으로 이동하여 낭비성을 차지했다고 이해된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가 현존하는 반월성 전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토 유물과 입지 등을 고려하면 서치성 일대<sup>103)</sup>나 장대지 주변 고지대<sup>104)</sup>에 소규모 관방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림 6〉 반월성 중 고구려 보루 추정지

신라는 고구려-수 전쟁을 기회로 삼아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여 500여 리를 획득하면서 영서 내륙 지역을 재차 확보하였지만, 반월성은 여전히 고구려군의 수중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625년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가 조공로를 막으려고 하며

10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534쪽.

104)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2쪽.



거듭 침입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sup>105)</sup> 비록 신라가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623~628년 신라는 거의 매년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며, 627년 백제 무왕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대병(大兵)을 응진에 주둔시켰다.<sup>106)</sup>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고구려가 반월성을 전초기지로 한강 하류 유역을 위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신라군은 단순히 반월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군도 마찬가지였다. 죽거나 포로가 된 고구려군이 6,000명이라는 사실은 낭비성 전투에 동원된 고구려군과 신라군의 병력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낭비성 전투 당시 고구려군 총병력을 7,000~8,000명, 신라군 총병력을 최소 10,000명으로 추산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sup>107)</sup> 신라 병사들이 고구려군의 군세(軍勢)를 보고 두려워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므로, 적어도 고구려군은 신라군과 맞먹는 병력을 동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에는 포천 일대 관방시설에 배치된 병력뿐만 아니라 임진강 유역에서 동원된 병력도 상당수를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동원한 병력 중 상당수를 잃었다. 따라서 신라군은 반월성 북쪽에 위치한 성동리산성과 포천 분지에서 연천 방면으로 나아가는 위치에 있는 연천 대전리산성 일대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sup>108)</sup> 그렇다면 신라는 반월성

105)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年 11月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 『구당서』 권189上, 列傳139上, 儒學, 朱子奢. “貞觀初 高麗百濟同伐新羅 連兵數年不解 新羅遣使告急”

106) 『삼국사기』 권27, 百濟本紀5, 武王 28年 7月.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出屯於熊津”

107)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37쪽.

108)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5쪽과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85쪽에서는 더

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진강을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로 삼고 한강 하류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자 낭비성 전투를 추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sup>109)</sup>

낭비성 전투 이후 반월성의 군사적 기능이 확대되고 포천지역 및 한강 유역에서 점하는 군사적 위상도 높아졌을 것이다. 7세기 중반 성벽의 수축, 동문지 건설, 대형 건물의 건축 등이 시행되었다고 보는 발굴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 방향의 교통로를 따라 관방시설이 축조되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sup>110)</sup> 남북방향으로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 동서방향으로 연천 대전리산성-고소성-주원리산성-성동리산성이 각각 철원-포천-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임진강-연천-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sup>1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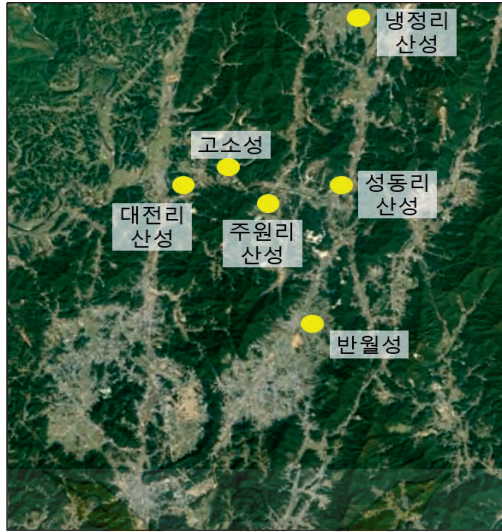
---

나아가 철원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고구려-수 전쟁 때 신라가 철원 일대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9) 김강훈, 앞의 논문, 2020, 195쪽.

110)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 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35~36쪽.

111) 포천지역 산성의 배치와 관방체계에 관해서는 서영일, 앞의 논문, 1997 참조.



〈그림 7〉 포천 일대의 신라 관방시설

신라가 포천지역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이후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 양상은 사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7세기 중반 한반도 중부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660년 10월 고구려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포위하였고, 이에 맞서 신라는 20여 일을 버텼지만 결국 신라군을 지휘하던 필부는 전사하였다.<sup>112)</sup>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칠중성은 임진강과 적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지점이 칠중성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sup>113)</sup> 따라서 고구려는 임진강 중류 유역과 한강 하류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칠중성을 함락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12)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 武烈王 7年 11月 ; 『삼국사기』 권47, 列傳 7, 匹夫.

113) 서영일, 앞의 책, 1999, 251쪽.

그리고 661년 5월 고구려는 말갈과 함께 경기도 여주 일대로 추정되는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가 공격하였다.<sup>114)</sup> 진격로는 고구려-신라 간의 주요 교통로인 영서 내륙 지역을 지나는 노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철원-화천-춘천-홍천-양평-여주<sup>115)</sup> 내지 춘천-홍천-원주-여주<sup>116)</sup>를 상정할 수 있다.<sup>117)</sup>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술천성 공격을 단행한 배경은 고구려의 전략·전술, 신라의 방어체계, 국제정세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신라가 낭비성 전투 이후 포천 일대에 구축한 관방체계를 하나의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

660년 고구려는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를 통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비록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만,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신라가 한강 이북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임진강과 한탄강 남안에 동서방향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고 칠중성-대모산성-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선을 운용하였다.<sup>118)</sup> 결국 660년 고구려군은 한강~임진강 유역 신라 관방체계의 일부만 무너뜨렸을

114)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 武烈王 8年 5月;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0年 5月; 『삼국사기』 권42, 列傳2, 金庾信 中.

115) 서영일, 앞의 책, 1999, 242쪽; 장창은, 앞의 책, 2014, 329~330쪽.

116)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96쪽;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69쪽.

117)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42~244쪽에서는 660년 칠중성을 차지하면서 확보한 교통로를 따라 남하한 고구려 지상군과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 진격한 고구려 수군이 함께 술천성을 공격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말갈이 주력인 고구려 육군은 영서 내륙 지역으로 진군하였고, 고구려군이 주력인 수군은 평양을 출발하여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2016, 76~80쪽).

118)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8쪽.

뿐이었고 북한산성 공략에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는 철원-포천-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아차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냉정리산성은 철원 방면에서 접근하는 적을 감제하는 보루이며, 성동리산성은 철원 방면과 한탄강 유역에서 진입하는 적을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반월성은 포천지역 관방체계를 총괄하며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종방어선이었다고 추정된다.<sup>119)</sup> 따라서 661년 고구려는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무력화하고 북한산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영서 내륙 지역으로 우회하는 공격로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67년 당 고종은 웅진도독부의 유인원과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태에게 비열도(卑列道)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진군하라고 명하였다.<sup>120)</sup> 그리고 668년 문무왕은 원정군을 편성하면서 김인태를 비열도총관(卑列道總管)으로 임명하였다.<sup>121)</sup> 비열도는 비열홀 즉 안변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서쪽으로 진군하여 평양에 이르는 경로일 것이다. 유인원과 김인태가 지휘한 군사들은 한강 유역을 출발하여 동북 방향으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이용하여 비열홀로 이동하였을 것이다.<sup>122)</sup>

한강 유역의 서울에서 안변으로 가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언급된다. ①‘서울-양주-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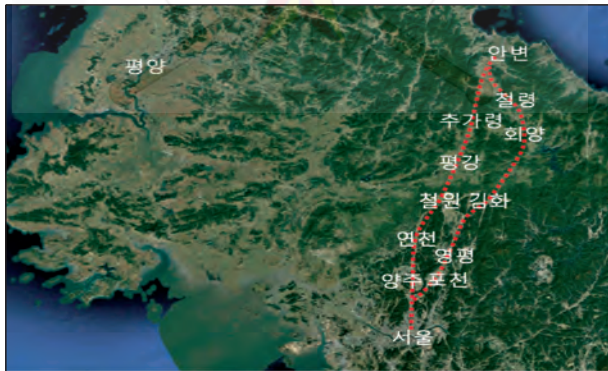
119) 서영일, 앞의 책, 1999, 284~292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7~138쪽.

120)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年 7月.

121)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 6月 21日.

122) 池内宏, 「唐の高宗の高句麗討滅の役と卑列道・多谷道・海谷道の称」, 『東洋學報』 17-1, 1928, 108쪽; 앞의 책, 1960, 263~264쪽에서는 강원도의 북한강 유역으로부터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진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훈, 앞의 책, 2012, 77쪽에서는 서울-의정부-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의 경로로 보았다.

‘서울-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안변’이 그것이다.<sup>123)</sup> 이 중 667년과 668년 활용된 경로는 ②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먼저 진평왕이 순행한 곳으로 추정되는 철원 고석정은 철원 남부 지역에 있으며 ②의 영평에서 김화로 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7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②의 경로를 더 많이 활용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고구려에게 비열홀로 진군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①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경로인 ②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①은 ②에 비해 거리가 짧으며 ①의 추가령이 ②의 철령에 비해 평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변에서 평강까지 긴 골짜기와 협곡이 있다.<sup>124)</sup> 따라서 ①은 대규모 병력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즉 667년, 668년 한강 유역에서 출발한 나당연합군 중 일부는 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을 거쳐 비열홀에 도착하였고, 군비를 재정비한 후 평양성 공격에 나섰을 것이다.



〈그림 8〉 서울-안변 경로

123) 권순진, 앞의 논문, 2013, 327~331쪽; 張彰恩, 「眞興王代 新羅의 北方進出과 對高句麗 領域向方」, 『新羅史學報』 24, 2012, 21쪽; 앞의 책, 2014, 232쪽, 235쪽

124) 高丞嬉,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 1996, 86~87쪽;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 2020, 56~57쪽.



고구려 멸망 후 비열홀 출신의 가군사(假軍師) 세활(世活)은 평양 소성(平壤少城) 전투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sup>125)</sup> 이는 비열홀 방면에서 평양성을 공격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고구려 멸망전에서 포천지역은 전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열홀이 평양지역을 공격하고 한강 하류 유역을 방어하는 군사요충지로 부각되면서<sup>126)</sup> 한강 하류 유역에서 비열홀에 이르는 교통로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비열홀 방면으로 신라군이 출입하는 관문으로서 관리, 정비되었을 것이다.

나당전쟁기 당군은 평양에 군영을 설치하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부흥세력을 무너뜨리며 남하하였다. 673년 윤5월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은 호로하(瓠瀟河) 서쪽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675년 신라군과 당군 간에 전투가 일어난 장소도 대체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다.<sup>127)</sup>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신라군이 동북방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던 포천지역 관방체계는 나당전쟁기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675년 9월 일어난 매소성(買肖城) 전투<sup>128)</sup>는 나당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로 인식된다. 매소성의 위치는 연천 대전리산성 내지 양주 대모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sup>129)</sup> 대전리산성은 서쪽으로

125)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 10月 22日.

126) 이상훈, 앞의 책, 2012, 75~77쪽.

127) 나당전쟁의 주요 전황은 이상훈, 앞의 책, 2012, 110~142쪽 및 212~220쪽 참조.

128)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年 9月 29日.

129) 매소성의 위치에 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에서 양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남동쪽으로 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입지하고 있다.<sup>130)</sup>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대전리산성 일대에 주둔하며 한강 하류 유역으로 진입하려는 당군을 저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소성을 대모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은 양주 일대에서 남하하려는 당군의 측후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675년 말갈은 아달성(阿達城)과 적목성(赤木城)을 공격하였다.<sup>131)</sup> 말갈은 당군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아달성은 강원도 이천, 적목성은 강원도 회양으로 비정된다. 이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sup>132)</sup>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나당전쟁기에 여전히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671년 신라가 당에게 비열성(卑列城)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sup>133)</sup>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나당전쟁 초기부터 한반도 서북부에서 남하하는 당군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안변 일대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침공해 오는 당군에 대비하는 방어전략을 준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당전쟁기에 포천지역이 전장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으나, 675년 신라군이 당군에게 승리한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 중에 일부는 포천지역이 무대가 되었

史論』 18, 2023, 259~264쪽 참조.

130)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문물연구』 34, 2018, 112쪽.

131)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年.

132)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전(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38쪽), 강원 북부와 함경도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행동(이상훈, 앞의 책, 2012, 219~220쪽), 서북방면의 주공(主攻)을 보조하는 동북방면의 조공(助攻)이 남하하면서 치른 전투(권창혁,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신라문화』 60, 2022)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3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7月 「답설인귀서」.

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7세기 신라의 대고구려전쟁과 대당전쟁의 주무대는 한강~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은 한반도 서북부와 동북부에서 한강 유역을 향하여 공세를 가하였다.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관방시설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결국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당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34)</sup>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관방체계의 하부단위로 기능하면서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시기적으로는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공간적으로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천지역은 광개토왕대에 일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다시 백제로 귀속되거나 양국의 접경지대로 변모하였다. 475년 장수왕의 남정(南征)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에 귀속되고, 이는 6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포천지역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되는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반월성은 포천 분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철원-영평천-포천천-왕숙천을 거쳐 한강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구 및 출토 유물은 수량이 적을뿐더러 출토 층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134)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군사 및 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신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

이 시기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다른 교통로에 비해 빈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포천지역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고구려는 원산만 일대의 예(말갈)를 동원하여 한강 유역의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한강 하류 유역을 영유하게 되면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관방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7세기가 되면 변화가 감지된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고구려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하면서 한강 유역 회복에 나선다. 공격로는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였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평왕이 철원으로 순행하는 등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체계를 재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고구려는 608년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신라의 의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였고, 일부 고구려군은 철원-포천 방면을 따라 남하하여 반월성에 소규모 보루를 축조하며 주둔하였다.

고구려가 반월성 즉 낭비성을 전초기지로 삼아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자, 신라는 629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로부터 낭비성을 빼앗았다.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삼국사기』의 낭비성 전투 기사 외에 7세기 반월성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7세기 중반 신라와 고구려의 전쟁, 신라와 당의 전쟁이 한강 유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의 한강~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의 하부단위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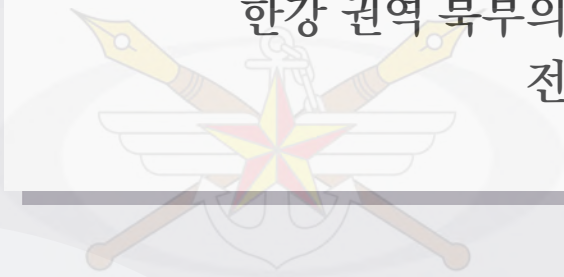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한강 권역 북부의 칠중성과 전략적 위상



| 정동민





# 한강 권역 북부의 칠중성과 전략적 위상

정동민

- I. 머리말
- II. 칠중성의 고고학적 양상과 초축 추론
- III. 문헌 기록에 보이는 칠중성과 영유권 변천
- IV. 맺음말-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 I. 머리말

주지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삼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국 교차지대 즉 접경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함경남도 안변군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 지대를 흘러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과 그 인근 유역이 서북한과 한반도 중부를 잇는 남북중단로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sup>1)</sup> 속에서 대표적인 접경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다. 한편 삼국의 전투는 주로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1)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54쪽.

라 임진강 유역에는 삼국이 축조한 성곽이 대거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성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칠중성(七重城)이다.

파주 칠중성은 『삼국사기』, 『당서』, 『자치통감』 등 각종 문헌에 보이는 성곽으로서<sup>2)</sup> 7세기경 삼국통합전 속에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 그리고 나당전쟁 속에서 신라와 당(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칠중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의 성곽 가운데 삼국 관련 문헌에 보이는 성곽과 명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성곽은 매우 적는데, 이 점에서 칠중성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삼국의 접경 또한 지리·교통적 그리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임을 인정받으면서 칠중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임진강 유역을 둘러싼 교통로와 관방 체계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 성과 속에서 대거 소개되었다.<sup>3)</sup>

그런데 칠중성은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하였고 이에 따른 군부대

2) 조선시기에 편찬된 지리지들을 보면 칠중성은 '吐吞(古)城' 혹은 重城, 칠중성이 위치한 중성산은 '城山'으로 불렸다(『신증동국여지승람』 積城縣 古跡條; 『동국여지』 積城縣 古跡條; 『여지도서』 京畿道 積城 古跡條; 『대동지지』 積城城池條). 한편 '吐吞(古)城'에서 '吐吞'에 대해 '뱉기고 빼앗는다'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칠중성이 임진강을 둘러싼 삼국간의 격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명칭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하고(홍재선, 「적성 칠중성 조사약보」, 『불교미술』 7, 1983, 22·31쪽), 임진강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35쪽).

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 2005;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 2009;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대구사학』 130, 2018; 지중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파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8, 2018;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김병희·서영교,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 2021.

의 진지 및 참호 개설로 인해 지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sup>4)</sup> 전면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곽의 형태나 구조 그리고 초축 시기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등 정확한 현황이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칠중성과 관련한 문헌 기록 또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매우 소략하여 성곽을 둘러싼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조사와 문헌 기록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참고하면서 칠중성과 관련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를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칠중성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영유권 변천을 통해 당시의 접경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칠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위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4) 칠중성은 1942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고(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1982년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985~1986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 문화유적』, 1986), 1992~1993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1994년에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1998~1999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000년에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와 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2005~2006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 Ⅱ. 칠중성의 고고학적 양상과 초축 추론

### 1. 고고조사 내용<sup>5)</sup>

칠중성은 임진강 중류 남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한 중성산과 그 서쪽 서봉(西峰)의 8~9부 능선상에 축성된 테피식 산성이다.<sup>6)</sup>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서 ‘겹성벽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모성(母城)으로 칠중성과 그 주변에 6개의 자성(子城)을 축조하면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지만, 성곽 주변에 흐르는 임진강의 옛 명칭인 ‘칠중하(七重河)’<sup>7)</sup>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sup>

성곽이 위치한 중성산과 서봉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내린 줄기로서<sup>9)</sup> 그 해발은 각각 147m와 142m로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주변으로 낮은 구릉과 평야가 이어지고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5) 칠중성의 고고 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을 참고하였다.

6) 중성산을 주봉으로 하고 西峰을 연결시킨 산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혹은 중성산 북쪽으로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부분에서 작은 계곡을 감싼 산성(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으로 보면서 포곡식으로 파악하기도 하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테피식과 포곡식의 중간형태로서 산비탈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선사와 고대』 2, 1992, 112쪽).

7) 『대동지지』 권3, 積城 山水條. “戍灘 西八里 神智江下流 其次爲長端高浪津 右三處通稱臨津江 三國時以比稱七重河”

8)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2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8~29쪽 ;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쪽.

9)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9쪽 ; 앞의 논문, 2005, 151쪽.

임진강 일대 주변을 살피는 데 매우 유리한데,<sup>10)</sup> 북서쪽으로는 연천 호로고루와 고랑포, 북쪽으로는 파주 육계토성과 주월리 일대, 남동쪽으로는 적성면과 감악산(해발 675m), 남서쪽으로는 파평산(해발 495m)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성곽이 자리잡고 있는 입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고동저로, 북동쪽이 가장 높고 현재 성내진 입로가 있는 동남쪽이 가장 낮다.<sup>11)</sup>

성벽은 남벽 80m, 서벽 200m, 북벽 140m, 동벽 183m로 전체 둘레가 603m이고, 남북 너비는 198m, 동서 너비는 168m이다(그림 1). 화강암과 편마암 그리고 일부 현무암 석재를 면석으로 가공하여 ‘품’자형으로 쌓았으며, 뒷채움은 주로 마름모꼴에 가까운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긴 방향을 면석쪽으로 놓았고 할석과 할석이 엇물리도록 하였으며 사이의 틈에는 강돌이나 흙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축조방식으로는 외벽으로만 이루어진 편축식,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협축식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아 방어가 취약한 남벽과 동벽에서 협축식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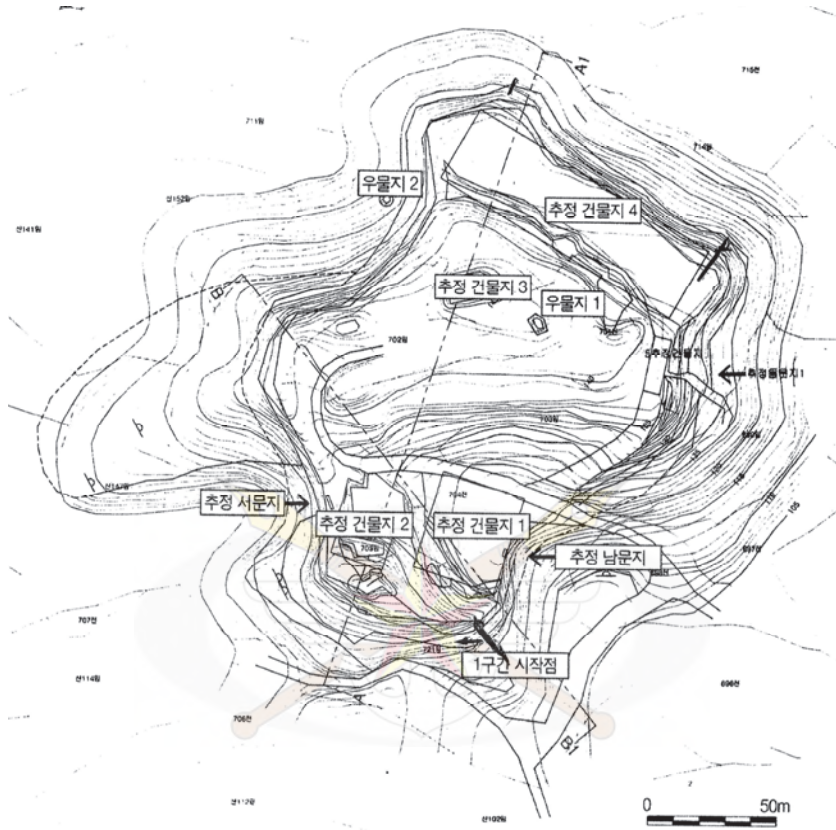
성벽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벽과 남벽의 여러 구간에서 내벽, 외벽, 외벽기단부 보축성벽 등 성벽 중복이 확인된다는 점이다.<sup>12)</sup> 예컨대 동문 근처 성벽구간에는 1차 외벽과 2차 외벽 그리고

1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7쪽.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0쪽 ; 앞의 책, 2006, 84쪽.

12) 홍재선은 동·남·서편에서 이중축성, 북편에서 한겹의 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지만(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7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은 겹성벽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한편 朝鮮總督府의 조사 보고를 보면 칠중성에 대해 ‘이중원형’이라고만 기록하면서 ‘겹성벽’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내성과 외성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2, 47쪽), 홍재선은 내성과 외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8쪽), 민덕식은 내성과 나성(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을 갖추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칠중성 평면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131쪽)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가공한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2차 외벽은 1차 외벽에서 3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암반면에 점토+모래로 다진 후 그 위에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을 쌓았다. 그리고 두 외벽 사이에는 2차 외벽의 뒤채움돌이 있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2차 외벽에서 1m 떨어진 지점에 있고, 뒷심을 기울이며 상단으로 갈수록 들여쌓기를 하여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2).

현재 성내부로 들어가는 동벽진입로에도 1차 외벽과 2차 외벽 그리고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ㄴ’자형으로 삭토하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른 후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을 쌓았으며, 뒷채움은 점토와 잡석을 섞어서 다졌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1차 외벽에서 90c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부정형의 할석으로 쌓았는데, 뒷심을 기울이며 쌓으면서 비스듬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2차 외벽은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을 해체한 후 그 위에 축조하였고, 1차 외벽과 같은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1차 외벽과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두 성벽이 접하는 부분이었다고 추정된다(그림 3).

문지는 동문, 동남문,<sup>13)</sup> 서문 등 3곳이 확인되었다. 동문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능선,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에서 올라오는 길,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로 내려가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다. 동남문은 적성면 구읍리에서 올라오는 자연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서문은 적성면 두지리에서 올라오는 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곡 양 옆으로 토루 흔적이 있다. 한편 수구지는 동남문 근처에서 한 곳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중성산 정상부,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 동문 내부 등 모두 5곳이 확인되었는데, 군사시설 개설 등으로 인해 대부분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및 중성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내·외의 조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각각 망대와 장대로 추정되고 있다.<sup>14)</sup>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

1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민덕식 등은 남문으로 보고하였으나(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131쪽 도면 1)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 본 고에서는 동벽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남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2쪽.

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곽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지인데, 중간에 1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하로 2개의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물지가 서북벽 바깥 20~25m 지점과 동문 내부 건물지의 서쪽 지점 등 2곳에서 확인되었다.<sup>15)</sup>

성곽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기와로, 모두 압키와와 수키와 등의 평기와이다.<sup>16)</sup> 승문, 종선문, 사선문, 무문, 사격자문, 어골문, 격자문, 기하문 그리고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었고, 또한 고구려,<sup>17)</sup> 백제,<sup>18)</sup> 신라, 고려, 조선 등 다양한 국가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신라계 기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벽 보축성벽에서 ‘七’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성곽명과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고, 사격자문 계통으로 신라계 양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기와 다음으로 출토량이 많은 유물은 토기편으로 고배, 병, 시루, (광구)호, 인화문 뚜껑, 발형 토기, 완,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sup>20)</sup>

15) 주민들에 따르면 2개 이외에 또 다른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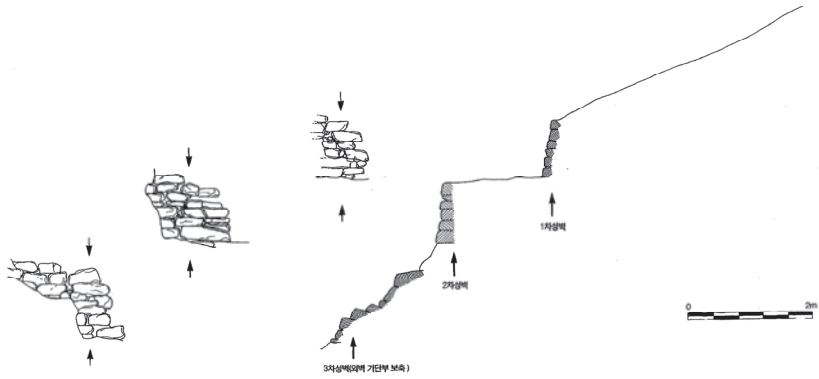
16) 성곽에서 출토된 기와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6·29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235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6~237·239~240쪽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9~302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17) 홍재선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고구려 계통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4~25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서벽에서 출토된 니질의 승문기와 1점을 고구려 기와로 추정하였고, 당초문 기와를 고구려계로 파악하였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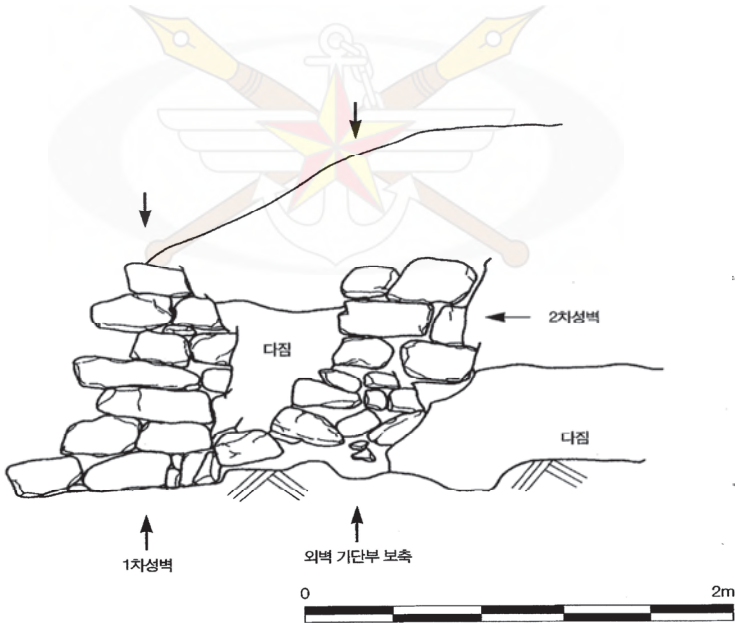
18) 홍재선은 부여 청마산성과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백제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4쪽).

1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4쪽.

20) 성곽에서 출토된 토기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7~30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2~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233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9쪽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02~307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 칠중성 동문 근처 성벽구간 단·입면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145쪽)



〈그림 3〉 칠중성 동벽진입로 성벽구간 단·입면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148쪽)

백제계<sup>21)</sup>와 고구려계<sup>22)</sup>의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신라계 토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3)</sup> 기와와 토기 외에는 철기로 낫, 솥,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 2. 성곽 축조의 주체 · 시기에 대한 추론

칠중성은 수개축의 흔적이 있을뿐더러<sup>24)</sup> 삼국의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칠중성을 둘러싸고 삼국간 치열한 쟁탈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 내용과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맞물려 칠중성이 언제 그리고 어느 국가에 의해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고고학적 양상을 살펴보면, 칠중성 남벽에 보이는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의 경우 가공한 장방형의 석재로 쌓았고 매단 들여쌓기를 하였으며 면석의 뒷부분을 앞부분보다 낮게 하여 부채꼴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축성벽은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 경기도내 신라 성곽에서 볼 수 있는 것

21) 홍재선은 부여 청마산성 입구의 버텨발과 공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백제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9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 심발형토기(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회백색 연질토기편과 흑색 마연토기를 백제 토기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2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회흑색과 황갈색 토기편(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흑색의 연질토기편 일부를 고구려계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267쪽).

23)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24) 예컨대 남벽 일부 구간에서 중수 흔적이 확인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51쪽).

으로 대체로 7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sup>25)</sup> 한편 외벽기단부 보축성벽과 체성벽 간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보축성벽 내외부의 점토층에 혼합된 기와가 뒤채움에서 보이지 않고 보축성벽의 기단석이 체성기단석보다 높다는 점을 들면서 동시 축조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차 외벽과 2차 외벽의 경우에는 크기나 형태 그리고 축조방법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축조시기차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sup>26)</sup> 그렇다면 현재 보이는 석축 산성의 모습은 7세기경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신라계로, 특히 기와와 토기는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성산성, 아차산성 등 경기도내 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중심연대를 7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7)</sup>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대거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를 보면 칠중성은 638년 3월에 ‘칠중성 남쪽의 커다란 돌이 스스로 35보 움직였다’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사는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수록되어 있다.<sup>28)</sup>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고 하여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sup>29)</sup> 고고 자료와 문헌 기록 모두 신라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신라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고 동문지 안쪽의 평탄지에 신라 성곽에서

25)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4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2~253쪽 ;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남경 고찰」, 『고구려연구』 11, 2001, 34쪽.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0·251쪽.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5~256쪽.

28)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3월. “七年 春三月 七重城南大石自移 三十五步”

29) 본고 기사 A를 참고하기 바란다.



볼 수 있는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신라가 처음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30)</sup>

전술하였듯이 칠중성에 대해 신라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하나,<sup>31)</sup> 여러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sup>32)</sup> 삼국 가운데 백제가 3세기 후반~4세기 전반경에 임진강 유역을 처음으로 차지하였고,<sup>33)</sup> 당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제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강원도 평강으로 추정되는 부현(斧縣)에서 말갈(동예)과 접경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sup>34)</sup> 석두성(石頭城)과 고목성(高木城)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sup>35)</sup> 석두성은 옛 고구려의 소읍두현(所邑豆縣)으로 연천군 삭녕 일대,<sup>36)</sup> 고목성은 옛 고구려의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연천군 연천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sup>37)</sup>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략하면서 7월에

30)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231쪽.

31) 연천 옥녀봉산성 및 군사산성과 더불어 6세기 이후 고구려와 대치했던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28쪽).

32) 홍재선, 민덕식, 김덕원 등이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7~22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9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341쪽).

33)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57~58쪽.

34)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176~177쪽.

35)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濫祚王 22년 8월.

36)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a, 356쪽. 石頭城은 『삼국사기』 권 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8년 5월조와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5월조에도 보이는데, 이때 석두성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기 때문에(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62쪽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 2004, 30쪽) 동일한 성곽이라고 볼 수 없다.

37) 이병도, 앞의 책, 1976a, 356쪽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 1976, 120쪽.

석현성(石峴城)을 포함한 10여 개의 성 그리고 10월에는 관미성(關彌城) 등 백제의 성을 빼앗았다고 하는데<sup>38)</sup> 석현성은 파주 일대,<sup>39)</sup> 관미성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합류처<sup>40)</sup> 그리고 10여 개의 성 가운데 일부는 임진강 유역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된다.<sup>41)</sup>

한편으로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파주 육계토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42)</sup> 즉, 3~4세기 백제와 말갈·한군현(漢郡縣)·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서 접경을 형성하고 백제가 임진강 이남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충지에 자리잡은 칠중성의 입지를 감안할 때 당시 백제가 축조한 성곽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sup>43)</sup>

칠중성 주변 입지가 백제 도성인 서울 풍납토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백제 성곽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38)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는 『삼국사기』本紀의 기록임을 밝힌다.

39) 石峴城을 신라 波平縣 즉 波濊平史의 훈차로 보면서 파주 파평면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1~182쪽). 한편으로는 關彌城과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나당전쟁기에 보이는 석현성과 동일시하면서 칠중성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주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40) 津田左右吉, 『朝鮮歴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70~71쪽 ;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68쪽 ;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49쪽. 구체적으로는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대동지지』 권3 交河 城池 ;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 1990, 126~131쪽 ; 김운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1995, 234~240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3~186쪽 ;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8~162쪽).

41)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3~157쪽.

42) 홍밖음, 「파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窓』 51, 2022, 10쪽.

4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칠중성 북쪽에는 육계토성이 있다. 육계토성과 풍납토성을 비교해 보면 두 성곽 모두 토성이고 각각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강 본류의 충적대지 남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육계토성의 배후에는 칠중성과 감악산, 대안(對岸)에는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이잔미성이 있고 본류에는 사마천과 석장천이 합류하는 반면, 풍납토성의 배후에는 이성산성과 남한산, 대안에는 아차산성이 있고, 본류에는 중랑천과 왕숙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계토성과 풍납토성 사이에 입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유사한 입지 속에서 이성산성이 풍납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된 것에 대응하여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sup>44)</sup>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를 백제가 축조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도 한다.<sup>45)</sup> 육계토성은 강안 평지에 위치한 백제의 주거지로서 이를 방어하는 배후가 반드시 필요한데, 칠중성이 그 역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백제 축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칠중성에서는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유물도 적게나마 출토되었다. 그런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면서<sup>46)</sup> 백제 축조의

44) 백종오,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値」, 『선사와 고대』 68, 2022, 43쪽. 한편 동·남·서편에서 확인되는 이중 축성법이 부여 부소산성과 성흥산성 등 백제계 성곽에서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석축성(칠중성)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토성(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을 분포시키는 배치가 백제의 국도인 부여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백제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4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7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46) 일부 백제 토기에 대해 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47)</sup> 물론 성곽에서 백제의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초기 백제계 토기편 출토를 바로 백제의 축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sup>48)</sup>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칠중성의 축조와 관련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만, 성곽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연용성’<sup>49)</sup>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축조 시기와 주체를 7세기대 신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언급한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칠중성에서 신라에 의한 석축만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 즉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토성이나 토성에 외면만 축성한 성곽을 축조하였고<sup>50)</sup>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석축 성곽이 보급되었을 것<sup>51)</sup>이라는 견해를 감안하면 백제와 관련한 석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제가 중성산에 석축 성곽이 아닌 다른 관방시설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백제는 3세기~5세기 후반에 토성 위주의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 백제가 육계토성과 같은 토성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sup>52)</sup>

대모산성을 참고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47)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4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257쪽.

49)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 2023, 18쪽.

50)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9쪽.

51)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 1990, 7쪽.

52)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까 싶다. 대모산성에서는 신라가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 성벽보다 낮은 위치에서 능선이 이어지다가 평탄해진 곳과 토루처럼 발독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백제 토기들이 있는 저장구덩이가 발견된 것을 감안하여 석축 성벽이 구축되기 이전 그 아래로 토루나 책(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53)</sup> 칠중성의 성벽 외부에서도 토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신라가 석축 성벽을 구축하기 전 백제가 구축한 방어시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보자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경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는 중성산에 토성 혹은 토루나 책과 같은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강을 건너 한반도 중부로 진출하던 상황에서 중성산의 관방시설을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한반도 중부에 보루를 축조하거나 백제의 관방시설을 연용하였던 모습을 감안하면<sup>54)</sup> 기존의 관방시설을 이용하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신라가 북진하여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였을 때 경기도 일대에 대거 석축 성곽을 축조하는 경향 속에서<sup>55)</sup> 지금의 모습과 같은 석축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론일 뿐이고, 앞으로의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칠중성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한편 칠중성과 육계토성에서 발견된 삼국시기 유물을 비교해보면 백제 유물은 육계토성에서 훨씬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고구

53)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33쪽;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쪽.

54)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2020, 251쪽;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1쪽.

55) 임진강 유역에 석성 축조를 유행시킨 국가에 대해 신라로 보기도 한다(민덕식, 앞의 논문, 1992, 132쪽).

려 유물의 경우 육계토성에서는 안정된 주거지내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5세기 고구려 남진기에 중요 거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sup>56)</sup> 반면 신라 유물은 칠중성에서 대거 출토되었고, 육계토성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일대의 주역이 육계토성에서 칠중성으로 넘어갔다는 근거로, 칠중성이 백제와 고구려가 점유하였을 당시에는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에 불과하였지만, 7세기 전반에 신라가 점유하였을 때에는 단순히 배후 성곽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57)</sup>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 백제가 처음 축조하였을 때에는 ‘난은별(難隱別)’이라고 불렀고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비로소 칠중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58)</sup> 반면 백제가 처음 축조한 이래 계속해서 칠중성으로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sup>59)</sup> 정확히 언제부터 칠중성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세기 전반 신라가 차지한 후에 칠중성의 기능이 대거 부각되면서 석축화되었고, 문헌 사료에도 성곽명이 처음 등장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떠나서 백제가 축조한 관방시설까지 소급하여 칠중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56)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4쪽.

57) 파주 육계토성은 강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에 비해 가용면적이 넓고 많은 인원이 주둔할 수 있는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춘 지역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1994, 24쪽 ;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 1995, 112쪽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89쪽).

5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쪽.

5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3쪽.



### Ⅲ. 문헌 기록에 보이는 칠중성과 영유권 변천

#### 1.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대립 속 칠중성

주지하듯이 313~314년 고구려는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소멸시켰고,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비로소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낙랑(樂浪)·대방(帶方)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371~377년 일련의 공방전 속에서 멸악산맥을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였다.<sup>60)</sup> 그러다가 392년 광개토왕이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고, 이에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과 관미성을 차지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에 백제가 빼앗긴 영역을 수복하고자 393~395년에 관미성, 수곡성(水谷城-황해북도 신계),<sup>61)</sup> 패수(溟水-예성강)<sup>62)</sup>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들 전장은 모두 예성강 일대였다. 즉, 백제의 반격으로 인해 양국의 접경이 임진강 유역에서 예성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가 영토 수복을 시도하며 맞서자 광개토왕은 396년에 다시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는데, 백제 도성인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58성(城) 700촌(村)’을 차지함으로써<sup>63)</sup> 예성강-임진강-경

60)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170쪽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2006, 46~50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0~178쪽 ; 박중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 2014, 61~66쪽.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黃海道 新溪縣.

62) 『고려사』 地理志3, 黃海道 黃州牧 平州.

63) <광개토왕릉비> 永樂 6년.

기 서해안-한강 하류-북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sup>64)</sup> 이때 백제는 고구려에 일시 항복하면서 도성과 한강 하류유역을 되찾았다. 그리고 곧이어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404년에는 왜(倭)를 움직여 황해도 연안으로 추정되는 대방계(帶方界)를 침략하도록 하였다.<sup>65)</sup> 왜가 대방계를 공격한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북쪽 변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예성강 이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는 398년에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하였는데, 백제 최북단에 축조된 성곽으로서<sup>66)</sup> 그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 장단이나<sup>67)</sup> 연천<sup>68)</sup>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396년 이래 양국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을 접경공간으로 설정하고 완충지대로 삼으며 대치한 것으로 추정된다.<sup>69)</sup> 이후 양국의 국경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던 475년까지 고착되었다.

392~475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는 예성강 유역 혹은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 칠중성은 고구려에 의해 운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마다 백제가 곧바로 탈환하면서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므로 칠중성은 대체로 백제에 의해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396년 이래 고착화된 양국의 접경은 475년에 이르러 대변환이 이루어졌고 그 변환의 시작은 고구려의 한성 함락이었다. 이후 양국 사이의 충돌 양상을 살펴보면 512년 가불성(加弗城)

64)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8~200쪽.

65) <광개토왕릉비> 永樂 14년.

66)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 2008, 18쪽.

67) 문안식, 앞의 책, 2006, 194쪽 ; 서영일, 앞의 논문, 2008, 18쪽.

68)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40~41쪽.

69)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4~175쪽.

과 원산성(圓山城)에서 전투를 벌여 고구려가 차지하였고, 548년에는 독산성(獨山城)에서 백제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550년에는 백제가 도살성(道薩城)을 차지하였고 고구려가 금현성(金峴城)을 포위하였다. 양국간 전투가 벌어진 가불성과 원산성은 충남 천안 일대,<sup>70)</sup> 독산성은 충남 예산,<sup>71)</sup> 도살성과 금현성은 각각 충북 증평 도안 일대와 세종 전의면 일대<sup>72)</sup>로 비정된다. 이로 보아 양국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차령산맥과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접경을 형성하였다고 여겨진다.<sup>73)</sup>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가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지만,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차지하였을 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에 있어서 임진강 유역은 4세기 후반에는 전방이었지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는 후방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군사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적 성격의 시설을 대거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강안)평지성인 호로고루, 연천 당포성, 연천 은대리성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sup>74)</sup>

이와 같이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의 지배를 염두하면서 지방 거점

70)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2013, 138~139쪽.

71) 문안식, 앞의 책, 2006, 342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0쪽.

72)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 1999, 371쪽 ; 김영관,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 2008, 49~51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2쪽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 2018, 82~83쪽.

73)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36~145쪽.

74)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77~79쪽. 연천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 5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105쪽).

적 성격의 시설을 대거 축조하였지만 기존의 성곽인 칠중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북쪽에 임진강, 남쪽에 감악산이 있는 상황에서 칠중성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75)</sup> 그렇다면 칠중성은 특별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제가 축조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 2.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대립 속 칠중성

전술하였듯이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는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고 있었는데, 551년에 또다시 대변환이 일어났다. 백제와 신라가 군사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죽령(竹嶺)과 강원도 철령으로 비정<sup>76)</sup>되는 고현(高峴) 사이의 고구려 10성(군)을 차지함으로써<sup>77)</sup> 한강 중상류지역을 차지하였고, 백제는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되는 한성과 아차산 일대로 비정되는 평양(平壤)을 차지함으로써 한강 하류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sup>78)</sup> 하지만 백제의 한강 하류유역 차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552년 고구려와 신라가 밀약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려 하면서<sup>79)</sup> 백제가 553년에 한성과 평양에서 자진 퇴각하였던 것인데, 이 틈을 타 신라가 한성과 평양을 차지하면서 한강 하류지역마저 차지하게 된다.

75)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1쪽.

76)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b, 671쪽.

77) 『삼국사기』 권44, 列傳4, 居柒夫.

78)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2년.

79)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3년 5월.

신라가 차지한 한성과 평양은 전술하였듯이 각각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와 아차산 일대로서 북한산 이남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북한산에 세워져 있는 <북한산순수비>는 정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sup>80)</sup> 북한산 이북에서는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sup>81)</sup>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신라는 553년에 한강 하류유역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산을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순수비>의 경우 비문에 전하는 ‘남천주(南川州)’가 568년 10월에 설치되었다는 점, 비문에 나오는 인물인 내부지(內夫智), 무력지(武力智) 등의 관등이 568년에 건립된 <황초령순수비>나 <마운령순수비>에 나오는 관등과 동일하다는 점, 세 순수비 모두 ‘욕노리여유충신정성(欲勞賴如有忠信精誠)’이란 표현이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68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82)</sup> 그렇다면 최소한 568년까지는 신라가 북한산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551년부터 고구려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는 603년까지 양국간 충돌 기사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7세기 초반까지 신라와 고구려는 북한산 줄기와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3)</sup>

이와 같이 6세기 중반~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가 북한산 줄기와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영역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 임진강 유역은

80)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3~85쪽.

81)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97~201쪽.

82)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 1983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68~69쪽.

83)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5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0~81쪽.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변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축조하면서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호로고루를 기존의 목책에서 석축화한 것처럼<sup>84)</sup> 기존 성곽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거나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대거 보루를 축조하여 차단·통제하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때 보루는 신라와의 밀약을 통해 북한산 줄기와 한강-임진강 분수령으로 국경이 정해진 만큼 그 인근에는 축조하지 못하고<sup>85)</sup> 감악산 계곡을 지나는 도로상에 축조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예컨대 노리천로상에 있는 파주 파평산보루와 파주 노고산보루, 감악산 서쪽의 설마천로상에 있는 파주 감악산보루와 파주 무건리보루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그림 4).

한편 설마천로상에 위치한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의 경우 칠중성을 북쪽에 두고 삼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칠중성이 배후로서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렸다고 볼 수 있고,<sup>86)</sup> 지역 거점성으로서의 중요성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전술하였듯이 고구려와 신라 간 소강기는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함으로써 끝이 난다. 즉, 7세기 초반부터 다시 양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칠중성이 문헌 자료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다.

- A-①. (선덕여왕 7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자 백성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선덕여)왕은 대장군(大將軍) 알천(關川)에게 명하여

84) 연천 호로고루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석축화에 대해 6세기 중반경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양시은, 앞의 논문, 2011, 127쪽).

85)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7쪽.

86)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7·382쪽.



(그들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11월에 알천이 고구려 병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병사가 매우 많았다(『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10~11월).<sup>87)</sup>

A-②. (영류왕) 21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關川)이 이들을 맞이하여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 병사가 패배하였다(『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1년 10월).<sup>88)</sup>

기사 A에 638년 10~11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칠중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 담겨 있는데, 문헌 자료에서 칠중성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sup>89)</sup> 기사에 따르면 고구려가 신라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이에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거주지를 떠나 산골짜기로 피신하자<sup>90)</sup> 신라 조정이 대장군(大將軍) 알천(關川)을 보내 백성의 동요를 무마하는 한편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고 한다.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을 때 신라 조정이 대장군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중앙군의 파견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중앙군과 한주(漢州)의 지방군이 동원되어 칠중성 사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가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어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칠중성의 백성이 동요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칠중성 인근 변경지역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sup>91)</sup>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백

87)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入山谷 王命大將軍關川 安集之 十一月 關川與高句麗兵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眾”

88) “二十一年 冬十月 侵新羅北邊七重城 新羅將軍關川逆之 戰於七重城外 我兵敗衄”

89) 『대동지지』 권3, 積城 典故를 보면 603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603년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공격’의 오기로 추정된다(김덕원, 2019, 앞의 논문, 344~345쪽).

90) 칠중성 남쪽에 위치한 감악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91) 신라가 임진강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거의 완비한 상황에서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병력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도 한다



〈그림 4〉 감악산 일대의 주요 성곽과 교통로

성을 동원한 성곽의 석축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sup>92)</sup> 그렇다면 신라군이 수성전 대신 성 바깥에서 싸우는 전술을 펼친 것은 칠중성 성곽의 방어력에 대한 불확신성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당시 칠중성은 수성전 수행보다는 군사들에게 군량 보급이나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강한 성곽<sup>93)</sup>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본 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638년 당시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한 성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475년 이래 고구려가 차지했던 칠중성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신라가 차지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629년 신라의 낭비성(娘臂城) 차지가 주목된다. 낭비성은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高句麗) 한산주(漢山州)에 보이는 견성군(堅城郡)의 고구려 지명인 비성군(臂城郡)으로, ‘마홀군(馬忽郡)’이라고도 불렀고 반월산성에서 ‘마홀(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월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sup>94)</sup> 그렇다면 629년부터 신라가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넘어 임진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칠중성 또한 차지하였다고 여겨진다.<sup>95)</sup>

하지만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진강 유역 이남만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고구려가 칠중성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이 북한산과 한강-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5쪽).

92) 신라 성곽의 석축 시점에 대해 강력한 전제왕권이 확립되었고 9州 5小京과 9 誓幢 10停이 완비되었던 신문왕(681~692년)대로 추정하기도 한다(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93)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94)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사학지』 28, 1995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95)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38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7~350쪽.

임진강 분수령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인데, 660년 10월까지 이와 같은 접경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B-①. (무열왕 7년-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였는데, 군주(軍主) 필부(匹夫)가 죽었다(『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 11월).<sup>96)</sup>

B-②. 태종대왕은 …… 필부(匹夫)를 칠중성의 현령(縣令)으로 삼았다. 그 다음해인 경신(660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당의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하여 겨울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와서 칠중성을 포위하였다. 필부가 지키고 또한 싸운 지 20여 일이 되자, 적장은 우리의 사졸이 정성을 다해 싸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음을 보고,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다고 일컬으며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자) 역신인 대나마(大奈麻) 비삼(比敵)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적에게 알리기를,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공격한다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적이 드디어 다시 싸웠다. …… 이에 (필부가) 군사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충신과 의사(義士)는 죽을 지라도 굽히지 않는다.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먹을 쥐고 한번 외치자 병든 자까지 모두 일어나 다투어 앞에 올랐다. 그러나 사기가 피곤하며 죽고 다친 자가 반을 넘었다. 적은 바람을 타면서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여 들이닥쳤다. 필부는 상간(上干) 본숙(本宿), 모지(謀支),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맞서 활을 쏘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비 오듯 하였는데, 몸이 풀리고 터지면서 피가 흘러 발꿈치에 이르렀고 이에 쓰러져 죽었다. (태종)대왕이 이를 듣고 매우 슬피 울면

96)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主匹夫死之”



서 급찬으로 추증하였다(『삼국사기』 권47, 列傳7, 匹夫).<sup>97)</sup>

기사 B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인 660년 10~11월에<sup>98)</sup>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를 보면 전투가 일어나기 전 칠중성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655년에 고구려는 백제 및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33성을 탈취한 바 있다. 그런데 660년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칠중성은 고구려에 빼앗긴 33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33성의 범위는 임진강 유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sup>99)</sup> 전투 직전까지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660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양국이 임진강 유역에서 대치하면서 이복은 고구려,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칠중성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전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신라 조정은 칠중성 전투에 대비하면서 필부(匹夫)를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양국 모두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략과 사수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00)</sup> 한편 필부의 파견 당시 관명에 대해서 기사 B-①에는 ‘군주(軍主)’, B-②에는 ‘현령(縣令)’으로 나온다. 필부는 그 아버지가 제6관등 아찬(阿飡)이었고 전투

97) “大宗大王 ……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 高句麗疾我 以冬十月發兵 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盡誠 鬪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逆臣大奈麻比歎密遣人告賊 以城內食盡力窮 若攻之必降 賊遂復戰 …… 乃告軍士曰 忠臣義士 死且不屈 勉哉努力 城之存亡 在此一戰 乃奮拳一呼 病者皆起 爭先登 而士氣疲乏 死傷過半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李宿·謀支·羨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 大王聞之 哭甚痛 追贈級飡”

98) 칠중성 전투의 개시 시점에 대해 기사 B-①에는 11월 1일, 기사 B-②에는 10월 이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10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9) 신라 33성의 범위에 대한 견해와 참고 문헌은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한산주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51~5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00)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가 끝난 후 제9관등 급찬(級飡)으로 추증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칠중성 파견 당시 6두품 출신의 제10관등 대나마(大奈麻)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군주는 군단의 지휘관이자 주(州)의 장관으로 급찬~이찬(伊飡)이 임명되었는데,<sup>101)</sup>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필부는 현령으로 임명되어 칠중성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필부는 전투 당시 휘하에 ‘상간(上干)’을 거느리고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상간은 지방세력에게 부여하는 외위(外位) 가운데 제5관등이다. 즉, 필부는 중앙군이 백제 부흥운동 진압에 나섬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sup>103)</sup> 상간을 통해 칠중성의 지방민을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칠중성 전투에 비삼(比敵)이 대나마로 참전하였다고 하는데, 필부가 현령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관등이 대나마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삼 또한 필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파견된 현령으로서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4)</sup> 그렇다면 다른 현(縣)에서도 지방민이 동원되어 전투에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즉, 신라는 칠중성 관할 현과 그 주변 현의 병력을 동원하여 칠중성 사수에 나섰던 것이다.

양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는데, 고구려군은 원사 공격과 화공 위주로 칠중성 공략에 나섰다. 이는 날씨와 성

10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102) 기사 B-①에 나오는 ‘軍主’에 대하여 관직명이 아닌 일반명사로서의 ‘군주’로 이해하기도 한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쪽).

10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16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73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0~62쪽.

104) 기사 B-②에 나오는 ‘七重城下縣令’을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으로 해석하면서 匹夫와 比敵 모두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칠중성에 대해 여러 현을 거느린 郡城이나 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거점 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65쪽). 그러나 칠중성이 縣으로 승격된 적이 없고 來蘇郡에 속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곽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전술이었다. 전투가 전개된 시기는 1월 겨울이었다. 그리고 칠중성은 상대적으로 동쪽과 남쪽이 낮다. 즉, 결빙기에 맞추어<sup>105)</sup> 임진강을 도하하면서 겨울에 부는 북서풍을 이용한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칠중성에서 가장 취약한 동남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던 것이다.

당시 칠중성 전투는 ‘고구려가 다시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면서 북한산과 임진강-한강 분수령으로 국경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라가 ‘이를 저지하느냐’라는 기로의 전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결과에 따라 양국의 접경 양상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위의 기사를 보면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황을 보면 고구려가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세였고, 신라는 전투 수행과정에서 반역자가 발생하고 병사는 피로하였으며 사상자가 절반이 넘었고 전투의 최고 지휘관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전황은 고구려가 승리하여 칠중성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sup>106)</sup>

하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C-①. (문무왕 2년(662년) 1월) (문무)왕이 (김)유신(庾信)과 (김)인문(仁問),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로 쌀 4천 석과 조(租) 2만 2천여 석을 실고 평양으로

105) 임진강의 결빙기는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라고 한다(이준선, 앞의 논문, 2005, 164쪽).

10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33쪽 ;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40~41쪽 ; 노태돈, 앞의 책, 2009, 161쪽 ;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18쪽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60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7쪽 ;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8쪽.

나아가게 하였다. 18일에는 풍수촌(風樹村)에서 묵었다. 얼음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에는 칠중하(七重河)를 건너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귀당(貴幢) 제감(弟監) 성천(星川)과 군사(軍師) 술천(述川) 등은 이현(梨峴)에서 적병(고구려군)을 만났는데 그들을 공격하여 죽였다. 2월 1일에 유신 등은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평양에서 36,000보 떨어져 있었다.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 등 15인을 보내 당의 군영에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동사하였다. 6일에는 양오(楊澳)에 이르렀다. 유신이 아찬(阿飡) 양도와 대감(大監) 인선(仁仙) 등을 보내 군량을 내주었고, …… 소정방(蘇定方)은 군량을 얻고는 곧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의 군사가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또한 군대를 돌려 과천(瓢川)을 건넜다(『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1~2월).<sup>107)</sup>

- C-②.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부장군(副將軍) (김)인문(仁間), (김)진복(眞服),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과 더불어 병사를 이끌며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임술(66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七重河)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배에) 먼저 오르지 않았다. …… (김유신이)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너자 모든 장졸이 서로 쫓아서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잠복하였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험한 데로 행군하였다. 산양(蒜壤)에 이르러 …… 이에 북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길에서 적병을 만났는데, 반격하여 그들을 이겼고 획득

107) “王命庾信與仁間·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 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蒜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二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風雪寒冱 人馬多凍死 六日 至楊澳 庾信遣阿飡良圖·大監仁仙等致軍糧 …… 定方得軍糧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川”

한 갑옷과 병사가 매우 많았다. 장새(障塞)의 험한 곳에 이르러 매서운 추위를 만났고, 사람과 말은 몹시 피로하여 이따금 엎어져 죽었다. …… 마침내 험한 곳을 지나고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 (열기(裂起)가) 드디어 장사(壯士) 구근(仇近) 등 15명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여 소장군(蘇將軍-소정방)을 만나 말하길, “유신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미 가까운 곳에 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유신 등의 행렬이 양오(楊陝)에 이르러 …… 당의 진영에 왕의 뜻으로써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소)정방(定方)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능히 싸울 수 없었는데, 군량을 얻자 곧 당으로 돌아갔다. 양도는 병사 800명으로써 바다로 환국하였다. 이때 (고구려)인이 병사를 매복시켜 아군을 돌아오는 길에 요격하고자 하였다. …… (신라군은) 밤중에 몰래 행군하여 표하(韮河)에 이르렀고 (김유신은) 급하게 (강을) 건너 언덕에서 병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고구려)인이 이를 알고 추격하였다(『삼국사기』 권 42, 列傳2, 金庾信).<sup>108)</sup>

기사 C에는 662년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서 평양성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당군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신라군은 1월에 출발하여 풍수촌(風樹村)-칠중하(七重河)-

108)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問·真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糧 入高句麗之界 壬戌正月二十三日 至七重河 人皆恐懼 不敢先登 …… 遂先自上船而濟 諸將卒相隨渡河 入高句麗之境 慮麗人要於大路 遂自險隘以行 至於蒜壤 …… 乃鼓行向平壤 路逢賊兵 逆擊克之 所得甲兵甚多 至獐塞之險 會天寒烈 人馬疲憊 往往僵仆 …… 遂過險 距平壤不遠 …… 遂與壯士仇近等十五人 詣平壤 見蘇將軍曰 庾信等領兵致資糧 已達近境 …… 庾信等行抵楊陝 …… 達唐營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迴唐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 時麗人伏兵 欲要擊我軍於歸路 …… 夜半潛行至韮河 急渡岸休兵 麗人知之來追”

산양(蒜壤)-이현(梨峴)-장새(獐塞)-양오(楊隴)를 거쳐 당군에게 군량을 전달하였다. 신라가 경유한 곳 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위치 비정이 가능한 것은 칠중하와 장새이다.<sup>109)</sup> 칠중하는 칠중성 근처에 흐르는 임진강, 장새는 신라 한주(漢州) 오관군(五關郡) 장새현(獐塞縣)으로 황해북도 수안군을 비정되는데,<sup>110)</sup> 그렇다면 신라군은 설마천로나<sup>111)</sup> 혹은 감악산 동쪽의 간파천로를 이용해 임진강에 이르고, 임진강을 건넌 다음에는 멸악산맥을 넘는 여러 고갯길 가운데 하나인 신계-수안로를 이용해 수안을 거친 후<sup>112)</sup> 방원령을 통해 연진산맥을 넘고 연산군을 지나<sup>113)</sup> 평양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의 식량 운송은 육로보다는 해로가 유리하다. 하지만 신라는 해로 운송 대신 육로 운송을 택하였다. 만약 신라군이 해로로 운송한다면 우선 해주만을 지나야 하는데, 그 일대는 고구려가 수군기지를 두고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sup>114)</sup>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야하는 황해도 장산곶 앞바다는 고려~조선시기에 조

109) 임진강 이북과 수안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蒜壤과 梨峴에 대해 각각 황해도 금천 일대의 달래가 많았던 한 평탄지, 멸악산맥 일대의 배나무가 많았던 한 고개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105~108쪽). 그리고 楊隴에 대해서는 평양시 강동군(이병도, 앞의 책, 1976a, 631쪽)이나 버드나무가 많았던 대동강 연안의 유포리(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14쪽)로 비정하기도 한다.

110)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新羅 獐塞縣.

111)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2005, 197쪽 ;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쪽.

112)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7쪽. 신라군이 임진강 도하 후에 개성과 삭녕 사이의 마식령산맥을 넘어 그대로 북상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즉 황해도 장단군과 금천군을 잇는 소로를 이용하여 은밀히 행군하였다는 것이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7쪽).

113)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114)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8쪽.

운선 왕래를 꺼려할 만큼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sup>115)</sup> 마지막으로 지나야하는 대동강의 경우는 계절상 결빙으로 인해 운송 선단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었으리라 여겨진다.<sup>116)</sup> 즉, 해로를 통한 운송은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고구려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군량을 수송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육로 그것도 멸악산맥을 넘는 데 있어 가장 험준한 고개를 이용하고 언진산맥을 통과하는 고난의 길을 택해야만 했다.

기사 C-①에 따르면 신라군은 칠중하를 건너 이현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의 첫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사 c-②에 따르면 신라군이 칠중하 도하를 두려워하였고, 군량 보급을 마친 후 서둘러 돌아오면서 표하(瓢河, 과천(瓢川)), 즉 임진강을 건너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는데, 두 기사 모두 여전히 임진강이 양국의 국경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사 c-②에 보이는 신라군이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는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662년 1~2월까지도 여전히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 양국의 국경은 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661년 1~2월에도 양국의 국경이 임진강 유역이었다고 한다면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는 신라가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62년에 신라군이 풍수촌에서 순조롭게 칠중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sup>117)</sup>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임진강 이남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사 B-②에 보이는 것처럼 무열왕은 전투 중에 전사한 필부를 급찬으로 추증하였는데, 그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추증하지 않았을까 싶다.

115)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8~261쪽.

116) 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4쪽.

11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3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한편 고구려가 661년에 북한산성을 공격한 바 있는데, 술천성(述川城)으로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고 한다. 대체로 술천성은 여주 흥천면,<sup>118)</sup> 북한산성은 아차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sup>119)</sup> 그렇다면 북한강 수계와 남한강 본류를 경유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칠중성에서 감악산 서쪽의 설마천로 혹은 동쪽의 간파천로를 통해 양주 분지를 지나고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의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최단 코스<sup>120)</sup>를 이용해 진군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칠중성을 포함해 임진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위와 같이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121)</sup>

신라는 629~638년 사이에 처음 칠중성을 차지한 이래 최소한 662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sup>122)</sup> 그런데 아래의 기사는 칠중성의 점유 주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D-①. “건봉(乾封) 2년(667년)에 이르러 대총관(大摠管) 영국공(英國公-이세적)이 요(遼-고구려)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자, 나(문무왕)는 한성주(漢城州)에 가서 병사를 보내 경계에서 가

118)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97쪽.

119) 최중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총』 81, 2014, 32쪽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한국사학보』 74, 2019, 308쪽.

120)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12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8쪽.

122) 고구려가 660년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성곽을 차지하였지만 662년 이전에 스스로 철군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그 이유로 임진강 이남이라는 한계로 인한 지속적인 물자 보급과 대신라전 후퇴 시 불리, 對당군 침략방어 주력 등을 들기도 한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76쪽). 그러나 고구려가 성곽을 차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과 663년 즈음에 결국 차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答薛仁貴書>에 언급되었다는 점(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까운 지역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병마가 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선 간자를 세 번 보냈고 배를 연이어 띄어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자가 돌아와서 모두 운운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도로를 열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英公)이 보낸 강심(江深)이 와서 운운하기를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마는 성을 칠 필요 없이 서둘러 평양으로 나아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고 하였고, 행렬이 수곡성(水谷城)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마는 드디어 곧 빠져 나왔습니다(『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sup>123)</sup>

- D-②. (문무왕 7년(667) 7월) 가을 8월에 (문무)왕이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출발하였다. 9월에는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이세적)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는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달하였다. (영공이) 이동혜(兪同兮) 촌주(村主) 대나마(大奈麻) 강심(江深)을 보냈는데, (강심은)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성(漢城)에 이르렀다. (영공이) 편지를 전하여 출병시기를 독촉하자 대왕이 이를 따랐다. 11월 11일에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년 8~11월).<sup>124)</sup>

123) “至乾封二年 聞大總管英國公征遼 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覘候大軍 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 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 其城垂垂欲破 英公使人江深來云 奉大總管處分 新羅兵馬不須打城 早赴平壤 即給兵糧遣 令赴會 行至水谷城 聞大軍已迴 新羅兵馬 遂即抽來”

124)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停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兪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含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

기사 D에는 667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 담겨져 있는데, D-①은 신라의 당 공격에 대한 설인귀(薛仁貴)의 항의 서신을 받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냈다는 답서 이른바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의 내용 일부이고 D-②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세적(李世勣)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으로 진군하였고, 문무왕이 이끄는 신라군은 한성주(漢城州)에 주둔하면서 당군의 평양성 진군에 맞추어 합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원래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파주(적성)-장단-개성-금천을 거쳐 평산-서흥로를 이용해 멸약산맥을 넘는 이른바 자비령로<sup>125)</sup>를 이용하여 진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양성 부근에 도착한 이세적이 군량을 실고 빠르게 평양으로 합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라군은 우회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진군 도중에 당군의 회군 소식이 들리면서 신라군 역시 회군하였는데, 회군 소식을 들은 곳에 대해 기사 D-①에는 수곡성, 기사 D-②에는 장새라고 나온다. 전술하였듯이 수곡성은 황해북도 신계, 장새는 황해북도 수안이다. 신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로는 신계-수안로를 택해 언진산맥을 넘어 대동강을 따라가는 방법과 신계-서흥로를 택해 멸약산맥을 넘는 다음 재령강과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sup>126)</sup> 전자의 경우 언진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준함이 있는데, 신라군이 이세적의 독촉으로 인해 서둘러 진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방법을 통해 평양성으로 진군하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당의 회군 소식을 들은 곳은 D-①에 나오는 수곡성으로 추정된다.

125)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2쪽.

126) 멸약산맥을 넘어가는 대표적인 고갯길로는 신계-수안로, 신계-서흥로, 평산-서흥로, 해주-재령로 등이 있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62쪽).

전술하였듯이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는데, 기사 D-①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진군로를 열고자 하였다고 한다. 662~667년 사이에 신라는 고구려에게 칠중성을 빼앗긴 것이다. 고구려가 어느 시점에 칠중성을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663년 즈음에 신라가 백제 부흥세력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체로 이 틈을 타서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점유 기간은 길지 못하였다.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629년 신라가 낭비성을 차지한 이래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40년여간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임진강 북쪽을 총괄하는 사령부로 호로고루를 삼으면서, 임진강 북안에 파주 덕진산성 등의 성곽을 축조하거나 연천 무등리보루 등의 보루를 축조함으로써 전열을 정비하였다. 반면 신라는 임진강 남안을 따라가며 고구려 성곽에 대응하는 지점에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였는데, 칠중성을 비롯해 파주 오두산성, 파주 봉서산성, 파주 이잔미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의 대형 산성을 지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축조하였고, 그 사이에는 보루를 축조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27)</sup> 즉, 임진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의 성곽과 보루 그리고 임진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의 성곽과 보루들은 당시 양국의 침예한 대립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12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3~74쪽.

### 3. 신라와 당 사이의 대립 속 칠중성

임진강 유역은 삼국 간 대립 속에서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긴장감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주지하듯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 및 백제를 멸망시킨 당이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故地)는 물론 신라까지 통할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이에 신라가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나당전쟁이 벌어졌다. 당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은 요동(遼東)의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며 672년 7월에 평양성에 주둔하였다. 이후 당군은 8월에 대동강 하류<sup>128)</sup>의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차지하였고, 황해북도 서흥으로 추정되는<sup>129)</sup> 석문(石門)에서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하면서 멸악산맥을 넘어 한반도 중남부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673년 5월에는 호로하(瓠瀾河) 즉 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군마저 격파하면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나당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진강 유역이 또다시 전장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9월에 신라가 호로하에서 당군을 물리치면서 전장은 예성강 방면으로 이동되었다.<sup>130)</sup>

이후 나당전쟁은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에 의해 평정되면서 신라와 당 사이의 대결 양상으로 변모하였고, 짧은 소강기를 거쳐 675년 2월 당군의 침공으로 재개되었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E-①. (문무왕 5년-675년)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칠중성에서 우

12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83, 181쪽.

129) 이병도, 앞의 책, 1983, 181쪽.

130)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8~89쪽.

리(신라) 병사를 깨뜨렸다.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아 경략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입공하고 사죄하자, 황제(당고종)는 그를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 그러나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계를 쳐서 주(州)와 군(郡)으로 삼았다. 당병이 거란 및 말갈과 더불어 침범한다는 말을 듣고 9군(九軍)을 보내 그들에 대비하였다. …… (9월)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하였는데, 아군(신라군)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남아 있는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 당병이 거란 및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었다. 당의 병사 또한 석현성(石峴城)을 에워싸고 빼앗았는데, 현령(縣令) 선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2·9월).<sup>131)</sup>

E-②. 상원(上元) 2년(675년) 2월에 (유)인궤(仁軌)가 칠중성에서 그 무리(신라군)를 깨뜨렸고 말갈 병사로써 바다를 건너 (신라) 남쪽 경계를 침략하였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시켰는데, 세 번 싸워 로(虜-신라군)가 모두 패하였다(『신당서』 권220, 列傳145, 新羅).<sup>132)</sup>

E-③. (함형) 5년(674년)에 (유)인궤가 계림도대총관(鷄林道大總管)이

131) “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王乃遣使 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 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 出九軍待之 ……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132)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되어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였다. (유)인궤(仁軌)는 병사를 이끌고 호로하(瓠盧河)를 곧바로 건너 그 북방의 대진(大鎭)인 칠중성을 격파하였다(『구당서』 권84, 列傳34, 劉仁軌).<sup>133)</sup>

기사 E에는 675년에 있었던 신라군과 당군 사이의 일련의 전투가 담겨져 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이 때 당군은 호로하를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다. 서북한에서 예성강과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칠중성 공격 당시 당군은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칠중성을 ‘대진(大鎭)’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나당전쟁기에도 칠중성이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인 기사 E-①과 『신당서』의 기록인 기사 E-②를 비교하면 내용상 차이가 있다. 기사 E-①에는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린 후에 병사를 이끌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 기사 E-②에는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리고 말갈 군사를 신라의 남쪽 변경으로 보내 승리한 후에 병사를 이끌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기사 E-①에는 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나, 기사 E-②에는 당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한국측 사료와 중국측 사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한 내용을 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한국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sup>134)</sup>

기사 E-①을 보면 당시 양국은 칠중성 외에 매소성과 석현성 등에서도 전투를 벌였다. 매소성은 대체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되고

133) “五年 爲鷄林道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徑度瓠盧河 破其北方大鎭七重城”

134)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역사학보』 44, 1969.



있고,<sup>135)</sup> 석현성은 전술하였듯이 파주 일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75년 9월에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이 천성(泉城)을 공격한 바 있는데, 천성은 대체로 ‘천정구(泉井口)’로 불린 임진강·한강 하구의 오두산성으로 비정된다.<sup>136)</sup> 즉, 양국은 675년에 이르러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사를 보면 9월 매소성 전투 후에 신라군과 당군이 칠중성에서 또다시 전투를 치른 것으로 나오는데, 2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깨뜨렸다고 나오고(破) 9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오면서(來圍), 다소 어색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에 당군이 차지하였지만 9월 이전에 신라가 탈환하면서 당군이 재차 공격한 것으로 보는 견해,<sup>137)</sup> 2월에 당군이 함락하지 못하면서 9월에 재차 함락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sup>138)</sup>

최근에는 중국측 사료와 국내전승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695년 2월에만 전투가 벌여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sup>139)</sup> 칠중성을 둘러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전개 양상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675년 2월과 9월의 칠중성 전투를

135)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179쪽;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114쪽.

136)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 2000,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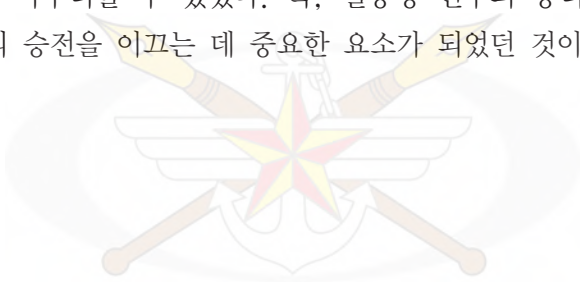
137)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15쪽.

138)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41~146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6~357쪽.

139)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299~302쪽;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128~132쪽.

동일한 전투로 보고 기사를 종합해보자면 675년 2월 당군은 칠중성을 깨뜨렸지만 함락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군을 동원하여 천성을 공격하였지만 이마저도 함락에 실패하자, 칠중성보다 방어가 취약한 매소성으로 집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40)</sup>

칠중성 전투에서 당군이 승리하였다면 손쉽게 양주 분지나 한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면서 매소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매소성에서도 패배하고 만다. 반면 신라군은 매소성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이듬해인 676년 11월에 기벌포(伎伐浦)에서 당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칠중성 전투의 승리는 나아가 나당전쟁의 승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140) 이상훈, 앞의 논문, 2022, 149쪽.

#### IV. 맺음말-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 사이의 접경으로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임진강은 양안에 높이 10m 내외의 수직 절벽이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도하 세력에 대한 방어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량이 적고 강폭이 좁아서 수직 절벽이 발달하지 않은 구간에는 특별한 장비 없이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여울이나 작은 배를 이용해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도하로는 임진강을 건너 남·북진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울이나 나루터 근처에는 군사시설이 대거 구축되어 있다.<sup>1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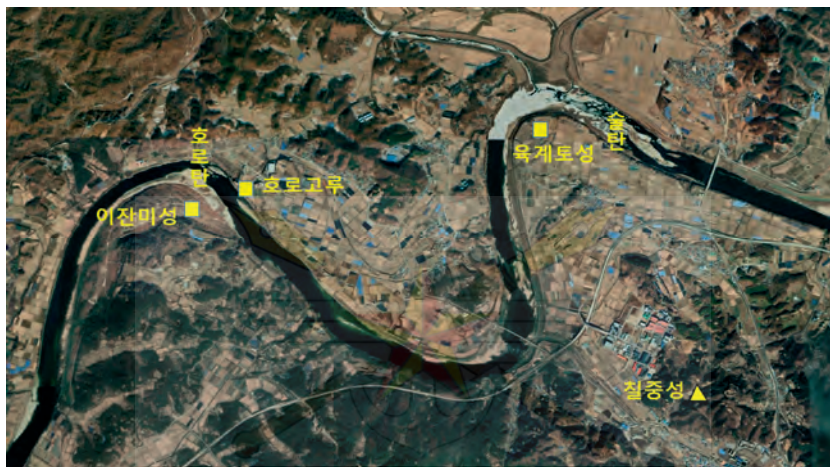
이 가운데 사미천의 합류로 인해 형성된 술탄(가여울)과 고랑포 맞은편의 호로탄은 임진강 최하류의 여울로서 고대 이래 매우 중요한 도하로로 주목을 받았다(그림 5).<sup>142)</sup> 특히 술탄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무릎 이하이고, 폭은 300~400m에 달하면서<sup>143)</sup> 언제든지 대규모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데, 임진강 이남에서 술탄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자리 잡은 성곽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즉, 칠중성은 술탄 도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칠중성에서는 호로탄에 대한 조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호로탄에

14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12~14쪽. 예컨대 수내나루, 덕진나루, 장산나루 주변에는 파주 덕진산성, 호로탄 주변에는 연천 호로그루와 파주 이잔미성, 술탄에는 파주 육계토성, 당개나루에는 연천 당포성, 유진나루에는 연천 무등리보루, 장군나루와 한여울에는 연천 대전리산성이 있다.

142) 홍계선, 앞의 논문, 1983, 15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143)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11쪽 ; 앞의 논문, 2005, 181쪽.

대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술탄과 호로탄의 남쪽 강안에는 각각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성곽은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을때 칠중성은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의 배후 성곽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칠중성 주변의 여울과 성곽(구글 어스)

칠중성의 또 다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점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곽이 위치한 적성면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 감악산 서쪽으로 설마천을 따라 형성된 설마천로(감악산서로, 적성서로), 감악산 동쪽으로 간파천을 따라 형성된 간파천로(감악산동로, 적성동로)가 있는데, 두 길 모두 양주분지(천보산맥)를 지나면서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로 이어진다.<sup>144)</sup> 즉, 두 교통로 모두 양주,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것이다(그림 4).

144)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한편 설마천로는 북쪽으로 술탄과 호로탄 등의 여울과 이어지고, 간파천로는 북쪽으로 당개나루와 이어진다. 즉, 북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한강 유역에 이르고자 할 때 설마천로를 선택함이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교통로 가운데 설마천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칠중성은 설마천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감악산에서 양주 분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sup>145)</sup>

방향을 바꾸어 적성면에서 술탄이나 호로탄을 통해 임진강을 건너면 장단, 개성,<sup>146)</sup> 금천, 평산, 서흥, 황주를 거쳐 평양으로 이르는 교통로가 있다. 즉, 적성면에 위치한 칠중성은 임진강의 여울 통제를 통해 한반도 서북부와 중부 지역을 잇는 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개성-장단-양주-의정부-서울 교통로<sup>147)</sup>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이었던 것이다(그림 6).<sup>148)</sup> 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또한 임진강 유역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 되면서 칠중성은 남진세력과 북진세력 모두에게 진군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칠중성은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었던 임진강 유역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성곽이었지만 처음부터 중요시된 것은 아니었다. 3세기 중반 이래 임진강을 경계로 말갈과 낙랑 그리고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백제는 임진강 유역에 대

145)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62쪽.

146) 개성은 해주-신원-재령으로 이어지는 길, 이른바 재령로가 지나가기도 한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5쪽).

147) 도중에 건너는 임진강의 여울이 최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단 코스가 되기도 하였다.

148) 적성면에서는 이성산성-양진-한양군-내소군-중성현-장단현-임강현-우봉군-영풍군-오관군-취성군-평양으로 이어지는 장단도로(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쪽), 적성-장단-석주원리-구화리-위천리-금천-평산으로 이어지는 黃卵嶺路 등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61~363쪽).

거 성곽을 축조하면서 최전방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육계토성과 파주 월룡산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고<sup>149)</sup> 칠중성은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하였다.<sup>150)</sup>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고구려의 후방이라는 성격 속에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성들을 대거 축조하였다. 하지만 6세기 중반에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신라와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이 전방으로 변모하자 인근의 성곽을 개·보수하는 한편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대거 보루를 축조하였는데, 이 때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린 거점성으로서 칠중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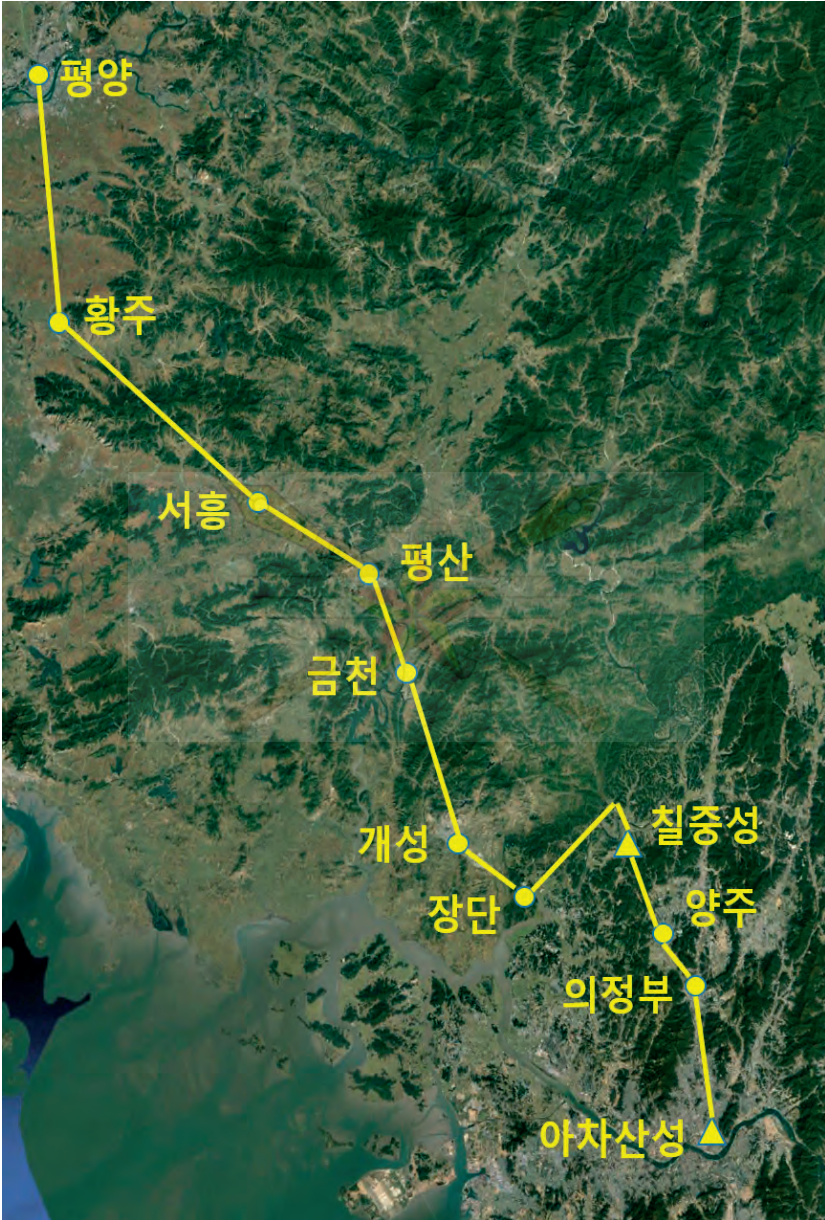
7세기 전반에 이르면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때 성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다시 남진하여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면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 그리고 북진의 거점성 역할을 하던 북한산성으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음으로써<sup>151)</sup> 한강 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에 있어 임진강을 건넌 고구려군의 남진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전투가 벌어지면 신라는 중앙군과 인근의 지방민까지 동원하여 사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칠중성의 기능이 나당전쟁기까지 이어짐에 따라 당군도 여러 차례 칠중성을 공략하였다. 이와 같이 칠중성은 한강 유역으로의 진군을 막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강하였지만, 반대로 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군이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할 때 칠중성을 가장 먼저 공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49)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1쪽.

150) 칠중성을 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 등을 거느린 성곽으로 보기도 한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15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쪽.





〈그림 6〉 평양 - 서울 간 교통로(구글 어스)

한편 칠중성 전투에 인근 지방민까지 동원하였던 모습은 칠중성을 거점으로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당시 칠중성은 간파천로상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2)</sup> 또한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세기에 반월산성과 더불어 신라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주요 거점성으로서 활용되었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sup>153)</sup>



152) 다만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에서는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신라 신주의 재편과 당향성의 관방체계



| 정덕기



# 신라 신주의 재편과 당항성의 관방체계

정덕기

- I. 머리말
- II. 신주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 III.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
- IV. 해문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해방 체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신라는 중고기에 대중(對中)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고기 초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은 학술·문화 교류 및 정치 등이었다. 중고기 전반 신라는 고-수 전쟁을 이용해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켰고, 대수(對隋) 외교의 주요 목적을 청병(請兵)으로 전환하였다.<sup>1)</sup> 중고기 후반~중대 초 신라는 대당(對唐) 청병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신라의 대당 외교 활성화 요인은 여러이나, 중요 요인의 하나에

1)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 2021(a).



는 당항성(党項城)의 운영·유지가 있다. 당항성은 귀당지로(歸唐之路)·입조지로(入朝之路)·[조]공도([朝]貢道) 등으로 불리는 신라-당 간 뱃길의 시작점, 즉 신라의 해문(海門)이기 때문이다.<sup>2)</sup> 당항성 관련 지명은 당항성(党項城)·당항성(棠項城) 등 표기를 달리한 거점 명칭, 당항진(党項津)·당은포(唐恩浦) 등 항구 명칭, 당성군(唐城郡)·당은군(唐恩郡) 등 행정구역 명칭, 당성진(唐城鎭) 등 군사 시설 명칭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성군·당은군은 고려 이후 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로 이해되었고,<sup>3)</sup> 당항성(党項城)·당항성(棠項城)의 위치 비정은 조선 후기 지리지부터 언급되었다. 『동국지리지』는 ‘덕물도(德物島) 앞 당항진’을 고려해 당항성을 남양부(南陽府) 일대라 하였다.<sup>4)</sup> 『해동역사속』은 신라-당의 교통로가 남양해(南陽海)를 경유하므로, 남양에 가깝고 당항(棠項)과 음이 유사한 장항구현(獐項口縣), 즉 안산군(安山郡, 현 경기도 안산시)에 비정하였다.<sup>5)</sup> 『대동지지』는 신라 변계(邊界)인 당항성(黨項城)을 본래 백제성으로 보아 남양 일대에 당항성·당성진을 비정하고, 현 당성(唐城) 유적을 당항성의 고적(古

2)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 冬 11월 ; 『신당서』 권220, 列傳185, 東夷, 百濟, [太宗 貞觀 16년(642)], 6199쪽 ; [송(宋)찬녕(贊寧), 『송고승전』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 義湘傳.

3) 『고려사』 권56, 地理1, 楊廣道, 仁州, 唐城郡. “唐城郡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 改爲唐恩郡” ; 『세종실록』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本高句麗 唐城 縣 新羅改爲唐恩郡 高麗復古名”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京畿, 南陽都護府, 建置沿革.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改唐恩 高麗 初 復舊名”

4) [조선]한백겸(韓百謙), 『동국지리지』, 新羅, 形勢·關防, 棠項城. “或稱 棠項津 中原朝貢之路 百濟嘗與高句麗合 謀奪據棠項城 絕中原往來之路 愚案 蘇定方之來 新羅太宗王出次南川 卽今利川 世子 法敏以兵船 迎定方於德物島 以此見之 所謂 棠項津 似在今南陽府 無明文可考 不敢強解”

5) [조선]한진서(韓鎭書), 『해동역사속』 권7, 地理考7, 新羅 城邑, 棠項城. “【鎭書】 謹案 棠項城者 新羅通唐之路也 當時通唐 每由南陽海 則棠項城 當在南陽近地 據新羅地志 今 安山郡 本獐項口縣 棠 獐 音近 所謂棠項 似是安山也”

蹟)이라 하였다.<sup>6)</sup>

당향성의 위치에 대한 『대동지지』의 비정은 근대 사학에 계승되었다. 역사지리학의 시각에서 조선 후기 지리지 기록과 1980년경까지의 고고 자료를 비교하며 당향성을 당성에 비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7)</sup> 1998·2000년 당성 1·2차 발굴이 진행되며 당향성·당성 관계가 검토되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일부 구간, 건물지(성안 평탄지), 북문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당성은 토성보다 석성이 먼저 축조되었고, 바다를 통한 교역거점으로 통일신라~조선 시대에 활용한 성으로 당향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졌다.<sup>8)</sup>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당성 본성(本城) 성벽(북문지~망해루지로 추정되는 곳) 중 북벽 구간, 성안 최정상 평탄대지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당성은 내성(內城) 혹은 본성, 외성(外城), 자성(子城) 등을 갖춘 복합식 산성이 아니라, 외성(7세기 전후 구봉산 정상부~서쪽 능선 정상부를 감싸는 테피식 석축성)→본성(9세기경 구봉산 정상부~동쪽 능선 사면에 축조한 포곡식 토석혼축성) 순서로 축조되었고, 본성은 829년 당성진(唐城鎭) 설치와 맞물린 산성으로 추정되었다.<sup>9)</sup>

2015~2019년 3~6차 당성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성에서는

6) [조선]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 권4, 京畿道, 南陽. “沿革 本百濟 黨項城 新羅 景德王 十六年 改唐恩郡 …… 城池 唐城古縣城【府東 周三千七百七十七尺】 唐城古鎭城【西二十里 周二千四百十五尺】 …… 石山城【西三十三里 周二千九百五尺】”; [조선]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 권30, 歷代志, 方輿總志2, 新羅. “統合前疆域 …… 善德主 十一年 百濟與高句麗謀 欲取新羅 黨項城 以絕歸唐之路. 【地理志云 黨項城 似是 今 南陽 按 唐城 是黨項城之改號 仁川府之龍流島 西岸 有石墩 名朝天臺 疑朝唐時 發船於此】 ……【按 據此 則自德源 安邊緣金城 鐵原 永平 積城 楊州 喬桐 江華 仁川 南陽 振威 水原 安城 鎭川 清州 文義 沃川 茂朱 安義 雲峯 皆其邊界】 營鎭 …… 唐城鎭【南陽】”

7)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 1980.

8)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208~209쪽.

9)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查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243~245·255~256쪽.

‘당(唐)·본피모(本彼謀)·한산(漢山)·관택(館宅)’명 기와, 백제 양식 토기·중국산 백자, 삼국~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발견되어 당성·당항성의 관계, 본피부·한산주와의 관련성, 1차성 축조 이전 집단 및 신라-당 교류와 당성의 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1차성은 6~7세기 초축되어 나말여초에 폐기, 2차성은 1차성 일부를 활용해 구봉산 급경사면을 따라 확장 축조했다고 한다. 2차성은 고려 초 전면적인 성벽 증축, 고려 중·말기 부분적인 개·보축이 있고, 조선 초까지 왜구 침입을 대비하는 방어성으로 기능했다고 한다.<sup>10)</sup>

1980년의 역사지리학적 성과, 1998·200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 견해가 널리 수용되며,<sup>11)</sup> 신라사 속 당항성의 명칭·역할, 643년 당항성 전투, 당항성 일대의 방어체계·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라는 진흥왕 15년(554) 관산성 전투의 대승으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흥왕 25년(564) 북제에 사신을 보내며 처음 당항성을 썼다고 추정된다. 당항성은 서해 중부 횡단 항로(신라도)의 기점이다. 당항성의 명칭은 당성군(党城郡) 혹은 당항성군(党項城郡, 고구려, ~551년)→당성군(党城郡) 혹은 당항성군(党項城郡, 신라, 551~668년)→당성군(唐城郡, 681~692년 이후)→당은군(唐恩郡, 742~765년 중 개명)→당성군(唐城郡, 829년)으로 변화하였다. 이

10)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제 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1~6차 발굴조사의 성과는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21, 31~36·164~176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1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323쪽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122·126~127쪽.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당은군(唐恩郡) 조, 551년 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 618년 당의 건국, 668년 삼국통일전쟁, 신문왕대(681~692) 신라-당 교류, 경덕왕대(742~765) 지명 개정, 흥덕왕 4년(829) 당성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견해이다.<sup>12)</sup> 또 당은군은 대당 교류를 기초로 ‘당의 은혜를 받거나 입는 지역’이고, 성덕왕대(702~737) 활발한 대당 교류가 이루어져 경덕왕대에 당항성(黨項城)을 당은군으로 개명했다고 한다.<sup>13)</sup>

당항성(黨項城)이란 표기가 발생한 이유를 선덕왕대(632~647) 신라-당 관계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고구려에서 당항성을 부른 명칭은 알 수 없다. 신라는 618년~경덕왕 개명 이전까지 대개 ‘당(唐)으로 가는 길목(項)’이란 뜻에서 당항성을 당[항]성(唐[項]城)으로 불렀다. 668년 당항성(黨項城)·당항진(黨項津)은 대당 항로의 출발지·종착지로 기능한 신라의 관문성(關門城)·관문항(關門港)이며, 당[항]성(唐[項]城)과 당항성(黨項城)은 모두 당성을 말한다. 다른 표기인 당항성(黨項城)은 7세기 중엽 기사에만 집중적으로 보이며, 선덕왕 즉위 초 신라-당 관계에서 유래하였다. ‘당(黨)·당항(黨項)·당항강(黨項羌)’은 수·당대 탕구트를 가리킨다. 당은 태종 정관 원년(627) 탕구트 통제를 시작해 정관 5년(631) 탕구트를 상당히 장악하였다. 당은 정관 8년(634) 토욕혼 원정에 탕구트를 동원하기도 하나, 정관 9년(635) 탕구트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27~635년은 진평왕 말~선덕왕 초이며, 당은 선덕왕이 즉위했지만 책봉하지 않았다. 여왕인 선덕왕은 정통성·정당성이 부족해 당의 책봉이 필요하였고, 633년 탕구트 관계 정보를 입수하였다. 선덕왕은 당항(唐項)을 당항(黨項)으로 고쳐 당의 탕구트 장악을 축하하고, 당의 동방진출에 신라의 역할을 환기하여 책봉을

12)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 2013, 157~165쪽.

13)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 2015, 12쪽.

받아냈다. 당항(党項)은 삼국통일전쟁기까지 고유명사로 쓰이나, 삼국통일 후 당성군의 치소가 산성에서 평지로 바뀌며 당항(党項)이란 표기도 소멸되었다.<sup>14)</sup>

643년의 당항성 전투는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고구려·백제 연화(連和)의 실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당항성(진)은 신라의 대중 외교의 출항지·입항지이다. 신라가 인천·강화·평택 등 주변 지역을 확보해 대중 해로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동 공격을 여·제 연화의 계기로 본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5)</sup>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분리해 이해하기도 한다. 백제는 642년 7~8월에 신라 왕도를 위협하였고, 643년 신라-당의 연결을 끊고자 당항성 공격을 도모하였다. 여·제 연화는 분명하지 않지만,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 일대 신라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공조를 통해 당항성 공격을 상당 기간 준비하였다.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에 유출되었고, 643년 11월 신라는 당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전하며 구원을 청했다. 백제는 전격적인 당항성 공격이 어려워지자, 당항성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 철병하였다.<sup>16)</sup> 또 외교사적 관점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 당항성 전투를 이해하기도 한다. 신라-당의 연결을 끊기 위한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 유출되자, 신라는 당에 사신을 급파하였다. 643년 9월 4일 신라의 구원 요청과 당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643년 11월 당 사신 상리현장의 도착으로 신라의

14)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 2016, 62~83쪽.

15)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 2015, 148~153·158~163쪽. 이 글에서는 당항성 주변의 주요 관방 유적으로 평택 일대 비봉·자미·무성 등 산성을 지목하였다.

16)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 2019, 25~31쪽.

대당 청병을 인지한 백제가 당항성에서 철병했다고도 한다.<sup>17)</sup>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의 날조에 가까운 전략적 외교술로 보아 당항성 전투를 이해하기도 한다. 당시 백제의 공세는 신라 하주(下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당항성에 대한 백제의 발병·철병은 조공로 차단과 관련된 작은 전투·국지전을 신라가 당에 전달한 결과로, 신라의 일방적 주장 외 실체가 없다고도 한다.<sup>18)</sup>

당항성 일대의 방어체계·경관 등은 신라의 안성·용인 진출과 당성의 관계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죽주산성, 장원리·반제리 고분군 출토 고고 자료는 신라가 555~567년 당항성 방어를 위해 안성 지역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안성은 직산-이천을 북동-남서로 연결해 이천·남양만 방어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sup>19)</sup> 당성 동쪽 백곡리 사지·산성 일대는 삼국~남북국시대 중요 항구 도시로 기능한 대규모 취락이 있었고, 당성 남쪽 상안리 유적 I·II는 굴고개를 쓴 교통로와 연결되며, 백곡리 구릉 지대에 있던 백사(白寺)는 사신·구법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sup>20)</sup> 당성과 용인 할미산성·석성산성의 관계도 검토되었다. 할미산성은 6세기 중반~7세기 중반에 쓰였고, 할미산성의 축조 목적은 이천-용인-화성 간 교통로 확보, 동-서 교통로 통제, 탄천·경안천 유역 감제이다. 석성산성은 늦어도 8세기대 할미산성 방어를 보강하고자 축조되었다. 석성산성 축조 후 할미산성은 폐기되지 않아 두 산성이 함께 쓰였을 수도 있다고 한다.<sup>21)</sup>

17)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2~7쪽.

18) 박중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94~200쪽.

19)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 195~206쪽.

20)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 2019.

21)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한편 최근 7세기 당항진·당항성을 삼전도·삼전도 배후 성이라고도 하나,<sup>22)</sup> 당성 3~6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신라 자료, 7세기에 당항진을 서울 동쪽에 둘 이유, 당항성의 구체적인 위치, 당항성과 신주(新州)·한산주(漢山州)의 주치(州治) 관계, 1관직-복수관위제와 진(鎭) 책임자의 상당위 관계 등 중요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

당항성을 당성으로 보고 진행한 선행연구는 당항성의 위상·역할·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신주의 재편 과정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항성은 천혜의 요새이자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 시작되는 공간이었다. 660년 소정방은 덕물도(德物島)에서 김법민과 접선하고, 668년 유인궤는 당항진(党項津)에서 김인문과 접선하기 때문이다. 두 사례는 당군의 첫 기착지가 덕물도·당항성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삼국통일전쟁 개전 시점의 신라는 당군의 손실을 피해야 하였다. 덕물도·당항성에서 소정방·유인궤를 맞은 이유는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상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항성은 신주 소속이므로,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신주의 관방 체계와도 관련이 있겠다.

본고는 군사사적 시각에서 6~7세기 전반 신주의 재편과 해문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맺는 관계를 해방(海防) 체계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II장에서는 신주의 재편 과정 속에서 당항성을 둔 시점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논의하겠다. III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육방(陸防) 체계의 강화에 대해 정리하겠다. IV장에서는 해문 당항성의 도서 환경을 분석하고, ‘가상의 2중 내해(內海)’를 활용한

62, 한국고대학회, 2020, 90~95쪽.

22)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당성(唐城)’ 설 비판과 ‘한강(漢江)’ 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 2021 ;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항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 2022.

당항성의 해방 체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본고의 논의가 당항성 및 신라의 해양 관방 체계를 논의할 때 기초 검토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II. 신주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신라는 551년 9월 백제와 공조해 죽령(竹嶺) 이외(以外)~고현(高峴) 이내(以內)에 있던 고구려의 10군(郡)을 취했고,<sup>23)</sup> 553년 7월 백제 고토(故土)인 동북 변경(鄙) 6군(郡)을 취해 신주(新州)를 두고 아찬(阿飡)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았다.<sup>24)</sup> 신주는 나제 동맹의 완전 파기, 백제 적대를 전제로 취한 한강 유역의 새(新) 영역이었다. 553년 신주의 영역은 서해안에 연결하지 않아, 당항성을 포괄하지 못했다.<sup>25)</sup> 신라는 554년 7~12월의 관산성 전투를 통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였다.<sup>26)</sup>

554년 이후 신주는 서해안 일대와 당항성을 포괄하는 행정구역으로 확대·재편되므로, 이에 수반한 지방통치체계·방어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진흥왕본기에서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지방통치체계·방어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A로 인용하였다.

A-①. 겨울 10월. 왕이 북한산(北漢山)에 순행해 봉강(封疆)을 칙정

23)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551) ; 『삼국사기』 권19, 高句麗本紀 7, 陽原王 7년(551) 秋 9월 ; 『삼국사기』 권44, 列傳4, 居柒夫【或云, 荒宗.】 [眞興大王] 12년(551) 辛未.

24)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553) 秋 7월 ;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聖王 31년(553) 秋 7월.

25)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29~37쪽.

26)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77~207쪽.

(拓定)하였다. 11월,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지나온 주(州)·군(郡)의 1년간 조(租)·조(調)를 면제하고, 곡사(曲赦)하여 2죄(罪) 외 죄수는 모두 사면하였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555)).<sup>27)</sup>

A-②. 비열홀주(比列忽州)를 두고 사찬(沙飡) 성종(成宗)을 군주로 삼았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7년(556) 秋 7월).<sup>28)</sup>

A-③. 국원(國原)을 소경(小京)으로 삼았다. …… 신주(新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8년(557)).<sup>29)</sup>

A-④. 귀족 자제와 6부의 호민(豪民)을 국원소경에 옮겨 채웠다. 나마(奈麻) 신득(身得)이 포노(砲弩)를 만들어 바치니, 그것을 성 위에 설치하였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9년(558) 春 2월).<sup>30)</sup>

A-⑤.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다. 또 비열홀주(比列忽州)를 폐하고 달홀주(達忽州)를 두었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568) 冬 10월).<sup>31)</sup>

A-①은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인 555년 10월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봉강(封疆)을 척정(拓定)하였고, 11월 북한산에서 경주로 돌아오며 순행에 수반되는 절차가<sup>32)</sup>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A-①에서 “척정봉강(拓定封疆)”이 주목된다. 대체로 “척정(拓定)”

27) “冬 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教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

28) “置比列忽州 以沙飡 成宗爲軍主”

29) “以國原爲小京 …… 廢新州 置北漢山州”

30) “徙貴戚子弟 及六部 豪民 以實國原 奈麻 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31)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32) [후한(後漢)채옹(蔡邕), 『독단』 上, 40~42쪽. “幸者 宜幸也 世俗謂幸 爲僥倖 車駕所至 民臣被其德澤以僥倖 故曰幸也 先帝故事 所至見長吏 三老 官屬 親臨軒作樂 賜食 皂帛 越巾 刀 珮 帶 民爵有級數 或賜田租之半 是故謂之幸 皆非其所當必而得之”

은 “획정하다”,<sup>33)</sup> “넓혀 정하다”로 새기나,<sup>34)</sup> “평안히 하였다(平定)”가 타당한 해석이다.<sup>35)</sup> 즉 “척정봉강”은 “영역을 평안히 하였다”란 의미이다. 이것은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 진흥왕이 북한산까지 순행해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목적·중점은 무엇일까? 신주는 551년 얻은 10군, 553년 얻은 6군을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신라는 관산성에서 백제 가용병력 대부분을 살획하므로,<sup>36)</sup> 554년 이후 한강 하류·서해안 일대를 장악하였다. 따라서 555년 “척정봉강”은 553년보다 확대된 신주의 주·군 정비·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신주의 기반인 10·6군 중 정비·안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6군 및 554년 이후 새로 확보한 지역이다. 553년의 6군 획득은 551년 획득한 10군의 안정에 기초하며, 554년 이후 새로 확보한 지역은 6군 인접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55년 북한산 순행과 “척정봉강”은 신주 서북지역 주·군의 정비·안정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후 신주는 계속 정비되었다. A-②는 556년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둔 기사이다. 비열홀은 현 강원도 안변(安邊)에 비정된다.<sup>37)</sup> 556년 비열홀주의 영역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주는 주치(州治) 기준으로 몇몇 군(郡)·현(縣)을 배속시킨 것이다. 556년 비

33)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96, 95쪽.

34)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정보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149쪽.

35) [남조(南朝) 송(宋)]유의경(劉義慶) 찬(撰) / [양(梁)]유효표(劉孝標) 주(注), 『세설신어』 26편, 輕詆 16조, 31~32쪽. “桓公欲遷都 以張拓定之業”

36) 성왕대 백제의 가용병력, 관산성 전투의 동원병력에 대해서는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14~17·31쪽 참고.

37)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朔州, 朔庭郡. “本 高句麗 比列忽郡 眞興王十七年 梁 太平 元年爲比列州 置軍主”

열흘주는 신라가 551년 취한 10군 일부를 기반으로 성립했을 것이므로, 신주의 동북 군·현 일부는 556년 비열흘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신주의 관할 범위 축소와 남은 신주 영역에 주치의 행정력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A-③은 국원소경의 설치와 신주 주치가 북한산(현 서울시)으로<sup>38)</sup>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553년의 신주 주치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선행연구에서 남천(현 이천)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다.<sup>39)</sup> 선덕왕 6년(637) 한산주·수약주 분리 전 신주의 주치는 북한산이나 남천으로, ①남천(진흥왕 14년(553))→②북한산(진흥왕 18년(557))→③남천(진흥왕 29년(568))→④북한산(진평왕 26년(604)) 등으로 이동하였다.<sup>40)</sup> 553~637년의 85년간 신주 주치가 유지된 기간은 북한산·남천이 45년간·40년간이므로, 북한산·남천은 신주 주치 후보지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이다. 신주 주치의 변화가 국원소경과 연결되고, 신주 설치의 목적이 국원소경의 전방거점 확보라는 점에서,<sup>41)</sup> A-③은 북한산~남천~국원소경 사이 지역에 대한 정비·안정과 직결되었다.

A-④는 국원소경에 귀척자제(貴戚子弟)·6부 호민(豪民)을 사민해 국원소경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포노(砲弩) 등 신무기를 배치해 국원소경의 방비를 확충했음을 보여준다.

A-⑤는 568년 신주·비열흘주의 주치가 남천·달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달홀은 현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에 비정된다.<sup>42)</sup> 이것은 신

38) 장창은, 앞의 책, 2014, 172~178쪽.

39) 강봉룡, 「신라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100~109쪽.

40)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郷土서울』 73, 2009, 13~15쪽.

41)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38~45쪽.

42)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302쪽.

라 북방에 둔 2개 주의 주치가 이전 주치보다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신주의 주치가 남천으로 이동하면서 주치의 행정력은 남천 일대에 강도 높게 투사되었다. 이상 신주의 정비·안정과 관련된 조치는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권역에 적용되었다.

당항성을 두고 관방 체계를 구축한 시점은 언제일까? 『삼국사기』, 지리지는 당항성(党項城)을 비정하지 않았고,<sup>43)</sup> 당은군은 한주의 9 번째 군으로 2개의 영현(領縣)을 설명하나, 경덕왕 이전 당은군과 2개 영현의 연혁은 소략하게 서술하였다.<sup>44)</sup>

당항성을 둔 시점은 진흥왕의 대중 외교가 활성화된 시점을 참고할 수 있다. 진흥왕은 564년 북제에 사신을 보냈고,<sup>45)</sup> 북제 무성제(武成帝)는 565년 2월 갑인(甲寅, 1일, 565.03.18)에 진흥왕을 ‘사지절(使持節)·동이교위(東夷校尉)·낙랑군공(樂浪郡公)·신라왕(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sup>46)</sup> 564년 출발한 신라 사신은 북제의 수도인 업(鄴)에 도착해 565년 2월 1일에 내린 조서를 받아 진흥왕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진흥왕은 북제에 1회, 진에 5회의 사신을 보냈고,

43) 『삼국사기』 권37, 雜志6, 地理5, 三國有名未詳地分. “党項城”

44)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漢州. “唐恩郡 本 高句麗 唐城郡 景德王改名 今 復故 領縣 二 車城縣 本 高句麗 上【一作 車】忽縣 景德王改名 今 龍城縣 振威縣 本 高句麗 釜山縣 景德王改名 今 因之”; 『三國史記』 권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唐城郡 上忽【一云 車忽】 釜山縣【一云 松村活達】”

45)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5년(564). “遣使北齊朝貢”; 『북제서』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3년(564) 是歲, 93쪽. “高麗 靺鞨 新羅 並遣使朝貢”; 『북사』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3년(564) 是歲, 285쪽. “高麗 靺鞨 新羅 並遣使朝貢”

46)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565) 春 2월. “北齊 武成皇帝 詔 以王 爲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북제서』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94쪽.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북사』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285쪽.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이하 본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만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양친년중서력환신(兩千年中西歷轉換)’ (<https://sinocal.sinica.edu.tw/>) 를 참고하여 중력(中曆)과 서력(西曆)을 환산하였다.



진에서도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진흥왕은 564년부터 대중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므로,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점은 564년이다.

신주의 정비·안정 관련 조치와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점을 고려하면, 555~564년의 10년 사이에 당항성을 두고 관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관 조치는 555~558년의 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A-①~④는 연속성이 있으며,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범위에 작용할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A-⑤는 A-①~④보다 10년 이후에 나타났고, 당항성 운영이 이미 활성화된 이후에 나타났다. A-⑤는 555~558년 대중 외교 창구로 둔 당항성이 활성화되자, 신주 주치를 당항성과 가까운 남천으로 옮겼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항성 관방 체계의 변화는 신주의 주치 변화와 연결되며,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신주의 주치는 553~556년, 568~603년의 40년간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은 555~558년에 두어 564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당항성 설치 및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기에 신주의 주치·주치정은 남천에 있었다.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의 36년 동안 남천-국원소경 위주 관방 체계에 편입되며 골격이 잡혔다. 6세기 중후반에 용인 할미산성 등이 당항성~남천 간 교통로에 축조된 것 등은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

555~558년에 둔 당항성은 564년부터 대중 외교 창구로 활성화 되었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 남천-국원소경의 관방 체계와 맞물려 골격이 구축되었다. 568~603년은 진흥왕 29년~진평왕 25년에 해당하며, 신라는 진평왕 16년(594)부터 대수 외교를, 진평왕 43년(621)부터 대당 외교를 전개하였다. 한편 신라는 진평왕 47년(625) 11월 ‘고구려의 조공로 차단’을,<sup>47)</sup> 선덕왕 11년(642) 7월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시도’를 당에 거론하였다.<sup>48)</sup> 신라의 대중 외교는 중고기 전반에 시작되나, 고구려·백제가 신라의 대중 외교를 차단하려 한 것은 중고기 후반이었다. 당항성이 신라 대중 외교의 창구라는 점에서, 이상의 흐름은 당항성의 위상 및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와 연동되었다. 본 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를 위주로 논의하겠다.

진흥왕 29년(568)~진흥왕 흥거년·진지왕 원년(576)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진지왕 2~4년(577~579) 신라·백제는 추풍령로에서 각축하였다.<sup>49)</sup> 진지왕 흥거년·진평왕 즉위년(579)~진평왕 19년(597)의 삼국은 국가별 내부 사정상 본기에 기록할만한 큰 전쟁이 없는 시기, 즉 소강·휴전기를 맞았다.<sup>50)</sup> 소강·

47)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48)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8월.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絶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49)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 2009, 145~149쪽.

50) 정덕기, 앞의 논문, 2021(a), 15~17쪽.

휴전기의 영향은 진평왕 23년(601)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신라는 진평왕 24년(602)·25년(603)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 1차 아막성 전투(602)는 신라·백제의 대화전에서 신라가 승리한 전투였다.<sup>51)</sup> 북한산성 전투(603)는 진평왕이 친히 兵 1만을 이끌고 북한산성을 구원해 승리한 전투이지만,<sup>52)</sup> 604년 신주 주치가 북한산으로 환원되는<sup>53)</sup> 계기로 작용했다고 이해된다. 이후 신주·한산주 주치는 계속 북한산에 있었다.

568~603년 당항성의 관방 체계, 특히 육방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지리적으로 당항성은 백제와의 접경 지역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기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주요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백제는 당항성 등 한강 유역보다 추풍령로·아막성 등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며, 기본 방향 수정 및 육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었어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대개 유지되었다.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04년 신주의 주치 환원은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항성-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는 36년 동안 구축한 산물이었다. 당항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이상,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많지 않았다.

둘째, 604년 이후 백제의 주요 공격은 신주·한산주 방면이 아니라, 하주(下州)·상주(上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백제 무왕의 신

51)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황은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 에 대한 고찰」, 『軍史』 85, 2012 참고.

52)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5년(603) 秋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 『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4년(603).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眾我寡 恐不克而退”

53)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6년(604) 秋 7월. “廢南川州 還置北漢州”

라 공격은 하주 방면 진출이 주요 목적이고, 간간히 상주 방면을 공격하였다. 신주·한산주 방면 공격은 늑노현(勒努縣, 괴산) 전투에 불과하다. 백제는 신라가 북변·서변의 고구려·백제를 함께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굳이 신주·한산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의자왕대 대신라전(對新羅戰)은 648년까지 무왕대의 전략이 유지되고, 649년부터 신주·한산주 방면 공격이 진행되었다.<sup>54)</sup> 양자를 고려하면, 적어도 648년까지 신라는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많지 않았다.

다만 604~648년 당항성 육방 체계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무왕의 웅진 주둔(627),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모의(643)가 있어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B를 보자.

B-①. [627] 백제 장군(將軍) 사갈(沙乞)이 [백제본기 : 신라(新羅) 서비(西鄙) 2성을 함락하고 남녀 300여구(餘口)를 잡아갔다. [백제본기 : ③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아가(出) 웅진(熊津)에 주둔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당에 급함을 고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곧 그쳤다]([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9년(627) 秋 7월 ; 『삼국사기』 권27, 百濟本紀5, 武王 28년(627) 秋 7월).<sup>55)</sup>

B-②. [642] 가을 7월. 백제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라 서쪽 40여성(餘城)을 공격해 취하였다. 8월. [백제왕 의자가] 또 고구려와 더불어 당항성(党項城)을 취해 당으로 가는 길(歸唐之路)을 끊고자(絕) 모의(謀)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당(唐)의] 태종에게 급함을 고하였다([삼국사기] 권5, 新羅

54) 박종욱, 앞의 논문, 2022, 189~193쪽.

55) “百濟 將軍 沙乞 拔西鄙 二城 虜男女三百餘口” ; “王命將軍 沙乞 拔新羅 西鄙 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 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本紀5, 善德王 11년(642)).<sup>56)</sup>

B-③. [642] 가을 7월. [의자]왕이 친히 군사를 통수해 신라를 침범하고, 미후(彌猴) 등 40여성(餘城)을 떨어뜨렸다(下)(『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642)).<sup>57)</sup>

B-④. [643] 겨울 11월. [의자]왕이 또 고구려와 신라의 당항성(党項城)을 취해 [신라가] 입조(入朝)하는 길을 막고자(塞) 하였다.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당항성(=之)을 공격하였다. 신라왕 덕만(德曼, 즉 선덕왕)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청하였다.  
 ㉡[의자]왕이 그것을 듣고 병사를 파하였다(『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sup>58)</sup>

B-⑤. [643, ㉠연개소문 열전 : 마침(會=643년 3월)] 가을 9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言)[연개소문 열전 : 告]. “백제가 우리나라 40여성(餘城)을 공격해 취했습니다. 다시 고구려와 병사를 합쳐 입조(入朝)하는 길을 끊고자(絕) 모의(謀)하였습니다. [㉡연개소문 열전 : 소국(小國)이 부득이 군사를 내려 합니다. 옹드려 바라건대] 병사를 빌려 구원해 주십시오(『삼국사기』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 『삼국사기』 권49, 列傳9, 蓋蘇文).”<sup>59)</sup>

B-①은 627년 7월 백제 장군 사걸의 신라 서쪽 변방 2성 함락,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을 보여준다. 신라본기는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평왕이 당에 구원을

56) “秋 七月 百濟王 義慈 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57) “秋 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彌猴等四十餘城”

58) “冬 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 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 德曼 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59) “秋 九月 新羅遣使於唐 言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乞兵救援” ; “會新羅入唐 告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小國不得已出師 伏乞天兵救援”

요청하면서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이 무력시위로 끝났기 때문이겠다.

B-①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B-①-①-①은 무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欲復新羅侵奪地分)” 대병을 웅진에 주둔했다고 하므로, 무왕의 공격 목표는 신주나 신주 남부이다. 554~627년 신라는 대개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 신라의 백제 공격전은 3회이다. 578년 알야산성 및 605년 백제 동비(東鄙) 공격은 실패로 보이며, 618년 가잠성(槪岑城) 전투는 611년 백제가 뺏은 가잠성을 신라가 수복한 전투이다.<sup>60)</sup> 따라서 B-①-①-①의 “신라가 침탈한 땅”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신주·신주 남부뿐이다. 또 626년 신라·백제는 고구려의 ‘조공로 차단’을 당·삼국 간 외교 문제로 삼았고,<sup>61)</sup> 진평왕은 무왕의 군사행동을 “사신을 보내 당에 급함을 고함(遣使告急於唐)”으로 대응하였다. 즉 무왕의 주요 공격 목표는 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긴 시간 동안 육방 체계를 구축한 당항성이 포함되었다. 무왕은 사건의 서쪽 변경 2성 함락을 통해 신라의 방어병력을 서쪽 변경으로 집중시킨 후, 대병으로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를 뺏으려 하였다. 그러나 진평왕이 당에 개입을 요청하자 무왕이 철병하였고,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은 대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것은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에 대한 무왕의 공격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므로, 이 사건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 계기로 작용하였다.

B-②·④~⑤는 643년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기사로

60) 611·618년 1~2차 가잠성 전투의 전황에 대해서는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槪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173~183쪽 참고.

61)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8년(626) 秋 7월. “唐 高祖 遣朱子奢來 詔諭與高句麗連和”; 『삼국사기』 권27, 百濟本紀5, 武王 27년(626). “遣使入唐 獻明光鏡 因訟高句麗梗道路 不許來朝 上國 高祖遣散騎常侍 朱子奢 來詔諭我及高句麗平其怨”



자료별 시점과 사건의 실체가 분분하다. B-②의 642년 7월은 『구당서』, 백제전을 옮기다 발생한 두찬(杜撰)이며, 643년 사건이라 한다.<sup>62)</sup> 신라본기는 B-② 이후 642년 겨울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사(請兵使)로 갔으므로, 사건 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sup>63)</sup> 당 자료에서 B-②와 유사한 기사는 『자치통감(資治通鑑)』만 전하며, 643년 9월 경진(庚辰)에 서술되었다.<sup>64)</sup> 연개소문 열전은 이 기사의 시점을 “마침(會)”이라 하고,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한 기사에 이어 썼다. 고구려본기는 643년 3월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했다고 하고,<sup>65)</sup> 643년 9월에 B-⑤를 썼다. 백제본기는 643년 11월에 B-④를 썼다. 이로 인해 9월은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시점, 11월은 당항성을 공격한 백제의 철수 시점이라거나,<sup>66)</sup> 9·11월에 신라가 견사할 수 있고, 특히 11월은 백제의 공격과 신라의 견사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상정하기 어렵다고도 한다.<sup>67)</sup> 또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백제의 해명이 있었으므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날조한 일방적 주장 및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형 사건이다. 당항성 공격은 백제의 단독 계획이며, 11월은 백제의 신라 조공로 차단을 위한 작은 전투·국지전이 발생해 신라

62)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23쪽.

63)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15쪽.

64) 『자치통감』 권197, 唐紀13, 太宗 貞觀 17년(643) 9월 庚辰(4일, 643.10.21), 6204쪽. “新羅遣使言 百濟攻取其國四十餘城 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乞兵救援”

65) 『삼국사기』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3월.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 釋並興 而道教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教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取僧寺館之”

66) 윤성환, 앞의 논문, 2019, 29~31쪽; 최희준, 앞의 논문, 2022, 5~6쪽.

67)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 2021, 12~14쪽.

의 견사를 듣고 철수한 시점이라고 한다.<sup>68)</sup>

B-②·④~⑤는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일대의 단독 공격,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마침내 병사를 내어 그것을 공격하였다(遂發兵攻之), 왕이 그것을 듣고 병사를 파하였다(王聞之罷兵)”(B-④)라는 설명이나, 백제의 여제 연화 부인<sup>69)</sup> 등을 고려하면, 백제는 단독으로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철병하였다. 이것은 627년 사건의 신라 서비 2성 함락 후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과 전쟁 수행방식이 유사하다. 백제는 642년 신라 서쪽의 미후성 등 40여성을 함락하고, 신라가 서변에 방어력을 집중하는 틈에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당의 개입을 통해 위기를 타파하려 하였고, 백제는 당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철병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공격은 실효를 얻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643년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엮은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42년 8월 대야성 함락으로 신라는 백제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동맹·원병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사로 파견되었다. 둘째, 고구려는 신라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신라의 청병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신라는 당과의 동맹 및 당의 원병이 필요하였고, 당은 백제·신라보다 고구려 정벌에 관심이 많았다. 신라는 공세를 펼치는 백제와 청병을 거절한 고구려를 한통속으로 몰았다. 또 당이 신라를 도와주면, 신라는 당의 고구려 정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추었다.

신라가 당에 고한 급박한 상황은 나라 서쪽 40여성 함락과 백

68) 박중욱, 앞의 논문, 2022, 194~200쪽.

69) [당(唐)허경종(許敬宗) 편(篇), 『문관사림』 권664,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 一首, 251쪽. “前得新羅表 稱王與高麗每興土衆 不遵朝旨 同侵新羅 朕便疑王必與高麗協契 覽王今表 及問康信 王與高麗 不爲阿黨”

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뿐이며, B-②·④~⑤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개소문열전에서 신라의 원병 요청은 “신라가 먼저 군사를 낼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졌다(B-⑤-㉔). 신라는 최대 위기인 대야성 함락을 은폐하고 급한 일만 도와달라는 형태로 당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B-②·④~⑤가 나타났다.

643년 백제의 공격 규모는 알기 어렵지만, 이 사건으로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강화되어야 하였다. 642년 신라는 백제에 의해 서쪽의 40여성·대야성을 잃었고, 고구려는 신라의 청병을 거절하였다. 백제가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에 대한 공격 의도를 드러낸 이상, 신라는 당항성을 지켜야만 하였다. 따라서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강화되어야 하였다. 649년 이후 백제는 공격 전략을 전환해 한산주 남부에 공세를 집중하나,<sup>70)</sup> 신라는 당항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것은 604~648년 2회에 걸쳐 당항성의 육방 체계가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겠다.

#### IV. 해문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해방 체계

전 장에서는 당항성의 육방 체계의 변화상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당항성의 도서 환경 분석을 위주로 해문(海門)의 의미와 당항성의 해방(海防) 체계를 논의하겠다. 『송고승전』·『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에서 의상의 입당(入唐) 과정 일부, 『신당서』, 지리지의 당-신라 간 뱃길 관계 자료를 C로 인용하고, 당항성 일대 지형을 <그림 1>로 정리하였다.

70) 박종욱, 앞의 논문, 2022, 212~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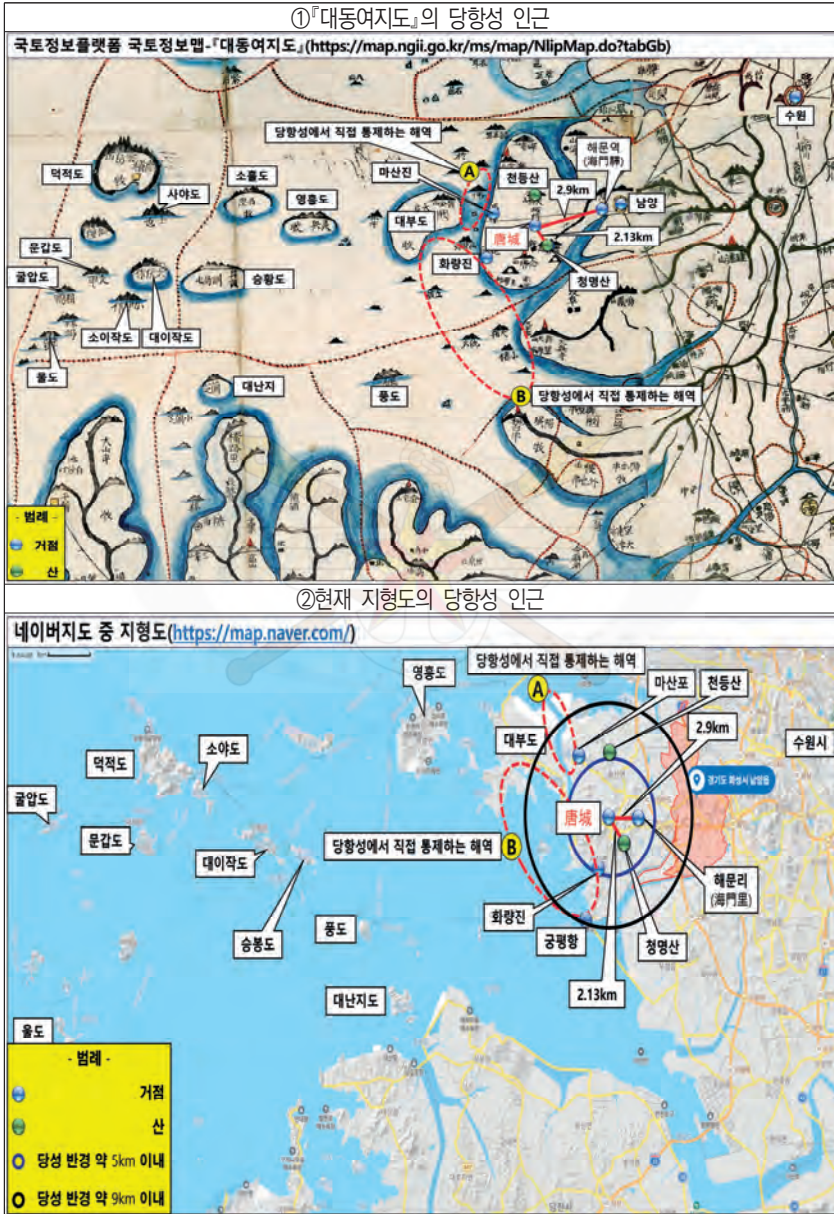
- C-①. 승려 의상(義湘)은 속성(俗姓)이 박(朴)이고, 계림부(鷄林府) 사람이다. …… 나이 약관에 이르자, 당(唐土)에 교종(敎宗)이 정성(鼎盛)하다고 들어 원효법사(元曉法師)와 함께 서쪽으로 유학(西遊)할 뜻을 같이하였다. 가서 ‘본국(本國)의 해문(海門)과 당주(唐州)의 경계’에 이르러 거함(巨艦)을 구하길 계획하고, 장차 창파(滄波)를 넘고자 하였다([송(宋)]찬녕(贊寧), 『송고승전』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義湘傳).<sup>71)</sup>
- C-②. 당의 의상은 신라국 계림부 사람이다. 나이 약관에 중국의 교법(敎法)이 융성함을 알고, 곧 동지 원효법사와 책을 지고 서쪽(西)으로 갔다. 이윽고 해안(海岸)을 따라가니(遵), 말하기를 ‘당주(唐州)라 하였다([원(元)]담악(曇噩), 『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sup>72)</sup>
- C-③. ㉠ 등주(登州)에서 동북쪽으로 항해해 대사도(大謝島), 구흠도(龜歆島), 말도(末島), 오호도(烏湖島)를 경유하면 300리이다. 북쪽으로 오호해(烏湖海)를 건너 마석산(馬石山) 동쪽 도리진(都里鎭)에 이르면 200리이다. ㉡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청니포(靑泥浦), 도화포(桃花浦), 행화포(杏花浦) 석인왕(石人汪), 탁타만(橐駝灣), 오골강(烏骨江)을 경유하면 800리이다. ㉢ 또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오목도(烏牧島), 패강구(貝江口), 초도(椒島)를 경유하면, 신라 서북 장구진(長口鎭)에 도착한다. ㉣ 또 진왕석교(秦王石橋), 마전도(麻田島), 고사도(古寺島), 득물도(得物島)를 경유하면 1,000리이고, 압록강(鴨綠江), 당은포구(唐恩浦口)에 이른다. ㉤ 또 동남쪽 육로로 700리를 가면, 신라 왕성(王城)에 도착한다(『신당서』 권43하, 志33하, 地理7하).<sup>73)</sup>

71) “釋 義湘 俗姓 朴 雞林府人也 …… 年臨弱冠 聞唐土敎宗鼎盛 與元曉法師 同志西遊 行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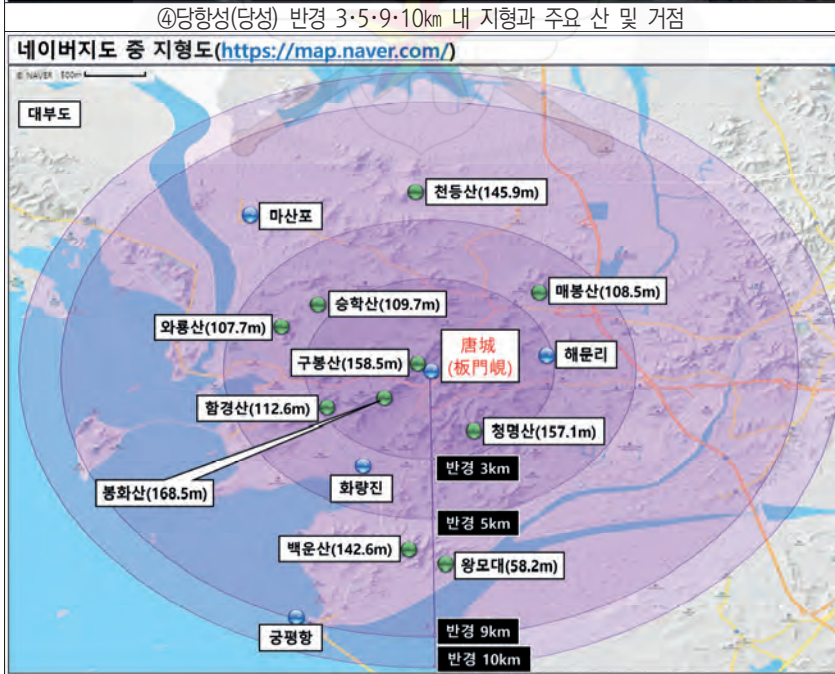
72) “唐 義湘 新羅國 鷄林府人也 年弱冠 稔聞中國敎法之盛 乃與同志元曉法師 負笈而西 既遵海岸 曰唐州者”

73)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 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鎭 二百里 東傍海孺 過靑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 八百里 乃南傍海孺 過烏牧島 貝江口 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鎭 又過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 千里至鴨綠江 唐恩浦口 乃東南陸行七百里 至新羅 王城”

〈그림 1〉 당성 일대의 지형-『대동여지도』·네이버 지도 중 지형도·구글어스







※ 출전 및 모본지도 : 지도별 상단 표기



C-①·②에서 의상·원효는 해안을 따라(遵)(C-②) 신라 해문인 당주의 경계로 갔고, 거함을 구해 서해를 건너 당(中國·西·唐土)에 가려 하였다(C-①). 문장 구조상 해문은 당주의 별칭이다(C-①). 두 승려는 해안을 따라 당주 경계에서 큰 배를 구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해문인 당주의 끝은 바다에 접해 큰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신라 자료에서 당주란 지명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선 인조 12년(1634) 편찬된 홍성민(洪聖民)의 『졸옹집(拙翁集)』은 단종 3년(1455) 남양의 지리서로 편찬된 『[남양]계고요람』을 인용하여 당주를 당은군(唐恩郡)의 별칭이라 하였다.<sup>74)</sup>

『대동여지도』는 남양 앞까지 바다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며, 역참인 해문(海門)을 표기하였다. 해문은 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海門里)이다. 해문리는 약 500년 전 조차를 이용해 산간 저지대에 있는 마을 입구를 배로 출입하였다거나, 해문구화역(海門仇火驛)이 있어 유래한 이름이라 한다.<sup>75)</sup> 해문은 1861년에 당성 반경 약 3km까지 바다가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당성은 간척 전 조차가 심해 구봉산 일대까지 바다가 들어와 섬으로 변했다. 당성 동쪽은 육지·갯강이 분리되어 육지와 가깝고, 썰물 때는 육지와 소통이 원활했다고 한다.<sup>76)</sup>

『대동여지도』는 당성의 위치 근처에 ‘판문현(板門峴)’이란 재를 표기하였다. 당성은 남양반도에서 천등산~청명산을 잇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당성이 위치한 구봉산은 높이가 158.5m로, 봉화산(높이 168.5m) 외 남양반도의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다.

74) [조선홍성민(洪聖民), 『졸옹집(拙翁集)』 소인(所引) [조선송후(宋後) 등 찬(撰) / 조중민(趙仲旻) 교정편집, 『[남양]계고요람(稽古要覽)』. “[南陽]府 古號唐恩郡 又稱唐州” 『[남양]계고요람』의 서지 사항은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 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검색일: 2023.06.16)’ 참고

75) 화성시, “해문리(海門里), 해문역(海門驛)”,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 (검색일 : 2023.06.16).

76)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154쪽.

당성이 구봉산에 있는 이유는 구봉산·봉화산의 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양반도 조망에 무리가 없고, 반경 3km 이내 산들의 중심에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성은 대부도~마산포 간 수로(<그림-1>-①·②-A), 대부도~제부도~궁평항 일대 해역(<그림-1>-①·②-B)을 항상 감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상에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해문이었다.

진흥왕이 대중 외교 창구를 당항성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C-③과 당항성의 해양 지형을 고려해 생각해보자. C-③은 당 덕종(德宗) 정원(貞元) 연간(785~805) 재상을 지낸 가탐(賈耽)이 801년 『고금군국현도사이술(古今郡國縣道四夷述)』을 찬진하며 사이술(四夷述)에 쓴 『황화사달기(皇華四達記)』(일명 『도리기(道里記)』)의 「등주해행입고려발해(登州海行入高麗渤海)」 일문(逸文)에 기초한다.<sup>77)</sup> 『고금군국현도사이술』은 762~764년 ‘당→발해→신라→당’으로 사행한 당 사신(唐使) 한조채(韓朝彩)의 견문에 기초하므로,<sup>78)</sup> C-③은 8세기 중반 등주(登州, 산둥성(山東省) 봉래(蓬萊)~경주 간 교통로를 보여준다.

등주~경주 간 길은 묘도열도(廟島列島)~도리진(道里鎭)(A)→노철산수도(老鐵山水道)~장산열도(長山列島)~오골강(烏骨江)(B)→오목도(烏牧島)~신라 서북 장구진(長口鎭)(C)→진왕석교(秦王石橋)~당은포구(唐恩浦口)(D)→당항성 동남쪽 700리 되는 육로(E)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5개 구간 중 D는 장구진에서 진왕석교~마전도~고사도~득물도를 거쳐 당은포에 가는 길로, 웅진반도(장구진)~남양반도(당항성)를 잇고 있다. 장구진은 장산곶 남동쪽 오차포(岵

77)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汲古書院, 1994, 197~200쪽.

78) 아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300~302쪽.

叉浦, 장연군 해안면 구진리),<sup>79)</sup> 진왕석교는 웅진반도 일대,<sup>80)</sup> 마전도·고사도는 교동도·강화도,<sup>81)</sup> 대청도·연평도,<sup>82)</sup> 경기만 일대 섬에 비정된다.<sup>83)</sup> 덕물도는 덕적도이다. C-③의 해로는 당항성(당성)이 종점이며, 일찍부터 쓴 길이다.<sup>84)</sup> 따라서 당항성 설치 당시 신라-중국 항로도 이와 유사하였다.

진흥왕이 서해안을 장악하고도 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가 아닌 남양반도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산주·수약주 분리(637) 전 신주 주치는 북한산·남천을 옮겨 다녔고, 중고기에 주치에는 정 군단(停)을 두었다. 강화만~경기만~서울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두면 2가지 장점이 있다. 남한강을 통해 충주로 연결되고, 유사시 주치정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왕은 당항성을 대중 외교 창구로 선정하였다. 삼국통일전쟁에서 당항성(진)·덕물도는 신라-당 연합군의 합세 지점, 실질적인 개전 장소로 쓰였고,<sup>85)</sup> 백제부흥운동 진압을 위한 당의 지원군도 덕물도를 거쳐 웅진에 들어갔다.<sup>86)</sup> 반면 강화도의 혈구진

79)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 2022, 19~29쪽.

80)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북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 2019, 147쪽.

81) 內藤傳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1927; 『朝鮮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1, 373~374쪽.

82)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249~250쪽.

83)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179쪽.

84)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新羅史學報』 21, 2011, 109쪽.

85)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660) 6월 21일[庚寅]. “王遣太子法敏 領兵船一百艘 迎定方於德物島”;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20년(660) 6월 [21일[庚寅]]. “蘇定方引軍 自城山濟海 至國西 德物島”;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668) 6월 12일[乙丑]. “遼東道 安撫副大使 遼東行軍 副大總管 兼熊津道 安撫大使 行軍總管 右相 檢校太子左中護 上柱國 樂城縣 開國男 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 沙浪 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 金仁問 延迎之以大禮”

86)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3년(663) 5월.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

(穴口鎮)은 하대인 문성왕 8년(844)에 두므로,<sup>87)</sup> 당항성보다 개발이 늦었다. 또 ‘당곶(唐串)’ 등 당과의 교류를 전제로 형성된 지명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남양반도에 더 많이 남았다.

이것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를 2가지로 정리하고, 당항성의 해방 체계를 설명하고자 <그림 2>를 작성하였다.

〈그림 2〉 ①(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과 ②당항성의 해방(海防) 체계



乃請益兵 詔遣右威衛將軍 孫仁師 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87) 『삼국사기』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6년(844) 秋 8월. “置穴口鎮 以阿滄 啓弘爲鎮頭”



※ 출전 및 모본지도 : 지도별 상단 표기

〈그림 2〉-①은 (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방어 가능 해역을 표기한 것이다. (1)의 방어 가능 해역은 교동도~말도~석모도~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범위(A)로, (2)의 방어 가능 해역은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군도~대난지도~남양반도를 잇는 범위(B)로 상정된다. (1)·(2)의 방어 가능 해역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B는 A보다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A는 말도~장봉도~영종도가 사선을 이루어 방어 가능 해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불음도~장봉도 간 섬이 적어 방어 거점이 많지 않다. 반면 B는 덕적군도 및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각각 서쪽과 북쪽에서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고 있다. 또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가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어 넓은 해역을 반분하고 있다.



둘째, ㉔는 ㉓보다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2)보다 (1)이 대중 교류에 유리하다. ㉓와 ㉔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섬은 말도와 굴업도·백야도이나, 섬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하면 대중 항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서단의 섬은 불음도와 덕적도로 판단된다. (1)·(2) 중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던, 중국으로 향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1)·(2)에서 출발할 때의 대중 항로를 구성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강화만~경기만~서울에서 중국으로 항해를 출발하면 불음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한다. 이 항로는 현 개성·연안읍·청단읍·강령읍·옹진읍 등과 같은 지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나가며, 고구려의 위협·감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부도→영종도를 지나 (1)에 진입하여 강화도→석모도→불음도를 거쳐,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다른 하나는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를 거친 후, 덕적도에서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전자는 (1)에서 출발하는 항로와 큰 차이가 없다. 후자는 덕적도까지 서쪽으로 향해했다가 연평도로 북상하는 항로로, 당항성에서 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항로이다.

(1)·(2)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로의 조건은 대체로 유사하나,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따라서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1)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 항로보다 약간 길다. 그러나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는 지점을 강령읍·옹진읍 등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피해야 할 때는 (1)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유리하다.

고구려는 신라가 서해안을 장악한 후에도 한강 유역을 공격하거나, 신라의 사신에 대해 위협하였다. 603년 고승의 북한산성 공격



이나, 진덕왕 2년(648)에 당에 갔다가 신라로 귀국하던 김춘추를 살해하려는 시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신라-당의 뱃길은 「걸사표」 등 중요 국서(國書)·조공품·회사품 등이 수수(授受)되어 가치가 큰 정보요물자가 유통되었지만, 고구려의 위협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였다.<sup>88)</sup> (1)에서 출발하는 경로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경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축소할 수 있었고,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 등이 더욱 유리하였다. 660·668년 신라-당이 합세가 덕적도·당항성(당항진)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신라-당 연합군의 군사적 일정(軍期)이나 목표 등에 대한 사안을 고도로 감추며 실행하려는 의도 등과 직결되겠다. 이 상에서 (1)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2)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았고, 대중 외교 창구로 더 적절한 지역은 남양반도를 한 눈에 조망하며 통제할 수 있는 당항성이었다.

진흥왕은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상세 보고를 북한산 순행 과정에서 받았다고 판단된다. 554년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재편을 보여주는 사건은 555년 북한산 순행 당시의 “척정봉강”이다.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 경로에 당항성의 포함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경유한 주군(所經州郡) 및 그 인근의 주군은 지역별 중요·상세 정보를 진흥왕에게 보고했다고 이해된다. 진흥왕은 유관 정보를 비교해 555~558년 당항성을 설치·개발하고, 564년 이후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당항성을 ‘해문(海門)’으로 부른 시점은 언제일까? 신라 대중 외교·교류의 활성화는 중·북부 서해 장악과 연관되므로, 선부서(船府署)를 처음 둔 진평왕 5년(583)이 주목된다.<sup>89)</sup> 선부서는 중대(中

88)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府(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c), 116~118쪽.

89)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5년(583) 春 正月. “始置船府署 大監 弟監 各 一員”; 『삼국사기』 권38, 雜志7, 職官 上, 船府. “舊以兵部 大監 弟監

代) 선부(船府)의 전신으로, 수군의 군정권(軍政權)을 장악해 신라 수군(水軍)·병선군(兵船軍)의 운용, 해운(海運)을 관장하였다. 또 선부(서)는 신라가 장악·관리할 해역, 즉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었다.<sup>90)</sup> 선부서의 설치는 관할 해역의 증대를 반증하므로, 당항성은 583년부터 해문으로 불렸다고 이해된다. 이후 중고기 전반 신라인의 중국 유학이 성행하고,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학술·문화 교류에서 청병(請兵)으로 전환되며<sup>91)</sup> 당항성은 ‘신라의 해문’이란 위상을 굳혀갔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신라는 마립간시기에 “설관수비(設關守備)”에 입각한 거점 방어를 대외방어전략의 하나로 수립하였고, 이것은 해방에도 통용되었다. 상고기 말 우산국 정벌은 동해에 해방 거점을 마련해 공세적 방어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기 말의 대외방어전략은 중고기의 대외방어전략으로 계승되었다.<sup>92)</sup>

당항성은 북쪽·서쪽에 많은 도서가 있었으므로, 군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다. 바다는 표면이 항상 요동치며, 특히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이로 인해 정선된 선박이나, 부표 등을 써서 인공적인 방어·경계 거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당항성 북쪽·서쪽의 많은 도서는 방어·경계 거점이자, 수군·병선군이 향해 중 쉴 수 있는 거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항성의 방어체계는 <그림 2>-②-㉠·㉡에 포함된 섬을 규모에 따라 방어·경계 거점으로 삼아 구축

#### 掌舟楫之事”

90) 정덕기, 앞의 논문, 2021(c), 113~121쪽.

91) 정덕기, 앞의 논문, 2021(a), 17~38쪽 ;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도서출판 온샘, 2021(b), 57~78쪽.

92)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 2020.

되었다. <그림 2>-②-㉠·㉡에 포함된 섬을 연결하면, 당항성 서쪽·북쪽에 일종의 ‘가상 내해(內海)’ 2곳이 설정된다. 신라는 가상 내해별로 2·3개의 해역을 나누어 해방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된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그림 2>-②-㉠)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의 대부도~남양반도 해역(㉠), 영종도~대무의도~대부도 해역(㉡)으로 세분된다. 전자는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북쪽에서의 진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후자는 ㉡을 방어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그림 2>-②-㉢)는 당항성 기준 반경 10km 안·밖과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세분된다. 대부도~제부도~궁평항(㉢) 해역은 당항성 반경 10km 안의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서쪽에서의 침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영흥도~자월도~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해역(㉣)은 ㉢을 방어한다. 덕적도~굴업도~백아도~울도와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사이 해역(㉤)은 ㉣을 방어한다.

‘가상의 2중 내해(內海)’는 몇몇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두어 관리했다고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덕적도에, 전초기지를 당항성 서쪽 외곽에, 대중국 교역항을 마산포·화랑진에 두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sup>93)</sup> 이와 관련해 『대동여지도』의 ‘진보(鎭堡)’ 위치가 주목된다. 『대동여지도』는 덕적도·자연도(紫燕島, 현 영종도)·화랑진에 성이 없는 진보를 표기하였다. 조선 영조 16년(1740) 덕적도에 덕적진을 두며, 덕적진은 덕적도 남서쪽에 있는 진리 해변 서측 일대~비조봉 입산로 초입(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1리 일대)에 위치한 만 형태의 지형에 있었다고 추정된다.<sup>94)</sup> 자연도의 진보는 본래 남양도호부의 영종포만

93)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150~151쪽.

호(永宗浦萬戶)를 옮기며 둔 것이다.<sup>95)</sup> 또 마산포는 바로 앞에 있는 어도(漁島)로 인해 큰 바다에서 부는 바람·파도를 막기에 유리하고, 다른 곳 대비 수심이 깊고 조차가 적다. 마산포는 신라-중국의 교역로였고, 제물포 개항 이전 가장 번창한 포구였다.<sup>96)</sup> 이상에서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은 덕적도·화랑진이나 덕적도·화랑진·마산포에 두었다고 이해된다. 당항성 북쪽·서쪽에 설정된 가상 내해를 5개 해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점, 해문 당항성의 위상·중요성을 고려하면, 신라는 2~3개 지점(덕적도와 화랑진 혹은 마산포)에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켜 당항성을 방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제동맹의 완전 파기를 전제로 신주를 차지한 신라는 중고기 전반부터 최대 판도를 누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sup>97)</sup> 555~558년 ‘가상의 2중 내해’를 골격으로 삼은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이 해문의 위상을 가진 것은 583년 이후이다. 따라서 ‘가상의 2중 내해’를 쓴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583년 이후 구축되었고,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면서 강화·완비되었다.

## V. 맺음말

신라의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이며, 해문(海門)이라 불릴 정도

9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2022, 190~198쪽.

95) 『세종실록』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關防 二 永宗浦【在府南 水軍萬戶守禦】 花之梁【在府西 右道水軍僉節制使守禦】 ; [조선]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 권4, 京畿道, 永宗浦鎮. “孝宗 四年 移南陽 永宗浦 萬戶 于紫燕島”

96) 화성시, “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 (검색일: 2023.06.18)

97)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로 중요한 성이다. 본고에서는 6~7세기 신주의 재편과 관방 체계의 변화과정에 기초해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를 살피고, 당항성의 해방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라는 나제동맹을 활용하여 551년 고구려의 10군을 취했고, 553년 나제동맹을 파기하며 백제의 고지인 6군을 취해 신주를 두었다. 553년의 신주는 남한강·북한강 일대 16군을 위주로 성립했지만, 서해안에 연접하지 않았다. 신라는 554년 7~12월 관산성 전투에서 대승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였다. 555년 이후 신주의 확대·재편이 지속되므로,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555년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단행한 “척정봉강(拓定封疆)”은 신주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신주가 재편되며 비열홀주 분리, 신주 주치 이동, 국원소경의 설치·개발·방어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555~558년 신라는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564년 이후 신라의 대남북조(對南北朝)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므로,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자, 568년 신주의 주치는 남천으로 이동하였다.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이 있자,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었다. 568~603년의 36년간 신주 주치는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의 골격은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568~603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다. 이 기간 백제는 신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백제는 649년 이후 신주(한산주) 방면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 따라서 648년까지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

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604~648년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2회 이상 강화되었다. 627년 무왕이 웅진에 주둔하고, 643년 의자왕이 한산주 남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모두 신라의 서쪽 변방에 대한 공격을 성공한 후, 신라의 방어력이 서변에 집중된 틈을 타 신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신라는 두 사건 모두 ‘조공로 차단’을 명분으로 삼아 당을 개입시키려 하였다. 특히 643년 사건은 신라 서변 40성 및 대야성 함락 이후 사건이며, 중고기 신라가 맞은 최대의 위기였다. 이로 인해 643년 사건은 고구려·백제를 한통속으로 몰아 당을 개입시키려 한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되어 나타났다. 두 사건은 당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백제의 의도가 작용하며 무력시위 후 철병 및 한산주 남부 공격 후 철병으로 종결되었다. 백제는 두 사건으로 신주·한산주 공격 의지를 드러내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당항성 일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였으므로, 두 사건은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한산주 남부 공격이 강화되는 649년 이후에도 신라가 당항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에 대한 자료는 적지만, 당항성의 별칭인 ‘해문’의 의미와 당항성(현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하였다. 현 당성 일대는 근대 이후 간척으로 인한 현상변경이 많지만, 전근대에는 조차가 심해 남양 앞과 당항성 반경 3km까지 바다가 들어왔다. 당성은 남양반도에서 봉화산(168.5m) 외 가장 높은 산인 구봉산(158.5m)에 축조되었다. 당성은 반경 10km 내 남양반도의 교통로를 통제하며 조망을 침해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대부도~마산포 해역과 대부도~제부도~궁평항 해역을 직접 통제하였다. 따라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통제하는 해문이었다.



555~558년 대중 외교 창구로 강화만~경기만~서울 등이 아닌 당항성이 선정된 것은 2가지 이유에서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첫째, 전자보다 후자가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는 덕적군도가 경도와 약간 평행하게 놓여 있어 서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하며,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위도와 평행하게 놓여 있어 북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한다. 둘째, 전자보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이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중국과 관계를 맺기에 유리하다. 양자 모두 중국으로 항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불음도이고,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덕적도이다.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그러나 ‘당항성→덕적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하면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축소되며,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에 유리하였다. 이것은 660·668년 신라-당이 덕적도에서 합세한 이유와 직결된다. 양국 군이 덕적도에서 합세해 신라-당 연합군의 군사적 일정·목표 등을 고도로 감추며 실행하려는 의도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삼국통일전쟁의 전황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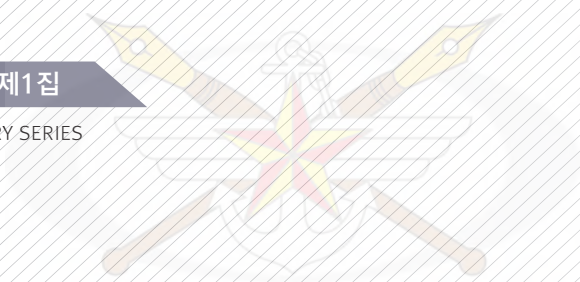
당항성을 해문으로 부른 시점은 병부의 속사로 선부서를 둔 583년으로 이해된다. 선부서는 수군의 군정권, 수군·병선군 운용, 해운을 맡는 관청으로,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기 때문이다. 당항성 관리의 중요성이 583년 선부서 설치의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고, 이후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청병으로 변화하며 당항성의 위상은 해문으로 굳어졌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마립간시기 이래 유지된 “설관수비(設關守備)”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는 방어·경계 등을 수행하는 해방의 거점이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를 이어보면, 당항성 북쪽·서쪽에 일종의 ‘가상 내해(內海)’를 설정할 수 있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되며, 반경 10km 밖 내해는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 기준으로 동·서로 세분된다. 따라서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내해(북쪽·서쪽 내해)’를 기준으로, 2중 내해에 5개의 해역을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5개 해역의 방비를 위해 2개 지점(덕적도와 화량진 혹은 마산포)이나 3개 지점(덕적도·화량진·마산포)에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 등을 갖추고,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켰다.

555~558년 당항성을 둘 때에는 ‘가상의 2중 내해’를 골격으로 하는 당항성의 해방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선부서·선부 정비가 시작되는 583년부터 구축되었고, 삼국통일 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며 강화·완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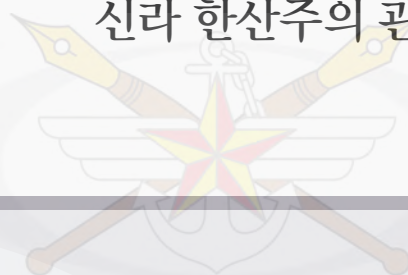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신라 한산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 권창혁



# 신라 한산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권창혁

- I. 머리말
- II. 672년 한산주 관내 주장성 축성의 의미 재고
- III. 나당전쟁 중 신라의 방어 전략과 주장성의 역할
- IV. 맺음말

## I. 머리말

현 경기도 광주시·성남시·하남시 일대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은 본래 672년 8월 신라 문무왕에 의해 처음 축조되었던 둘레 4,360보(약 8km)의 주장성(畫長城, 혹은 일장산성[日長山城])이었던 것으로 비정되어 왔으며,<sup>1)</sup> 오늘날에도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 672년(문무왕 12)은 때마침 나당전쟁(670~676)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만큼, 기왕에 이 주장성(畫長城)의 축조 또한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것으

1)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2年 8月 ; 『세종실록』 권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京畿 廣州牧 古跡.



로 추정되어 왔다.

즉 대체로 이 주장성(畫長城)은 전쟁 중 예상되는 당군의 대규모 침공을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로서 대비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입보용(入保用) 성곽으로서 이해되었는데,<sup>2)</sup> 이는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이전 시기의 여타 삼국시대 성곽들과는 차별화되는 입지 및 규모와 더불어 근래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바 조선시대 이전의 선대 성벽 및 병영 혹은 군수창고 등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 등의 여러 독특한 양상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sup>3)</sup> 다른 한편 그 축조 배경에 있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석문 전투의 패전(672.8)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주장성(畫長城)의 축조 자체는 석문 전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앞서 나당전쟁의 발발(670.3)과 함께 신라의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sup>4)</sup>

어쨌든 이 주장성(畫長城)은 672년 완공된 이래로 한산주(漢山州) 일대의 신라 관방체계(關防體系)에 있어 극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같은 시기 이 한산주(漢山州) 방면, 즉 현 임진강·한강 유역이 남하하는 당군의 침공에 노출되면서 주된 격전지가 되었던 일련의 사례들 역시 감안했을 때, 나당전쟁 중 신라군의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주장성(畫長城)

2)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 심광주, 「주장성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21, 2012 ; 박성현, 「신라 통일기 주·소경의 성곽과 그 활용」, 『한국성곽학보』 21, 2012.

3)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조사보고총서 제46책, 2007 ; 토지구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남한행궁지 -제7·8차 조사보고서-』, 토지구택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9집, 2010.

4)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

축성(築城)의 의미와 그 역할·위상 등을 보다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는 작업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에는 대체로 석문전투 패전 이래 전국에 걸친 다수의 축성 작업이라는 큰 범주 아래 주장성(晝長城)의 사례가 간략하게만 언급되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견벽청야(堅壁淸野)’ 혹은 ‘입보농성(入保籠城)’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단순한 틀에 한정하여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상 실질적인 전략상의 의미나 지역 관방체계와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이 晝長城 자체에 초점을 맞춘 상세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래 당군의 예상 남하 경로에 따라 왕경을 중심으로 2, 3중에 걸친 전방위적 방어체계의 보완·정비라는 측면에서 주장성(晝長城)을 포함한 일련의 축성 전략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겠으며,<sup>5)</sup> 여기에 더하여 가장 최근에는 충주(즉 국원소경[國原小京]) 방면과도 연결되는 바 남한강 수로를 통한 물자 운송·집결·보급 등 병참(兵站)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이 주장성(晝長城)의 입지 및 기능을 언급했던 연구도 있어 주목된다.<sup>6)</sup> 아울러 이 문제와도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바, 비록 나당전쟁 시기 및 주장성(晝長城) 자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시론적인 입장에서 한산주(漢山州)를 비롯한 신라의 6~7세기 대 조운(漕運) 체계의 존재를 상정했던 최근의 여타 연구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7)</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기왕의 주요 연구 및 고고학적 조사 성과 등을 참고하면서, 우선 나당전쟁을 전후한 7세기 무렵 한산주

5) 이상훈, 앞의 글, 2016, 79~80쪽.

6) 서영교,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유지와 국원」, 『영남학』 83, 2022, 218~220쪽.

7) 김창석,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2021 ; 박성현, 「신라 통일기 漢州의 물자 이동과 漕運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a.

(漢山州) 방면의 신라 관방·병참체계 등의 전모를 살펴보는 한편 여기에서 주장성(晝長城)은 또한 어떠한 위상 및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나당전쟁 시기, 특히 672~673년 전후의 역사적 상황과 연계하면서 당시 신라의 방어 전략의 한 단면 및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보겠다.

## II. 672년 한산주 관내 주장성 축성의 의미 재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시기 한강 유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진평왕 시기 낭비성 전투(629)를 전후한 7세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대략 임진·한탄강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신라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州)·군(郡)·현(縣) 및 정(停) 군단을 비롯한 일련의 행정기구와 군사조직들을 배치하는 한편,<sup>9)</sup> 다수의 성곽들을 축조하면서 이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관방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관련하여 문헌상에서 이 한주(漢州, 즉 한산주[漢山州]) 소속으로

8)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29쪽.

9) 익히 알려진바 중고기 이래 신라의 '주(州)'는 광역의 행정구역 겸 군관구 전체와 그 중심지(치소[治所])이자 군사기지인 주치(州治/停)를 포괄하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며, 후자인 주치(州治/停)의 경우 당대의 전략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면서 명칭 또한 그 소재지에 따라 바뀌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91~103쪽).

한산주(漢山州)의 경우에도 문헌상 6~7세기 동안 신주/한성주-북한신주-남천주-(남/북)한신주와 같이 지속적인 주치(州治/停) 소재지의 이동 및 명칭 변경이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54~256쪽 ; 박성현, 「신라의 '남·북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2021b, 89~94쪽).

전하는 주요 주(州)·군(郡)·현(縣)들과 현존하는 임진·한탄강 이남의 6~7세기 대 신라 성곽 유적들을 대응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서 이를 정리하면 대략 아래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표 1> 7세기 대 임진·한탄강 이남의 신라 행정단위 및 대응하는 성곽 유적<sup>10)</sup>

단위		현존 위치 비정	문헌상 지명
<b>소경</b>		<b>총주(?)</b>	<b>국원소경 / 중원경</b>
<b>신주 / 한산주 (광역)</b>	<b>주치(停)</b>	<b>하남 이성산성</b>	<b>(남)한산주 / 한주</b>
	영현	이천 설봉산성	남천현 / 황무현
	영현	용인 할미산성	구성현 / 거칠현
	<b>군</b>	<b>괴산 서부리토성</b>	<b>임근내군 / 괴양군</b>
	<b>군</b>	<b>여주 파사성</b>	<b>솔천군 / 소천군(기천군)</b>
	영현	여주 북성산성	골내근현 / 황효현
	영현	양평 부용산성	양근현 / 빈양현
	<b>군</b>	<b>진천 도당산성</b>	<b>금물노군 / 흑양군(황양군)</b>
	영현	증평 도안면(?)	도서현(道西縣) / 도서현(都西縣)
	영현	음성 수정산성	잉홀현 / 음성현
<b>군</b>	<b>안성 죽주산성</b>	<b>개차산군 / 개산군</b>	

시기	553~557	557~568	568~604	604~637	637~660?	660?~664	664~672?
광역주 (廣域州)	신주 (553~637)			한산주 (637~757) *637년 기준 신주 관할 영역을 한산주/우수주로 분할			
주치 (州治/ 停)	한성=(남)한산	(북)한산	남천	(북)한산	(남)한산	남천	(남?북?)한산
소재지 (*추정)	이성산성 (하남)	아차산성 (서울)	설봉산성 (이천)	아차산성 (서울)	이성산성 (하남)	설봉산성 (이천)	아차산성 (서울) or 이성산성 (하남)

10) 서영일, 앞의 책, 1999, 224~302쪽 ; 서영일, 앞의 글, 2010, 134~139쪽 ; 박성현, 「6~8세기 신라 한주 군현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47, 2002, 157쪽 ; 2021, 앞의 글, 86~87쪽 ; 윤성호, 앞의 글, 2018, 270~272쪽 등을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영현	이천 설성산성	노음죽현 / 음죽현
<b>군</b>		<b>안성 비봉산성</b>	<b>내혜홀 / 백성군</b>
	영현	안성 무한성	사복홀 / 적성현(赤城縣)
	영현	천안 사산성	사산현
<b>군</b>		<b>오산 독산성</b>	<b>매홀군 / 수성군</b>
<b>군</b>		<b>화성 당성</b>	<b>당성군 / 당은군</b>
	영현	평택 자미산성	상홀현(차홀현) / 차성현
	영현	평택 무봉산성	부산현 / 진위현
<b>군</b>		<b>과천(?)</b>	<b>울목군 / 울진군</b>
	영현	서울 호암산성	잉벌노현 / 곡양현
	영현	서울 양천고성	제차파의현 / 공암현
	영현	인천 문학산성	매소홀현 / 소성현
<b>군</b>		<b>안산(?)</b>	<b>장항구현 / 장구군</b>
<b>군</b>		<b>인천 계양산성</b>	<b>주부토군 / 장제군</b>
	영현	김포 수안산성	수이홀 / 수성현
	영현	김포 북성산성	검포현 / 김포현
	영현	김포 동성산성	동자홀현(동산현) / 동성현
	영현	김포 월곶면(?)	평유압현 / 분진현
<b>군</b>		<b>서울 아차산성</b>	<b>(북)한산군 / 한양군</b>
	영현	남양주 퇴묘산성	골의노현 / 황양현
	영현	고양 행주산성	개백현(양봉현) / 우양현
<b>군</b>		<b>양주 대모산성</b>	<b>매성현 / 내소군</b>
	영현	파주 칠중성	칠중현 / 증성현
	영현	파주 파평면(?)	파해평사현 / 파평현
<b>군</b>		<b>파주 오두산성</b>	<b>천정구현 / 교하군</b>
	영현	파주 봉서산성	솔이홀현 / 봉성현
	영현	고양 고봉산성	달을성현 / 고봉현
<b>군</b>		<b>포천 반월산성</b>	<b>마홀군 / 견성군</b>
	영현	연천 대전리산성	내을매현 / 사천현
	영현	포천 성동리산성	양골현 / 동음현

이를 보면 신라는 대략 ‘북한산(서울 아차산성)’-‘남한산(하남 이성산성)’-‘남천(이천 설봉산성)’-‘국원소경(충주)’을 잇는 남북 축선을 따라 중심 거점, 즉 주치(州治) 및 주력 군단(停)을 배치하고 수시로 왕복시키는 한편, 그 주변부를 다시 부채꼴처럼 둘러싸는 형태로써 군(郡)과 소속 영현(領縣)들을 배치하는 체계를 가졌음을 짐

작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도 익히 지적되었던 바와 같다.<sup>11)</sup> 즉 이러한 양상은 한강·남한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간선 교통로 및 여기에서 뻗어져 나온 여러 지류 하천 혹은 지선 교통로들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수로를 통해 중심 권역으로 직접 진입·타격할 수 있는 지점들인 하구(河口)나 해안(海岸), 그 외의 상륙(上陸)·도하(渡河)가 가능한 지점 등에 대한 감시·통제 또한 고려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sup>12)</sup> 그에 따라 가장 전방에 위치한 성(城), 촌(村)이나 현(縣) 단위의 성곽들에서부터 배후에서 이를 통솔하는 군(郡) 단위의 성곽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지휘소인 주치(州治)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4단계에 이르는 방어망이 수로와 육로를 막론하고 주요 교통로상의 길목마다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중심 방어(Defence in depth)와도 같이 단계적으로 적의 공세를 지연·소모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13)</sup> 익히 지적된 것처럼, 각각의 개별 성곽은 금방 무너뜨릴 수 있더라도 그러한 성곽들이 다수 모인 조밀한 방어망 자체를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작전 수행 및 병참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sup>14)</sup>

물론 이 같은 한산주(漢山州) 방면 신라 관방체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이후 그 주체가 고구려에서 당(안동도호부)으로 바뀌었을 뿐인 나당전쟁 시기에 들어서도 상당 부분 효력을 발휘하며 유지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11) 서영일, 앞의 책, 1999, 271~272쪽 ; 서영일, 앞의 글, 2010, 133~138쪽 ; 윤성호, 앞의 글, 2018, 269~274쪽 ; 박성현, 앞의 글, 2021, 83~88쪽.

12) 서영일, 앞의 글, 2010, 123~127쪽 ; 윤성호, 앞의 글, 2018, 273~274쪽 ; 박성현, 앞의 글, 2021, 85~88쪽.

13) 서영일, 앞의 책, 1999, 272쪽 ; 앞의 글, 2010, 136~138쪽.

14) 서영교, 앞의 글, 2002, 66~68쪽.



같은 시기 아달성(阿達城, 안협/현 북한 철원읍) 등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sup>15)</sup> 668년을 전후하여 신라의 영역 자체가 기왕의 국경을 넘어 더욱 확대되는 한편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부흥세력들과도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졌던 만큼 최전선의 영현(領縣) 및 방어 체계 역시 그에 맞추어 조정되었을 것이다.<sup>16)</sup>

그런데 이 와중에 한산주(漢山州) 관내, 특히 한강 이남-이북 지역을 관할하는 양대 치소(治所)였던 북한산주(아차산성)·남한산주(이성산성)와 극히 인접한 지점에 4,360보(약 8km) 규모의 주장성(晝長城)이 새로이 축조되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바 주장성(晝長城)이 완공된 것 자체는 672년이었지만, 그 전례 없는 입지·규모 및 그에 따른 공정(工程)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앞서 고구려 멸망(668.9), 혹은 나당전쟁 발발(670.3)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미 축성이 계획·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분명 타당하다.<sup>17)</sup> 그렇다면 해당 시점에 이러한 축성 계획이란

15) 『삼국사기』 권47, 列傳7 素那 “…素那雄豪 有父風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 이 아달성(阿達城)은 대체로 지리지에 보이는 바 ‘阿珍押(=아돌압)’의 지명을 매개로 안협(현 북한 행정구역상 철원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병도, 『역주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83, 144쪽). 아울러 ‘漢州都督都儒公(=『답실인귀서』의 朴都儒)’의 재임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소나의 아달성(阿達城) 배치는 사료 상 ‘百濟滅後’라고 다소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668~6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143~144쪽).

즉 이 같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668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한산주가 관할하는 영역이 적어도 안협 등지의 임진강 중·상류 방면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더하여 이후 675년 당군의 침공 당시에도 이 아달성(阿達城)을 비롯한 여러 현(縣), 혹은 성(城)·촌(村) 단위의 성곽들이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해당 시점의 방어체계 역시 그처럼 북방으로 확대된 영역의 최전선에 따라 일정 부분 재배치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6)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175~176쪽.

17) 서영교, 앞의 글, 2002, 64쪽 ; 이상훈, 앞의 글, 2016, 84~85쪽.

단순히 일시 피난하기 위한 청야(淸野)·입보(入保) 용도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략상의 이유를 추가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위와 같은 기존의 관방체계와 그에 따른 중심 방어망 하에서 이러한 초대형의 신축, 혹은 증축 산성들이 결합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을까?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이전 시기보다 크게 증가한 대규모의 병력을 수용하고 또한 유사시 이들이 장기간 주둔, 거주 혹은 농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장성(晝長城)과 같은 초대형의 산성들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적대세력과 인접한 변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실제 이 한산주(漢山州) 관내에는 기왕의 주병(州兵, =정병[停兵]) 이외에도 한산주서(漢山州誓)나 (한산주)계당(關幢)·궁척(弓尺)·만보당(萬步幢)·변수당(邊守幢)·절말당(節末幢) 등의 다수의 군사조직들이 특히 7세기 중·후반 무렵에 집중적으로 창설·배치되었던 사실을 새삼 상기해보고 싶다.<sup>18)</sup> 물론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18) 『삼국사기』에 전하는 바 해당 시기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배치된 주요 군사조직들의 명칭 및 창설시기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삼국사기』 卷40, 雜志9 職官 下 凡軍號).

군호(軍號)	금색(衿色)	창설 시기	비고
(육정[六停]) 한산정(漢山停)	황청(黃靑)	553년 (진흥왕 14)	-
(이궁[二弓])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	없음	652년 (진덕여왕 6)	-
(이계당/외계[二關幢/外關]) 한산주계당(漢山州關幢)	계(關)	*654년 (무열왕 1)	직관지에는 창설 시기를 '무열왕 17년'으로 전하나, 이는 오류. 실상 무열왕 원년에 왕실 직할로 계금당/한산주계당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그를 기반으로 우수주계당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됨(한준수, 2017).
(오주서[五州誓]) 한산주서(漢山州誓)	자록(紫綠)	672년 (문무왕 12)	-
(삼변수당[三邊守幢]) 한산변(漢山邊)	없음	*690년 (신문왕 10)	직관지에는 창설 시기를 690년으로 전하나, 이는 실상 '三邊守幢'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군사조직들의 주둔지, 혹은 위수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드물며, 그것이 또한 주장성(晝長城) 자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지도 현재로서는 추정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았을 때, 전시(戰時)에 위와 같은 여러 군사조직들이 일제히 한산주(漢山州) 관내에서 동원·전개될 경우 주장성(晝長城)과 같이 전선 후방에서 이들 모두를 충분히 지원 가능한 본격 요새화된 거점의 존재 유무는 사기나 전투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서 필히 고려되어야만 했으리라 생각된다. 즉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거점(stronghold)이란 단순히 수동적인 피난처(refug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어외 장소로서, 적의 기습이나 수적인 우세로부터도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필요시 언제든지 출격하여 적 세력을 타격하거나 인근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19)</sup>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료들을 살펴보아도,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행군·원정 경로상의 중간 집결지로 활용되는 등 한산주(漢山州) 방면의 전략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를 뒷받침할 보다 새롭고 규모가 큰 관방시설의 필요성도 늘어났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로 추정됨. 개별 부대로서 ‘漢山邊’ 자체의 활동 시기는 그보다 더 이전 시점이었을 것(한준수, 2016)
(이절말당[二節末幢] [한산주]절말당(節末幢)	자록(紫綠) (*추정)	미상	직관지에는 명확한 창설 시기나 배치 지역 등이 모두 전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상 나당 전쟁 중 한산주·우수주 두 방면의 전선에 대응하여 창설·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한준수, 2021).
[한산주]만보당(萬步幢)	황흑(黃黑) 황록(黃綠)	미상	9주 정비 이후로는 각 주마다 2개 부대가 주둔.

19)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까치글방, 1996, 204~205쪽.

- A-1. (660년) 3월에 당(唐) 고종(高宗)이 명을 내려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행군대총관(神丘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김인문(金仁問)을 부대총관(副大總管)으로 삼으며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 유백영(劉伯英) 등 수륙 30만口口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왕(무열왕)에게도 조칙을 내려 우이도행군총관(嵎夷道行軍總管)으로 삼고 장병들을 거느리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름 5월 26일에 왕이 유신(庾信)·진주(眞珠)·천존(天存)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왕경(王京)을 나섰다. 6월 18일에 남천정(南川停)에 이르렀다.<sup>20)</sup>
- A-2. (667년 7월) 당 고종이 명을 내려 유인원(劉仁願)·김인태(金仁泰)는 비열도(卑列道)를 따라가고 또 우리 군대를 징발하여 다곡(多谷)·해곡(海谷)의 2도(道)를 따라가서 평양(平壤)에서 만나도록 하였다. 가을 8월에 왕(문무왕)이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30인의 장군(將軍)을 거느리고 왕경(王京)을 나섰다. 9월에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이적[李勣])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 영공(英公)이 평양성(平壤城) 북쪽의 200리에 이르렀는데, 이동혜촌주(余同兮村主) 대나마(大奈麻) 강심(江深)을 뽑아 보내니 거란(契丹) 기병 80여인을 거느리고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성(漢城)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독촉하므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 11월 11일에 장새(獐塞, 현 황해도 수안)에 이르렀는데 영공(英公)의 군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 역시 돌아왔다.<sup>21)</sup>

20)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 武烈王 7年 “三月 唐高宗命左武衛大將軍 蘇定方爲神丘道行軍大總管 金仁問爲副大總管 帥左驍衛將軍劉伯英等水陸十三萬口口伐百濟 勅王爲嵎夷道行軍總管 使將兵爲之聲援 夏五月二十六日 王與庾信眞珠天存等 領兵出京 六月十八日 次南川停”

21)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年 “(七月) 高宗命劉仁願金仁泰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停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余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含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還”

A-3. (668년 6월 22일) 인문(仁問)·천존(天存)·도유(都儒) 등이 일선주(一善州) 등 7군(七郡) 및 한성주(漢城州)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唐)의 군영(軍營)에 나아갔다. 27일에 왕(문무왕)이 왕경(王京)을 나서 당(唐) 군대를 향해 나아갔다. …… 가을 7월 26일에 왕이 한성주(漢城州)에 행차하여 여러 총관들이 나아가 당의 대군(大軍)과 합류하도록 명하였다. 9월 20일에 당의 대군(大軍)과 합하여 평양(平壤)을 포위하였다. …… 처음에 당의 대군(大軍)이 고구려(高句麗)를 평정하였을 때 왕은 한성(漢城)을 나서서 평양(平壤)을 향하였는데 힐차양(矜次壤)에 이르러 당의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 역시) 돌아와 한성(漢城)에 이르렀다. …… (10월) 25일에 왕이 왕경(王京)으로 돌아가는 길에 육돌역(褥突驛)에 이르러 국원사신(國原仕臣) 용장(龍長) 대아찬(大阿飡)이 사사로이 연회를 베풀어 왕 및 여러 시종들을 접대하였다. …… 11월 5일 왕이 포로로 잡은 고구려인 7천명을 데리고 왕경(王京)으로 들어왔다.<sup>22)</sup>

이를 보면 A-1·A-2·A-3 사료와 같이 660년의 대 백제 원정 및 667년·668년의 대 고구려 원정 시 신라군의 집결지 혹은 행군 중의 경유지·귀환지로서 남천정(南川停)·한성주(漢城州/停)·국원소경(國原小京) 등 한산주(漢山州) 일대의 거점들이 활용되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정들에서는 대부분 국왕이 친정(親征)에 나섰던 만큼, 그 수행원 및 신료·군 수뇌부·사실상 신라가 동원할 수 있는 전군(全軍)의 병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

22)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 “(六月二十二日) 仁問天存都儒等領一善州等七郡及漢城州兵馬 赴唐軍營 二十七日 王發京 赴唐兵 ……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教諸總管往會大軍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 …… 初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壤 次矜次壤 聞唐諸將已歸 還至漢城 …… (十月)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飡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이 언제나 함께 이동하며 해당 지역에 장기간 주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후술하겠지만 나당전쟁 시기에 들어서도 이 한산주(漢山州) 방면이 곧 주요 전장으로서는 당군의 대공세에 노출되었다는 점 역시 감안한다면, 현지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라군 방어 병력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집결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sup>23)</sup>

그런데 익히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이 주장성(晝長城)보다 이전 단계에 설치·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신라의 산성 및 보루 등의 관방시설들은 대체로 고도 100~200m 내외, 둘레 300~600m 내외로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으며,<sup>24)</sup> 주치(州治)·군치(郡治)나 정(停) 소재지 등의 중심지에 입지한 가장 큰 규모의 성곽들이라도 보통 고도 200~300m 내외, 둘레 1,500~2,000m 내외 정도인 경우가 많았다.<sup>25)</sup> 그렇다면 위 A군의 사례들처럼 전례 없이 크게 증가한 신라군의 병력 규모 및 이들의 잦은 군사 활동을 수용·지원

23) 이 시기 한반도에 투입된 당군의 총 병력은 최소 4만, 대체로 10~20만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서 약 3~4개 정도의 행군(行軍)으로 구성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06~212쪽). 익히 알려진 바 이는 이전 시기 고구려·백제 등이 동원할 수 있었던 침공 병력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던 만큼, 나당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 하에서 신라의 병력 동원 및 각종 관방 시설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새로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24) 이에 관련하여 6세기~7세기 초반의 이른바 ‘북진기’ 시점에 축조된 신라 성곽들은 인근 지역의 감시·통제 및 보급로 확보 등과 같은 순수한 군사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정하기도 한다(권순진, 『경기지역 신라 ‘북진기성곽’에 관한 일고찰』, 『신라사학보』 9, 2007, 29~39쪽).

25) 일례로 아차산성(북한산주/군)의 경우 둘레 약 1,038m, 고도 203m 정도의 규모이며(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총』 81, 2014, 18쪽), 이성산성(남한산주)의 경우 둘레 약 1,665m, 고도 209m 정도의 규모(심광주 외,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2003, 182~183쪽), 설봉산성(남천주/정 소재지)의 경우 둘레 약 1,079m, 고도 394m 정도 규모(심광주 외, 앞의 책, 2003, 209~210쪽)로서, 여타 현 급의 성곽이나 보루들보다는 확실히 크지만 주장성(둘레 약 8km, 고도 약 515m)과 같이 나당전쟁 시기에 신·증축된 초대형 성곽들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데 있어, 기존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관방시설 및 체계로서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처럼 대 백제·고구려 원정 및 나당전쟁이라는 7세기 후반 일련의 군사적 경험을 얻은 신라로서는, 그러한 전훈(戰訓)에 맞추어 주장성(晝長城) 등과 같이 기존의 여타 성곽들과 차별화되는 입지와 규모를 갖춘 초대형 시설에 대한 신·증축 작업을 시도할 이유 자체는 충분했던 셈이다. 아울러 축성(築城) 기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라의 지방 거점성들의 경우 시기상 7세기 중·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판축(版築) 위주의 토성(土城)에서 대규모 석축(石築) 산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 역시 참고가 된다.<sup>26)</sup>

다른 한편 이러한 주장성(晝長城)의 역할 및 활용 양상과 관련하여, 비단 병력(인적 자원)만이 아니라 물적 자원, 즉 식량·군수물자 등의 수송 및 보관·분배와 같은 병참 차원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었을 가능성 역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일례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남한산성 내 행궁지 일대에 대한 7·8차 발굴조사(2005~2008) 결과 확인되었던 전면 16칸(53.5m), 측면 6칸(17.5m)의 통일신라 시기 대형 벽체 건물지 유구의 성격을 오늘날 대체로 주장성(晝長城) 내에 설치되었던 군수창고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sup>27)</sup> 이것이 곧 당시 주장성(晝長城)이 발휘하였던 핵심적인 기

26) 백종오, 「옥천 이성산성의 성내 시설물 검토와 축성사적 의미」, 『한국사학보』 87, 2022, 52~56쪽.

27) 해당 건물지에서는 상부의 생활면이 대부분 삭평되었으며 기와 외의 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용도를 추측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단면 1.8~2m가량의 두터운 판축 벽체 및 외부 퇴칸을 활용한 사방 회랑 등 막대한 하중을 감당하기 위한 구조를 통해 볼 때 군사용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목탄 시료를 통한 절대연대 측정 결과 서기 660~880년이 제시되었던 만큼, 해당 건물지는 아마도 672년 주장성 축성과 비슷한 시기에 최초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운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 335~341쪽 ; 381~382쪽). 아울러 이 건물지 유구

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재차 말하자면 이 주장성(晝長城)은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있어 전선 후방에서 대량의 인력 및 물자를 집결·수용하며 또 이를 필요한 곳에 유통·배분하는 일종의 병참지원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리라 추정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주장성(晝長城) 자체의 입지 및 환경,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여타 정황 등을 다시금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심증이 더욱 명확해진다. 아래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장성(晝長城), 즉 현 남한산성은 기왕에 한산주치(漢山州治)로 비정되어 온 이성산성과 상당히 인접해 있으며, 아울러 이 두 성곽은 모두 현 하남시 선동·미사동 등의 한강변까지 도보로도 약 2~3시간 정도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다. 즉 이러한 성곽들이야말로 곧 한강-남한강 수로를 통해 한산주(漢山州)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력과 물자들을 1차적으로 수용·집결시키기에 적절한 입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sup>28)</sup> 더 나아가 익히 알려진 바 이 같은 한강-남한강 수로는 곧 현 충주 일대의 국원소경(國原小京)과도 이어지는데, 이 국원소경(國原小京)은 대표적인 철(鐵)의 산지일 뿐 아니라 또한 계립령로(鷄立嶺路)를 통해 소백산맥 이남의 원 신라 영역 및 왕경(王京)까지도 연계 가능한 중간 지점이라는 사실도 새삼 상기해 보고 싶다.<sup>29)</sup>

---

내부에서 발견된 목탄 및 자갈 등의 흔적을 토대로 경주 남산신성 우창지(右倉址)의 사례와 유사하게 곡물 보관을 위한 건물 바닥면의 마루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다(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395~398쪽).

28) 이러한 입지야말로 곧 6세기 무렵 신라의 신주(新州) 설치 이래로 나당전쟁 시기, 그리고 더 후대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도 한강 유역 일대의 영유·수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기왕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겠다(서영교, 앞의 글, 2022, 217~220쪽).

29) 관련하여 고대 로마의 군단 요새·주둔지들 또한 수륙 교통로를 통해 주요 철(鐵) 산지와 연결되는 지점에 배치된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신라를 비롯한 고대

뿐만 아니라 비록 후대 고려·조선 시기 광주읍치(廣州邑治)의 양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러한 이성산성 / 남한산성을 포함한 현 하남시 일대에는 선동(船洞)·상사창동(上司倉洞)·하사창동(下司倉洞) 등과 같이 포구(浦口) 및 조운(漕運), 그리고 관영 창고(=司倉)의 존재를 암시하는 지명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당대의 창고나 관아·객사에 대한 고고학적 사례들도 확인된다는 점 또한 상당한 참고가 된다.<sup>30)</sup> 아울러 조선 후기에 들어서도 이 지역에는 수어청(守禦廳)의 관할 하에 남한산

---

한반도의 주요 성곽 및 제철 유적들의 입지와도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배은숙, 「고대 동서양의 군 주둔지와 제철 지역의 병참선 연구 -로마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 2018, 243~257쪽).

아울러 그러한 양상을 감안한다면 이 나당전쟁 중 진행되었던 전국적인 방어체계의 정비에 있어 특히 한산주(漢山州) 방면에서는 이 주장성(晝長城, 672.8)과 국원성(國原城, 673.9)의 두 지점에서만 여타 성곽들과 규모를 달리하는 초대형 성곽들이 신축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신라의 철저한 전략적 안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때의 국원성(國原城)의 실체에 대해서는 현 충주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른바 '봉현성지(逢峴城址, 현 호암동 토성)'로 비정하면서 소경(小京)의 중심부를 둘러싼 나성(羅城)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18, 1987, 66~67쪽 ; 황인호, 「국원소경에서 중원소경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 2013, 233~238쪽), 혹은 시가지 동남쪽 해발 487.5m의 산지에 위치한 현 대림산성(둘레 4,906m)으로 비정하면서 배후의 입보용 산성(入保用山城)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박성현, 앞의 글, 2012, 47쪽 ; 노병식, 「충주지역 신라축성의 변화」, 『중원문화연구』 22, 2014, 72~75쪽), 학계의 견해가 다소 갈리고 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러한 성곽들은 결국 나당전쟁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 아래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무왕 대의 국원성(國原城)은 곧 현 대림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이 대림산성 역시 도 달천 및 남한강의 수로와 매우 인접해 있는 입지인 만큼, 주장성(晝長城)과의 어떠한 공통점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0)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16~30쪽.

성에 딸린 부속 시설로서 송파창(松波倉)을 비롯한 여러 외창(外倉)들이 존재하여 한강 수로를 거쳐 오는 삼남(三南) 및 호서(湖西) 등지의 곡식과 각종 물자를 집결·보관하고 유사시 산성 내로 운반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31)</sup> 이 역시도 신라의 주장성(晝長城) 및 그 인근 지역의 입지 및 기능,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상 중고기 이래로 신라가 지역 내 거점 산성들을 중심으로 인근의 성(城)·촌(村) 단위에서 보내온 곡식 등의 물품을 운송·보관 혹은 분배하였던 양상은 함안 성산산성·대구 팔거산성 등지에서 발견된 여러 짐꼬리표(荷札, 혹은 附札) 목간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sup>32)</sup> 물론 이러한 목간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城下□~’ 등의 그 유형 및 기재방식에 따라 주변 지역 단위에서 수취하여 성 내로 운송하였던 세곡(稅穀)의 표기로 이해할 것인지,<sup>33)</sup> 이와 반대로 축성(築城) 혹은 군역(軍役) 등에 동원된 인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수하물, 혹은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식

31) 김미성, 「조선 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 2022, 135~144쪽.

32) 이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이래로 방대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대략적인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근 논고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2016 ; 윤선태,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지방목간」, 『신라학리뷰』 창간호, 2022.

홍승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목간과 문자』 21, 2018 ; 홍승우,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목간 검토」, 『대구사학』 149, 2022.

이경섭,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33)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2011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립』 41, 2012 ; 이수훈, 「성산산성 목간의 ‘성하맥’ 과 수송체계」, 『지역과 역사』 30, 2012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 이용현,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인력 관리」, 『동서인문』 17, 2021.

량(곡식)의 표기 등으로 이해할 것인지<sup>34)</sup>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긴 하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신라가 기 존부터 성곽을 중심으로 인력(노동력&병력) 및 소모 물자를 집결 · 운용하였으며 그 출납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아울러 이 시기 여타의 지방 거점성들에서도 창고로 추정되는 성 내부의 석벽건물지(石壁建物址)들에 대한 고고학적 실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sup>35)</sup> 이처럼 인력과 물자의 수송 · 집결 · 보관 · 출납 등의 병참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성곽을 비롯한 관방 체계 및 그와 연계된 수륙교통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신라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익숙한 방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성산산성 등지의 중고기 목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甘文(김천)’ · ‘古陴(안동)’ · ‘皃文(의성)’ · ‘及伐(영주)’ 등 당시 상주(上州) 관할에 해당하는 현 경북 북부 일대의 지명들이 언급될 뿐 아니라 이러한 지역들에서 낙동강의 수운을 통해 성산산성(함안) 방향까지 인력 · 물자의 원거리 이동이 이루어졌던 양상으로서 이해된다는 점<sup>36)</sup> 역시 많은 참고가 된다.

34)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 이재환,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사학보』 182, 2018 ; 하시모토 시게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王私’와 ‘城下麥」, 『신라사학보』 54, 2022.

35) 이러한 신라 성곽 내 창고 유적들에 대한 문헌 및 고고학적 연구 성과 역시도 근래까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고들이 참고가 된다. 김창석, 「신라 창고제의 성립과 조세 운송」,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石壁建物の 성격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 42, 2010 ; 서정석, 「한국 고대의 지방 郡縣과 治所城-牙山 鶴城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4, 2016 ; 서정석, 「통일신라기 州의 治所城의 구조와 물자유통-全州 東固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6, 2017. 이동주, 「신라의 창고 관리와 운영」, 『신라문화』 58, 2021. 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36) 이경섭, 2011, 앞의 글, 539~546쪽 ; 이수훈, 2012, 앞의 글, 167~169쪽 ; 김창석, 2016, 앞의 글, 170~173쪽 ; 이용현, 2021, 앞의 글, 38~43쪽.

따라서 더 후대 나당전쟁 시기 주장성(晝長城) 등의 기능 및 운영 역시도 전에 없이 막대한 규모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은 위와 같은 중고기 이래 전통적인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 성곽으로 한산주(漢山州) 관내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 기존 중심지인 주치, (州治 / 즉 이성산성, 아차산성 등)와 인접하면서도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세의 정상부 능선이라는 입지 등 주장성(晝長城)만의 새로운 특징은 후술하겠지만 당이라는 거대 제국과의 전면전, 특히 672년의 패전 이래의 특수한 상황에서 청야입보(淸野入保) 및 장기간 농성의 필요성 또한 여실히 고려된 결과로 생각된다.<sup>37)</sup> 즉 이 주장성(晝長城)은 기존의 漢山州 관내의 관방 및 병참체계를 토대로 한 중심 방어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수륙교통로의 통제 및 병참 지원과 같은 기존 주치(州治) 성곽들의

37) 기존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 이러한 주장성(晝長城)의 규모 및 입지란 이전의 삼국시대 성곽들보다는 마치 후대 고려·조선시기의 본격적인 피난성들과 더 유사하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심광주, 앞의 글, 2012, 131쪽 ; 박성현, 앞의 글, 2012, 47~48쪽).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남한산성 본성의 현존 성벽 아래층에서 신라 성곽의 특징을 갖춘 선대 초축성 벽들이 확인되었던 점을 감안하면(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 발굴조사 -암문(4)·수구지 일대 완료 약보고서-』, 2005, 30~33쪽), 17세기 당시 남한산성의 수축 자체를 옛터를 따라 큰 변경 없이 거의 그대로 활용할 만큼 본래 7세기 대 주장성(晝長城)의 설계 자체가 충분히 유효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처럼 기존의 중소규모 성곽으로 구성된 중심 방어 위주의 관방체계에 새로이 병참 지원 및 장기간의 입보농성까지도 고려한 대형 성곽을 상호 결합시키는 양상은, 백제·고구려의 멸망 이후 그 인력 혹은 축성 기술이나 관련된 전문(戰術)이 수용된 결과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수·당의 대규모 침공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았던 고구려의 경우, 그에 대응하여 요동 방면의 주요 방어선마다 백암성(둘레 2.5km), 건안성(둘레 5km), 오골성(둘레 15km) 등의 대형 성곽들이 다수 설치된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나당전쟁을 전후하여 고구려 세력과 신라의 연계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고구려인 자체가 신라 영내로 유입된 경우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신라의 축성 및 관방체계를 한층 진일보시킨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 혹은 보완하는 한편, 규모 및 입지상의 새로운 특징을 활용하면서 비상시 청야입보(淸野入保)를 통한 장기간의 방어전까지도 가능케 하는 전천후의 요새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장성 내외의 창고 등을 활용한 물류 및 보관 기능은 주민·병력을 수용하고 농성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으리라 생각된다.

더하여 아직까지는 시론(試論)에 가까운 단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신라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조운(漕運)의 존재를 논급하였던 일련의 견해들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현 하남시 선동(船洞) 등지에서 발견되었던 ‘군현명+受(+國)+蟹口(+船家 또는 船宇)’ 등의 명문 기와를 근거로, 현 고덕천과 한강의 합류 지점에 해당하는 ‘蟹口(蟹川, 계내)’의 포구를 중심으로 기와(瓦草) 같은 물품들이 수로를 통해 한산주(漢山州) 관내 주(州)·군(郡)·현(縣) 단위 사이로 운송·배분되는 ‘船家(宇)’, 즉 국가적 통제 하의 조운(漕運) 체계를 상정하였던 것이다.<sup>38)</sup>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 및 기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다면, 적어도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한 한산주(漢山州) 방면에서는 임진강·한강 및 지류 하천 등을 근간으로 각 군(郡)·현(縣) 단위, 즉 최전방의 성곽들까지도 인력과 물자를 수송·보급하는 체계가 치밀하게 잘 갖춰져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장성(晝長城)과 국원성(國原城 / 國原小京)이야말로 그 경로 중간에 이를 집결·보관하는 신라군 병참 체계상의 허브(hub)를 이루는 두 축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지만, 세계사상의 여러 사례로 보아도 철도 및 도로망의 발전 이전 전근대

38) 김창석, 앞의 글, 2021, 84~96쪽 ; 박성현, 앞의 글, 2021, 36~56쪽 ; 서영교, 앞의 글, 2022, 210~213쪽.

군대의 병참체계란 실상 현지 조달(\*실질적으로는 약탈)과 같은 몇몇 수단을 제외하면 궁극적으로는 강이나 해안 등의 수로를 통한 선박 운송에 상당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sup>39)</sup> 말하자면 신라 역시도 그러한 보편적인 군사 원칙에 따라 수운을 기반으로 한 병참체계와 주장성(晝長城)과 같은 거점 성곽들을 기반으로 한 관방체계, 그 양자(兩者)를 상호 결합시킴으로서 한산주(漢山州) 방면의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정비·운용하였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이하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나당전쟁 중 신라군의 방어전 양상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이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나당전쟁 중 신라의 방어 전략과 주장성의 역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에 신라는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있어 수륙 교통로상의 중심 방어를 염두에 두고 주(州)-군(郡)-현(縣/城·村)의 지방 행정단위와 성곽이 결합된 일련의 관방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아울러 나당전쟁이 임박한 상황 아래 주장성(晝長城) 역시도 병력 수용·입보 및 병참 지원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거점으로서 축조되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 아래 실제 나당전쟁 중 이 주장성(晝長城)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또한 신라의 방어 전략에는 어

39)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앞의 글, 1996, 428~432쪽 ; Martin van Creveld 저·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31~36쪽 ; 서영교, 앞의 글, 2022, 199~200쪽.

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물론 관련하여 사료상의 명시적인 언급은 찾기 어렵지만, 이 시기 한산주(漢山州) 방면과 관련된 여러 양상들을 간략히 일별해보면서 비록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그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668년 10월 고구려의 멸망 이래 그 고지(故地)를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로 편제하면서, 당 제국은 기미부주(靑磨府州) 체제를 통한 요동~한반도 방면의 지배를 강력히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鴨綠水以北未降十一城’ 등과 같은 여러 기록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직후부터 이는 고구려인들의 대대적인 이탈 및 저항에 부딪치면서 지배체제의 근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신라 역시도 그 같은 정세에 편승하며 은밀히 고연무(高延武)·안승(安勝) 등의 고구려 유민들과 연계하는 한편,<sup>41)</sup> 앞서 언급한 아달성(阿達城, 안협) 및 천정군(泉井郡, 덕원)·비열홀(比列忽, 안변)·각련군(各連郡, 회양)과 같은 일부 지역은 직접 점유하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로의 반환 요구도 거부하는 등,<sup>42)</sup> 고구려고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

40) 『삼국사기』 권37, 雜志6, 地理6 總章 2年 2月 ;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구려 멸망 이후 669년 무렵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즉 해당 시기 안동도호부 관할 하에 고구려고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압록강 이북의 요동 방면 등을 중심으로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저항하는 지역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던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이해된다(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63~70쪽).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의 강압적인 지배질서 강요는 본래 당 측에 항복하여 ‘酋渠·有功者’로 편입되었던 지방의 城主 혹은 군사 지휘관 등 유력자 계층의 반발·이탈을 심화시키면서, 추후 고구려고지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부흥운동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림』 19, 2003, 19~20쪽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141~142쪽).

41)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3月 ; 同書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附唐 高宗 總章 2年 2月.

42)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9年 5月 ; 「답설인귀서」에 따르면 평양성

적인 개입·진출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는 과거 648년에 당 태종으로부터 약정 받았던 바 ‘平壤(溟江)以南 지역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이 고구려고지에 인접한 한산주(漢山州) 방면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을 것인데, 특히 전략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물자들 역시 필연적으로 이 한산주(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이동해야 했던 만큼 주장성(晝長城)의 축조도 본래 이 문제를 고려하여 최초 계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신라의 고구려고지에 대한 개입은 비슷한 시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적 점령 작전이 시도되었던 백제고지 방면만큼 직접적이고 절박한 양상은 아니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신라 조정이 해당 지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B-1. 백제가 멸망한 후, 한주도독(漢州都督) 도유공(都儒公)이 대왕(大王, 문무왕)에게 청하여 소나(素那)를 아달성(阿達城, 안협)으로 옮겨 북쪽 변경을 방비하도록 하였다. …… 처음에 소나

---

함락 이래 신라가 점유하였던 ‘比列忽(안변)’ 등지에 대해 당 측이 ‘고구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다’는 언급이 보인다(『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答薛仁貴書」). 맥락상 여기의 ‘고구려’는 곧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후처리 과정 중 당 측에서는 신라가 점유한 일부 고구려고지에 대해 안동도호부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49~250쪽). 그러나 위 669년(문무왕 9) 5월 기사에 보이는바 당시까지도 신라가 이 비열홀 및 인근 군현들에 대해 진흥을 행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한다면, 해당 지역들이 안동도호부에 실제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신라가 당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점령지를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준비」, 『역사와 경계』 19, 2011, 78쪽).

(素那)는 아달성(阿達城)이 적국(敵國)에 인접해 있으므로 홀로 떠나고 그 아내는 집에 머무르도록 하였다.……43)

- B-2. 사찬(沙飡) 수미산(須彌山)을 보내어 안승(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 그 책문(冊文)에서 말하기를 “함형(咸亨) 원년(670) 경오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이 고구려의 계승자 안승(安勝)에게 명을 전한다. …… 선왕(先王)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그대(=安勝) 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것 또한 그대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일길찬(一吉飡) 김수미산(金須彌山) 등을 보내어 나아가 책명(策命)을 펼쳐 그대를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으며 옛 업적을 계승하고 일으켜서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힘쓸지이다. 삼가고 또 삼갈지이다. 겸하여 멥쌀(粳米) 2천석과 갑옷을 갖춘 말 1필, 무늬 있는 비단(綾) 5필, 명주(絹)와 곱게 짠 베(細布) 각 10필, 솜(綿) 15칭(15稱=225斤=약45kg)을 보내니, 왕은 이를 받도록 하라.44)
- B-3. 처음에 범민왕(=문무왕)이 고구려의 반란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여 지키니 당 고종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였다. 당군과 말갈(靺鞨)이 더불어 석문(石門)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니 왕이 장군(將軍) 의복(義福)·춘장(春長) 등을 보내 막도록 하여 대방(帶方)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 이 때 장창당(長槍幢)이 홀로 따로 주둔하다가 당병 3천여 명을 만나 붙잡아 대장군(大將軍)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당(幢)이 함께 말하기를 “장창영(長槍營)이 홀로 처하였다가 공을 이루었으니 반드시 후한 상

43) 『삼국사기』 권47, 列傳7 素那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 初素那以阿達城鄰敵國 獨行留其妻而在家……”

44)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 “遣沙飡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謹遣使一吉飡金須彌山等 就披策命 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서 주둔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스스로 수고롭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각각 따로 군대를 나누니 당병과 말갈이 미처 진을 치지 못한 틈을 쳐서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고 장군(將軍) 효천(曉川)·의문(義文) 등이 죽었다. …… (패잔병들이) 상장군(上將軍)을 따라 무이령(蕪蕪嶺)으로 나왔는데, 당병의 추격이 이르자 거열주(居烈州)의 대감(大監)인 아진함(阿珍舍) 일길찬(一吉干)이 상장군(上將軍)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힘써 빨리 가시오. 내 나이가 이미 70세이니 능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소?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요.”라고 하고선 극(戟)을 비껴 잡고 적진에 돌격하여 죽었으며 그 아들도 역시 따라서 죽었다. ……<sup>45)</sup>

여기서 B-1의 경우, 중앙의 재가 하에 한산주(漢山州) 관내 성(城) 단위의 지방관 및 주둔 병력들이 당시의 전략적 상황에 발맞추어 최전방 전선으로 대거 이동·재배치된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는 아마도 668년을 전후하여 신라가 새로이 진출·점유한 고구려고지의 거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고구려 멸망 이후 비열성(卑列城=比列忽, 현 안변) 등지를 신라가 되찾으면서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

45) 『삼국사기』 권43, 列傳3 金庾信 附 金元述 “初法敏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有之 唐高宗大怒 遣師來討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 ……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宜屯聚 徒自勞耳 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 乘其未陣擊之 吾人大敗 將軍曉川義文等死之 …… 隨上將軍出蕪蕪嶺 唐兵迫及之 居烈州大監阿珍舍一吉干 謂上將軍曰 公等努力速去 吾年已七十 能得幾時活也 此時是吾死日也 便橫戟突陣而死 其子亦隨而死 ……”

46)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사료 상으로 이러한 이동은 소나(素那) 일개인에 한정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나(素那)라는 유력자(=지휘관)를 매개로 징발·편성된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지역 단위의 병력, 즉 ‘성병(城兵)’ 집단의 이동 및 재배치로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된다(이문기, 앞의 책, 1997, 169쪽).



어 수비하게 하였다(……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라고 전하는 「답설인귀서」 상의 내용과도 대응된다.<sup>47)</sup> 즉 이 같은 양상을 고려했을 때 나당전쟁 발발 직전까지, 혹은 나당전쟁 중에 한산주(漢山州) 관내에서는 신규 점령지들을 확보하고 또한 후방 지역으로부터 병력을 징발, 편성하고 재배치하는 등 일련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에 수반하는 형태로서 아달성(阿達城)과 같은 최전방 지역으로의 인력 및 물자의 이동을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670년 이래 안승(安勝)·검모잠(劍牟岑)·고연무(高延武) 등의 주도 하에 현 평안도~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격화되면서, 위 B-2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라는 이들 고구려 세력과의 연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한편 식량 및 물자도 지원해주었다. 물론 사료 상의 묘사로만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안승(安勝)에 대한 책봉 의례의 일환으로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일부 물품을 소량 사여한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물품 중 멥쌀(粳米)이나 솜(綿) 등은 그 기재된 수량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충분히 군량미나 군수품(피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병참 물자 지원을 의미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겠다. 아울러 이후로도 적어도 673년 무렵까지는 고구려 세력과 신라 사이의 밀접한 연계가 나타나는 만큼, 그에 대해 병참 물자를 포함한 신라의 여러 지원 방안 역시도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일회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처럼 고구려 세력에게 전달되었을 식량이나 피복 등의 물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산주(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수송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다른 한편 B-3에 보이는 672년의 이른바 ‘석문 전투’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즉 익히 지적된 것처럼 이 전투 당시 신라는 고

47)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7月 26日 「答薛仁貴書」.

구려 세력 지원 및 당군의 남하 저지를 목적으로 ‘장창당(長槍幢, 672년 창설)’ 등의 정예 중앙군 부대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편성하여 고구려고지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위 사료 상에 언급되는 바만 살펴보아도 대장군(大將軍)·상장군(上將軍)과 그 이하 대략 4인 내외의 ‘장군(將軍)’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료 상에서는 ‘거열주(居烈州, 현 경남 거창)의 대감(大監)인 아진함(阿珍歙)’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당시 이 전투에는 왕경의 중앙군 부대들만이 아니라 현 경남 거창 일대를 관할하는 광역의 정(停)인 거열주(居烈州/停)와 같은 지방 군사조직들도 포함하여 전국적인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sup>48)</sup> 즉 671년 7월 무렵 석성(石城) 전투의 승전 및 소부리주(所夫里州)의 설치를 통해 백제고지 방면에 대한 공략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신라 조정은, 이를 기회로 고구려고지 방면에도 보다 적극적인 방침 아래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마침 남하하던 당군에게도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고지 방면으로 남하하던 당군은 고간(高侃)·이근행(李謹行) 휘하 동주도(東州道)·연산도(燕山道)의 2개 행군(行軍) 4만 명 정도의 규모였던 만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라군의 병력 또한 적어도 그와 동등하거나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49)</sup>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군 뿐 아니라

48) 이 거열주(居烈州/停)는 대체로 665년(문무왕 5) 기존의 상(上)·하주(下州) 영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량주(叡良州) 등과 함께 새로이 설치된 광역의 주(州/停)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문기, 앞의 책, 1997, 120~121쪽). 그보다 앞서 663년(문무왕 3) 2월에 신라군이 백제 부흥세력으로부터 거열성(居烈城) 등지를 탈취하여 점령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므로(『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 2月),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라가 새로이 점령한 현 경남 서부 방면의 백제고지를 포함하는 광역의 행정구역이자 주둔 군단으로서 거열주(居烈州/停)가 창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672년 7월 무렵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고지에 파견될 원정군에 징발·편성되어 북방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49) 다만 신라본기 및 중국 측의 여타 기록들을 참고했을 때 신라군 이외에도 고

거열주(居列州/停) 등의 지방의 군사조직들도 거국적으로 동원·편성되며 북방으로 이동하였을 것인데, 이때의 병력 이동 역시 왕경 및 각지의 주둔지로부터 국원소경(國原小京)-한산주(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한 후 ‘석문의 들판(石門之野)’·‘대방의 들판(帶方之野)’, 즉 현 황해도 일대까지 북상하는 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병력 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병참 물자 등의 수송도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나당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대략 670~672년까지도 신라는 고구려고지 방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상당한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와중에 한산주(漢山州) 일대는 이러한 북방 경략에 있어 후방 지원을 위한 병력 집결지 겸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던 바 북한산성(北漢山城, 현 아차산성)·남한산성(南漢山城, 현 이성산성) 등 기왕에 존재하던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성곽들의 경우 것처럼 폭증하는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기에 규모나 시설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기존 중심지인 주치(州治)의 인근에 초대형 성곽의 신축이 계획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위 B-3에서 보이듯이 672년 8월의 석문 전투에서 신라군은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으며, 익히 알려진 바 그로 인해 이전까지와 같은 적극적인 북방 경략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석문 전투 이래 673년 후반까지 이어진 당군의 공세로 인한 고구려 동맹 세력의 붕괴 및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

---

구려 세력 또한 해당 전투에 함께 참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신라-고구려 연합군을 총합한 전력이 4만 내외의 규모였을 여지도 있겠다(『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2年 8月; 『책부원귀』 권358, 將帥部19 立功 高侃;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그러나 여러 기록들에서 정황상 신라군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고구려군보다는 신라군의 비중이 더 크고 주력을 이루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공 위협 앞에서, 당시 신라 수뇌부로서는 거점 수비 및 지구전 위주의 방어 전략을 채택하며 가급적 시간을 버는 한편 그 와중에 큰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재건해야만 했던 것이다.<sup>50)</sup> 이 같은 전략적 고심은 다음과 같은 사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 C-1. ……대장군(大將軍) 등이 몰래 왕경으로 들어오니 대왕이 이를 듣고는 김유신에게 묻기를 “우리 군대의 패배가 이와 같으니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의 계략이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장졸들로 하여금 각 요해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sup>51)</sup>
- C-2. 셋째는 백금서당이다. 문무왕 12년(672)에 백제 사람들로 군단(幢)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백청(白靑)이다.<sup>52)</sup>
- C-3. (673년 겨울) 처음에 太宗(무열왕)이 백제를 멸하고 나서 변방에서 수자리하는 병사(戍兵)를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두었다.<sup>53)</sup>

실제 위 C-2·3과 같이 본토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수비 병력(戍兵)을 재배치하는 한편, 과거부터 오랜 적대감이 누적되어있던 백제인 등의 이민족까지 동원하면서 신라는 군사력의 재건을 서둘렀다. 아울러 C-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요해처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김유신의 건의를 토대로 672년 후반부터 왕경 주변부 및 임진강 이남의 신라 전 영역에 걸쳐 당군의 예상 남하 경로를

50) 서영교, 앞의 글, 2002, 65~69쪽; 이상훈, 앞의 글, 2016, 82~88쪽.

51) 『삼국사기』 권43, 列傳3 金庾信 下 附 金元述 “……大將軍等 微行入京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 對曰 唐人之謀 不可測也 宜使將卒 各守要害……”

52)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三曰白衿誓幢 文武王十二年以百濟民爲幢 衿色白靑

5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冬 “初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

따라 대규모 신·증축 성곽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완공되었는데, 특히 그 필두가 바로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주장성(晝長城) 및 국원성(國原城/國原小京)이었던 것이다. 그 관련 양상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석문 전투(672.8) 이후 신라의 축성 양상<sup>54)</sup>

시기	명칭	소재지	비고
672.8	주장성(晝長城)	현 남한산성	한산주(漢山州)
673.2	서형산성(西兄山城)	경북 경주	왕경(王京) / 증축
673.8	사열산성(沙熱山城)	충북 제천	증축
673.9	국원성(國原城)	충북 충주	국원소경(國原小京)
	북형산성(北兄山城)	경북 경주	왕경(王京)
	소문성(召文城)	경북 의성	-
	이산성(耳山城)	경북 고령	-
	주양성(走壤城)	강원 춘천	수약주 / 우수주 (首若州 / 牛首州)
	주잠성(主岑城)	강원 고성	달함군(達含郡)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경남 거창	거열주(居列州)
	골쟁현성(骨爭峴城)	경남 양산	십량주(歙良州)

전술했던 바 이 주장성(晝長城) 등은 본래 북진경략에 필요한 대량의 인력 및 물자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계획되었겠지만, 672년 후반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당군의 전면 침공으로 인해 기존 한산주(漢山州) 방면의 중심 방어망들이 돌파될지도 모른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민 및 병력의 청야입보(淸野入保)와 장기간의 농성, 그리고 그를 위한 물자 축적 등을 수행할 최후의 방어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했기에 대단히 급박하게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 가장 큰 역할은 역시 국원성(國原城/國原小京)과 더불어

54) 이상훈, 앞의 글, 2016, 83~84쪽 <표 1> 내용을 기초로 발췌·보완하였다.

어 남한강 수로 및 계림령·죽령을 따라 왕경(王京)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확보 및 이를 통해 최전방까지 운송되는 인력과 물자를 집결·보급하는 병참선상의 허브(hub)였다는 점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성(晝長城)의 기능은 673년 후반에 이르러 고구려 부흥운동의 진압이 일단락되고 임진·한탄강 이남의 신라 본토, 즉 한산주(漢山州)·우수주(牛首州) 등지에 대한 당군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도 이후 신라군의 방어전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겠다.

- D-1. (673년 9월) 왕이 대아찬(大阿飡) 철천(徹川) 등을 보내어 병선(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西海)를 진수(鎭守)하도록 하였다. 당병(唐兵)이 말갈(靺鞨)·거란병(契丹兵)과 함께 북변(北邊)을 침공해오니 모두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기고 2천여 급을 목 베었다. 당병(唐兵) 중에 호로(紇瀟)·왕봉(王逢) 두 장에 빠져 죽거나 전사한 자가 셀 수 없었다.<sup>55)</sup>
- D-2. ①(675년)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우리 군대를 칠중성(七重城)에서 깨뜨렸다. 유인궤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자 (당 조정에서) 조서(詔書)로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아 경략(經略)하게 하였다. 왕이 사절을 보내어 조공하고 또 사죄하자 황제가 용서하고 왕의 관작(官爵)을 복구시켜 주었다. 김인문(金仁問)은 중도에서 돌아가 다시 임해군공(臨海君公)으로 봉해졌다. ②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땅을 많이 취하였으며 고구려의 남경(南境)을 쳐서 주군(州郡)으로 삼았다. 당군이 거란(契丹)·말갈병(靺鞨兵)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병력(=九軍)을 출동시켜 대비하

55)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九月) 王遣大阿飡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鎭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 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紇瀟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게 하였다. ③가을 9월에 설인귀(薛仁貴)는 숙위학생(宿衛學生) 풍훈(風訓)의 아버지 김진주(金眞珠)가 본국에서 처형당하였으므로 풍훈(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천성(泉城)을 공격해왔다. 우리 장군 문훈(文訓) 등이 맞아 싸워 이겼는데 목 벤 것이 1천 4백급이었고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달아나자 전마(戰馬) 1천 필을 얻었다. ④29일에 이근행(李謹行)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대가 치자 달아났다. 전마(戰馬) 3만 3백 80필을 얻었으며 나머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⑤말갈(靺鞨)이 아달성(阿達城)에 들어와 약탈을 벌였는데 성주(城主) 소나(素那)가 맞아 싸우다가 죽었다. 당군과 거란(契丹)·말갈병(靺鞨兵)이 와서 칠중성(七重城)을 포위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으나 소수(少守) 유동(儒冬)이 죽었다. 또 말갈(靺鞨)이 적목성(赤木城)을 포위하고 다 죽였는데 현령(縣令) 탈기(脫起)가 백성들을 이끌고 막았으나 힘이 다하여 함께 죽었다. 또 당군이 석현성(石峴城)을 포위하여 함락시켰는데 현령(縣令) 선백(仙伯)·실모(悉毛) 등이 힘써 싸웠으나 죽었다. ⑦또 우리 군대가 당군과 크고 작은 18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으며 목 벤 것이 6천 40여급이었고 전마(戰馬) 2백 필을 얻었다.<sup>56)</sup>

56)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年 “①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 ②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 出九軍待之 ③秋九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④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⑤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⑦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앞의 D군 사료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군은 거란·말갈병 등과 더불어 673년 9월 및 675년 2~9월에 걸쳐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침공 모두 당군이 호로하(瓠瀉河)·왕봉하(王逢河)나 칠중성(七重城, 파주 적성 추정)·매소성(買肖城, 연천 전곡 추정)·천성(泉城, 파주 탄현 추정) 등 현 임진강~한강 유역에 걸친 신라 방어망들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대한 신라군의 방어 전략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sup>57)</sup>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을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를 감안하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로서는 역시나 병참 측면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당전쟁 중 당군의 한반도 방면 군사 활동이 병참 요소, 특히 수로를 통한 보급 등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실상은 선학들도 익히 지적한 바 있다.<sup>58)</sup> 즉 671년 10월 신라 수군에 의해 당군 보급선단(=漕船) 70여 척이 격파되었던 사례나,<sup>59)</sup> 위 D-2에서도 보이듯이 675년 9월의 천성(泉城) 전투에서 임진강-한강 하구 방면으로 돌입하려던 설인귀(薛仁貴) 휘하의 수군 함대가 신라군에게 패퇴한

57) 특히 675년 중 아달성(阿達城)·칠중성(七重城)·매소성(買肖城) 등 임진·한탄강 방면의 방어선을 둘러싼 나당 간의 일련의 전투들, 즉 이른바 ‘매소성 전역(買肖城 戰役)’의 구체적인 전개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 3> 및 <그림 4>와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8)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221~238쪽 ; 이상훈, 앞의 책, 2012, 133~176쪽.

59)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10月 6日 ; 이러한 670~671년 무렵의 역사적 경험 및 서해안(대체로 경기만 일대)의 해양 환경 등을 종교적 설화 형태로 각색한 것이 이른바 ‘문두루비밀법(文豆婁秘密法)’과 관련된 일련의 전승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이상훈, 앞의 책, 2012, 154~164쪽 ; 임동민, 「경기만의 해양 환경과 신라 문무왕대 ‘문두루 비밀’의 해양사적 의미」, 『신라문화』 61, 2022, 41~50쪽).

직후 매소성(買肖城) 방면에서 대치하던 이근행(李謹行) 휘하 육군도 급히 철수했던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이 당시 당군의 작전 방침은 기본적으로 수군과 육군이 함께 움직이면서 특히 수군이 선박 운송 및 교두보 확보 등을 통해 진격하는 육군에 대한 지원·재보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수륙병진(水陸竝進)’ 전략이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sup>60)</sup>

다만 나당전쟁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당군의 전략은 오히려 해상의 수군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군대 전체의 진격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역으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 심각한 전투력의 저하를 감수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철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약점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당군이 의도했던 수륙병진이란 어디까지나 수군력의 압도적 우위 아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에야 가장 이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익히 알려진 바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게 전개되었으며 도리어 한반도 연안의 제해권은 신라 수군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 가까웠던 것이다.<sup>61)</sup>

60) 서영교, 앞의 책, 2006, 225~238쪽;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03~104쪽.

61) 이처럼 나당전쟁 중 당 수군이 신라 수군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다소 일반론적이지만 한반도, 특히 서해 연안의 기후나 복잡한 지형 및 물길, 심한 조석(潮汐) 변화와 같은 여러 변수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즉 이전 660년대 시점에는 동맹이었던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바로 그 신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당 수군이 내포한 위와 같은 본질적인 약점이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신라의 경우 본래 그들 자신부터가 한반도 연안의 항해에 더 익숙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요소에서 현군의 고구려계 주민들과도 연계하면서 수군 활동을 통한 제해권 장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례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바 670~671년 무렵의 ‘문두루비 밀법(文豆婁秘密法)’과 관련된 전승에서도 당시 한반도 연안에 도착한 당

그러한 만큼 위 D군 사료들에서도 확인되는 바 당군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 즉 임진강 이남의 한산주(漢山州) 등지로 진출하여 공세를 취할 때마다 격심한 병참 문제 하에 예상보다 빠르게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 breakpoint)을 맞이 하면서 신라군의 극히 두터운 중심 방어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패퇴 혹은 철수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특히 위 사료들에서 신라군과 당군 간에 9번(673년), 혹은 18번(675)에 걸쳐 ‘大小戰’, 즉 크고 작은 교전이 빈발하였던 사실이 주목되는데, 앞서 잠시 언

---

수군에 관련된 정보 및 동향을 신라 왕정에 보고했던 주체로서 ‘정주(貞州, 현 개풍군 일대)’에서 파견된 사자가 언급한다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삼국유사』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迴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아울러 675년 9월 천성(泉城) 전투 시점에서 당 수군의 작전을 담당하던 설인귀(薛仁貴)가 이전과는 달리 풍훈(風訓)과 같은 신라 출신의 ‘향도(嚮導, 길잡이)’를 대동했던 이유 역시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짐작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62)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 조정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군을 지휘하던 설인귀(薛仁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학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설인귀는 670~671년 무렵 계림도행군총관(雞林道行軍總管)으로서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어 수군 작전을 담당하였으나 여러 차례 패전을 겪었고, 이후 귀국하여 673년 중 낙양(洛陽)에서 황실을 위한 불상을 건립하면서 조상기(造像記)를 남겼다. 따라서 D-1의 673년 후반 당군의 공세에 설인귀는 참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674~675년 유인궤(劉仁軌) 지휘 하의 원정군이 편성되어 신라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섬에 따라 설인귀(薛仁貴) 역시 전선으로 복귀하였으나, 위 D-2에서처럼 설인귀(薛仁貴) 및 그 휘하의 수군 함대가 실제로 움직였던 것은 공세 막바지 시점의 9월(즉 천성[泉城] 전투)에 이르러서였다(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42~49쪽). 아마도 설인귀(薛仁貴) 개인의 입장로서는 이전 670~671년 무렵 일련의 패전 경험으로 인해 신중만, 혹은 소극적인 태도로 작전에 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당군 전체로서 보면 그로 인해 교두보 확보 및 선박을 통한 물자 보급 등과 같은 수군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나당전쟁 종결 이후 참전한 당군 지휘관 중 유독 설인귀(薛仁貴)만이 ‘털끝만큼도 공이 없다(無功尺寸)’라는 탄핵을 받고 이후 상주(象州)로 유배까지 당하는 등(『舊唐書』 卷83, 列傳33 薛仁貴; 同書 卷92, 列傳42 魏元忠), 사실상 패전의 책임을 대부분 떠맡았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급했던 바와 같이 선박 등을 통한 직접적인 보급이 어려울 경우 전 근대의 군대에서 그를 충당할 대안은 사실상 현지조달에 의지할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당군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673년과 675년 모두 당군은 수군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 하에 한산주(漢山州) 방면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의 전방 거점이나 거주지 등을 하나하나 함락시켜 탈취하는 방법으로 식량·물자 등을 현지 조달할 필요가 있었기에 상당수의 병력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견대로 나누어 보내야만 했으며,<sup>63)</sup> 이에 대처하던 신라군과 충돌하면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소규모 교전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육군이 신라군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선박의 보다 접근이 용이한 한강 하구 등지까지 남하에 성공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수군이 확보해 두었던 교두보와 재차 접촉·연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끝내 어느 쪽도 달성하지 못하였던 만큼, 673년과 675년의 두 번에 걸친 당군의 공세는 애초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신라군의 경우는 이러한 당군의 상황에 비하면 훨씬 양호

63) 관련 사료를 통해 본다면 아마도 부용 세력으로 동원했던 말갈(靺鞨)·거란(契丹) 등의 변병(蕃兵) 집단을 당군이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일례로 여러 중국 측 기록들에서는 675년 초반의 공세 당시 유인궤(劉仁軌)가 말갈병(靺鞨兵)으로 하여금 (신라의?) '남쪽 경계(南境)'를 습격·약탈하도록 하였다고 언급되며(『책부원귀』 권986, 外臣部31 征討5;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 또한 『삼국사기』 기록에서도 비슷한 시기 아달성(阿達城) 내에 기습적으로 진입한 말갈병(靺鞨兵)들이 가장 먼저 물자 약탈에 주력했던 양상이 확인된다(『삼국사기』 권47, 列傳7 素那). 말하자면 이 당시 한반도에 전개된 당군 내에는 말갈계 변장(番將)이었던 이근행(李謹行)의 휘하, 혹은 그와 별개로 동원·편성된 다양한 이민족 집단들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뛰어나고 운신이 자유로웠던 이들의 성격을 살려 침투·정찰·약탈·통상파괴 등의 비정규전을 맡은 일종의 유병(遊兵, 유격대)으로서 활용하였으리라 상정된다(권창현,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海賊' 과 신라의 북진경략』, 『백산학보』 125, 2023, 73~74쪽).



한 조건 하에 있었다. 즉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바, 왕경(王京) ↔국원성(國原城/國原小京)↔주장성(晝長城)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수로의 축선을 매개로 신라 전역, 특히 남부 방면의 병력과 물자를 한산주(漢山州) 방면까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주장성(晝長城)을 중심으로 수용·집결된 물자 등을 다시금 관내의 조운(漕運)이나 육운(陸運) 체계를 통해 최전방까지도 보급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 하남 선동(船洞) 및 한산주 관내의 여러 성곽들(ex: 포천 반월산성 등)에서 산견(散見)되는 ‘군현명+受(+國)+蟹口(+船家 또는 船宇)’ 양식의 명문와에서는 ‘松岳(개성)’·‘泉口(泉井口, 泉城 / 파주 교하)’·‘買省(양주)’·‘馬城(馬忽 / 포천)’·童城(童子 / 김포) 등 전방의 군(郡)·현(縣) 단위 지명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거점들과 주치(州治, 즉 주장성) 간 쌍방의 물류 유통 역시 상정할 수 있겠다. 아울러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유통망은 곧 전선에 병력 혹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병참선으로도 충분히 기능하였으리라 추정해 보고 싶다.<sup>64)</sup> 아울러 675년 중 최전선에 위치했

64) 물론 이러한 명문와들은 대체로 평시의, 그리고 후대 8~9세기 무렵의 양상으로 이해되며 유통이 확인되는 물품 또한 일단은 ‘瓦草(기와)’의 사례에 한정되는 만큼 나당전쟁 시기의 전선 보급 상황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더하여 이러한 명문 기재 양식상 ‘受’는 대체로 ‘할당받다’라는 의미로서 각 군(郡)·현(縣) 단위에서 할당량을 받아 제작한 ‘瓦草’ 등의 물자를 조운(漕運) 체계를 통해 주치(州治) 인근의 ‘해구(蟹口)’에 위치한 국영 선가(船家)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구도인 셈이다(김창석, 앞의 글, 2021, 89~91쪽; 박성현, 앞의 글, 2021, 36~45쪽).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러한 각 군(郡)·현(縣) 단위와 주치(州治)를 연결하는 물류 체계의 존재 자체로, 이를 통한 물류가 반드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평시에 ‘瓦草’와 같은 귀중하고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한산주(漢山州) 관내에서 원활히 유통·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식량 및 무기·피복 등의 병참 물자의 보급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던 아달성(阿達城)에서 지방관(太守)의 명령에 따라 거주민들이 삼베(麻)의 경작에 동원되었던 사례를 참고한다면,<sup>65)</sup> 그러한 각각의 거점들에서는 일종의 둔전(屯田)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또 이를 비축하는 것도 가능했지 않을까 한다.<sup>66)</sup> 당시 신라군은 어디까지나 방어자의 입장이었던 만큼, 적 세력이 당도하여 그 공격에 직접 노출되기 전까지는 성곽 등의 관방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권역의 통제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근래 신라의 23군호(23軍號) 중 하나인 이절말당(二節末幢)의 경우 그 명칭 상 ‘節(度)·節末’ 등의 어원 및 용례를 참고했을 때 군량(軍糧)·군자(軍資) 등의 병참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사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7세기 후반 무렵 나당 전쟁 중의 전선 상황에 대응하여 한산주(漢山州)·우수주(牛首州)의 두 곳에 나뉘어 배치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sup>67)</sup> 이 역시 지금까지 논했던 바와 맥락이 상통하는 부분인 만큼, 그렇다면 다른 아닌 이 (한산주)절말당(節末幢)이야말로 아마도 그러한 주장성(晝長城)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병참 체계를 관할하던 주체로 비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즉 왕경(王京)↔국원성(國原城/國原小京)↔주장성(晝長城)을 잇는 남한강 권역의 주요 병참선을 확보·수비하는 한편, 그를 통해 한산주(漢山州) 방면에 집결된 인력과 물자들을 다시 전선의 각 거점에 운반·보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수송 수단(즉 치중[輜重] 혹은 조운[漕運]) 및 인력, 경비·호송 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리라 추정된다.<sup>68)</sup>

65) 『삼국사기』 권47, 列傳7 素那 “……上元二年 乙亥 春 阿達城太守級浪漢宣教民 以某日 齊出種麻 不得違令……”

66)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141~143쪽.

67) 한준수, 「신라 통일기 이절말당의 창설과 병참 지원」,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280~282쪽.

68) 다만 같은 시기 당의 제도를 참고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곡이나 각종 물품의

## IV.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다시금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672년 8월 완공된 이 주장성(晝長城, 현 남한산성)은 즉 한산주(漢山州) 방면 최대의 병참 지원기지이자 비상시의 청야입보(淸野入保)까지도 수행 가능한 거점 요새로서, 그 전례 없는 규모 및 입지, 발전된 축성 기술 등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의 기존 관방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남한강 수로를 매개로 국원성(國原城/國原小京)과 주치(州治) 사이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왕경(王京) 및 남부 방면의 인력과 물자 등을 한산주(漢山州) 방면까지 원활히 유통·집결시키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본래 이 주장성(晝長城)은 668년 이래로 전후 처리를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북진경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처음 계획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672년 8월 석문 전투의 패전을 계기로 직후 수성(守城)·지구전(持久戰) 전략의 채택에 따라 다소 급박하게 완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완공 이후 이 주장성(晝長城)은 그 특별한 규모 및 입지를 활용하여 인력과 물자의 수용·집결 및 보급과 같은 병참

---

출납 및 (수륙)운송 업무는 호부(戶部) 산하의 탁지(度支)·창부낭중(倉部郎中)과 원외랑(員外郎), 그리고 전운사(轉運使/司) 등이 관할하는 영역이었다(『唐六典』 卷3, 尙書戶部). 신라에서도 일단 창부(倉部)·조부(調府)와 같이 비슷한 영역을 관할하던 중앙 관부들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만큼, 그와 대비했을 때 절말당(節末幢)의 역할이란 어디까지나 전시(戰時) 상황, 혹은 주(州) 단위에서의 군량(軍糧)·군자(軍資) 및 기타 병참(兵站) 관련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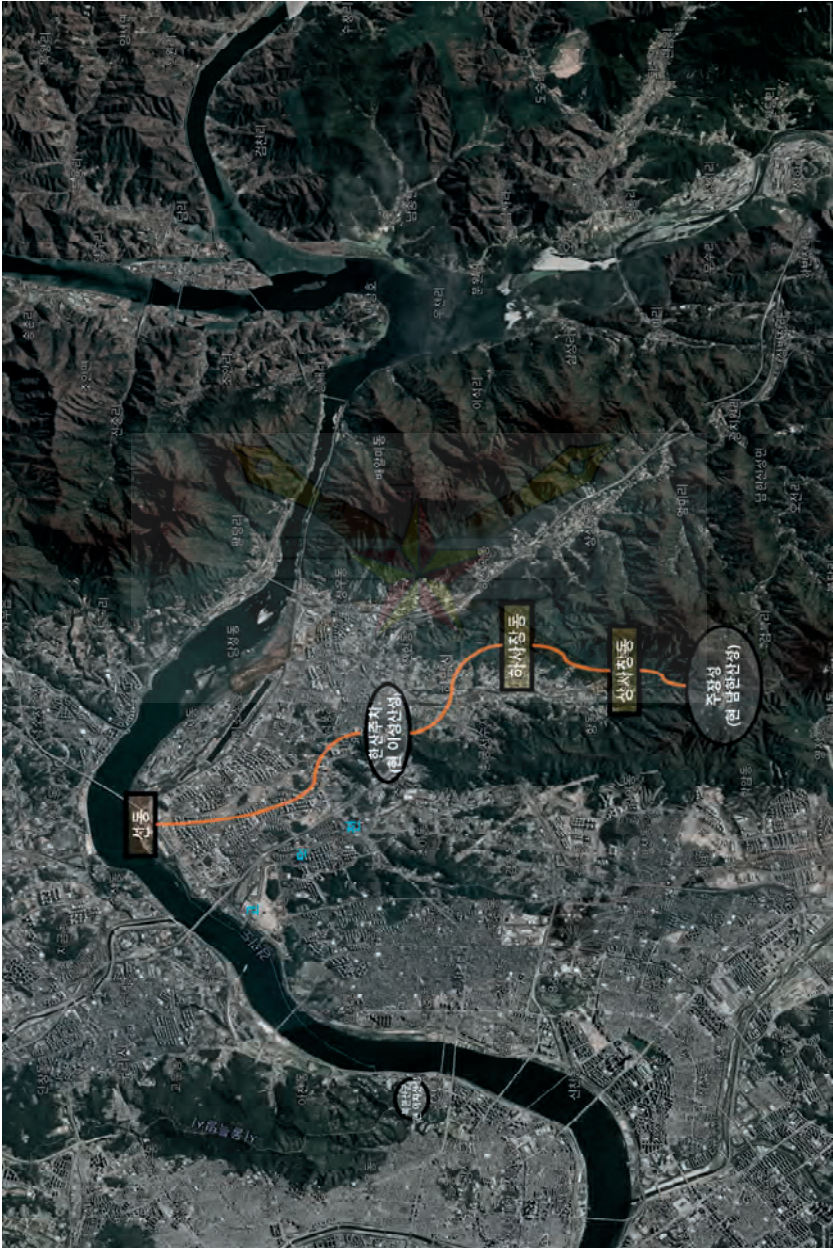
지원 및 비상시의 청야입보(淸野入保)를 통해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중심 방어망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군사조직으로서 (한산주)절말당(節末幢)과 같은 부대가 주장성(晝長城)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산주(漢山州)의 주장성(晝長城)을 필두로 국원성(國原城) 등의 대규모 성곽들의 신(新)·증축(增築)을 통한 전국적인 관방(關防) 체계의 정비가 완성된 673년 후반 이래, 부담스러운 장거리 원정을 감행해야 했던 당군에 비해 신라군이 병참 등의 여러 요소에 있어 그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이는 당연히 장병들의 전반적인 사기 증진 및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는 요인이었던 만큼, 궁극적으로는 나당전쟁 자체가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중대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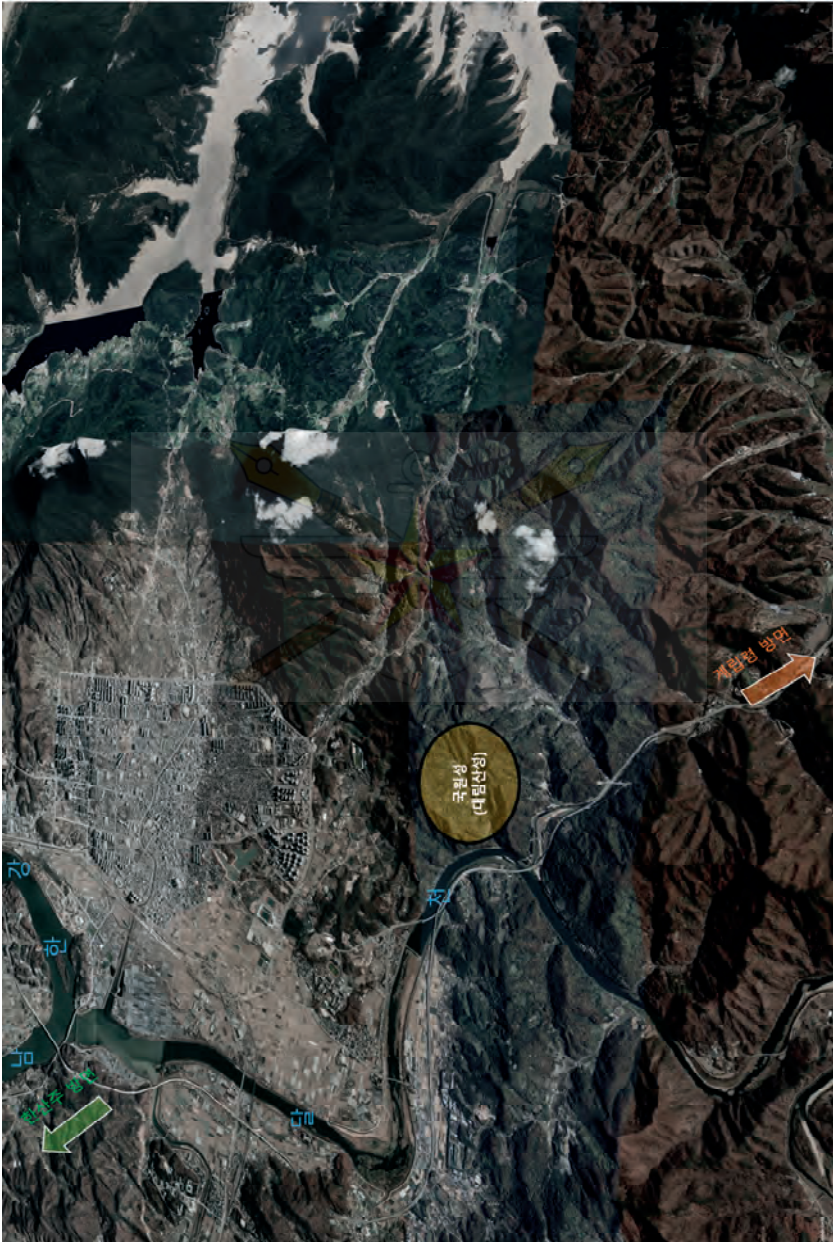




〈그림 2〉 주장성(書長城) 및 인근 지역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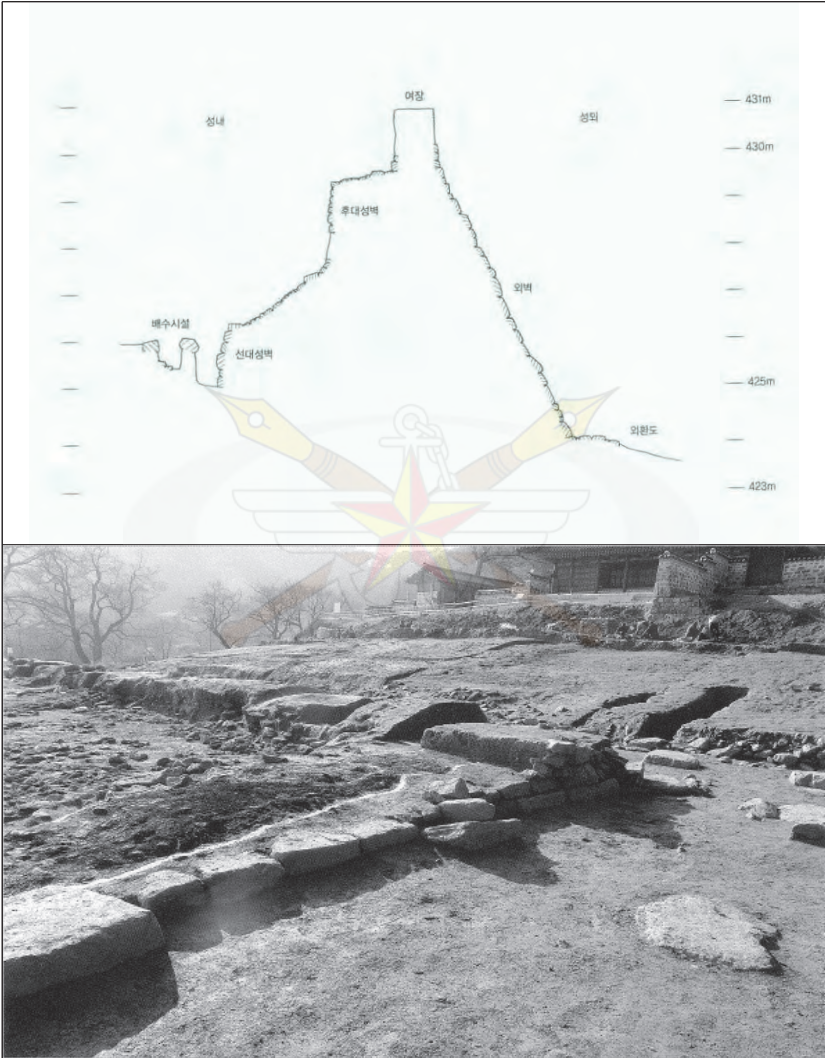


〈그림 3〉 대림산성(국원성[國原城] 추정지) 및 인근 지역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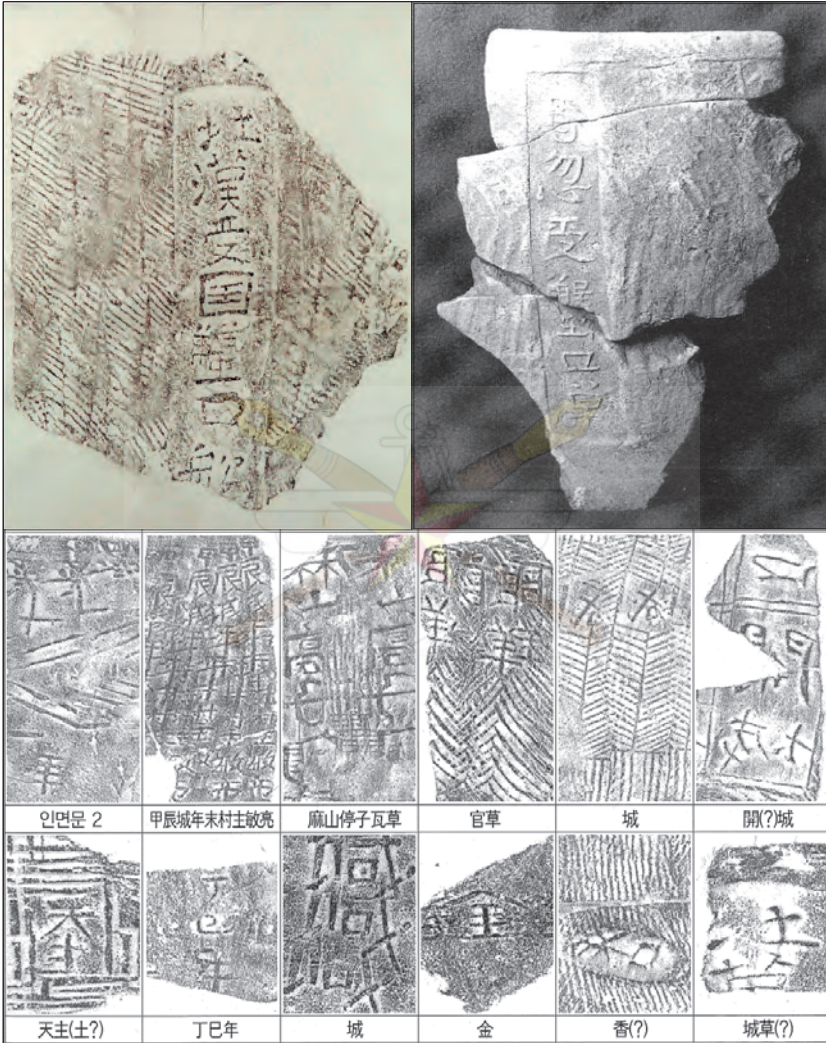
〈그림 4〉 (上) 남한산성 수구부 일대 선·후대성벽 단면도<sup>69)</sup> /  
(下) 행궁지 내 대형 벽체 건물지<sup>70)</sup>



69)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07, 41쪽에서 전재(轉載).

70) 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에서 전재(轉載).

〈그림 5〉 (上左) 하남 선동 출토 명문와<sup>71)</sup> / (上右) 포천 반월산성 출토 명문와<sup>72)</sup>  
/ (下) 남한산성 출토 명문와<sup>73)</sup>



71) 박성현, 앞의 글, 2021a, 37쪽에서 전재(轉載).

72) 김창석, 앞의 글, 2021, 90쪽에서 전재(轉載).

73) 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에서 일부 전재(轉載).







군사연구총서 제1집

MILITARY HISTORY SERIES



---

# 삼국시대 전쟁과 관방체제







## 삼국시대 전쟁과 관방체계

4~7세기 삼국은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각축하였다. 한강 권역은 각축의 주된 무대 중 하나였다. 4세기 후반~5세기 중반 한강 권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백제는 북방의 고구려가 남진하며 그의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신라·북위·왜와 교섭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관방체계를 정비하며 한강 권역을 고수하기 위해 경주하였다. 4세기 후반 초축된 경기도 안성의 도기동산성이 그 일면을 보여준다.

도기동산성은 평야지대에 소재하였다. 주변의 농업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거점이었다. 또한 교통의 요지에 소재하였다. 한강권역에서 금강권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주요 경유지 중 하나였다. 두 권역 간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도기동산성은 지방 지배만 아니라 관방체계상의 요지였던 것이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많은 양의 철기 유물이 출토된 점이 이를 보여준다. 본서에서는 초축의 배경과 관련하여 373년 백제 독산성민의 신라 이주를 주목하였다. 독산성주는 300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산성이 주요 거점성이었음을 말해준다. 백제는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본서에서는 이에 따라 축조된 것이 도기동산성이었다고 파악하였다.

4세기 후반 이후 한강 권역의 북부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 한강 권역의 북부~임진강 유역은 멸망기까지 남부 전선의 최후방으로 남은 곳으로서 고구려는 이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하였다.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20개소의 관방유적을 연결하는 ‘선’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중 경기도 연천의 호로고루는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당시 군사·정치적 중진이었다. 특히 호로그루는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를 통제하는 관문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북은 확실한 고구려의 영역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이를 고구려 남부전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호로그루와 비교해 경기도 포천지역은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에서 우회로였기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월성이 주목되지만,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이곳이 관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603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며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며 철원-포천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고구려는 지금의 반월성으로 추정되는 낭비성을 차지하며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였다. 629년 신라는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낭비성을 공취하였다.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신라 삼국통일의 주된 군사적 기반 중 하나로 기능하였다.

칠중성도 7세기 전반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한다면 한강 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능은 나당전쟁 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칠중성은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파천로상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으로 기능하였다. 나아

가 포천 반월산성과 더불어 7세기대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551년 신라는 나제동맹을 활용하여 고구려의 10군을 취했고, 553년 나제동맹을 파기하며 백제의 고지인 6군을 취해 신주를 설치하였다. 553년의 신주는 남한강·북한강 일대 16군을 위주로 성립했지만, 서해안에 연접하지 않았다. 신라는 554년 7~12월 관산성 전투에서 대승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였다. 555년 이후 신주의 확대·재편이 지속되므로,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555~558년 신라는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의 골격은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다. 604~648년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2회 이상 강화되었다. 627년 무왕이 웅진에 주둔하고, 643년 의자왕이 한산주 남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당성은 반경 10km 내 남양반도의 교통로를 통제하며 조망을 침해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대부도~마산포 해역과 대부도~제부도~궁평항 해역을 직접 통제하였다. 따라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통제하는 해문이었다. 그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내해(북쪽·서쪽 내해)’를 기준으로, 2중 내해를 5개 해역으로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이것은 선부서·선부 정비가 시작되는 583년부터 구축되었고,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며 강화·완비되었다.

당항성의 사례처럼 한강 권역 신라의 관방체계는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 완비된 면이 있었다. 나당전쟁 중인 672년에 완공된 주장성(현 남한산성)도 그의 한 사례였다. 주장성은 한강 권역 최대의 병참 지원기지이자 비상시의 입보처로, 이전보다 확대된 병력 규모 및 전쟁 양상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의

관방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특히 이는 남한강 수로를 매개로 국원성(국원소경)과 한산주치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왕경 및 남부 방면의 인력과 물자를 한산주 방면까지 유통하는 병참 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군사조직으로 한산주 절말당과 같은 부대가 주장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국적인 관방체계의 정비가 완성된 673년 후반부터 신라군은 당군과 비교하여 물자 보급 및 방어 전선의 유지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신라의 나당전쟁 승리 요인이었다. 즉 신라는 관방체계를 주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아 삼국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 [남조(南朝) 송(宋)]유의경 찬 / [양(梁)] 유효표 주 / 김장환 역주, 『세상의 참신한 이야기-세설신어 3』, 신서원, 2008.
- \* [당(唐)]허경종(許敬宗) 편(篇) / 나국위(羅國威) 정리(整理), 『일장홍인본문관사림교증(日藏弘仁本文館詞林校證)』, 북경(北京), 중화서국(中華書局), 2001.
- \* [송(宋)]찬녕(贊寧), 『송고승전』.
- \*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재)수도문물연구원, 2022.
- \* [원(元)]담악(曇噩), 『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
- \* [조선]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
- \* [조선]한백겸(韓百謙), 『동국지리지』.
- \* [조선]한진서(韓鎭書), 『해동역사속』.
- \* [조선]홍성민(洪聖民), 『졸옹집(拙翁集)』.
- \* 여래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 \* 경기도 연천군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 지구』, 2010.
- \*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임진강』, 2001.
-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 \* 경기도박물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II-시굴조



- 사 보고서-』, 2008.
- \*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査報告書』, 2006.
  -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성곽』, 2003.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2000.
  -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2022.
  -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 \*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山城』, 2018.
  - \*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古墳群』, 2019.
  - \* 김만원, 『文淵閣欽定四庫全書-독단·고금주·중화고금주 역주』, 역락, 2019.
  - \* 김택민 외, 『역주 당육전(상)·(중)·(하)』, 신서원, 2003.
  - \*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2017.
  -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원,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 \*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
  -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

- 굴조사 보고서』, 2007.
-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2018.
  - \*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2016.
  - \*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016.
  - \* 심광주 외,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2003.
  - \*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2.
  -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
  - \* 이병도, 『역주삼국사기 (상)·(하)』, 을유문화사, 1983.
  -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96.
  - \*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憲永,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2-번역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查』, 2014.
- \*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 발굴조사 -암문(4)·수구지 일대 완료 약보고서-』, 2005.
- \*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조사보고총서 제46책, 2007.
- \*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 \* 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남한행궁지 -제7·8차 조사보고서-』, 토지주택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9집, 2010.
- \*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II: 1~5次 學術發掘調查 綜合 報告書』, 2018.
-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 II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 III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 IV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 \* 한성백제 박물관, 『백제의 산성』, 2019.
- \* 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문화유적』, 1986.
-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 \*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 \*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지역』, 1999.
- \*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57번지 일원)유적 긴급발굴조사』, 2021.
-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 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 2. 저서

- \*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까치글방, 1996.
- \* Martin van Creveld 저·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 \* 高句麗研究會,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 학연문화사, 2002.
- \* 고대군사사연구회, 『고대 군사사,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산책, 2023.
- \*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 \* 광진문화원 편, 『고구려 남진론』, 광진문화원, 2022.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 \*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 \*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 \* 旗田外 著, 李基東 譯,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 \*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 \*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 \* 김태식 외,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 \*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2004.
- \*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 \*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 \* 노중국, 『백제 정치사』, 일조각, 2018.
- \* 노중국,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일조각, 2022.
-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 노태돈,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 노태돈, 『고구려 발해사 연구』, 지식산업사, 2020.
- \* 대구사학회 외, 『역사상의 강-물길과 경제문화-』, 주류성, 2009.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20.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충주고구려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0.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고구려 후기 정세 변화와 지배체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2021.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고구려 중기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동북아역사재단, 2022.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2019.
-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 \* 박성봉, 『고구려의 남진 발전과 사적 의의』, 경인문화사, 2015.

- \*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임진강에서 금강까지-』, 서경, 2006.
- \* 서봉수,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재)백두문화재단연구원, 2021.
- \*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 徐榮一, 『新羅 陸上 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 \* 서영일, 『충북의 고대사회』,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 2002.
-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漢江史』, 서울特別市, 1985.
-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16.
- \* 양기석,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2013.
- \* 양시은,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2016.
- \*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 \* 李基白 外,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 \* 이도학,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 이도학, 『백제 한성·웅진성 시대 연구』, 일지사, 2010.
- \* 이마니시 류 著,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공역,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 \* 李丙燾, 『斗溪雜筆』, 一潮閣, 1956.
-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 \* 李仁哲,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1997.
-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 \* 전덕재, 『신라지방통치제도사』, 학연문화사, 2022.
-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 \* 정호섭,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새문사, 2016.
- \*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1998.
- \* 최몽룡·백종오 외, 『高句麗와 中原文化』, 주류성, 2014.



-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 \*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 \* 한국하천협회, 『한국하천일람』, 환경부, 2022.
-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 \* 황보 경, 『신라문화연구-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류성, 2009.
- \* 황보 경, 『역사자료로 본 삼국과 한강』, 주류성, 2016.
  
- \* 今西龍,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 \* 武田幸男, 『新羅中古期の史的研究』, 勉誠出版, 2020.
- \* 武田幸男, 『新羅政治社會史研究』, 勉誠出版, 2022.
-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長湍郡)』, 1942.
- \*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 \*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吉川弘文館, 1960.
- \*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3. 논문

- \* 강봉룡, 「신라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 \*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 2004.

- \* 강중훈, 「5~6세기 삼국 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諸說의 검토-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16, 2014.
- \* 姜辰垣, 「고구려 安臧王의 대외정책과 남진, 『大東文化研究』 94, 2016.
- \*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 \*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新羅史學報』 21, 2011.
- \*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 \* 高丞嬭,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 1996.
-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 \* 공석구,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韓國古代史研究』 20, 2000.
- \*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 \*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軍史』 83, 2012.
- \*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 2022.
- \*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韓國古代史研究』 95, 2019.
- \*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 \* 권창혁,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新羅文化』 6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2.
- \* 권창혁,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海賊’과 신라의 북진전략, 『백산학보』 125, 2023.

-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史論』 18, 2023.
- \* 琴京淑, 「北漢江 流域의 古代社會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4, 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9.
- \* 金敬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靺鞨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11, 2001.
- \* 金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 金규운 · 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국립중앙박물관, 2011.
- \* 金기섭, 「백제 漢城都邑期 연구 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1.
- \* 金기섭, 「선사시대·고대의 서울 연구 동향」, 『서울과 역사』 100, 2018.
- \* 金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 2015.
- \* 金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韓國古代史探究』 33, 2019.
- \* 金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 \* 金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軍史』 121, 2021.
- \* 金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결과」, 『서울학연구』 89, 2022.
- \* 金덕원,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과 영향」, 『軍史』 126, 2023.
- \* 金명진 · 김은정 · 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 \* 金미성,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 2022.
- \* 金병곤, 「고구려의 평양 천도 기획 시점과 남진」, 『高句麗渤海研究』 39, 2011.
- \* 金병희, 「羅唐戰爭의 終了 始點에 대한 再檢討 및 買肖城 戰役의 過程 研究」, 『韓國古代史探究』 30, 2018.
- \* 金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 金병희·서영교,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鬪-買肖城의 位置

- 比定 및 靺鞨 水軍의 活動에 대한 分析을 中心으로-, 『軍史』 118, 2021.
- \* 김상호·김원·최홍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36-2, 2003.
  - \*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광개토태왕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9, 2017.
  - \*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경기도 연천군 편)」, 『문화재』 25, 1992.
  - \* 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 2004.
  - \* 金榮官,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2006.
  - \* 김영관,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 2008.
  - \*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이해 서설-」, 『백제문화』 5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 \*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양상과 영역」, 『韓國古代史探究』 34, 2020.
  - \*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 - 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 \* 金侖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 1987.
  - \* 김운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1995.
  - \* 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림』 19, 2003.
  - \* 김주성, 「管山城 戰鬪의 背景」, 『中原文化論叢』 12,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9.

- \* 김지희, 「高句麗 故國原王의 平壤 移居와 南進」, 『韓國史論』 6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6.
- \* 김진광,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 \*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 \*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 2018.
- \* 김창석, 「신라 창고제의 성립과 조세 운송」,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 \* 김창석,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 \* 김창석,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2021.
- \*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 1983.
- \* 金賢淑,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方向-『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 \* 김현숙, 「475년~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鄉土서울』 73, 2009.
- \*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I)」, 『文化史學』 20, 2003.
- \* 김훈, 「고구려 ‘南平壤’ 위치와 변천에 대한 검토」, 『전북사학』 66, 2022.
- \* 김희선, 「高句麗의 漢江流域 進出과 그 防禦體系-漢江流域의 高句麗 關防 遺蹟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20,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3.
- \* 노병식, 「충주지역 신라축성의 변화」, 『증원문화연구』 22, 2014.

- \*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8.
- \*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 \* 盧重國, 「高句麗對外關係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1985.
-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 盧泰敦,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1976.
- \* 盧泰敦,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韓國古代史論叢』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6.
- \* 다케다 유키오 著, 최경선 譯, 2017, 「眞興王代 新羅의 赤城 經營-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인문학연구』 33,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북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 2019.
- \*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98, 2008.
- \* 문안식,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39, 2010.
- \* 문안식, 「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 \* 文銀順, 「高句麗 南進過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平壤遷都過程을 중심으로-」, 『淸溪史學』 20, 2006.
- \*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 2012.
- \*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 \* 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 『선사와 고대』 2, 1992.



- \*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중부고고학회, 2021.
- \*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2017.
- \* 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1979.
- \* 朴性鳳, 「高句麗의 漢江流域進出과 意義」, 『鄉土서울』 42, 1984.
- \* 朴省炫, 「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 『韓國史論』 4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 \*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역사와 현실』 76, 2010.
-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 \* 박성현, 「북한강 유역 신라 郡縣의 형성과 구조」, 『한문고전연구』 22, 2011.
- \* 박성현, 「신라 통일기 州·小京의 성곽과 그 활용-漢山州와 國原小京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21, 2012.
- \* 박성현, 「신라 郡-城·村制의 특징과 郡縣制로의 전환」, 『韓國史研究』 16, 2013.
- \* 박성현, 「6~8세기 신라 동북 경계의 변천과 구조」, 『한국학논집』 7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 \* 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
- \* 박성현, 「신라의 ‘남·북 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
- \* 박성현, 「고구려의 충주 지역 진출 시기와 경로」, 『中央史論』 57, 2022.
- \*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史學志』

- 49, 2014.
- \* 박중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變遷」, 『史學志』 62, 2022.
  - \* 박중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 \*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 박중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 유역 공격」, 『韓國古代史探究』 42, 2022.
  - \*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 2021.
  - \* 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18, 1987.
  - \* 方東仁, 「三國時代와 三國統一期 前後의 서울」, 『서울六百年史』 1, 1977.
  - \*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 2006.
  - \*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 1997.
  - \* 배은숙, 「고대 동서양의 군 주둔지와 제철 지역의 병참선 연구 -로마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 2018.
  - \*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 경기도박물관, 1999.
  - \* 백종오,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 \*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 \* 백종오,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 \* 백종오, 「中原 城郭遺蹟의 회고와 전망」, 『先史와 古代』 34, 2011.
  - \*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的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 \* 白種伍,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 \* 백종오, 「6세기 중반 신라 丹陽 赤城의 景觀」, 『先史와 古代』 61, 2019.

- \* 白種伍,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値」, 『先史와 古代』 68, 2022.
- \* 백종오, 「임진강·한탄강유역 고대 관방체계와 하천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 \* 백종오, 「증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先史와 古代』 71, 2023.
- \*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
- \*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且城 전투」, 『軍史』 81, 2011.
- \* 서영교, 「신라의 漢江유역 점령·유지와 國原」, 『嶺南學』 83, 2022.
- \*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強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1.
- \* 徐榮一,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史學志』 24, 1991.
- \*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1995.
- \*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 1996.
- \* 徐榮一,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清原 飛中里 石佛」, 『史學志』 30, 1997.
- \*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營屬關係」, 『文化史學』 6·7, 1997.
- \* 徐榮一, 「漢江以北의 城址와 新羅의 防禦體制-坡州地域을 中心으로-」, 『文化史學』 10, 1998.
- \*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2000.
- \*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2001.
- \*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 \* 徐榮一,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2003.
- \* 徐榮一, 「漢城時代의 百濟 北方交通路」, 『文化史學』 21, 2004.
- \* 서영일, 「5~6世紀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과 經營」, 『博物館紀要』

- 2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 \* 徐榮一, 「漢城 百濟時代 山城과 地方統治」, 『文化史學』 24, 2005.
  -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 \*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 2008.
  - \* 서영일,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 \* 서영일, 「아차산성 주변의 고대 성곽과 교통로」, 『사총』 81, 2014.
  - \* 徐榮一, 「龍仁의 古·中世 交通路와 駒城 地域」, 『文化史學』 45, 2016.
  - \*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 \*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충부고고학회, 2018.
  - \*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石壁建物の 성격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 42, 2010.
  - \* 서정석, 「한국 고대의 지방 郡縣과 治所城-牙山 鶴城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4, 2016.
  - \* 서정석, 「통일신라기 州의 治所城의 구조와 물자유통 -全州 東固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6, 2017.
  - \* 서정일, 「도기동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 \* 서정일, 「안성 도기동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연구원, 2021.
  - \*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 \* 송영대, 「백제와 신라의 국제교류와 한강 유역」, 『東아시아 古代學』 68, 2022.
  - \*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 \*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 \*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
- \* 신광철, 「고구려의 ‘中原 지역’ 진출에 대한 小考」,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 신광철,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의의」, 『韓國上古史學報』 88, 2015.
- \* 신광철, 「고구려의 東南界와 對新羅關係」, 『문물』 5, 2015.
-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 \*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고구려발해사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
- \*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 申滢植,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 漢江流域의 政治·軍事的 性格」, 『鄉土서울』 41, 1983.
- \* 신형식, 「중원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 \* 申滢植, 「新羅의 發展과 漢江」, 『韓國史研究』 77, 1992.
- \* 신형식, 「高句麗의 南進과 國原城(忠州)」, 『博物館紀要』 2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 \* 신형식, 「신라의 영토 확장과 북한산주」, 『鄉土서울』 66, 2005.
- \*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 \* 심광주, 「漢城時期 百濟山城」,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2004.
- \* 심광주,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발해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2005.
- \*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 2009.
- \* 심광주, 「주장성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21, 2012.
-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

- 자료집), 2018.
- \*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 \*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2021.
  - \* 심광주, 「삼국시대 성곽의 축성법 비교 검토」, 『청산학술회』 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22.
  - \* 심정현, 「신라한예의 성격과 경기 이남 고구려의 관방시설」, 『역사학연구』 84, 호남사학회, 2021.
  - \* 아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 \* 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 \*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 \*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 梁起錫, 「南漢江 流域의 古代史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4, 1999.
  - \*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 1999.
  - \* 양기석, 「5~6세기 百濟의 北界-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 問題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 2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 \* 양기석,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중원문화연구』 18·19, 2012.
  - \*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 \*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 \*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2014.



- \* 양시은, 「안성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 \*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 \* 余昊奎, 「漢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百濟研究』 3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 \* 余昊奎, 「4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 고국원왕의 생애」, 『歷史文化研究』 20, 2004.
-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 \* 여호규, 「4~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삼국 한강』, 광진문화원, 2015.
-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9.
- \*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2020.
- \* 여호규, 「고구려의 '南平壤' 건설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79, 2021.
- \*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 \* 오강석,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한국고대학회, 2007.
- \* 오강원, 「三國時代 '牛'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 2008.
- \* 윤경진,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 2017.
- \* 윤경진,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서울학연구』 81, 2020.

- \* 윤경진, 「4세기 후반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과 영토의식-雉壤城·湏水에 대한 새로운 비정을 바탕으로-」, 『韓國史研究』 193, 2021.
- \*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 ‘당성(唐城)’ 설 비판과 ‘한강(漢江)’ 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 2021.
- \* 윤경진, 「7세기 전반 삼국의 경계-신라의 경기도 서남부 영유설 비판-」, 『역사문화연구』 83, 2022.
- \*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항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 2022.
- \*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 1990.
-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2012.
- \*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2016.
- \* 윤선태,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지방목간」, 『신라학리뷰』 창간호, 2022.
- \*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旦那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2017.
-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 윤성호,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 관계」, 『韓國學論叢』 51,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19.
-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
-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 2019.
-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의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
- \* 윤성호, 「고구려의 남진의 흔적,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고구려와 한강』, 2020.
- \*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 2021.
-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

- 방성(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 2022.
- \*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 2019.
  - \*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 1990.
  - \* 윤재운,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양문화재』 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 \*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2011.
  - \* 이경섭,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 \* 이남규 · 권오영 · 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且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 2013.
  -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 \* 이동주, 「신라의 창고 관리와 운영」, 『신라문화』 58, 2021.
  - \*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 李富五, 「4세기 초·중엽 고구려·백제·신라의 관계 변화」, 『新羅史學報』 5, 2005.
  - \* 李富五,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록 진출과 지배형태」, 『新羅史學報』 10, 2007.
  - \* 이부오, 「5세기 말 금강 중·상류의 대치선 이동과 삼국의 전략」, 『軍史』 70, 2009.
  - \*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韓國古代史探究』 28, 2018.
  - \*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新羅文化』 29, 2007.
  - \*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 \* 이상훈,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준비」, 『역사와 경계』 19, 2011.

-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 탐구』 23, 2016.
- \*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 \* 이상훈, 「668년 신라군 선발대의 진군로와 그 의미」, 『大丘史學』 133, 2018.
-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 2022.
- \* 이수훈, 「성산산성 목간의 ‘성하맥’ 과 수송체계」, 『지역과 역사』 30, 2012.
- \*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2022.
- \*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 2023.
-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大丘史學』 130, 2018.
- \* 이용현,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인력 관리」, 『동서인문』 17, 2021.
- \*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고구려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 \*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 1976.
- \* 李仁哲,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過程에 대한 考察」, 『鄉土서울』 57, 1997.
- \*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 1995.
- \* 이재·강성문·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 \* 이재환,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사학보』 182, 2018.
- \*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 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 \* 李廷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통국가’ 강조와 평양 정통론 부상의 궤적」, 『歷史教育』 166, 2023.
- \*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 1980.
- \*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 이준선,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 2005.
- \* 이준성, 「북한 정권의 평양 인식 변화와 활용-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추이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65, 2021.
- \*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徴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 \* 李昊榮, 「高句麗·新羅의 漢江流域 進出問題」, 『史學志』 18, 1984.
- \* 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監視半徑)에 대하여 : 삼국시대 산성 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5, 호서고고학회, 2006.
- \* 이판섭,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 2015.
- \*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 \*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2.

-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 \* 임기환,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百濟文化』 3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7.
- \* 임동민, 「경기만의 해양 환경과 신라 문무왕대 ‘문두루 비법’의 해양사적 의미」, 『신라문화』 61, 2022.
- \* 임평섭, 「진흥왕 집권 초기의 정치구도와 한강 유역 진출」, 『新羅文化』 53, 2019.
- \*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親政」, 『서울학연구』 81, 2020.
- \* 장병진, 「고구려의 대방 지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 『高句麗渤海研究』 68, 2020.
- \* 장수남, 「熊津期 초반 百濟의 對高句麗 戰線과 對應」, 『軍史』 93, 2014.
- \*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42, 2022.
-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 \*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 \* 장창은, 「4~5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三國의 領域向方-『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實際(I)」, 『한국학논총』 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 장창은, 「5~6세기 고구려의 남하와 한강 유역의 영역향방-『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실제(II)-」, 『白山學報』 88, 2010.
- \* 張彰恩,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鬥」, 『震檀學報』 111, 2011.
- \* 장창은, 「진흥왕대 신라의 북방진출과 對高句麗 領域向方」, 『신라사학보』 24, 2012.
- \* 장창은,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 『민족문화논총』 55, 2013.
-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 \* 장창은, 「475~551년 한강 유역 영역변천사 연구동향」, 『역사와 교육』 20, 2015.
  -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2016.
  -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 2019.
  - \*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 2000.
  -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 2009.
  - \*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 \*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 2013.
  - \*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 2014.
  - \*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8.
  - \*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新羅史學報』 57, 2023.
  - \*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那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 2018.
  - \*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 2009.
  - \* 정경화, 「원삼국~백제한성기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 \*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 2020.
  -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 2021.
  - \*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도서출판 온샘, 2021.
  - \*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府(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 38, 2021.
-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楸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 \*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 \*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韓國古代史探究』 42, 2022.
  -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 \*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2005.
  - \* 정요근, 「고려중·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 \*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の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 \*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 40, 2011.
  - \* 정재운, 「관산성 전투와 그 의의」, 『百濟研究』 77,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23.
  - \* 정제규, 「단양신라적성비 연구 현황과 쟁점」 『先史와 古代』 61, 2019.
  - \* 정호섭, 「고구려의 강역에 대한 연구쟁점과 과제」, 『白山學報』 110, 2018.
  - \* 정호섭,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중·후기 지방편제의 이해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133, 2019.
  - \* 조인성, 「북한의 고구려통일론」, 석문이기동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 \* 조인성,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의의-김정희의 진흥왕 순수비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2, 2011.
  - \* 조한정,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 \*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畧의 比較」, 『역

- 사학보』 44, 1969.
- \*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 \* 朱甫暉, 「高句麗 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廣開土王 南征의 實相과 그 意義-」, 『大丘史學』 82, 2006.
  - \* 지종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과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28, 2018.
  - \* 津田左右吉, 이부오 역, 「眞興王 征服地域考」, 『신라사학보』 18, 2010.
  - \* 津田左右吉, 최은영·최유림 譯, 「三韓疆域考와 百濟慰禮城考」,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2021.
  - \*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 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 1976.
  - \*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 \*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 2020.
  - \*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 2020.
  - \*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 \*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 \*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 2014.
  - \*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 2016.
  - \*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 \* 하시모토 시게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王私’와 ‘城下麥」」, 『신라사학보』 54, 2022.

- \* 하일식, 「감악산비 논란과 감악신사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17, 2020.
- \*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 \*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 2017.
- \* 한준수, 「신라 통일기 이절말당의 창설과 병참 지원」, 『韓國古代史探究』 37, 2021.
- \* 한준수, 「신라의 二弓 설치와 投射 전력의 강화」, 『韓國學論叢』 58,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22.
- \*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 85, 2012.
- \* 홍밖음, 「과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之窗』 51, 2022.
- \* 홍성열, 「신라 중대 한산주 2정의 설치와 그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42, 2022.
- \* 홍승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목간과 문자』 21, 2018.
- \* 홍승우,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목간 검토」, 『대구사학』 149, 2022.
- \*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 2016.
- \*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敎美術』 7, 1983.
- \* 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 2015.
- \*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 2015.
- \* 황보 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 106, 2016.
- \*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
- \*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 2019.

- \*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 2020.
- \*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東洋學』 83, 2021.
- \* 황인호, 「국원소경에서 중원소경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 2013.
  
- \*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汲古書院, 1994.
- \*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 \* 內藤雋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1927 ; 『朝鮮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1.
- \*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 \*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 \* 津田左右吉, 「三韓疆域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4. 인터넷 자료

- \* 구글 어스(Google Earth, <https://www.google.co.kr/intl/ko/earth/>).
-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대동여지도』(<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
- \*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 \*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 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
- \* 화성시, “해문리(海門里), 해문역(海門驛), 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

- \*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歷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 감수

장창은(제주대 사학과 교수)

윤성호(한성대 사학과 교수)

■ 사업담당

한동훈(군사사부 선임연구원)

\* 본지에 실린 연구내용은 당 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님.

## 군사연구총서 제1집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3110839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